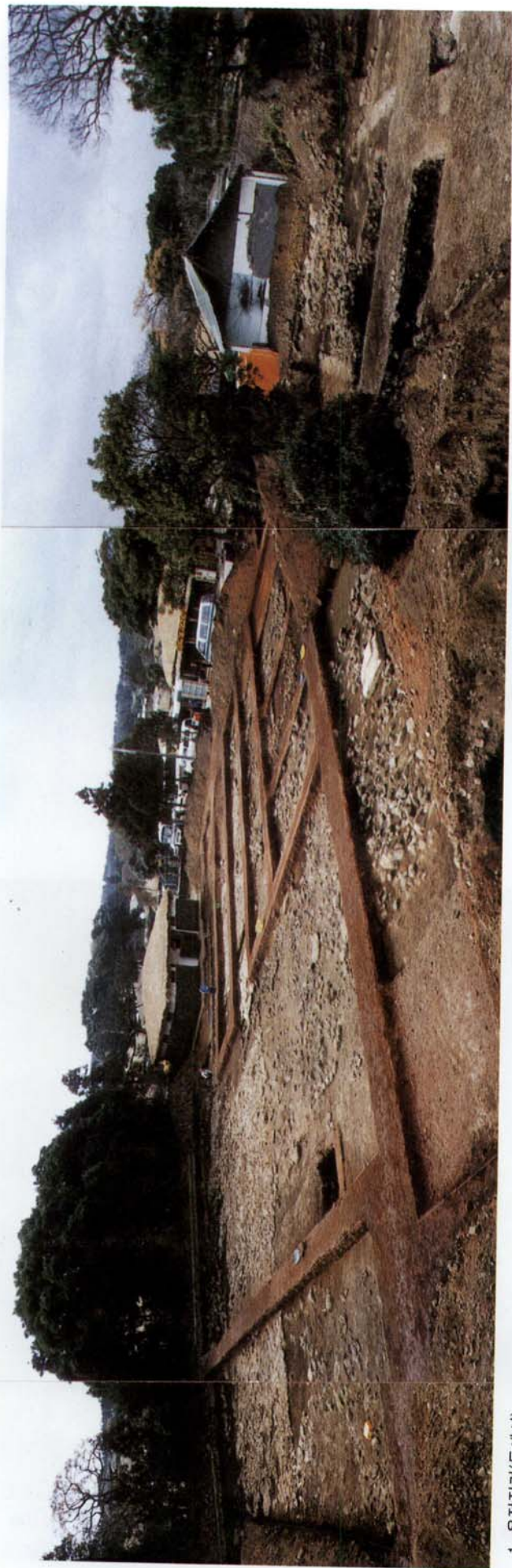


# 旌義縣 客舍址

1995

南 濟 州 郡  
濟州大學校博物館



1. 유적전경(동에서)



2. 발굴광경(서에서)





3. 건물지(1) 노출상태(서에서)



4. 건물지(1) 내부 기단석렬과 적석상태



5. 건물지(1) 적심석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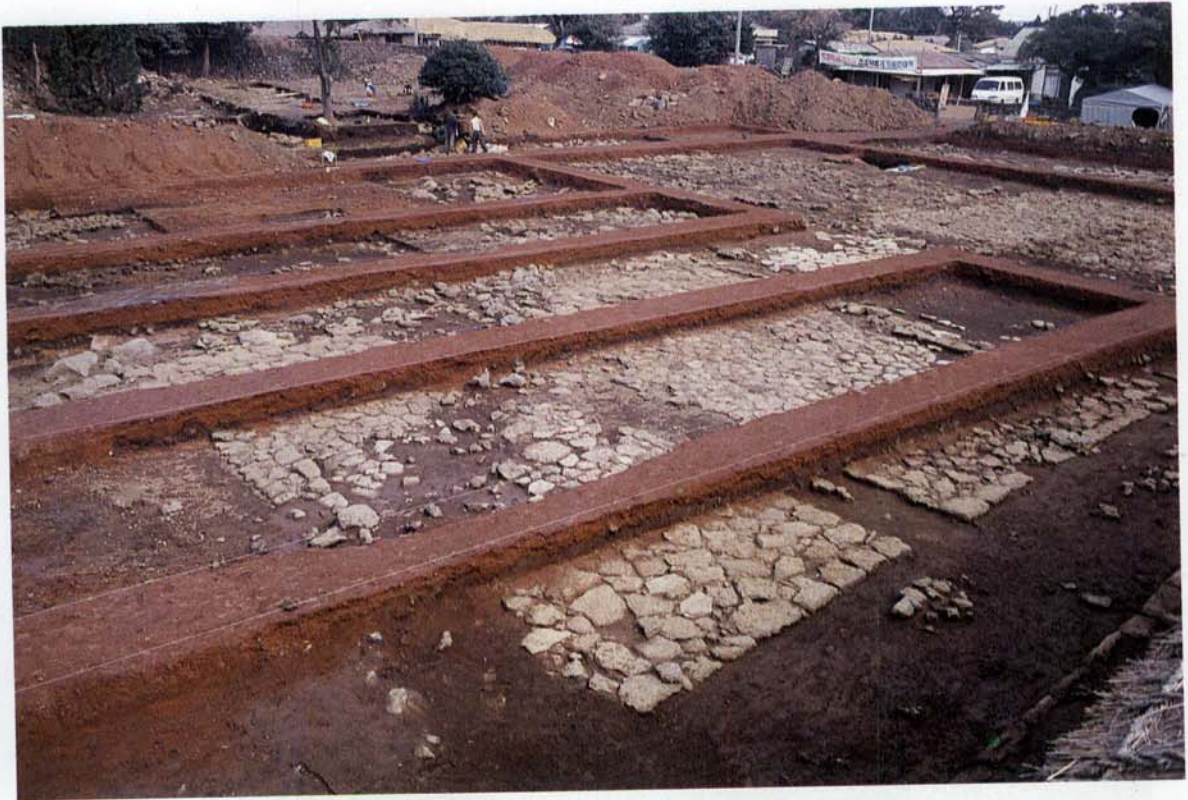


6. 건물지(2) 노출상태(서에서)



7. 건물지(2) 방고래시설 축조상태





8. 건물지(3) 노출상태(남에서)



9. 건물지(3) 주변유구 배치상태(서에서)





10. 건물지(4) 주변유구 배치상태(서에서)



11. 건물지(4) 노출상태(서에서)





12. 건물지(5) 노출상태(서에서)



13. 배수구 노출상태





14. 건물지(5)와 (6) 중북상태



15. 건물지(6) 전체 노출상태(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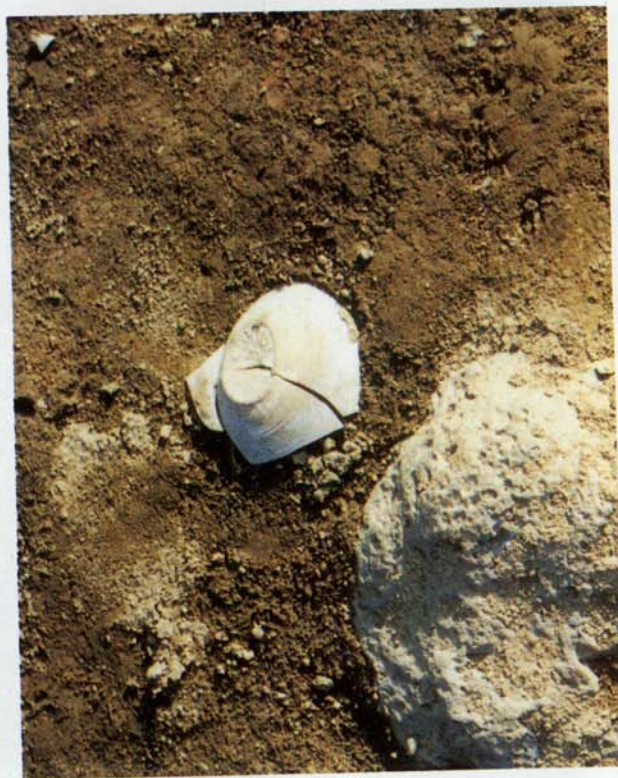




16. 기와 매립구덩이(1)과(2) 노출상태



17. 건물지(6) 기단석렬과 내부 적석상태



18. 건물지(2) 내부 분청사기 출토상태





19. B구역 원형 매립구덩이와 적석시설물(북에서)



20. 적석시설물(1)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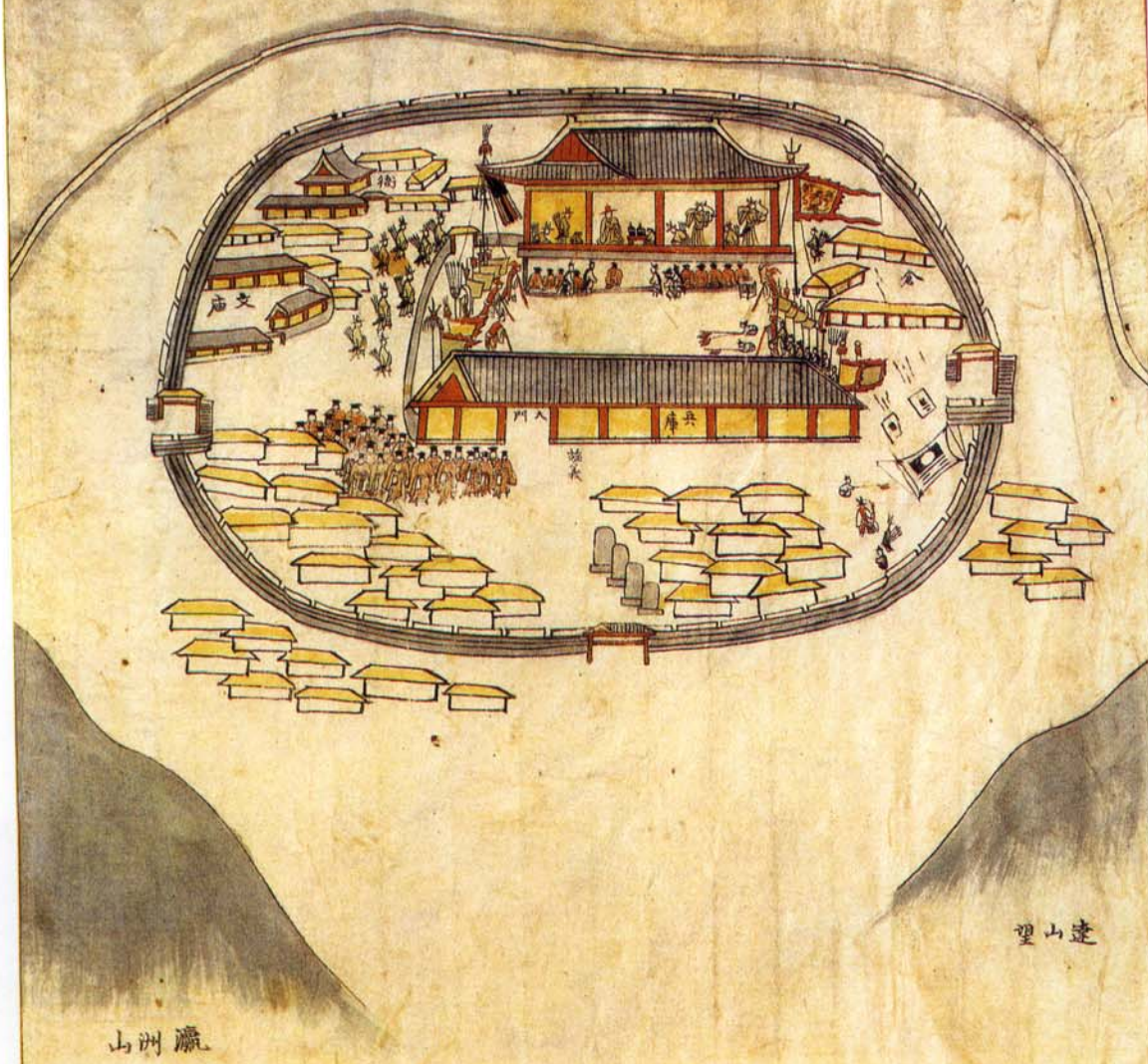
# 施義操點



壬午十一月初二日宿所  
 縣監  
 城將二  
 雄總四  
 民戶一千四百三十六戶  
 田畝一百四十結  
 文廟祭器祭服書冊  
 城丁軍六百六十四名  
 軍器什物  
 牧子保人并一百九十名  
 馬一千一百七十八匹  
 黑牛二百二十八首  
 倉穀四千二百五十餘石



# 施義講射



壬午十一月初四日冬至留  
都訓長幼學高世雄  
各面訓長五  
各面教射長七  
講儒一百六十六  
射負八十七人



# 施義養老



壬午十一月初三日留  
九十歲以上五人  
八十歲以上十七人



## 발 간 사

오늘의 복잡한 산업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삶의 가치를 되새겨 보고, 이를 정신적 바탕으로 삼아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선조들의 생활양식속에 남아있는 문화유산을 더듬어 보고 이를 오늘에 맞게 재조명해 봄으로써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에는 약 500년간 정의현의 설치되었던 우리 고장의 유일한 민속마을인 성읍민속마을의 체계적인 보존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안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번 정의현 객사지 발굴 조사보고서는 지난해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마치고 객사복원을 위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우리군에서는 객사발굴조사 보고서와 함께 금년도에 객사복원을 위한 기본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복원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고서 발간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발굴복원함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이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문화관광 자원화하여 우리 제주인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객사발굴과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애쓰신 제주대학교 이청규 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관과 문화재 전문위원, 그리고 직접, 간접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서에 의한 복원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발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 5.

남제주군수 강 상 주



## 目 次

발간사 .....	17
머 리 말 .....	29
제1장 地理的 環境과 歷史的 背景 .....	33
제1절 地理적 環境과 위치 .....	33
제2절 역사적 배경 .....	33
제2장 調査內容 .....	38
제1절 발굴전 現상과 發掘방법 .....	38
제2절 층위 .....	40
제3장 遺構 .....	46
제1절 건물지 .....	46
제2절 기타시설 .....	67
제4장 出土遺物 .....	73
제1절 기와 .....	73
제2절 도자기 .....	89
제3절 기타유물 .....	118
제5장 綜合考察 .....	122
맺 음 말 .....	127
圖 版 .....	129



## 圖 面 目 次

圖面 1	유적 위치도(1:78500)	30
圖面 2	① 위치및 지형도(1:25000) ② 정의현성및 주변현황도(1:5000)	31
圖面 3	유적주변 측량도(1:1200)	32
圖面 4	발굴구역내 지형및 트렌치 발굴 구획도(1:300)	39
圖面 5	EW트렌치(E2)내 테스트피트 층위단면도	41
圖面 6	EW트렌치(W5)북편 테스트피트 층위단면도	42
圖面 7	A구역 EW트렌치(W3) 층위단면도	44
圖面 8	B구역 NS트렌치(E1)내 테스트피트 층위단면도	45
圖面 9	발굴유구 전체 실측도	47
圖面 10	건물지(1) 실측도	55
圖面 11	건물지(2) 실측도	58
圖面 12	건물지(3) 실측도	60
圖面 13	건물지(4) 실측도	61
圖面 14	건물지(5) 실측도	64
圖面 15	건물지(6) 실측도	65
圖面 16	건물지(4) 북편 유구층 적석 실측도	68
圖面 17	B구역 적석유구 실측도	69
圖面 18	B구역 NS트렌치(E1) 실측도	70
圖面 19	B구역 NS트렌치(E5) 실측도	71
圖面 20	정의현 객사지 출토 명문기와(1)	76
圖面 21	정의현 객사지 출토 명문기와(2)	77
圖面 22	정의현 객사지 출토 명문기와(3)	78
圖面 23	정의현 객사지 출토 평기와(1)	83
圖面 24	정의현 객사지 출토 평기와(2)	84
圖面 25	정의현 객사지 출토 평기와(3)	87
圖面 26	정의현 객사지 출토 평기와(4)	88
圖面 27	정의현 객사지 출토 조선청자(1)	91
圖面 28	정의현 객사지 출토 분청사기(1)	95
圖面 29	정의현 객사지 출토 분청사기(2)	96
圖面 30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1)	109
圖面 31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2)	110
圖面 32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3)	111
圖面 33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4)	112



圖面 34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5)	113
圖面 35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6)	114
圖面 36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7)	115
圖面 37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8)	116
圖面 38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9)	117
圖面 39	정의현 객사지 출토 도기(1)	119
圖面 40	정의현 객사지 출토 도기(2)	120

## 圖版目次

圖版 1	131
① 유적전경(서에서)	
② 유적전경(동에서)	
③ 발굴광경	
圖版 2	132
① 발굴지 모습(북동에서)	
② 발굴지 모습(남서에서)	
圖版 3	133
① 건물지(1) 노출상태(서에서)	
② 건물지(1) 노출상태(동에서)	
圖版 4	134
① 건물지(1) 노출상태(서에서)	
② 건물지(1) 복원 기단석렬	
圖版 5	135
① 건물지(1) 내부 기단석렬과 적석상태	
② 건물지(1) 기단석렬 축조상태	
③ 건물지(1) 기단과 초석	
圖版 6	136
① 건물지(1) 내부 방고래시설	
② 건물지(1) 내부 방고래시설	
③ 건물지(1) 내부 방고래시설과 초석	
圖版 7	137
① 건물지(1) 정면 적심석 노출상태(동에서)	



② 건물지(1) 초석군 노출상태(동에서)	
③ 건물지(1) 초석군 노출상태(남에서)	
圖版 8 .....	138
① 건물지(1) 적심석 축조상태(1)	
② 건물지(1) 적심석 축조상태(2)	
③ 건물지(1) 적심석 축조상태(3)	
圖版 9 .....	139
① 건물지(2) 노출상태(남에서)	
② 건물지(2) 노출상태(서에서)	
③ 건물지(2) 노출상태(북에서)	
圖版 10 .....	140
① 건물지(2) 북편 數石과 방고래시설 노출상태(서에서)	
② 건물지(2) 북편 부석과 방고래시설 노출상태(북에서)	
③ 건물지(2) 북편 부석과 방고래시설 노출상태(세부)	
圖版 11 .....	141
① 건물지(2) 온돌시설 노출상태	
② 건물지(2) 방고래시설 축조상태	
圖版 12 .....	142
① 건물지(2) 방고래시설 축조상태(세부)	
② 건물지(2) 기단석렬 축조상태(세부)	
③ 건물지(2) 방고래시설과 박석시설 맞물림 상태	
④ 건물지(2) 내부 분청사기 출토상태	
⑤ 건물지(2) 내부 적석상태	
圖版 13 .....	143
① 건물지(2) 적심석 축조상태(1)	
② 건물지(2) 적심석 축조상태(2)	
③ 건물지(2) 적심석 축조상태(3)	
圖版 14 .....	144
① 건물지(3) 주변유구 배치상태(북에서)	
② 건물지(3) 노출상태(북에서)	
圖版 15 .....	145
① 건물지(2)와(3) 배치상태(남에서)	
② 건물지(3) 기단석렬 노출상태(북에서)	
圖版 16 .....	146
① 건물지(3)과 건물지(6) 기단석렬 배치상태	
② 건물지(3) 배수구 노출상태(서에서)	
圖版 17 .....	147



① 건물지(3) 전체바닥 노출상태	
② 건물지(3) 축조상태(서에서)	
圖版 18 .....	148
① 건물지(3) 정면 기단석렬 축조상태	
② 건물지(3) 내부 부석시설 축조상태(서에서)	
③ 건물지(3) 뒷편 기단석렬 축조상태	
圖版 19 .....	149
① 건물지(3) 외벽(동벽) 노출상태	
② 건물지(3) 외벽(북벽) 노출상태	
③ 건물지(3) 외벽(서벽) 노출상태	
圖版 20 .....	150
① 건물지(4) 주변유구 배치상태(서에서)	
② 건물지(4) 노출상태(서에서)	
圖版 21 .....	151
① 건물지(4) 노출상태(북에서)	
② 건물지(4) 노출상태(남에서)	
圖版 22 .....	152
① 건물지(4) 정면 기단석렬 노출상태	
② 건물지(4) 북편 기단석렬과 부석상태	
圖版 23 .....	153
① 건물지(4) 정면 기단석렬과 건물지(5) 배치상태	
② 건물지(4) 내부 부석상태	
③ 건물지(4) 기단석렬 축조상태(세부)	
圖版 24 .....	154
① 건물지(6) 기단석렬 노출상태	
② 건물지(6)과 건물지(3) 배치상태(서에서)	
③ 건물지(6)과 건물지(3) 배치상태(남에서)	
圖版 25 .....	155
① 건물지(6) 정면 기단석렬 노출상태	
② 건물지(6) 전체 노출상태(서에서)	
③ 건물지(6) 기단석렬과 내부 적석상태	
圖版 26 .....	156
① 건물지(5)와 (6) 중복상태	
② 건물지(5) 내부 적석상태	
圖版 27 .....	157
① 건물지(5) 노출상태(1)	
② 건물지(5) 노출상태(2)	



圖版 28 .....	158
① 건물지(5) 내부 적석과 방고래시설	
② 건물지(6) 동편 기단석렬과 건물지(5) 내부 적석시설	
圖版 29 .....	159
① 건물지(5) 방고래시설 축조상태	
② 건물지(5) 기단석렬 축조상태	
圖版 30 .....	160
① 건물지(5) 기단석렬 축조상태	
② 건물지(5)와 건물지(4) 중복상태	
圖版 31 .....	161
① 건물지(5) 적심석 노출상태(1)	
② 건물지(5) 적심석 노출상태(2)	
圖版 32 .....	162
① 건물지(5) 초석 노출상태	
② 건물지(5) 적심석 노출상태	
圖版 33 .....	163
① 건물지(5) 기단석렬 노출상태(1)	
② 건물지(5) 기단석렬 노출상태(2)	
③ 건물지(5) 기단석렬 노출상태(3)	
④ 건물지(5) 기단석렬 노출상태(4)	
圖版 34 .....	164
① 건물지(5) 적심석 노출상태(1)	
② 건물지(5) 적심석 노출상태(2)	
③ 건물지(5) 적심석 노출상태(3)	
④ 건물지(5) 적심석 노출상태(4)	
圖版 35 .....	165
① 건물지(5) 동편 교란층 노출상태(1)	
② 건물지(5) 동편 교란층 노출상태(2)	
③ 담장지 노출상태	
圖版 36 .....	166
① 건물지(4) 북편 유구층 노출상태	
② 건물지(4) 북편 적석상태	
圖版 37 .....	167
① 건물지(4) 북편 유구층내 기단석렬 노출상태(1)	
② 건물지(4) 북편 유구층내 기단석렬 노출상태(2)	
③ 건물지(4) 북편 유구층내 초석 노출상태	
圖版 38 .....	168



① 건물지(4) 북편 유구층내 심초석 노출상태(1)	
② 건물지(5) 북편 유구층내 심초석 노출상태(2)	
圖版 39 .....	169
① 최근 학교건물 배수로 노출상태(1)	
② 최근 학교건물 배수로 노출상태(2)	
圖版 40 .....	170
① 최근 학교건물 배수로내 테스트 피드 노출상태	
② 최근 학교건물 배수로 노출상태(세부)	
圖版 41 .....	171
① 건물지(5) 기단석렬과 기와 매립구덩이(1) 노출상태	
② 기와 매립구덩이(2) 노출상태	
圖版 42 .....	172
① 기와 매립구덩이(2) 노출상태	
② 기와 매립구덩이(1)과(2) 노출상태	
圖版 43 .....	173
① 기와 매립구덩이(2) 노출상태	
② 기와 매립구덩이(1) 노출상태	
圖版 44 .....	174
① 기와 매립구덩이(3) 노출상태(원경)	
② 기와 매립구덩이(3) 노출상태(세부)	
圖版 45 .....	175
① EW중심트렌치 노출상태(원경)	
② EW중심트렌치 노출상태(근경)	
圖版 46 .....	176
① B구역 발굴지 전경(북에서)	
② B구역 발굴광경	
圖版 47 .....	177
① B구역 발굴지 동편 원경(동에서)	
② 원형 매립구덩이와 적석시설물(1)	
③ 적석시설물(1) 노출상태	
圖版 48 .....	178
① 원형 매립구덩이 노출상태	
② 적석시설물(1) 노출상태(1)	
③ 적석시설물(1) 노출상태(2)	
圖版 49 .....	179
① 적석시설물(1) 석렬과 적석 축조상태(1)	
② 적석시설물(1) 석렬과 적석 축조상태(2)	



圖版 50 .....	180
① 적석시설물(1) 적석 축조상태(서에서)	
② 적석시설물(1) 석렬과 적석 축조상태(북에서)	
③ 적석시설물(1) 석렬 축조상태(동에서)	
圖版 51 .....	181
① NS트렌치(W1) 내부 계단지 노출상태(1)	
② NS트렌치(W1) 내부 계단지 노출상태(2)	
圖版 52 .....	182
① NS트렌치(E1) 내부 적석시설	
② NS트렌치(E1) 내부 적심석	
圖版 53 .....	183
① NS트렌치(E1) 내부 교란층위(1)	
② NS트렌치(E1) 내부 교란층위(2)	
③ NS트렌치(E1) 내부 교란층위(3)	
④ NS트렌치(E1) 내부 교란층위(4)	
圖版 54 .....	184
① NS트렌치(E5) 발굴전경(북에서)	
② NS트렌치(E5) 내부 적석시설 노출상태	
圖版 55 .....	185
① NS트렌치(E5) 적석시설부분 확장 발굴지 전경(동에서)	
② NS트렌치(E5) 내부 적석시설 노출상태(1)	
③ NS트렌치(E5) 내부 적석시설 노출상태(2)	
④ NS트렌치(E5) 내부 적석시설 발굴광경(위에서)	
圖版 56 정의현 객사지 출토 명문기와(1) .....	186
圖版 57 정의현 객사지 출토 명문기와(2) .....	187
圖版 58 정의현 객사지 출토 명문기와(3) .....	188
圖版 59 정의현 객사지 출토 평기와(1) .....	189
圖版 60 정의현 객사지 출토 평기와(2) .....	190
圖版 61 정의현 객사지 출토 평기와(3) .....	191
圖版 62 정의현 객사지 출토 평기와(4) .....	192
圖版 63 정의현 객사지 출토 조선청자(1) .....	193
圖版 64 정의현 객사지 출토 조선청자(2) .....	194
圖版 65 정의현 객사지 출토 분청사기(1) .....	195
圖版 66 정의현 객사지 출토 분청사기(2) .....	196
圖版 67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1) .....	197
圖版 68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2) .....	198
圖版 69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3) .....	199



圖版 70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4)	200
圖版 71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5)	201
圖版 72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6)	202
圖版 73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7)	203
圖版 74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8)	204
圖版 75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9)	205
圖版 76	정의현 객사지 출토 도기(1)	206
圖版 77	정의현 객사지 출토 도기(2)	207
圖版 78	정의현 객사지 출토 일제자기/동전/연적	208

## 插圖目次

插圖 1	정의현객사지 출토기와의 명문(1)	74
插圖 2	정의현 객사지 출토기와의 명문(2)	75
插圖 3	정의현 객사지 출토기와의 제작수법(1)	80
插圖 4	정의현 객사지 출토기와의 제작수법(2)	81
插圖 5	정의현 객사지 출토 분청사기의 문양	92
插圖 6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의 명문과 바닥처리수법	98
插圖 7	건물지(1)유구 복원도	124
插圖 8	건물지(6)유구 복원도	125
插圖 9	B구역 조선후기 적석시설물과 대형구덩이 배치도	126
插圖 10	정의현 객사지 건물공간 배치도	126

## 머 리 말

본 정의현 客舍터의 발굴은 객사 건물 복원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1993년 11월 우리박물관은 남제주군과 조사용역을 체결하고, 발굴은 12월 1일에 착수하여 94년 2월 25일까지 85일간 실시하였다. 발굴조사용역금액은 사천삼백칠십육만칠천원이었으며, 발굴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 사 단 장 李清圭(제주대학교박물관장)  
지 도 위 원 金正基(한림대학교교수, 문화재위원)  
張慶浩(문화재연구소장, 문화재위원)  
조 사 위 원 金周泰(문화재전문위원)  
金鴻植(명지대학교교수)  
尹德香(전북대학교박물관장)  
高昌錫(제주대학교교수)  
조 사 원 康昌和(제주대학교박물관연구원)  
姜彰彦(제주대학교박물관연구원)  
金東栓(제주대학교강사)  
高才元(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행 정 담 당 朴景弘(제주대학교박물관)  
조사보조원 朴容範, 金慶柱, 金貞善, 方文培, 金宗燦, 吳蓮淑, 高禎敏, 李美子, 眞敬愛, 玄英二, 李美娟  
金敬兒, 高胤碩, 崔仁局, 康晔, 李承哲, (이상 제주대학교 사학과 학생)

그리고 발굴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남제주군 관광과의 康萬一 과장을 비롯하여 문화계의 姜鳳五 계장 그리고 吳淳協, 張德洙 선생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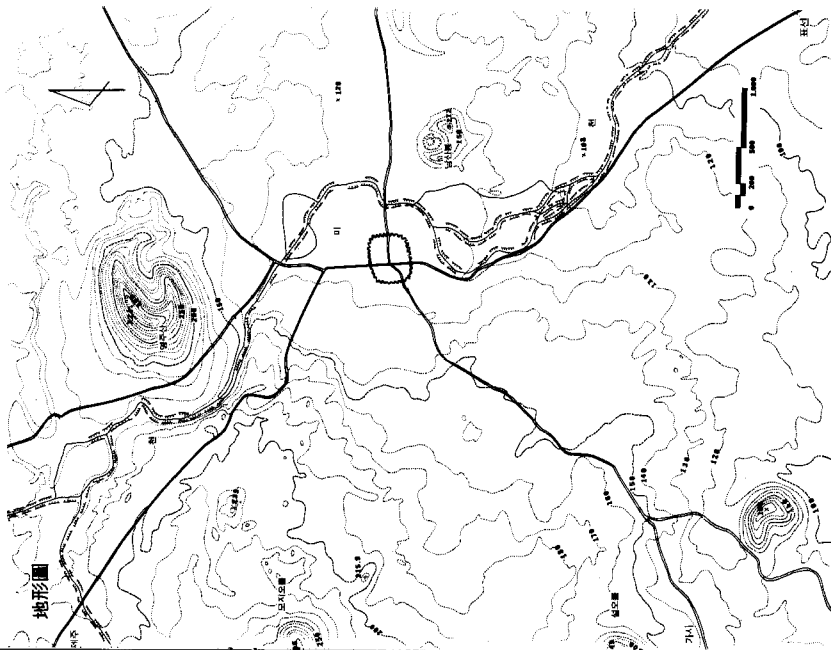
보고서의 원고와 도면, 그리고 사진은 각각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완성되었다.

- 제 1-2 장 조사개요와 자연환경 : 李清圭  
제 2 장 역사적 배경 : 金東栓  
제 3 장 조사내용 : 康昌和  
제 4 장 유 구 : 康昌和  
제 5 장 유 물 : 朴容範, 金貞善  
제 6 장 종합고찰 : 李清圭, 康昌和  
도 면 : 金慶柱, 金貞善, 朴容範, 方文培, 李尙美, 金宗燦, 李美子, 眞敬愛, 玄英二  
사 진 : 康昌和  
편 집 : 康昌和, 金慶柱





圖面 1 유적 위치도(1:78500)



圖面 2 ① 위치 및 지형도(1:25000)



② 정리의현성 및 주변현황도(1:5000)





圖面 3 유적주변 측량도(1:1200)

## 제 1 장 地理的 環境과 歷史的 背景

### 제 1 절 地理的 環境과 位置

유적의 위치는 남제주군 表善面 城邑1리 875번지로서, 현재 관광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성읍 민속마을 안에 소재한다. 성읍 민속마을은 한라산을 정점으로 한 제주도 전체로 볼 때 서남부지방의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내륙에 위치한다.

제주도는 해발고도에 따라서 3개지대로 구분되는데, 대체로 해발 200m까지는 해안지대, 해발 200~600m는 중산간지대, 그리고 해발 600m이상은 산록지대로 구분된다. 그러나 성읍리가 위치한 제주도 동남부지역은 제주도 남북사면과는 달리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유적 일대는 해발고도 120~130m이나 가장 가까운 표선리 해안에서 8km이상 떨어져 있어 일반적으로 중산간마을에 해당된다. (도면 1)

성읍리는 제주도 동쪽끝에 해당하는 남제주군 성산읍으로부터 동북쪽 직선거리로 13km, 제주도 북쪽과 남쪽 끝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동남과 동북쪽으로 똑같이 27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마을로부터 해발 326m의 瀛洲山은 북쪽으로 1.2km, 서쪽으로 306m의 오지오름은 2.7km, 215m의 장지오름은 2.3km 떨어져 있다.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해발 172m의 나즈막한 남산봉이 0.5km 떨어져 있어 주변의 오름으로서는 가장 가깝다. (도면 2-①)

이로 볼 때 성읍 민속마을은 남쪽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해발 200~300m의 오름으로 둘러 싸여 있어, 마을에 들어서면 아늑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오름으로 둘러싸인 분지상의 지리적 범위는 직경 3~4km 내외가 된다.

한편 마을 동쪽으로 인접하여 川尾川이 흐른다. 천미천은 비올 때만 물이 흐르는 乾川으로서 한라산 동쪽 중턱 해발 500~600m의 산록지대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흐르는데, 성읍리 북쪽에 있는 영주산 서쪽을 경유하여 흐른다. 이 천미천은 성읍1리 마을에 이르러 크게 曲流하는데, 이는 마치 당시 정의현청을 북, 동, 남쪽으로 감싼 형상을 취하고 있다. 이 천천은 여름에 폭우가 내릴 때, 물이 넘쳐 성읍 1리를 범람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한다. 이 천미천은 성읍리 남쪽으로 흘러 표선면 新川里 해안 하구로 빠지는데, 해안에서 성읍리를 찾아 오는 루트로 이 천미천 계곡도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2-②)

비가 그친 후라도 건천 바닥 움푹한 곳(pit-hole)에 물이 일정기간 고여 있어 성읍1리 마을의 용수공급처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 천미천 이외에 성읍마을에는 水量이 풍부한 샘이 없고, 마을 몇군데에 조성된 奉天水가 있을 뿐이다.

성읍1리는 중산간 지대에 있으므로 주변의 완만한 대지를 활용한 田作농업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 농업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의 토양조건이 중요한데, 대체로 성읍1리 마을에서 직경 1km 이내는 2~7% 혹은 7~15%의 미사질양토가 주로 분포한다. 표토는 농암회갈색, 심토는 암황갈색을 띠며, 용암류 대지에 조성되어 배수가 양호한 편이다. 대체로 밭으로 이용할 경우 생산력이 제주도 내에서 보통정도에 해당한다.

### 제 2 절 歷史的 背景

#### 1. 旌義縣의 設置와 沿革

1416년(태종 16)에 설치된 旌義縣은 1914년 濟州郡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정의현은 약 500여년 동안 濟州島 동남부 지역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의현의 설치는 1416년 都安撫使 吳滉과 前判官 張合의 장계에 의해서



대정현과 함께 비롯된다. 그러면 제주도가 삼읍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배경을 통하여 정의현의 설치배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자.

「제주에 郡을 설치하던 초기에는 한라산의 四面에 모두 17縣이 있었습니다. 北面의 大村縣에 성을 쌓아서 本邑으로 삼고, 東西道에 靜海鎮을 두어 軍馬를 모아 연변을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도의 都司守는 각각 부근의 군마를 고찰하고 겸하여 목장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땅이 크고 백성은 조밀하여 소송이 번다합니다. 동서도의 산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牧使가 있는 本邑을 왕래하는데 단지 걷기가 매우 어려울뿐만 아니라, 농사 때는 갔다 왔다 하기에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또 정해진의 군마와 목장을 겸임한 많은 직원이 무지배들을 거느리고 군마를 고찰한다 핑계하고 백성을 침해하여 폐단을 일으킵니다. 혹은 아무 때나 사냥하면서 약한 백성들을 어수선하게 만들지만 목사와 판관이 또한 그 연고를 알지 못하니 어찌 고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해를 거듭하여 커다란 폐단이 되었습니다.」<sup>1)</sup>

위의 내용에서 삼읍體制가 형성되기 이전, 제주목의 행정은 東道와 西道體制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읍의 하나인 정의현의 행정구획은 당시 東道 靜海鎮의 관할하에 놓여 있었다. 정해진의 책임관인 都司守는 부근의 군마를 고찰하고 겸하여 목장의 업무를 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변 방어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인구가 많아지고 소송이 빈번하여지면서 한라산 남쪽의 지역민들이 산북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목 관아(대촌현)를 출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더구나 농사철의 경우 제주목 관아의 출입은 농사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정해진에 소속된 토호들이 백성을 침해하는 폐단이 비일비재하였으나, 제주목 관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남에는 행정력이 강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정현과 더불어 정의현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먼저 한라산 남쪽의 지역민이 산북에 위치해 있는 제주목 관아를 출입함으로써 야기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山南의 토호세력이 일반 백성을 침해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제주목 관아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한라산 남쪽에는 행정력이 강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안무사 오식은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다.

「바라건대 지금부터 本邑에는 東道の 신촌현, 함덕현, 김녕현, 西道の 귀일현, 고내현, 애월현, 광지현, 귀덕현, 명월현을 소속시키고, 동도의 현감은 정의현으로 본읍을 삼고 토산현, 호아현, 홍로현 3현을 소속시키며, 서도의 현감은 대정현을 본읍으로 삼아 예래 현, 차귀현 2현을 소속시키십시오.」<sup>2)</sup>

이러한 건의는 議政府와 吏曹에서 논의한 결과, 그대로 왕의 윤허를 얻었다. 즉, 한라산을 경계로 山北에는 제주목 이라 하여 목사를 두고, 山南은 양분하여 동쪽에는 정의현, 서쪽에는 대정현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정의현이 설치되기 이전, 이곳에는 지방장관인 수령이 파견되지 않는 일종의 屬縣으로 旌義縣·兎山縣·狐兒縣·洪爐縣이 위치하고 있었다. 현이 설치되면서 정의현에 나머지 현이 모두 합속된 것이다.

정의현의 四方 경계는 대체적으로 정의읍성(현 성읍리)에서 동쪽으로 제주경계까지 35리, 북쪽으로 제주경계까지 20리, 서쪽으로 대정경계까지 95리, 남쪽 바다까지 15리이다.<sup>3)</sup>

정조년간에 편찬된 것으로 파악되는 『濟州大靜旌義邑誌』에 의하면 정의현의 坊里는 중면·좌면·우면 등 3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시 각 면에는 중면에 11리, 좌면에 16리, 우면에 10리가 각기 소속되어 있었다. 民戶는 2,325호에

1) 『太宗實錄』 卷31, 16年 5月 丁酉條.

2) 『太宗實錄』 卷31, 16年 5月 丁酉條.

3) 『耽羅志』(1653년); 『濟州邑誌』(正祖年間); 『濟州大靜旌義邑誌』(正祖年間); 『旌義郡邑誌』(1899년) 참조. 그러나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정의현조에는 정의현의 경계가 동쪽으로 제주와의 경계까지 26리, 북쪽으로 제주 경계까지 20리, 서쪽으로 대정현 경계까지 37리, 남쪽으로 바다까지 7리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 6,306구, 여자 8,100구이었다.<sup>4)</sup> 이는 제주목 호수의 1/3에 불과하였으나, 대정현의 호수보다는 400여 戶 많은 것이다.

정의현은 1864년(고종 1)에 대정현과 함께 군으로 승격되었다가 1880년(고종 17)에 다시 현으로 환원되기에 이른 다. 1895년(고종 32)의 을미개혁 당시는 지방관제의 개혁에 따라 전국 23부의 하나로 제주부가 설치되어 관찰사가 파견되자, 제주·대정과 함께 정의현은 군으로 개편되었다. 1914년에 정의군은 대정과 함께 군이 폐지되어 제주군에 통합되었다. 당시 제주군에 통합된 13면 중에 정의현 지역의 면은 旌義面·東中面·西中面·右面으로 4면이었다. 그후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정의면은 성산면, 동중면은 표선면, 서중면은 남원면, 우면은 서귀면으로 각기 변경되었다.

## 2. 旌義邑城의 移設

본래 정의현이 설치 당시 읍성은 現 城山邑 古城里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이 읍성은 정의현의 동쪽에 치우쳐 있었으므로 행정의 중심 지역으로는 적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旌義邑城의 이설논의는 읍성이 마련된 직후부터 비롯되기 시작하였다. 전라도 관찰사는 정의현감 李貽의 정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주의 사의를 올렸다.

“정의를 본읍으로 삼는 교지는 일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합속한 4현이 한라산 남쪽에 연달아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만약 정의현을 본읍으로 삼는다면 호아현·홍로현은 서로 거리가 3식이 넘습니다. 그곳 백성의 왕래, 公事支待와 목장 고찰 등의 일에 폐단이 실로 적지 않습니다. 마땅히 정의땅 중앙인 서촌·진사·토산 땅 중에서 지리가 적당할 만한 곳에 읍성을 배치하고 만약에 방어할 경우라면 현감은 순풍인 때 군대를 이끌고 정의진에 이르러 고수 방어하게 하십시오”하니 이에 따랐다.<sup>5)</sup>

라 한 바와 같이, 정의읍성의 위치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정의읍성(당시는 지금의 성산읍 고성리에 위치)의 위치가 정의현의 동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정의현에 합속된 狐兒縣·洪爐縣에서는 거리가 3息(약 90리)이나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이곳 백성의 官衙 往來, 公事의 支待와 목장 고찰 등의 일에 많은 폐단이 야기되고 있었다. 이에 정의현의 중앙인 西村·쑤숭·兎山 중에서 地利가 적당한 곳으로 치소를 옮길 것을 제의하고 있다.

한편, 정의읍성의 이설 배경으로 읍성 가까이에 牛島가 위치해 있어 새벽과 밤에 鼓角 소리가 들리고, 태풍이 자주 불어와 곡식이 흉년들뿐만 아니라, 倭賊의 침입이 잦은 때문임을 지적하기도 하고 있다.<sup>6)</sup> 물론 이러한 요인도 정의읍성 이설의 부분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의읍성 이설의 배경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읍성이 정의현 동쪽에 치우쳐 있음에서 야기된 旌義縣民의 불편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의읍성을 진사리로 이설한 이후, 도안무사 鄭幹의 명을 받들어 정의읍성에 대한 기록을 남긴 裴樞의 記에서도 확인된다. 즉, 정의읍성이 동쪽 끝에 있어, 서쪽까지의 거리가 80~90리가 되어 본래 삼읍을 설치한 의도에 어긋나다는 것이

4) 『濟州大靜旌義邑誌』(1793년경), 旌義縣 坊里條.  
時期에 따른 정의현의 戶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年 度	戶 數	口 數	男 子	女 子	三邑 總戶數
1419	645				3,481
1454	685	2,073			7,249
1702	1,436				9,552
1793	2,336	15,372	6,789	8,592	10,776
1827	1,768	9,337	4,349	4,988	10,343
1841	1,939	15,163	6,818	8,345	10,815
1854	2,042	17,309	7,794	9,515	11,209
1912	7,760	38,642	19,100	19,542	37,373

5) 『太宗實錄』卷33, 17年 5月 甲辰條.

6) 『新增東國輿地勝覽』古蹟條: 『耽羅志』旌義縣 古蹟條.



다. 이에 도안무사 정간이 읍성의 이설 지역으로 짚솜리(今 城邑里)를 택하였던 것이다.<sup>7)</sup>

정의현성을 진사리로 이설하는 것이 결정된 것은 1422년(세종 4) 12월이다.<sup>8)</sup> 읍성의 축성은 본래 해당 읍의 백성을 동원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안무사 정간은 병조의 공문에 의거하여 삼읍 백성들로 하여금 부역케 하였으며, 책임 감독관으로는 제주판관 崔致廉을 임명하였다. 성의 축조는 1423년 1월 9일에 시작하여 1월 13일에 완성을 하여 불과 5일만에 낙성을 보았으니, 이 당시 동원된 삼읍 백성의 수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성의 규모는 성의 주위가 2,520척이고 높이는 13척이었다.<sup>9)</sup> 그후 정의읍성의 규모는 성의 주위가 2,986척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 정의읍성의 규모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旌義邑城의 規模

資 料 名	年 度	規 模
『裊樞記』	1423년경	周 2,520尺, 高 13尺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경	周 2,986尺, 高 24尺
『耽羅志』	1653년경	周 2,986尺, 高 13尺
『濟州邑誌』	1780~1789년경	周 2,986尺, 高 13尺, 東西南 3門 城中 2井(非生水旱 則取汲於城南二里許大川水)
『濟州大靜旌義邑誌』	1793년경	周 1,990步, 高 13尺, 女堞 180, 東西南 3門
『耽羅誌草本』	1842년	周 1,593步, 高 13尺, 女堞 180, 東西南 3門
『旌義郡邑誌』	1899년	周 2,986尺, 高 13尺, 東西南 3門 城中 2井(非生水旱 則取汲於城南二里許大川水)

邑城에는 동·서·남 3문 외에 女堞 180개가 시설되어 있었다. 또한 성의 축성지 선정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우물의 경우, 정의읍성에는 生水가 본래부터 없었다. 그래서 빗물을 담아두는 우물을 2곳에 마련하였으며, 이 우물이 마을 경우는 성의 남쪽 2리쯤에 있는 大川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 3. 主要 官衙施設의 概要

정의현의 관아시설은 크게 城 중심의 客舍(館)를 기본축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다. 객사의 동쪽에는 軍器庫, 司倉 등이 위치해 있었고, 북쪽에는 衙舍인 日觀軒과 刑獄·作廳, 서쪽에는 無學廳·鎮吏廳·出身廳·假率廳·鄕校, 서남쪽에 鄕廳·大同庫·縣司·平役庫 등이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그 대략적인 위치를 시기에 따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7) 李元鎮, 『耽羅志』 旌義縣 城郭條.

8) 『世宗實錄』 卷18, 4年 12月 乙巳條.

9) 李元鎮, 『耽羅志』, 旌義縣 城郭條.

10) 1973년의 조사에 의하면, 古老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는 관아건물의 위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金榮敦, 『旌義고을』, 民俗資料保護區域 調查報告書 第55號, 1973 ; 金榮敦, 『旌義고을(1)』, 『耽羅文化』 第2號, 1983에 재수록).

縣 廳 - 城邑里事務所 앞	都 廳 - 城邑里 813番地
禦邊廳 - 城邑里 819番地	使令廳 - 城邑里 809-2番地
質 廳 - 城邑里 882-1番地	馬房터 - 城邑里 572番地
과상청 - 城邑里 808番地	無學廳 - 城邑里 818番地
獄 터 - 城邑里 572番地	軍器터 - 城邑國民學校
客 舍 - 城邑國民學校	倉 房 - 城邑里 892番地
鄕 廳 - 城邑里 868-871番地	縣 司 - 城邑里 846番地
教練廳 - 城邑里 826番地	

官衙施設의 時期別 位置

時期 官衙	耽羅志 (1652년)	濟州邑誌 (1780~1789년)	耽羅誌草本 (1842년)	與地圖書 補遺 旌義邑誌(1899)	備 考
客館(舍)	동헌	城中	南城 內	좌동	
縣衙 (日觀軒)	객관 북쪽	客舍 북쪽	현감의 政堂	좌동	1443창건, 1898 중수, 1903년 홍중우 목사가 『往時縣監政堂』이라 題扁
官廳	衙 남쪽				
鄉廳 (鄉社堂)		객사 서남	일관현 남쪽	좌동	1907년 私立義明學校창설, 1909 醜철하여 材瓦를 客舍 中수에 用
武學廳	縣에 부속된 觀청	衙 남쪽		今無	
出身廳					
鎮吏廳		衙 남쪽			
軍官廳			일관현 동쪽		
假率廳		衙 남쪽			
人吏廳			일관현 남쪽		
作廳	衙의 동쪽	衙 동쪽			기관, 서원, 지인이 근무
縣司		향청 남쪽		今無	1738년 창건, 戶長 所居
司倉		객사 동북	東城內	今無	
軍器庫	객사 동쪽	객사 동쪽	객사 동쪽		
大同庫		향청 남쪽		今無	
平役庫		향청 남쪽		今無	
刑獄		衙 동쪽			
山亭	동헌 뒤	객사 북쪽	일관현 뒤		
鄉校		西城內	化源洞		1809년에 城북쪽 化源洞으로 移
新樓	남문루				
別果園	동헌 동북쪽				
停斗亭			北城 위		1830년 창건, 1898년 중수

\* 동·서·남문루는 옛날에 草家였으나 1735년에 草를 瓦로 바꿈.

이 외에 영조 14년 나억령 현감이 창건한 洗兵亭이 남성밖에 위치해 있었으며, 일관현 남쪽에는 정의현의 公門인 漢東樓가 있었다. 현재 일관현·향교·서문루와 남문루는 복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당시 정의마을은 邑內村과 邑外村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 읍내촌은 성의 서쪽에서 남쪽에 이르는 곳에 주로 밀집해 있었던 것 같다. 읍외촌은 성밖 동남쪽과 서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현재, 정의읍성이 위치해 있었던 성읍리는 국가중요민속자료 제188호(1984.6.7)로 지정되어 있다. 정의향교는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5호(1971.8.26), 일관현은 지방유형문화재 제7호(1975.3.12)로 각기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 제 2 장 調査 内容

### 제 1절 발굴전 현상과 발굴방법

#### 1. 발굴전 현상

발굴지점은 지금 공터로 남아 있는 옛 성읍국민학교부지이다. 이 국민학교 부지는 예사 학교터가 그리하듯이 운동장이 자리했던 지점(A구역)과 학교교실건물과 관사가 자리했던 지점(B구역)으로 나누어진다.

발굴조사면적은 먼저 A구역이 1800평방미터, B구역이 1200평방미터로 도합 3000평방미터(950평)정도이다.

A구역은 표고높이가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었으며 대략 그 등고높이는 125m에 이른다. 이 공간의 서남쪽모서리에 10여평 남짓되는 현대 화장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반면 B구역은 1980년대 이전에 자리했던 교실건물과 관사, 화장실 등이 자리했던 지점으로 평면 레벨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여기저기 시멘트 기초시설이 잔존하고 있었다. 또한 이 지점의 북동쪽에는 옛 화장실자리가 물웅덩이로 남아 있었다.

예사 학교자리가 그리하듯이 학교운동장과 교실건물을 구분짓는 경계 둔턱이 A구역과 B구역 구분선 부분에서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 경계둔턱은 잘 다듬은 할석과 판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한 개의 돌의 길이가 1m에 이르는 것이 대부분으로, 아마도 이 석재는 이곳에 자리했던 일련의 조선시대 건물군과 관련된 석재를 다시 사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계석렬 안쪽으로는 조정수가 일렬로 심어져 있었다. 이 지점의 북서쪽으로 높은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교실건물자리와 레벨차는 2m정도이다.

#### 2. 발굴방법

발굴을 위해 우선 운동장과 교실이 자리했던 부분의 지표레벨 상황은 A구역과 B구역으로 구분지어 발굴 핏트를 구획할 수 밖에 없었다.

핏트구획은 먼저 해발 125m에 중심점(D.P.)을 발굴지 정 중앙에 설정하고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모든 트랜치를 구획하였다(圖面 4).

A구역은 폭 4m, 길이 20m 크기의 트랜치를 중심선이 지나가는 폭1m의 중심독을 기준으로 동쪽에 동서트랜치(E0)에서 (E10)까지, 다시 중심독을 기준으로 서쪽에 동서트랜치(W0)에서 (W5)까지 구획하여 모든 동서트랜치가 나란히 배치되도록 구획하였다. 그리고 토층의 퇴적양상과 문화층의 파악을 위해 먼저 동서트랜치(E1) 지점에 테스트피트를 굴착하여 보았다. 조사결과 지표층 밑으로 두께 30cm미만의 흑갈색층이 단일문화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B구역은 중심독을 중심으로 폭 2m, 길이 40m 크기의 남북트랜치를 1m독을 사이에 두고 동편에 9열, 서편에 6열을 배치하여 각 남북트랜치(E1)에서 남북트랜치(E9)까지, 다시 서편으로 남북트랜치(W1)에서 남북트랜치(W6)까지 트랜치를 명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모든 트랜치를 차례로 굴착하고 유구가 확인되는 경우 독을 모두 허물고 전면확장을 실시할 계획으로 발굴에 임했다.



圖面 4 汙水處理廠內 地型及 排水溝 佈置圖(1:300)

## 제2절 層 位

층위는 크게 전자에 설명한 A구역, B구역으로 나누어지며 유구가 나타나는 부분의 층위는 크게 4지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 1. 동서트렌치(E1) 동편 테스트피트 단면층위(圖面 5)

층 위	두께(cm)	層 色	層 位 內 容
1층	7~13	송이(화산재)	현대주차장 설립시 매립토층.
2층	22~23	흑갈색	사질의 부식토층으로 비교적 단단하고 자연석과 자갈돌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군데 군데 기와편과 백자편이 소량 보인다.
3층	35~42	암흑갈색	사질의 점토층으로 자갈한 사질의 점토로 형성되어 있다. 비교적 무른편이며 목탄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4층	91~	황색	생토층

이 층위는 A구역의 모든 토층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 층위이다. 먼저 옛 국민학교 운동장의 바닥레벨은 2층 상면으로 파악되며, 1층은 주차장 시설을 만들면서 깔아 놓은 층위로 판단된다. 제2층인 흑갈색토층 내부에 거의 모든 유구가 포함되어 있어 주 문화층으로 해석된다. 제3층은 지점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일부 유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의현성이 만들어지고 최초의 관아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사용되었던 층이다. 제4층은 유구나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층위이고 이 층위밑으로 암반층이 나타난다. 결국 제3층상면과 제2층이 문화층으로 해석되며 이 문화층(유구와 유물 포함층)의 두께는 대략 30~35c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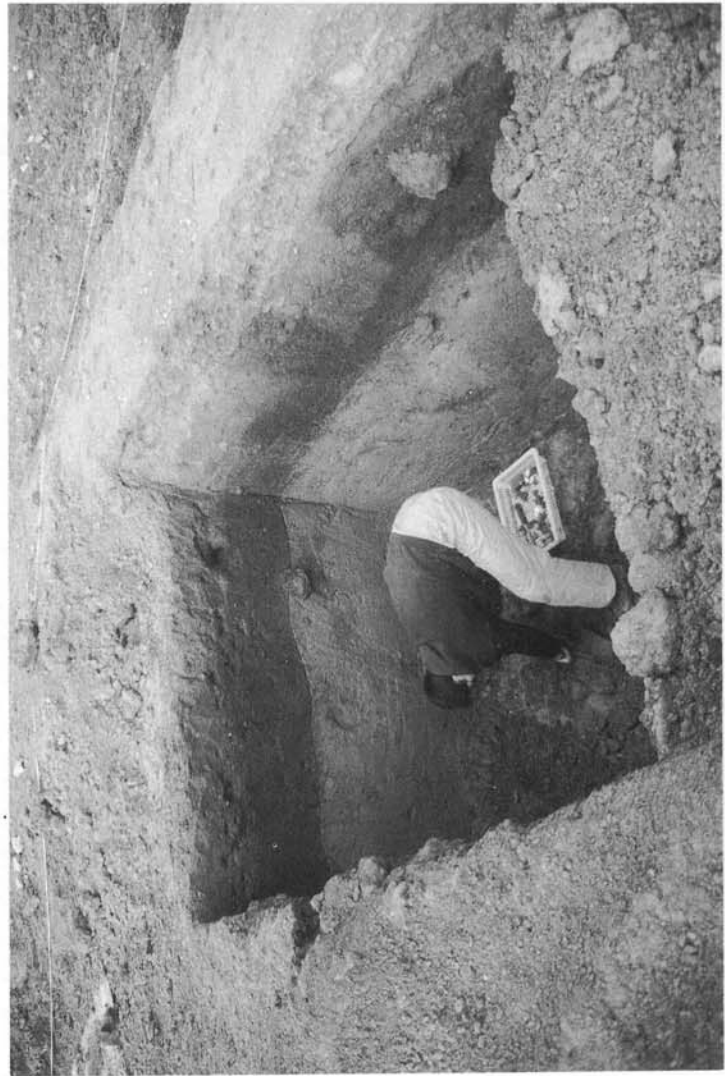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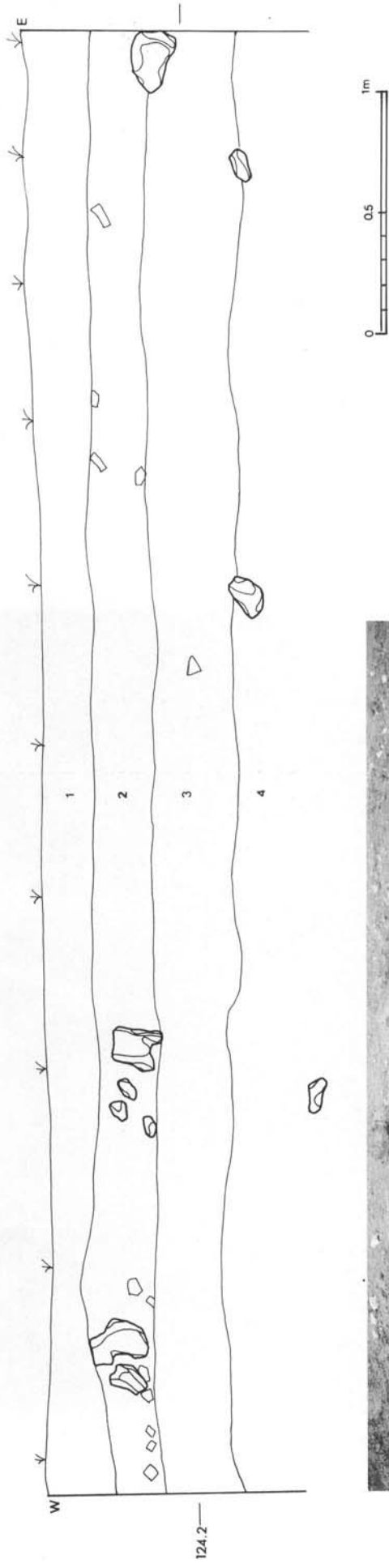
### 2. 동서트렌치(W0) 북편 층위(圖面 6)

이 부분의 층위는 A,B구역을 구분짓는 경계 턱 지점에 형성된 층위로, 양지역의 층위양상을 파악하는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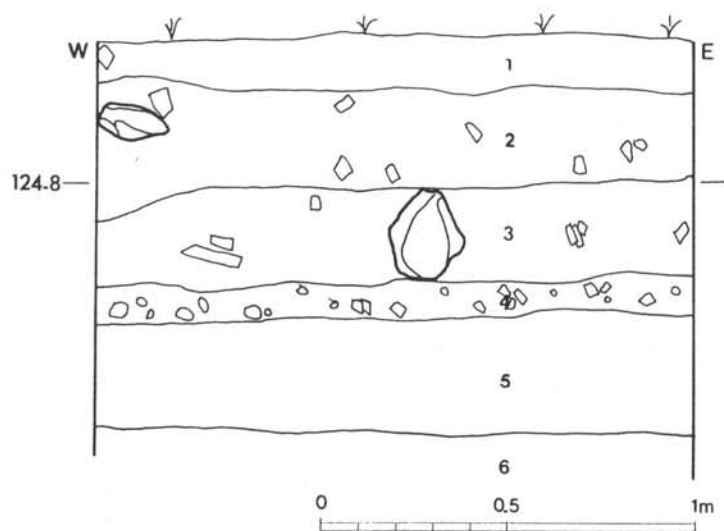
층 위	두께(cm)	層 位	層 位 內 容
1층	5~8	흑갈색	부식토층
2층	18~24	흑갈색	점성이 무른 사질의 점토층. 군데 군데 황갈색 점토가 섞여 있고 기와편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현대 아스콘이 포함되어 있어 현대매립층이거나 교란된 것으로 보인다.
3층	30~33	명갈색	점성이 약간 강한 점토질층. 잡석과 기와편과 동물뼈가 보이며, 목탄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4층	35~37	흑갈색	잔자갈이 다량 함유된 사질토층. 황갈색의 점토가 섞여있고, 기와편과 백자편 소량이 보인다.
5층	50~51	암흑갈색	순수점토질층. 점성이 약간 강한편이며, 목탄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유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6층	73~	황색	생토층

제1층과 제2층은 국민학교 교실을 만들면서 심하게 교란된 지표층이고, 제3층은 일제시대의 유물과 韓末경 유물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층위로, 국민학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층위로 판단된다. 제4층은 출토유물의 종류로 보아 조선후 기정에 해당된다. 이는 A구역의 제2층에 해당하는 층위이다. 결국 이곳의 층위는 조선후기 이후의 문화층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토층의 북편은 거의 조선후기나 한말이후에 모든 시설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圖面 5 EW트렌치(E2)내 테스트피트 층위단면도



圖面 6 EW트렌치(W5)북편 테스트피트 총위단면도

### 3. 동서트렌치의 모든 단면 층위(圖面 7)

층 위	두께(cm)	層 位	層 位 內 容
1층	8~16	송이(붉은 화산재)	현대주차장 설립시 매립토
2층	27~32	흑갈색	점성이 매우 강한 점토질층.
3층	68~	황색	점성이 무르고 고운 층위(무문화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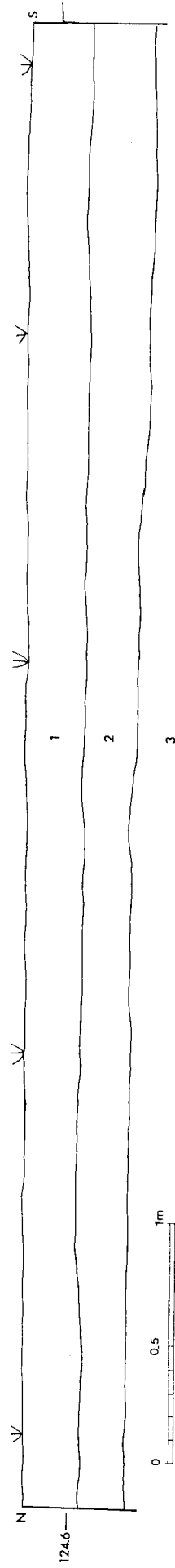
이곳의 층위양상은 前述한 동서트렌치(E1) 동편 테스트피트 단면층위와 같은 층위해석이 주어진다. 대체로 제2층인 흑갈색토층이 무문화층이고 대략 두께가 30cm정도임을 알 수 있다.

### 4. 남북트렌치(E1) 북편 단면 층위(圖面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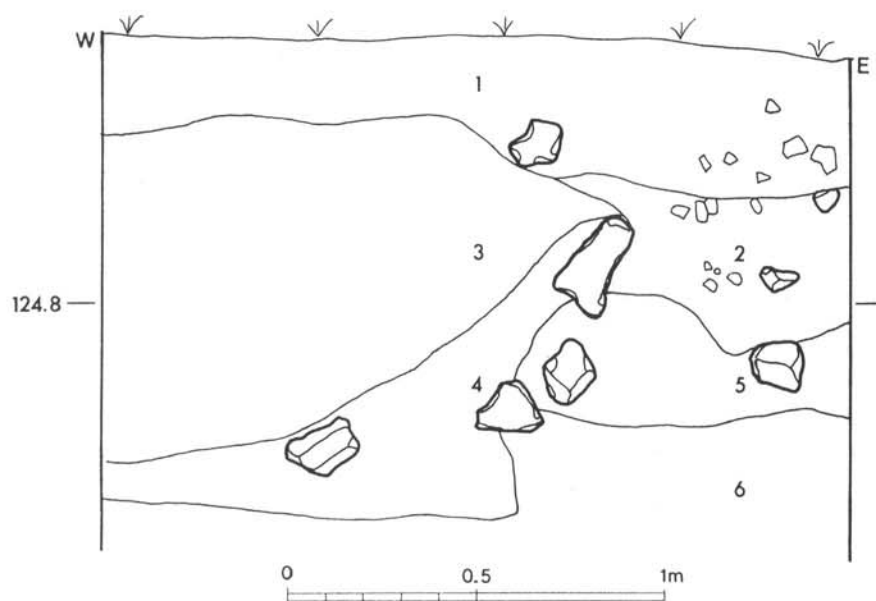
층 위	두께(cm)	層 色	層 位 內 容
1층	9~20	흑갈색	현대 매립층
2층	33~42	흑갈색	현대에 매립된 사질의 부식토층. 현대유물들이 보인다.
3층	23~51	흑갈색	자연석과 자갈, 그리고 기와편이 섞여 매립된 푸석푸석한 층. 조선시대 유물이 일부 확인된다.
4층	35~61	흑갈색	비교적 점성이 무른 사질의 점토층으로 매립된 푸석푸석한층.
5층	48~51	황갈색	점성이 매우 강한 점토질층. 유물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6층	62~	황색	생토층

제1층에서 제3층까지는 교란이 매우 심하게 되었으며, 주된 유물은 현대유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부분적으로 일제시대의 유물이 확인된다. 제4층만이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층위이다. 전체적으로 이 층위는 구덩이 부분의 층위로, 제5층(무문화층)을 파고 시설된 구덩이는 조선후기에 해당하며 다시 후대에 연속해서 쓰레기들이 매립되었음을 보여 준다.





圖面 7 A 구역 E W트렌치(W3) 층위단면도



圖面 8 B구역 NS트렌치(E1)내 테스트피트 총위단면도

## 제 3 장 遺 構

### 제 1절 建物址 (圖面 9; 圖版 1, 2)

건물지는 모두 6개소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건물지는 동일한 장소에 연속해서 시설되면서 자체 파괴되었고 최근 운동장을 만들면서도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태이다.

#### 1. 건물지(1) -조선후기 객사추정 건물지(圖面 10; 圖版 3, 4, 5, 6, 7, 8)

동서트렌치(W1-2)내에서 확인된 건물지이다. 이 건물지는 주변 기단석렬과 초석군 등이 지표와 너무 가까워 거의 파괴된 상태로 조사되었다.

이 건물지는 1)내부성토와 층위, 2)기단과 주춧돌, 3)내부시설, 4)규모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내부성토와 층위

건물지 내부 층위는 바닥면 부위의 토층만이 원래 토층으로 확인되며 상층은 이미 삭토되어 교란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층은 크게 두개의 층위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적석된 건물지 기초는 흑갈색 점토층에 시설되어 있었으며 그 위로 암흑색 부식토층이 덮혀 있었다. 흑갈색부식토층은 지표상에서 교란이 뚜렷한 층위이나, 이 건물지의 主層으로 판단되며, 토층의 평균두께는 대략 30cm미만이다. 테스트피트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제3층인 암흑갈색을 다지고 그위에 적석을 시킨후 1차적으로 흑갈색토를 적석과 함께 다져 성토한 것으로 판단된다.<sup>1)</sup> 그 위에 일정한 시설물 즉, 초석이나 기단석렬을 시설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교란이 심하여 알 수 없다.

##### 2) 기단과 주춧돌

이 건물지의 확실한 기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건물지의 외곽 테두리 쪽으로 자갈한 자연석을 채워 적석한 후 다진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사각형을 그리며 연결되어 있다. 이 일련의 적석군 밖으로 잇대어 기단석렬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2)</sup> 즉 이 건물지의 기단은 직경 20cm 미만의 부정형 제주도 자연석을 이용하여 기단렬 안쪽으로 채우고 밖으로 판석을 사용 축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물지의 초석은 확인되지 않으나 적심석군이 확인된다. 적심석은 일반적으로 초석 하단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원형이나 타원형꼴로 평면적석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積心石은 건물지의 정면부분과 뒷면부분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 있다. 정면부분의 적심석은 총 3칸이 확인되었다. 이 적심석은 모두 원형꼴로 직경 20cm 미만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둥근 테두리를 맞물려 돌리고 그 안에 적석을 시킨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면에 남아있는 적심석간

1) 濟州大學校博物館, 1992, 『濟州牧官衙址』, 제주대학교유적조사보고12집, p.73.  
17-18세기경에 시설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지(9)의 경우, 1차로 지면을 다지고 적석을 시킨후 30-40cm의 황색점토를 다진 흔적이 확인된다. 이는 이 시기의 제주도 관아건축의 일반적인 내부 성토방법으로 여겨진다.

2) 기단석렬 안쪽으로 잡석을 일정하게 채워 다지는 형태는 제주도의 조선시대 건물지 발굴에서 확인된다.

① 濟州大學校博物館, 1993, 『濟州牧官衙址』, 濟州大學校博物館調查報告12, p.74.  
② 濟州大學校博物館, 1992, 『法華寺址』, 濟州大學校博物館調查報告10, p.65  
③ 濟州大學校博物館, 1993, 『尊者庵址』, 濟州大學校博物館調查報告13, p.26.





圖面 9 발굴유구 전체 실측도



의 간격은 3.2~3.4m이고 적심석의 직경은 0.8~1.1m이다. 뒷편의 적심석은 앞서 테두리 안쪽의 적석군 상면에 놓여 있는데 적석군에서 0.8m 가량 안쪽으로 들어와 시설되어 있다. 이 적석군의 직경은 1.2m이고 축조방식은 정면의 적심석과 동일하다. 그리고 건물의 안쪽에서 적심석이라고 여겨지는 원형의 적석군이 5-6개가 확인되는데 그 축조방식이 전자와 모두 동일하여 이 건물지 전체의 칸수와 규모를 기단석렬의 안쪽에 채워 다진 적석군의 테두리와 종합하여 건물지의 전체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

### 3) 내부시설

이 건물지의 내부에서 확인되는 시설물은 건물지 중앙에서 동서방향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할석조 석렬이다. 이 석렬은 동 건물지와 관련된 온돌시설로 판단되나<sup>3)</sup> 유구의 보존상태가 불확실하여 단언하기 어렵다. 내부 중앙부에서 테두리쪽까지는 아무런 적석군이 확인되지 않는다.

### 4) 건물지의 규모

대체적으로 발굴에서 확인된 이 건물지의 현존 테두리는 이미 대부분의 기단부가 파괴되었으나, 동서 17.8m, 남북 12.5m로 추정된다. 잔존하고 있는 동북쪽 맨 모서리 적심석이 기단석렬에서 대략 0.8m의 간격을 두어 안쪽으로 확인되며 정면에 노출된 원형 적심석간의 간격이 3.2~3.4m가 일반적인 기둥칸으로 나타나고, 이들 적심석간의 대칭관계를 환산하면 대략 정면 4칸 혹은 5칸, 측면 3칸 건물로 나타난다.

## 2. 건물지(2) -남북장축의 장방형 건물지(圖面 11; 圖版 9, 10, 11, 12, 13)

이 건물지는 건물지(1)의 남쪽에 위치하며, 건물지(3)과 (4)의 사이에 병렬로 배치되어 있다.

건물지의 내부성토는 황색 점토층과 흑갈색 부식토층으로 나누어 진다. 황색점토층 상면에 흑갈색 부식토층이 교란층으로 확인되었고, 반면에 황색점토층은 소토와 기와, 자기편 등이 혼합된 건물지 성토층으로 확인되었다. 이 층은 건물지의 1차 성토층으로 제주목관아지, 법화사지, 존자암지에서 확인되는 조선전기의 건물지 성토방법과 매우 유사하다.<sup>4)</sup> 이 성토층에서 확인되는 유물 역시 인화분청이 확인되고 있어 그 축조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이 황색점토층 밑으로 얇게 적석층이 일부 확인되었다.

건물지 기단의 석재는 판석과 할석을 혼용하였고, 동서 기단석렬간 거리는 7.0m, 노출된 남북의 길이는 11.5m이다. 서편의 기단석렬은 건물지(3)의 담장벽선과 1m의 간격을 두어 배치되며, 동편의 기단석렬은 건물지(4)의 기단석렬과 맞물려 지나간다. 건물지의 초석은 남아있지 않으며, 적심석만이 확인된다. 이 적심석은 건물지(1)의 적심석 축조방식과 동일하게 자갈한 자연석을 이용하여 원형으로 테두리를 돌리고 그 안에 적석을 한 형태이다. 정면 적심석간의 간격은 2.85m이고, 대략적인 적심석의 직경은 0.8m이다. 또한 측면 적심석간의 간격은 5.0m로 기단석렬 안쪽으로 1m 가량 들어와 있다.

건물지 내부시설로는 건물지 북동편부분에 치우쳐서 판석을 세워 만든 방고래시설이 확인된다. 이 시설물은 건물지의 기단석렬과 동일한 방향으로 축조되어 있는데, 폭 45~50cm, 길이 3m 정도이고, 세워진 판석의 내부 깊이는 40cm 정도 이다. 이러한 시설물은 제주목관아지 건물지(1)에서 확인된 바 있어 건물지 밖에서 불을 때는 경우 연기 통로로서 활용되었던 것이다. 방고래시설은 연기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기위해 판석통로 상면에 덮개용 판석을 덮는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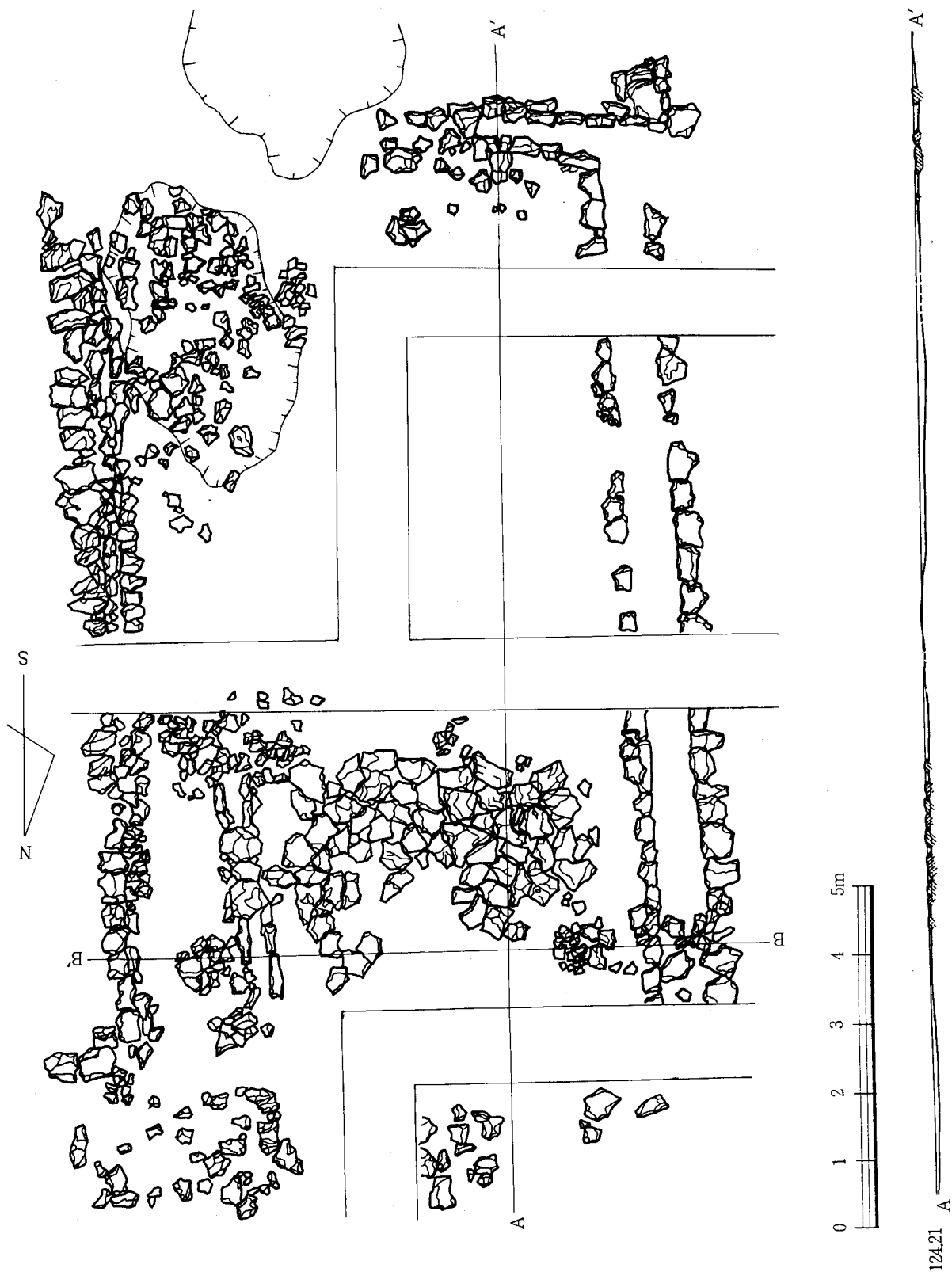
3) 제주대학교박물관, 1993, 『제주목관아지』,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12, p.65.

제주목관아지 발굴에서 건물지(1)의 경우 내부중앙에 남북으로 길게 관통하는 온돌시설이 확인되었다. 이 온돌시설은 판석을 세워 만든 시설물로 내부에서 재층이 확인되었으나 이곳 성음 객사지에서는 유구의 형태는 비슷하나 재층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4) 註(2)의 前掲書.



124.21 B



圖面 11 건물지(2) 실측도

일반적이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덮개판석은 3매가 확인되었다(도판 11, 12-1). 이 방고래시설과 잇대어 서편으로 5~7cm 두께의 薄石을 사용하여 동일레벨로 깔아 놓은 일련의 敷石施設이 확인된다. 부석된 범위는 동서 4.6m, 남북 3.1m이다. 이 부석시설은 건물내부 구들장 시설로 판단된다. 이외에 건물지 남쪽으로 폭 50cm 정도의 동서 배수로 시설이 확인된다. 후대에 만들어진 기와 매립구덩이가 내부에서 확인되어 건물지 정면쪽은 파손이 심한 상태이다.

남아있는 기단석렬과 적심석간의 간격으로 미루어 이 건물지의 규모는 남북장축의 긴 건물로, 그 연장이 11.5m 이상 되는 정면 4칸이상, 측면 1칸이상 되는 건물로 판단된다.

### 3. 건물지(3) (圖面 12; 圖版 14, 15, 16, 17, 18, 19)

건물지(2)의 서편으로 1m 간격을 두고 동일한 방향으로 나란히 시설되어 있다. 건물지의 층위는 황색생토층위에 막바로 흑갈색층이 쌓여 있었으며 이 층위에 유구층이 포함되어 있었다. 건물지 바닥에서는 판석과 할석을 서로 맞춰 敷石한 시설이 나타났다. 마당의 동쪽과 서쪽 끝은 2매의 할석을 서로 맞물려 내벽과 외벽이 정연하게 마감되어져 있다. 그 폭은 80~85cm이다. 이러한 축조 방법으로 보아, 이는 건물 담장벽의 기초석렬로 여겨진다. 이 시설은 건물지 내부의 부석레벨보다 10~20cm가량 높게 시설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담장벽 기초시설 안쪽으로 바로 부석시설이 만들어져 있다.

건물지 내부의 부석시설은 평평하게 다져진 상태이다. 건물지 내부 부석틈새는 잔자갈과 굵은모래로 채워넣어져 있다. 이 부석시설의 북쪽끝은 건물지(1)의 정면 기단석렬과 맞물려 있고, 맞물려 축조된 시기는 건물지(1)의 축조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건물지(1)과 건물지(3)의 중복관계는 두가지의 해석방향이 주어진다.

첫째는 건물지(1)과 건물지(3)이 동일시기에 만들어진 것인가?, 둘째는 양자 건물지가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을 경우, 건물지(3)은 건물지(1)의 마당시설로 재이용되어졌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첫째 해석은 인접 건물지(2)와 건물지(4)의 방향과 동일하게 건물지(3)이 시설되어져 있고 모든 시설이 병립상태에 있어 이들 세개의 건물지는 동일시기로 판단된다. 18세기초 탐라순력도의 그림에서도 9칸문집(倉庫)과客舍 사이에는 아무런 시설이 확인되지 않으며 앞서 건물지(2)의 성토층 출토유물이 모두 분청사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건물지(1)이 후대에 만들어진 건물지임을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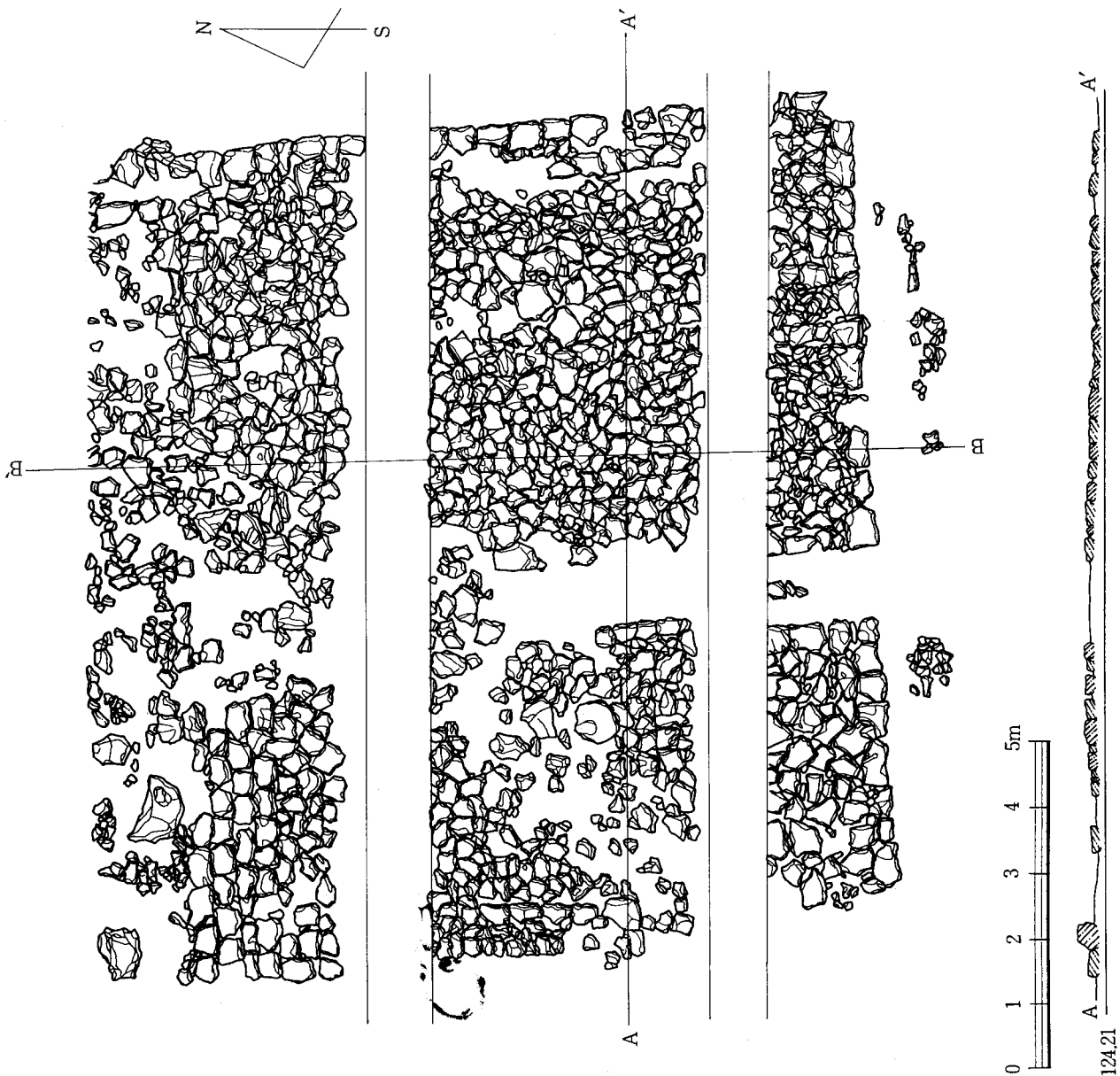
둘째 해석은 일단 잘 만들어진 건물지(3)의 부석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마당시설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 이유는 건물지(1)의 정면기단석렬과 건물지(3)의 후면 기단석렬이 동일높이에서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점과 건물지 바닥시설간의 레벨차가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여하튼, 내부 부석시설은 후대에 대부분 파손된 상태인데, 북동쪽에서부터 남서쪽끝을 가로지르는 폭 1.1m의 오수관매립구덩이에 의해 교란되어 있다.

현재 노출된 이 건물지는 거의 방형이며 담장벽을 포함하여 동서길이 11.5m, 남북길이 10m로 推算된다.

### 4. 건물지(4) (圖面 13; 圖版 20, 21, 22, 23, 36, 37, 38)

건물지(2)를 사이에 두고 건물지(3)과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시설되어 있다. 건물지의 성토상태는 건물지(3)과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건물지(3)과는 달리 부석된 평면 상태가 다소 고르지 못하며, 사용된 석재도 자연석을 주로 사용하여 축조되어 있다. 건물지(1)의 동쪽 기단석렬과 완전하게 접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건물지의 남쪽부분은 비교적 잘 맞물리게 마감하였으나 북쪽 기단석렬은 거의 파괴된 상태이다. 건물지 동편 기단석렬은 완전히 파손된 상태이고 이곳에는 후대의 기와매립구덩이가 들어서 있어 교란도 심하다. 이 건물지의 전체 규모는 동서 19.0m, 남북 11.2m이다.



圖面 12 건물지(3) 신축도





圖面 13 건물지(4) 실측도

## 5. 건물지(5)(圖面 14; 圖版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건물지(4)의 남쪽부분에서 0.7m 간격을 두고 동서로 길게 나타나는 건물지이다. 현재 노출된 상태로 볼 때는 동서로 길게 배치된 건물지로 판단되나, 매우 심하게 교란된 상태이다. 이 건물지는 남쪽과 동쪽 기단석렬만이 일부 잔존해 있다. 나머지 석렬은 후대에 만들어진 건물지(6)과 여러 시설물이 축조되면서 계속적으로 파괴되었다. 특히 이 건물지 서편내부에는 기와매립 구덩이들이 들어서 있다. 남아있는 북쪽석렬의 길이는 4m정도, 남쪽석렬은 2m로 극히 일부가 남아있다. 건물지 내부성토는 상층에서 소토가 섞인 부드러운 황갈색점토가 확인되고 그 아래로 자갈층(자갈+잡석혼합층)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건물지 성토순서는 자갈층-점토층으로 2차 성토한 흔적이 확인된다. 내부시설로는 방고래시설과 잡석을 채워넣은 바닥다짐 시설이 있다. 온돌시설물은 건물지의 중앙에서 남북방향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파손이 심하여 원래 길이는 알 수 없으나 폭은 50cm정도이다. 할석을 사용하여 일정하게 세워 축조된 이 시설은 건물지(2)의 내부온돌시설과 축조방법이 유사하다. 화구는 남쪽으로 판단되며 연도 내부에서는 소토가 다량 확인된다.

이 건물지는 전체의 파손상태가 심하여 그 규모를 알 수 없으나, 성토방법이나 내부시설 등의 축조방법이 건물지(2)와 동일하여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또하나의 동서장축 건물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 6. 건물지(6)(圖面 15; 圖版 24, 25, 26, 28)

건물지(2),(3),(4)의 남쪽부분에서 2.5m 간격을 두고 동서 방향으로 길게 확인된 건물지이다. 그러나 이 건물지는 현대화장실, 일제시대대 시설된 시설물, 후대의 기와매립구덩이 등에 의해서 크게 파손된 상태이고 또한 건물지(5)와 중복되어 시설되어 있다.

이 건물지는 소규모 테스트피트에서 확인한 결과, 황색생토층위에 두께10-12cm 미만의 자갈+잡석층을 다지고 그위로 소토와 기와편이 섞인 점성이 고운 흑갈색점토를 단단히 다져 건물지 내부를 성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이 건물지의 초석은 정면기단석렬 중앙부에 1개만이 남아있을 뿐이며, 그외의 초석은 모두 없어졌다. 적심석은 정면 중앙에서 대략 3개지점이 미미하게 확인되는데, 원형적심석이 아닌 부정형 적심석군이다. 그 간격은 3.0m정도이다. 현재 남아있는 기단석렬은 건물지 북서편과 남쪽 중앙, 그리고 동편부분에서 확인된다. 먼저 북서편 기단석렬은 12.0m, 중앙부분은 7.2m, 동편부분은 5m이다. 이 건물지의 기단석렬은 모두 판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판석은 곧추 세워 맞물려 축조되어 있다. 이 석렬안쪽으로 잡석을 채우는 방식은 다른 건물지와 동일하나 세워진 기단석렬의 판석을 보강하기 위해 단단히 맞추어 끼워져 있다.

특히 건물지 북서편기단석렬 안쪽 1.3m 지점에서 남쪽으로 마감한 일련의 석렬이 확인되었다. 노출된 석렬의 길이는 5.5m로 잘 다듬은 판석 9매를 짜맞춰 세워 축조되어 있으며 앞면의 기단석렬보다 60cm가량 올라온 둔턱시설이다. 그러나 이 석렬을 맞춘 방향이 기단석렬과 엇갈려 있어 정면에서 바라보는 방향은 남쪽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주목된다. 탐라순력도의 그림에 의하면 이 석렬의은 흑, 문지 시설의 일부가 아닌가 한다.

건물지 내부에 일정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前述했듯이 후대에와서 교란이 심한 상태이기도 하다.

현재 조사된 이 건물지의 적심간의 간격, 기단석렬의 잔존길이를 판단할 때 이 건물지는 동서장축이 긴 건물지로 정면 9칸, 측면 1칸으로 추정되며 전체 건물지의 규모는東西 28.5m, 南北 6m의 규모로 환산된다.

124.21 B



圖面 14 건물지(5) 신축도



124.21

C



C'

6.0m



C'

6.0m



C'

6.0m



C'

6.0m



C'

6.0m



C'

6.0m



C'

6.0m



C'

6.0m



C'

6.0m



C'

6.0m



C'

6.0m



C'

6.0m



C'



124.21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圖面 15 건물지(6) 실측도

## 제 2절 其他施設

### 1. 積石施設

#### 1) A구역 동서트렌치(E0,1)내 적석시설(圖面 16; 圖版 36, 37, 38)

이 트렌치내에서는 흑갈색층내부 즉, 황색생토층상면에 일률적으로 제주도 자연석으로 이루어진 적석군들과 적심석, 기단석렬 일부가 확인되나 유구들 자체가 정형성이 거의 없거나 완전 파괴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건물지군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건물지의 규모나 성격은 알 수 없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건물지 관련시설물은 건물지(1)과 잇대어 확인되는 2개의 적석군(도판 38-①)과 테스트핏트(1)에서 확인되는 남북방향의 적심석군(도판 38-②), 그리고 건물지(4)의 북서편에서 확인되는 길이 2.2m의 잔존 할석형 기단석렬(도판 37-①,②) 등이 있다.

#### 2) B구역 남북트렌치(W1, 2, 3, 4)내 적석시설(圖面 17; 圖版 47, 48, 49, 50)

학교 건물이 자리했던 서북편인 남북트렌치(W1,2,3,4)에서 확인되었다. 불규칙한 크기의 적석군이 황색점토층위로 시설되어 있다. 적석범위는 길이 5.10m, 깊이 1.50m의 불규칙한 타원형으로 매립되어 있었다. 타원형 적석부의 동편으로 매립 웅덩이가 확인되는데, 이 웅덩이에서는 콘크리트부수리기와 철제류, 플라스틱류, 연탄재 등의 각종 쓰레기가 확인되어, 학교건물과 관련되었거나 그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매립웅덩이 아래층(흑갈색점토층)에서 도기항아리 1개체분(도면 40-①; 도판 76)이 원상대로 출토되어, 적석시설의 최초 구덩이 굴착은 적석시설과 동일시기로 여겨진다.

또한 土層確認 결과, 이 적석시설은 현재 토층상 흑갈색점토층 상면에 막바로 놓여 있는 상태이다. 적석군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후기백자편 일색으로 아마도 이 적석군은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朝鮮後期에 간략한 시설물을 만들고 나서 그 주변으로 큰 웅덩이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B구역 남북트렌치(E1)내 적석과 구덩이 시설(圖面 18; 圖版 52,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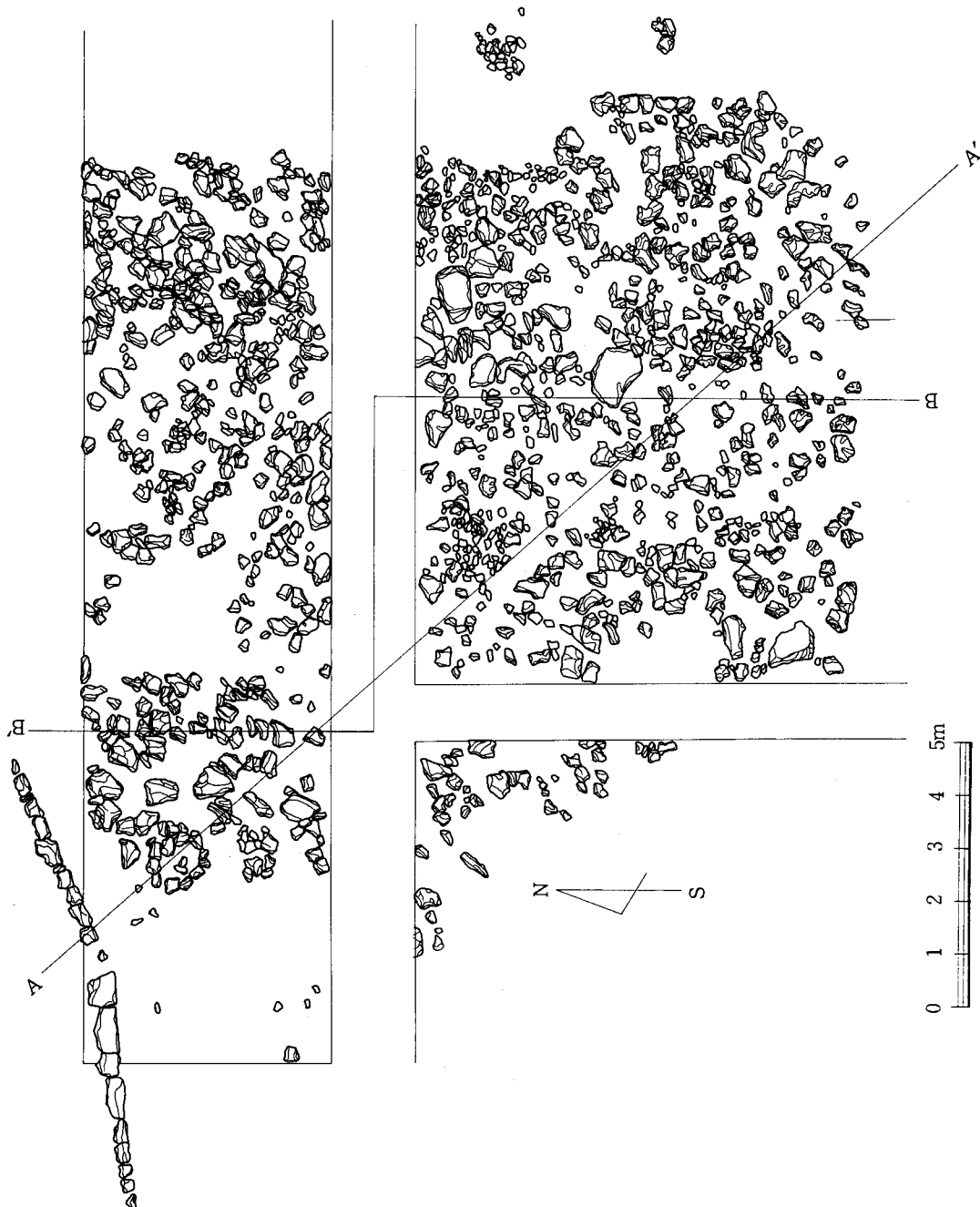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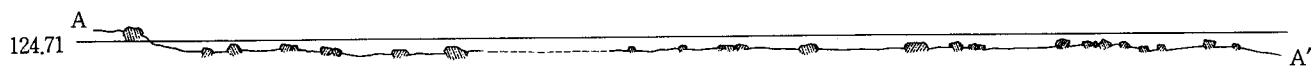
이 트렌치에서는 교란층 구덩이와 두께 70cm 이상의 적석층이 확인되었다. 트렌치 중앙부는 학교건물의 콘크리트 기초시설을 만들면서 거의 파괴되었고 트렌치의 북편에서 대형의 자연석으로 울퉁불퉁한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 암반층 레벨은 지표아래 30cm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이 트렌치에서는 암반층 레벨이 중앙부에서 급격히 떨어져 내려가며, 트렌치 남쪽끝 부분과의 암반레벨차는 2m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同트렌치 발굴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간추려 보면, 암반층이 레벨차가 심하고 암반층이 내려간 부위에서 구덩이와 적석이 매립되고 매립된 적석다움에 대형구덩이가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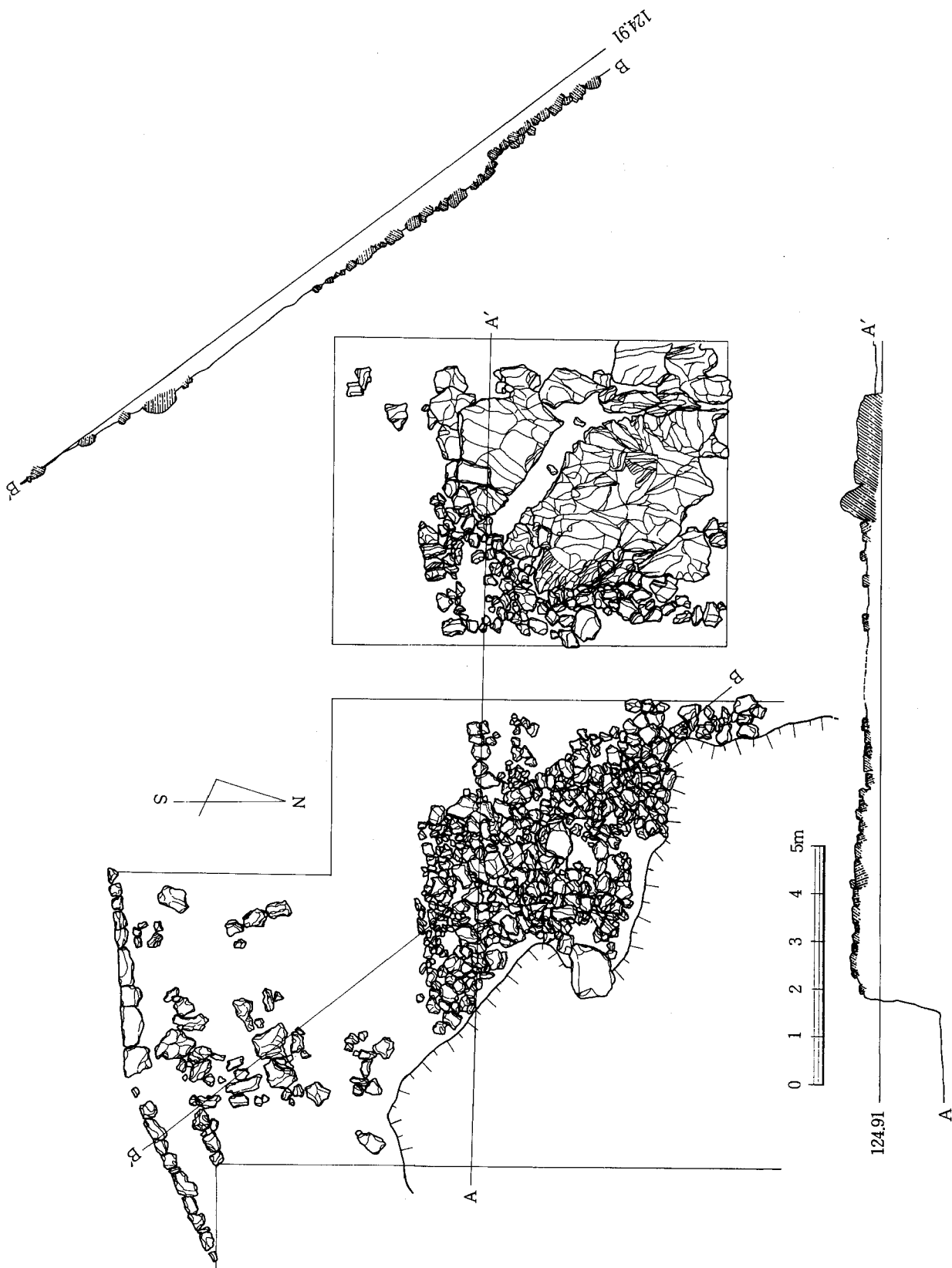
#### 4) B구역 남북트렌치(E5, 6)내 적석시설(圖面 19; 圖版 54, 55)

이 트렌치 역시 B구역의 다른 트렌치 유구 상황과 마찬가지로 적석시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트렌치 내부의 적석군과 다른 트렌치의 적석군은 B구역 전체 상황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타원형의 대형매립구덩이 밖으로 적석군이 불규칙하게 둘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插圖4.B구역 대형구덩이 추정도 參照).

트렌치내부의 적석은 대략 지표하 30cm에서 35-60cm의 두께로 약간의 높이차를 보이며 적석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석렬로 이어지나 전체적으로 매우 불규칙하게 적석되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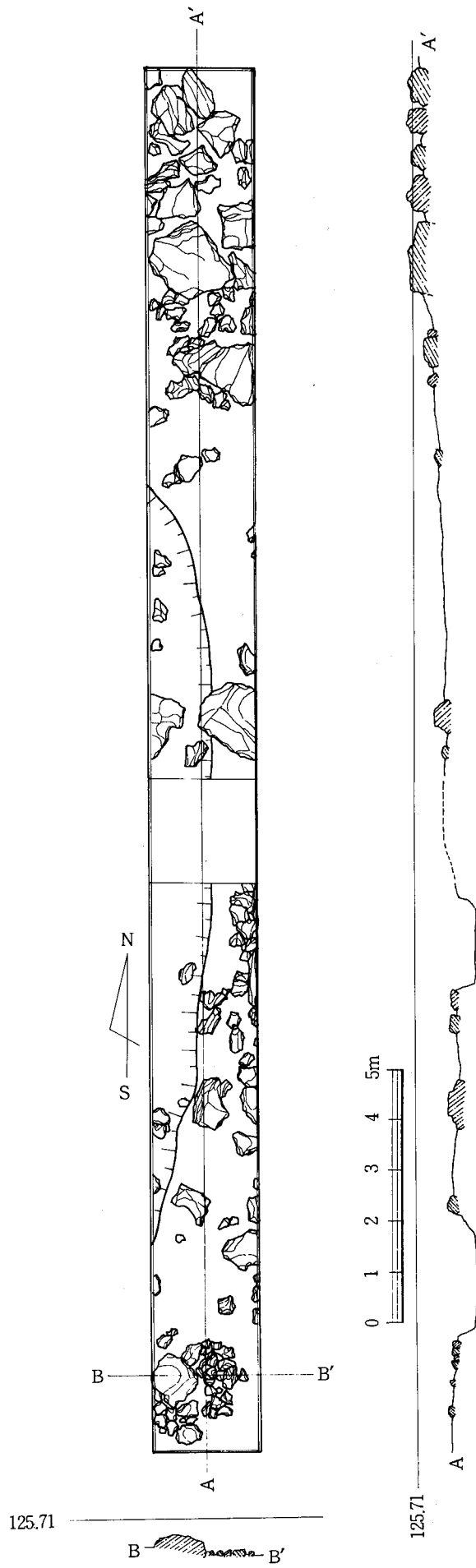


圖面 16 건물지(4) 북편 유구층 적석 실측도



圖面 17 B구역 적석유구 시축도





圖面 18 B구역 N트렌치(E1) 실측도



圖面 19 B 구역 N S 트렌치(E5) 실측도

## 2. 담장자-축대기초시설(圖面 9; 圖版 35)

마당시설물(5)가 끝나는 남동쪽모서리에서 동편으로 5.2m에 위치한다. 남북방향으로 지나가는 석렬이 확인되나 이미 많은 부분이 파괴되어 있다. 담장은 다듬지 않은 직경 50cm 정도의 자연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는데 현존길이는 3.30m이다. 담장석렬의 동편으로 상당한 크기의 매립층이 확인된다. 이 부분에는 주춧돌군이 무더기로 매립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원래 경사진 지형을 매립하여 동일 높이로 만들기위해 사용한 축대시설의 기초석렬로 판단할 수 있다.

## 3. 기와 매립구덩이

### 1) 기와매립구덩이(1)(圖面 11, 14; 圖版 41, 42, 43)

건물지(5) 내부의 적석층에서 확인되었다. 기와가 타원형 구덩이 안에 다량으로 매립되어 있는데 일시에 매립한 것으로 보인다. 매립구덩이의 크기는 장축 5.12m, 단축 3.18m이다. 구덩이의 깊이는 65cm 정도이다. 구덩이 내부에서 白磁片, 「南山」銘瓦片 등과 日本銅錢(大正 8年 發行), 벼루 등이 출토되었다.

### 2) 기와매립구덩이(2)(圖面 11, 14; 圖版 41, 42, 43)

매립구덩이(1)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다. 장축 4.25m, 단축 3.18m이다. 건물지(1)의 성토층을 45cm 가량 파고 들어갔으며, 기와보다는 잡석 매립량이 많다.

### 3) 기와매립구덩이(3)(圖面 13; 圖版 44)

건물지(4)의 남동쪽 끝부분에 위치한다. 數石된 부분을 파고 들어간 타원형 매립구덩이로 폭 2.70m이다. 부석상면에서 약 45cm 가량 파고 들어갔다. 구덩이내부에서 白磁片, 「南山」銘瓦片 등이 출토되었다.

## 4. 현대배수시설-污水管 매립구덩이(圖面 10, 11; 圖版 39, 40)

동서트렌치(E0)에서 확인된 污水施設에서 건물지(1)과 건물지(3)을 북동-남서로 관통하는 하수관이 묻힌 배수구덩이선이 확인되었다. 이 구덩이는 잡석이 불규칙하게 매립된 상태였고 건물지(1)과 건물지(3)의 유구를 상당히 파괴하고 시설되어 있다.

## 제 4 장 出土 遺物

### 제 1 절 기 와

객사지에서 출토된 기와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막새류와 전류의 출토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기와편들은 주로 폐와구덩이에서 출토되었으며 기타 건물지내부와 건물부속시설지에서 출토된 기와들은 극히 소수였다.

#### 1. 銘文瓦

명문기와는 도합 8종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폐와구덩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간지가 시문된 기와가 많이 출토되었으며 일반적인 평기와와의 점유비율은 2:8정도였다.

##### 1) 「甲〇六西山」銘瓦(圖面 20-①; 圖版 56-①)

암기와의 등에 銘文을 시문하였다. 명문은 右書로 陽刻되었다. 명문과 명문사이에는 폭 1.2cm의 격자문 문양대가 시문되었고, 명문이 시문된 상단에는 파상문이 시문되었다. 기와 하단부에는 손으로 눌러서 돌린 2줄의 함몰대가 존재하는데 물손질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기와의 전면에는 부분적으로 손으로 눌린 흔적이 여러곳에서 확인된다. 측면 절단흔은 미세하게나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절단한 흔적이 있다. 후면은 미세한 마포흔적과 횡방향으로 나타나는 1줄의 음각선이 있다. 색조는 암갈색이며 두께 2.3cm이다. 소성도가 높다.

##### 2) 「庚衣式尾周」銘瓦(圖面 20-②; 圖版 56-②)

타원형 圓文이 겹겹이 시문된 기와의 사이에 銘文이 조잡한 형태로 시문된 기와이다. 銘文부 위로는 格子文, 밑으로는 파상문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명문은 右書로 陽刻되었다. 후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예세처리된 흔적과 마포를 접칠 때 나타나는 연체흔이 있다. 색조는 회색이며 두께 2.9cm이다. 소성도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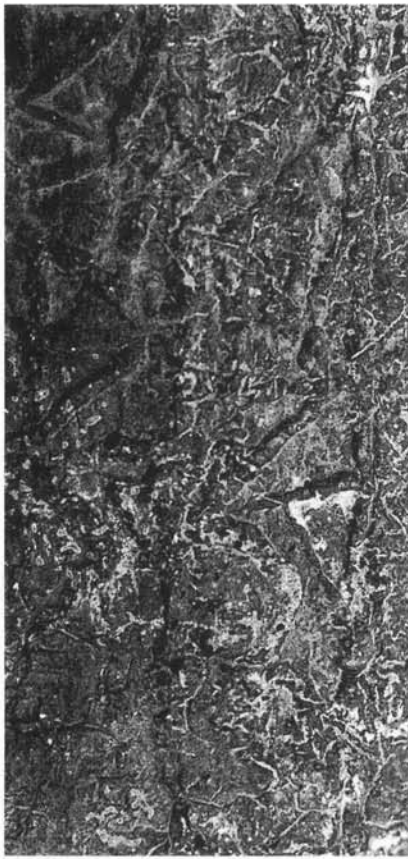
##### 3) 「甲子申二月」銘瓦(圖面 20-③; 圖版 56-③)

기와전체가 銘文으로만 이루어졌고 기와의 크기가 가장 큰 암기와이다. 기와상단 4.5cm밑으로부터 명문이 시문되었는데 左書로 양각되었다. 명문이 시문된 기와 전면에는 일부 예세흔과 빗질흔, 마포흔이 존재한다. 측면의 절단흔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른 흔적이 일부에 남아있다. 후면은 미세한 포흔과 함께 예세흔이 남아있다. 색조는 회청색이며 두께 2.4cm이다. 소성도가 높다.

##### 4) 「〇道山造〇」銘瓦(圖面 21-①; 圖版 57-①)

銘文으로만 구성된 숫기와이다. 명문은 右書로 陽刻되었으며 위에서 아래로 일렬로 반복해서 배치되었다. 銘文이 있는 기와의 전면은 예세로 날카롭게 긁힌 흔적이 많이 보인다. 측면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절단한 흔적이 절반정도 남





1. 복합명문



2. 「庚衣式尾周」銘瓦



3. 복합 명문



4. 「甲子申二月」銘瓦



5. 「金○」銘瓦

插圖 1 정의현객사지 출토기와의 명문(1)



6. 「〇道山造〇」銘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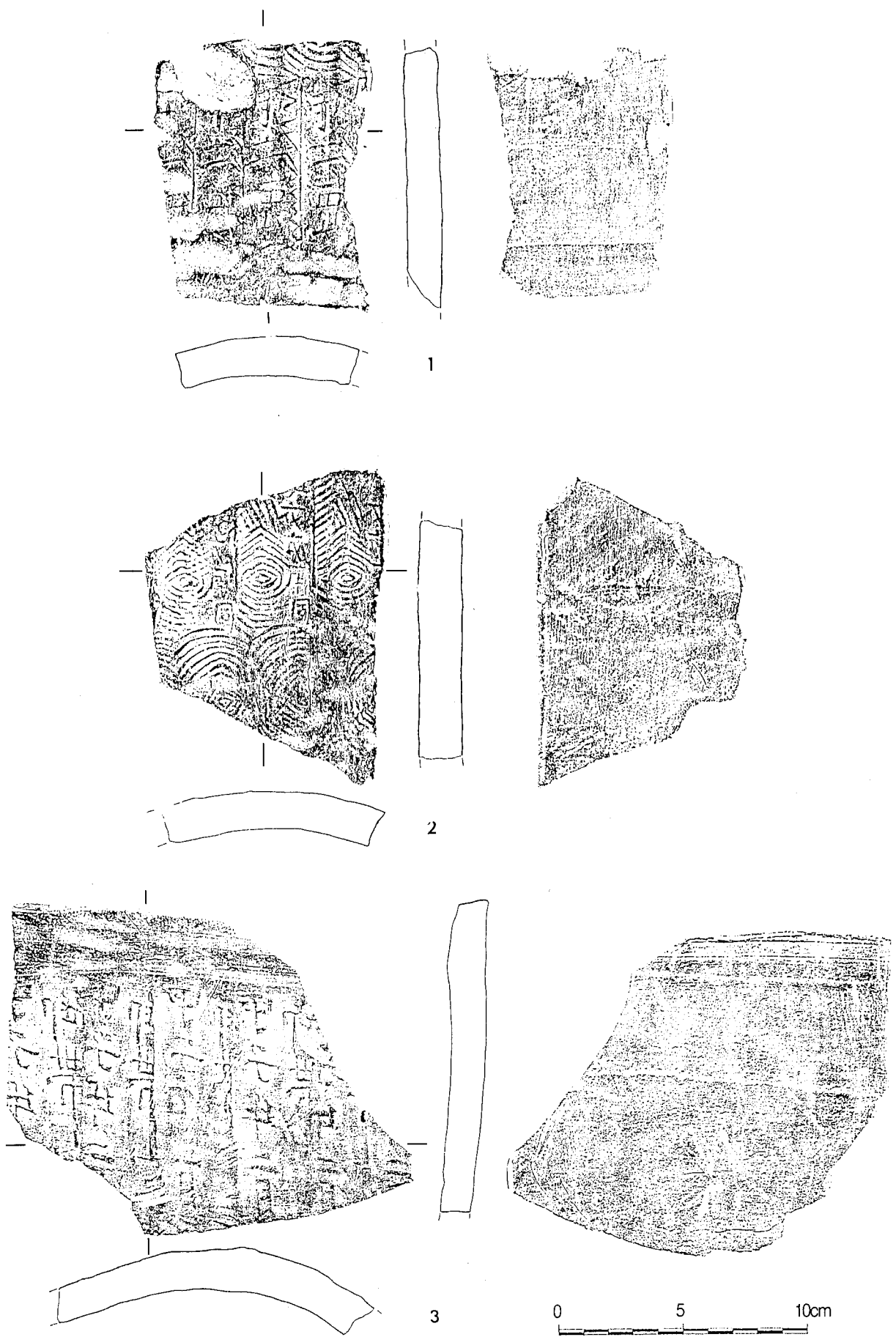


7. 「甲〇六西山」銘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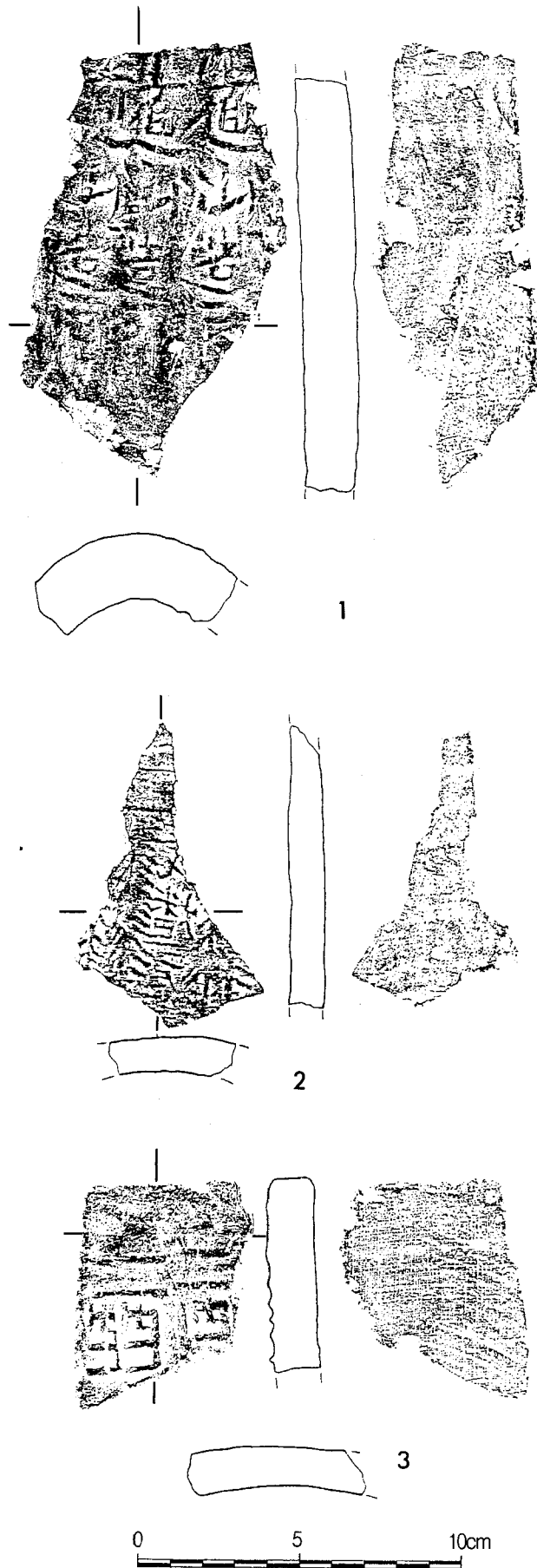


8. 「酉」銘瓦

插圖 2 정의현 객사지 출토기와의 명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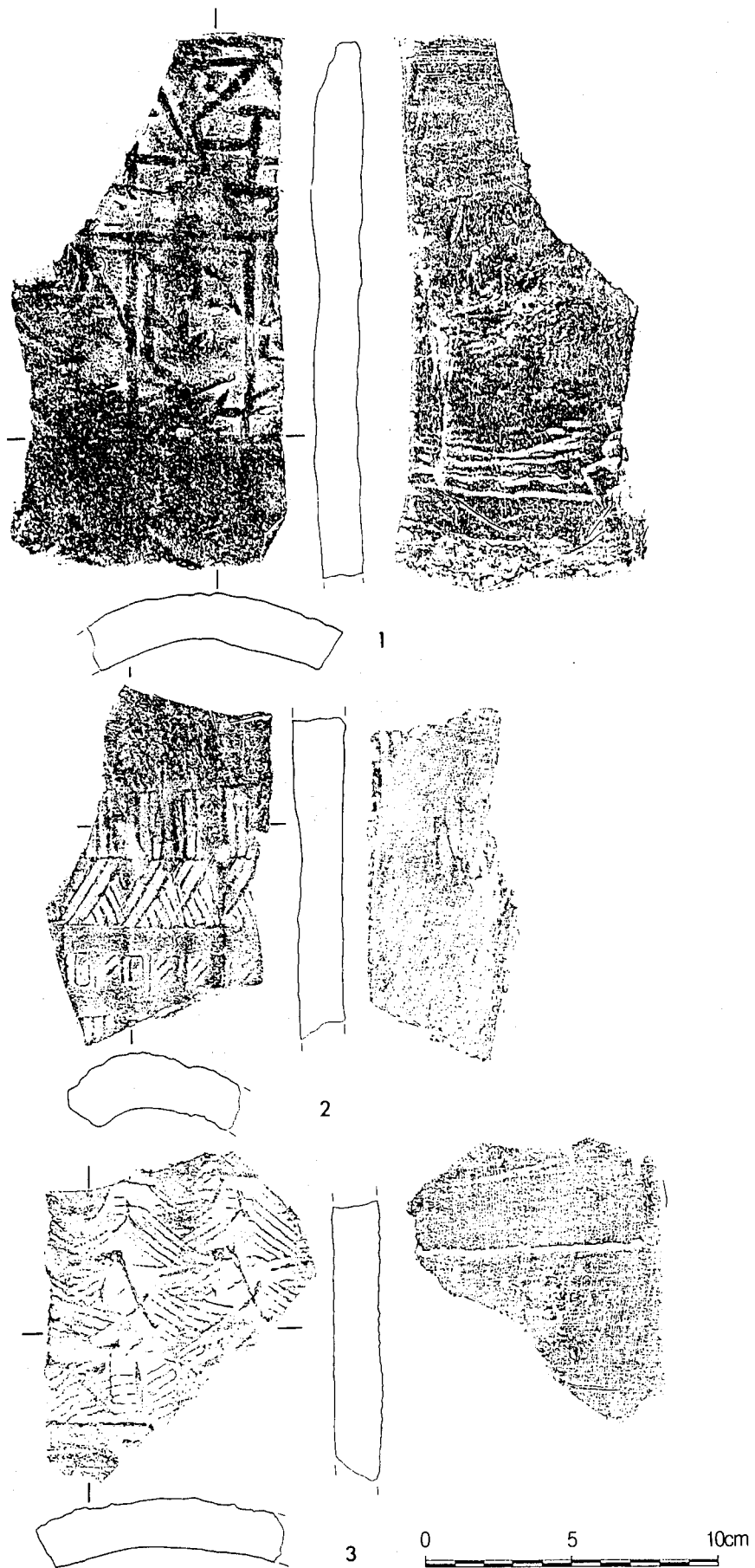


圖面 20 정의현 객사지 출토 명문기와(1)



圖面 21 정의현 객사지 출토 명문기와(2)





圖面 22 정의현 객사지 출토 명문기와(3)

아있다. 후면은 미세한 포흔과 함께 마포를 연결한 세로방향의 세장한 흔적과 물손질흔적, 그리고 기와가 파손된 부분과 양쪽측면에 제작시부터 생긴 타날흔이 있다. 색조는 적갈색이며 두께 2.5cm이다. 소성도가 높다.

#### 5) 「○槽○」銘瓦(圖面 21-②; 圖版 57-②)

수지문가지의 사이사이에 銘文이 시문된 기와이다. 명문은 右書로 陽刻되었다. 기와상부로부터 6.0cm까지는 아무런 문양이 시문되지 않다가 굽기 0.2cm의 양각돌출선이 기와굽은면을 따라 3줄 시문되었다. 이 부분은 물손질처리를 하였다. 수지문 중심선간의 간격은 4.4cm이다. 기와의 후면은 미세한 마포흔적이 있으며 예새처리한 부분이 간혹 확인된다. 색조는 회청색이며 두께 1.7cm이다. 소성도가 높다.

#### 6) 「酉」銘瓦(圖面 21-③; 圖版 57-③)

명문기와로 구분하였으나 酉字와 비슷한 도형인지는 확실치 않다. 銘文은 우서로 양각되었다. 두께 0.3cm내외의 굽은 선으로 처리된 다소 투박한 느낌을 주는 기와이다. 명문의 바로 위로는 굽기 0.3cm의 양각돌출선이 횡방향으로 시문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확인되지 않았다. 후면은 미세한 포흔과 함께 예새흔이 있다. 색조는 회색이며 두께 2.0cm이다. 소성도가 높다.

#### 7) 「金○」銘瓦(圖面 22-①; 圖版 58-①)

金字 외에 다른 銘文이 있으나 파편인 관계로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두께 0.6cm의 두꺼운 선으로 명문을 처리하였다. 명문은 세로로 陽刻되어 시문되었으며 한 글자당 시문폭은 가로 세로의 크기가 7×8cm이다. 기와가 지붕에 놓이는 방향과 역방향으로 명문이 시문되었다. 명문이 있는 기와 전면에는 물손질한 흔적이 있다. 측면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절단한 절반정도의 절단흔이 있다. 후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있다. 기와의 측면에 일부 마포흔이 있으며, 기와 양끝면에 빗질흔, 예새흔, 뚜렷한 모골흔이 남아있다. 색조는 회갈색이며 두께 2.3cm이다. 소성도가 높다.

#### 8) 「?」銘瓦(圖面 22-②; 圖版 58-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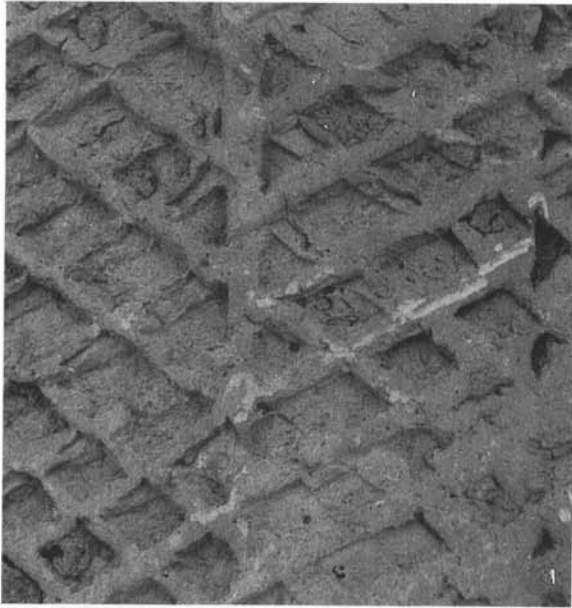
숫기와에 銘文이 시문된 기와이다. 확인된 명문은 한글자이나 파악이 불가능하다. 기와중앙부에 4.5cm정도의 명문을 둘러싸는 테두리가 설정되었고 명문은 그 내부에 기와가 굽은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시문되었다. 명문을 둘러싼 테두리 외부에는 사선문 문양대와 종선문 문양대가 시문되었다. 종선이 시문된 기와의 일부에는 미세한 마포가 눌린 자국이 남아있다. 기와 후면에는 마포흔적이 남아있다. 색조는 회청색이며 두께 2.5cm이다. 소성도가 높다.

## 2. 평기와

평기와는 압, 숫기와가 거의 반반정도씩 출토되었다. 건물지주변에서 출토된 평기와는 극소수였고 대부분 폐와구덩이에서 출토되었다. 평기와의 등문양별로 구분한 종류수는 그리많은 편이 아니었다.

### 가. 압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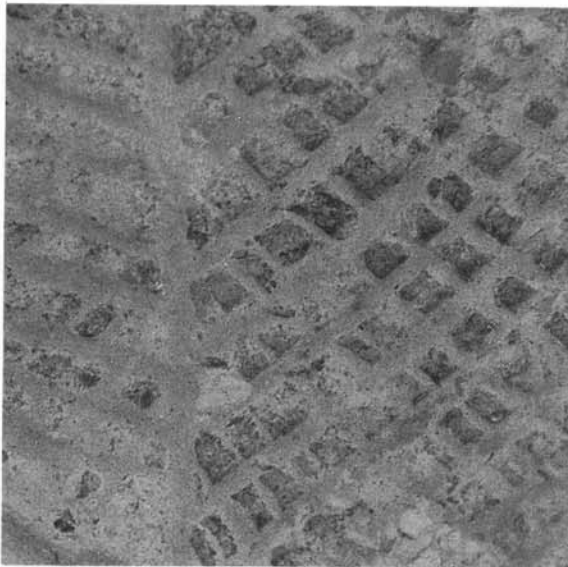
압기와의 종류는 그다지 많지가 않았다. 동일한 등문양일 경우라도 문양을 처리한 선의 굵기나 개별기와의 같은 특징적인 요소에 의해서 세분시켰다.



1. 격자문



2. 선문



3. 격자문



4. 수지문



5. 복합문



6. 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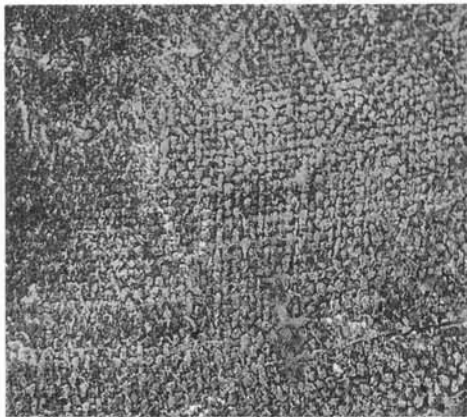
插圖 3 정의현 객사지 출토기와의 제작수법(1)



1. 손누른 흔적



2. 분할도 흔적



3. 마포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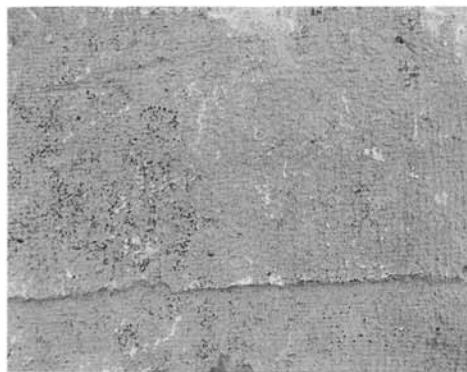
4. 예새흔적



5. 모골흔적



6. 찰과흔적



7. 연체흔적



8. 물손질흔적

插圖 4 정의현 객사지 출토기와의 제작수법(2)



1) 線文암기와(1)(圖面 23-①; 圖版 59-①)

방향이 일정치 않은 두께 0.1cm내외의 線文이 난잡하게 시문된 기와이다. 線文사이사이에 보이는 0.3cm 두께의 線文은 흑 銘文으로도 보이나 아직은 다른 기와편을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확실치 않다. 측면 절단흔은 내측 일부에 남아있다. 후면은 마포 흔적과 함께 모골흔 혹은 마포를 이었던 흔적으로도 보이는 1조의 횡선대가 있다. 색조는 회갈색이며 두께 2.4cm이다. 소성도가 낮다.

2) 線文암기와(2)(圖面 23-②; 圖版 59-②)

기와가 굽은 면을 따라 두꺼운 線文이 시문되었고 일부는 사선방향으로도 線文이 시문된 기와이다. 선의 굵기는 0.5cm에 이르는 태선이다. 측면 절단흔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른 흔적이 절반정도 남아있다. 후면은 마포흔적이 없으며 예새처리된 흔적이 남아있다. 색조는 회갈색이며 두께 2.5cm이다. 소성도가 낮다.

3) 線文암기와(3)(圖面 23-③; 圖版 59-③)

4~5줄의 線文이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교차하도록 시문된 기와이다. 문양이 심하게 마모된 상태로 존재한다. 문양의 바로 윗부분부터 기와상부까지는 질과 같은 물체에 의해 심하게 눌리고 굽힌 상처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측면 절단흔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른 흔적이 절반정도가 남아있다. 후면에는 미세한 포흔과 함께 예새흔, 모골흔이 있다. 색조는 갈색이며 두께 2.7cm이다. 소성도가 낮다.

4) 수지문암기와(1)(圖面 23-④; 圖版 59-④)

수지문 문양이 다소 변형된 형태로 시문된 기와이다. 기와상단 9.8cm까지는 기와가 제작된 후 일부러 문양을 지운 흔적이 확인된다. 수지문 선의 굵기는 0.1~0.4cm까지로 나타나며 기와가 결실된 하단부에는 수지문 문양이 파상문 형태로 다소 휘어지게 나타난다. 측면 절단흔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른 흔적이 절반정도 남아있다. 후면은 마포를 댄 흔적이 있으며 마포와 마포를 연결했던 연체흔이 남아있다. 색조는 회청색이며 두께 2.2cm이다. 소성도가 높다.

5) 수지문암기와(2)(圖面 23-⑤; 圖版 59-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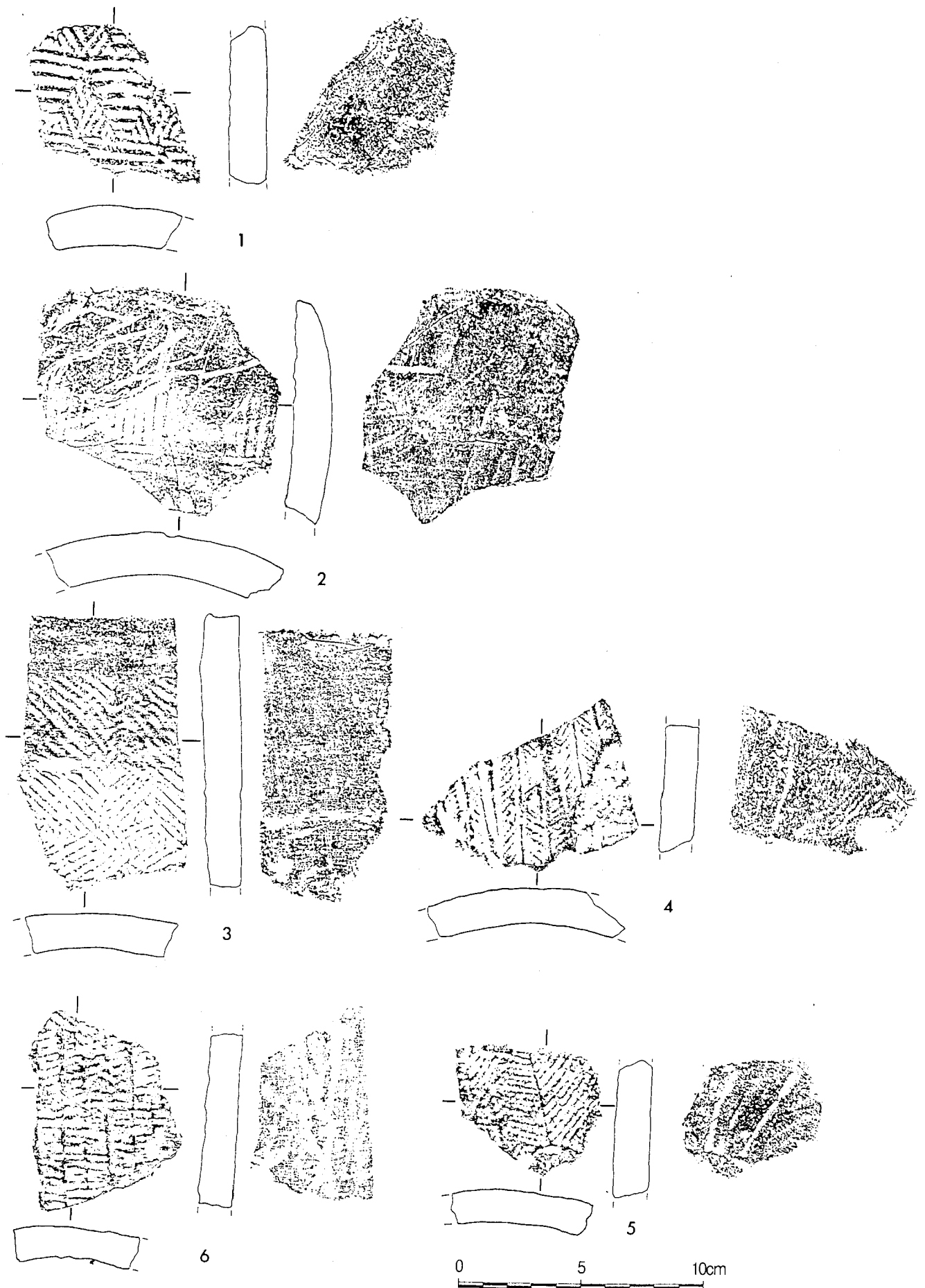
수지문의 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는 기와이다. 수지문 선의 굵기는 0.2cm이며 중심선의 굵기는 가장 굽은선이 0.7cm까지 나타난다. 중심선과 중심선간의 간격은 1.8cm이다. 후면에는 미세한 마포흔적과 함께 예새흔, 세로방향의 모골흔이 있다. 색조는 회갈색이며 두께 2.3cm이다. 소성도가 낮다. 대체적으로 마모된 정도가 심한 편이다.

6) 격자문암기와(1)(圖面 23-⑥; 圖版 59-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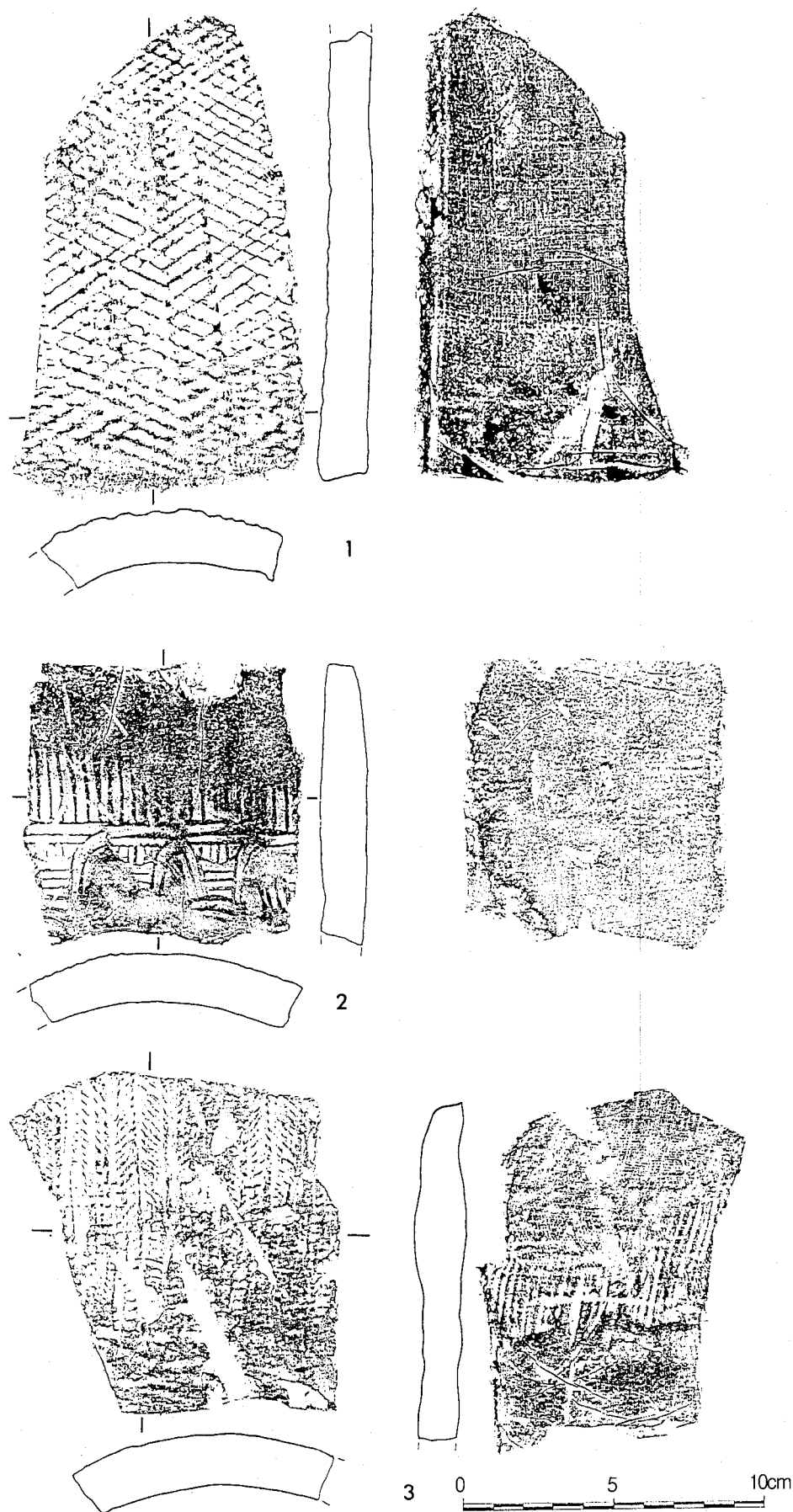
정격자문과 사격자문이 혼합되어 시문되었다. 기와상단에는 사격자문이 시문되었고 하단에는 정격자문이 시문되었다. 문양을 표현한 선의 굵기는 0.4cm이다. 측면 절단흔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른 흔적이 절반정도 남아있다. 후면에는 마포 흔적과 연체흔, 모골흔이 보인다. 색조는 암갈색이며 두께 2.1cm이다. 소성도가 낮다.

7) 격자문암기와(2)(圖面 24-①; 圖版 60-①)

일정한 정형을 띤 사격자문이 뚜렷하게 시문된 암기와이다. 선의 굵기는 0.2~0.3cm로 일정한 크기로 처리되었다. 기와 상부에서 하부로 이어지는 1줄의 중선이 있다. 측면 절단흔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른 흔적이 외반되지 않은 형태



圖面 23 정의현 객사지 출토 평기와(1)



圖面 24 정의현 객사지 출토 평기와(2)

로 절반정도 남아있다. 후면에는 미세한 마포흔적이 있으며 마포와 마포를 이은 연체흔, 기와 양끝면을 따라 1줄의 모골흔이 있다. 색조는 회청색이며 두께 2.5cm이다. 소성도가 높다.

#### 8) 複合文암기와(1)(圖面 24-②; 圖版 60-②)

線文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複合文이라고 명칭하였다. 기와 상부로부터 8.8cm까지는 세로방향으로 線文이 일정하게 시문되다가 그 밑으로는 역사다리꼴 문양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시문되었다. 전면에는 부분적으로 손으로 눌린 흔적이 있다. 측면 절단흔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른 흔적이 절반정도 남아있다. 후면에 마포를 대었던 흔적은 사라지고 없으며 기와가 대체적으로 마모된 정도가 심한 편이다. 다른 기와편들과는 달리 태토에 붉은색 사립이 많이 섞였다. 색조는 적갈색이며 두께 1.8cm이다. 소성도가 낮다.

#### 9) 複合文암기와(2)(圖面 24-③; 圖版 60-③)

정격자문과 수지문이 복합시문된 기와이다. 기와 상부 8.3cm까지는 문양이 시문되지 않았다. 정격자문과 수지문을 표현한 선의 굵기는 0.15cm내외이며 수지문 중심선의 굵기는 0.35cm이다. 수지문 중심선간의 간격은 1.7cm로 비교적 촘촘하게 시문되었다. 기와 전면에는 소성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죽이 덜된 흔적이 있으며 일부에는 빗질을 한 흔적도 있다. 측면 절단흔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른 절반정도의 절단흔이 있다. 후면에는 미세한 마포흔적과 예세흔, 빗질흔, 손누름흔적이 있다. 색조는 회청색이며 두께 2.0cm이다. 소성도가 높다.

### 나. 숫기와

숫기와는 외관상 식별가능한 편들을 대상으로 크게 유단식과 무단식기와로 구분하고 등문양에 따른 구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암기와보다도 그 종류수가 훨씬 적었다.

#### 1) 무문숫기와(1)(圖面 25-①; 圖版 61-①)

언강과 미구가 달린 유단식 숫기와이다. 기와와 언강은 둔각을 이루며 접합되며 미구의 끝에는 타날흔이 무수히 많이 확인되었다. 전면에는 예세흔과 타날흔이 있다. 측면은 절반정도의 절단흔이 있으나 절단흔이 매끄럽지 못하다. 후면은 포흔이 사라지고 물손질 정면한 흔적이 있으며 대칼질한 흔적, 기와제작시에 생긴 주름이 있다. 언강과 미구부분은 한번에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손을 사용하여 말아올린 듯한 흔적이 있다. 이 부분은 물손질처리가 되었다. 색조는 청색이며 두께 2.1cm이다. 소성도가 높다.

#### 2) 무문숫기와(2)(圖面 25-②; 圖版 61-②)

언강과 미구가 달린 숫기와이다. 기와와 미구가 달린 부분은 다소 둔각을 이루며 접합되었다. 전면 일부에 銘文으로 보이는 흔적이 일부 보이나 마모된 정도가 심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전면에 물손질한 흔적과 함께 빗질흔적이 있다. 측면 절단흔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른 절반정도의 절단흔이 남아있으며 절단한 후 절단면에 대해서 빗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후면은 모골흔과 함께 세로방향의 빗질흔적이 있다. 색조는 회청색이며 두께 2.2cm이다. 소성도가 높다.

#### 3) 線文숫기와(圖面 25-③; 圖版 61-③)

대나무 줄기와 가지를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기와이다. 대나무 줄기를 표현한 중심선은 두께 0.7cm의 굵은 태선으로 처리하였고 한쪽방향으로만 처리된 겉가지는 0.3cm내외의 선으로 처리하였다. 측면 절단흔은 안에서 바깥쪽



으로 자른 흔적이 절반정도 남아있다. 후면은 마포흔적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으며 종횡의 모골흔과 대칼질한 흔적, 빗질흔적이 군데군데서 확인된다. 색조는 회갈색이며 두께 2.9cm이다. 소성도가 높다.

#### 4) 수지문숫기와(圖面 25-④; 圖版 61-④)

수지문가지가 비교적 조밀하게 밀집시문된 기와이다. 수지문 선의 굵기는 0.2~0.3cm이고 중심선간의 간격은 3.1cm이다. 측면 절단흔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른 절반정도의 흔적이 남아있다. 후면에는 미세한 포흔이 있으며 종방향으로의 모골흔과 예새처리한 흔적이 비교적 넓게 존재하고 있다. 색조는 회청색이며 두께 2.5cm이다. 소성도가 높다.

#### 5) 격자문숫기와(圖面 25-⑤; 圖版 61-⑤)

사격자문이 비교적 굵은 태선으로 처리된 기와이다. 다른 숫기와들과는 달리 언강과 미구가 없는 토수형기와이다. 마모된 정도가 심하다. 격자를 표현한 선의 굵기는 0.4cm내외이다. 후면은 세장한 미세포흔과 함께 4줄의 모골흔이 종방향으로 일정하게 남아있다. 색조는 회색이며 두께 2.2cm이다. 소성도가 낮다.

#### 6) 파상문숫기와(圖面 26-①; 圖版 62-①)

언강과 미구가 달린 유단식기와이다. 언강부가 단을 지게 약간 꺾이듯 처리되었으며 미구와 거의 수직으로 접합된다. 기와의 상단부 밑으로 4.5cm까지는 물손질처리로 파상문문양이 거의 지워져 있다. 전반적으로 문양은 마모가 심하여 뚜렷하지 못하다. 측면 절단흔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른 흔적이 절반정도 남아있으며 2번에 걸쳐 자른 흔적이 겹쳐서 나타난다. 후면은 미세한 포흔이 있으며 세로방향으로 길게 늘어뜨린 빗질흔적이 3줄 있다. 언강부분의 접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한번 더 보토를 덧붙여 말아올린 흔적이 있다. 이 부분은 물손질처리를 하였다. 색조는 회색이며 두께 2.2cm이다. 소성도가 높다.

#### 7) 複合文숫기와(1)(圖面 26-②; 圖版 62-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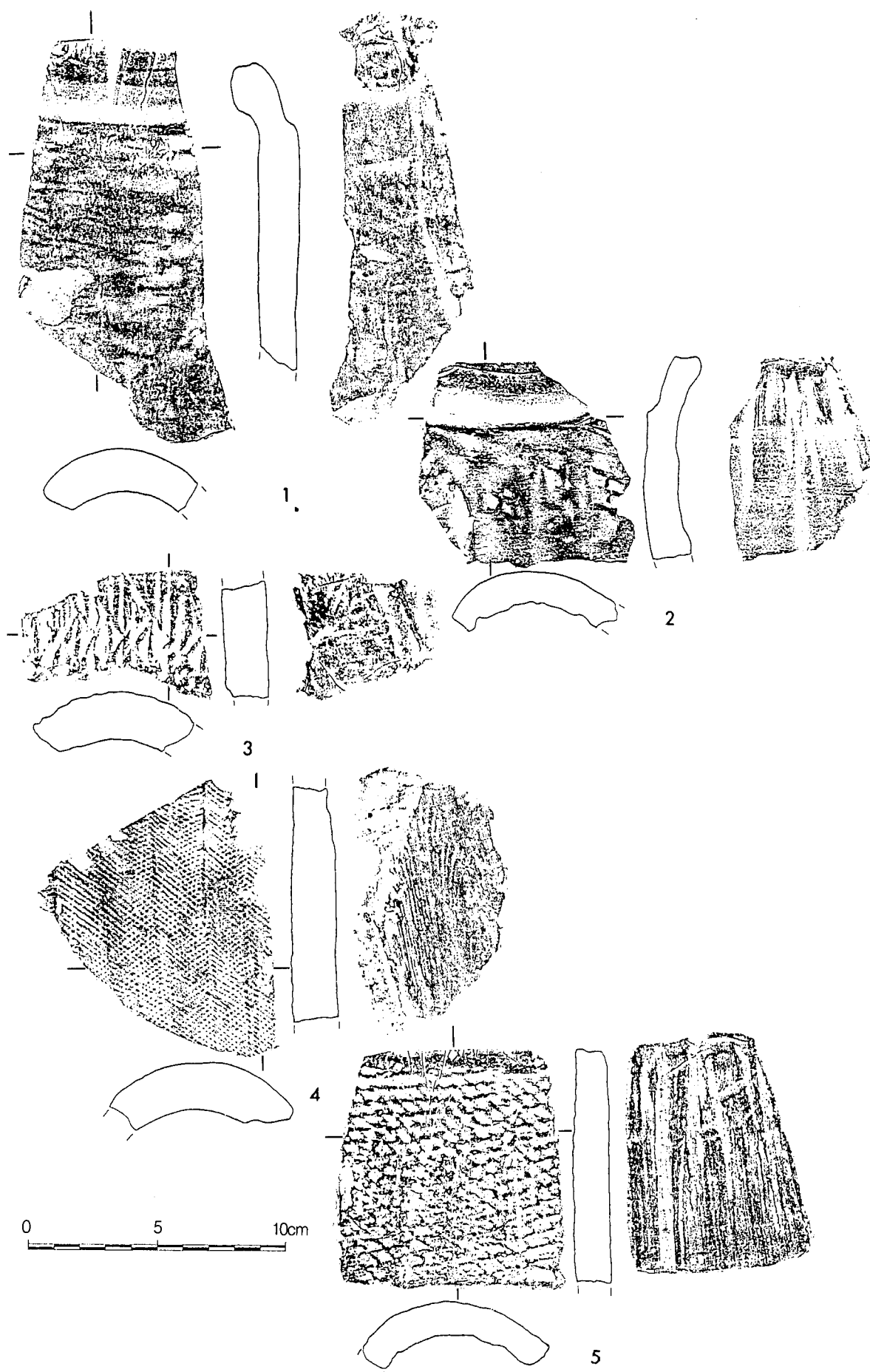
언강과 미구가 달린 유단식 숫기와이다. 기와의 전면 좌측일부에 예새흔적이 있다. 기와는 문양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갈라지고 표면도 거칠다. 마름모꼴 문양대에 十字 모양이 겹쳐서 시문된 문양이 반복시문되었다. 미구 부분의 길이는 3.5cm이다. 측면 절단흔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른 흔적이 일부에 남아있다. 후면은 두껍고 긴 모골흔과 미구부분에 주름흔적, 물손질 흔적이 있다. 색조는 청색이며 두께 2.5cm이다. 소성도가 높다.

#### 8) 複合文숫기와(2)(圖面 26-③; 圖版 62-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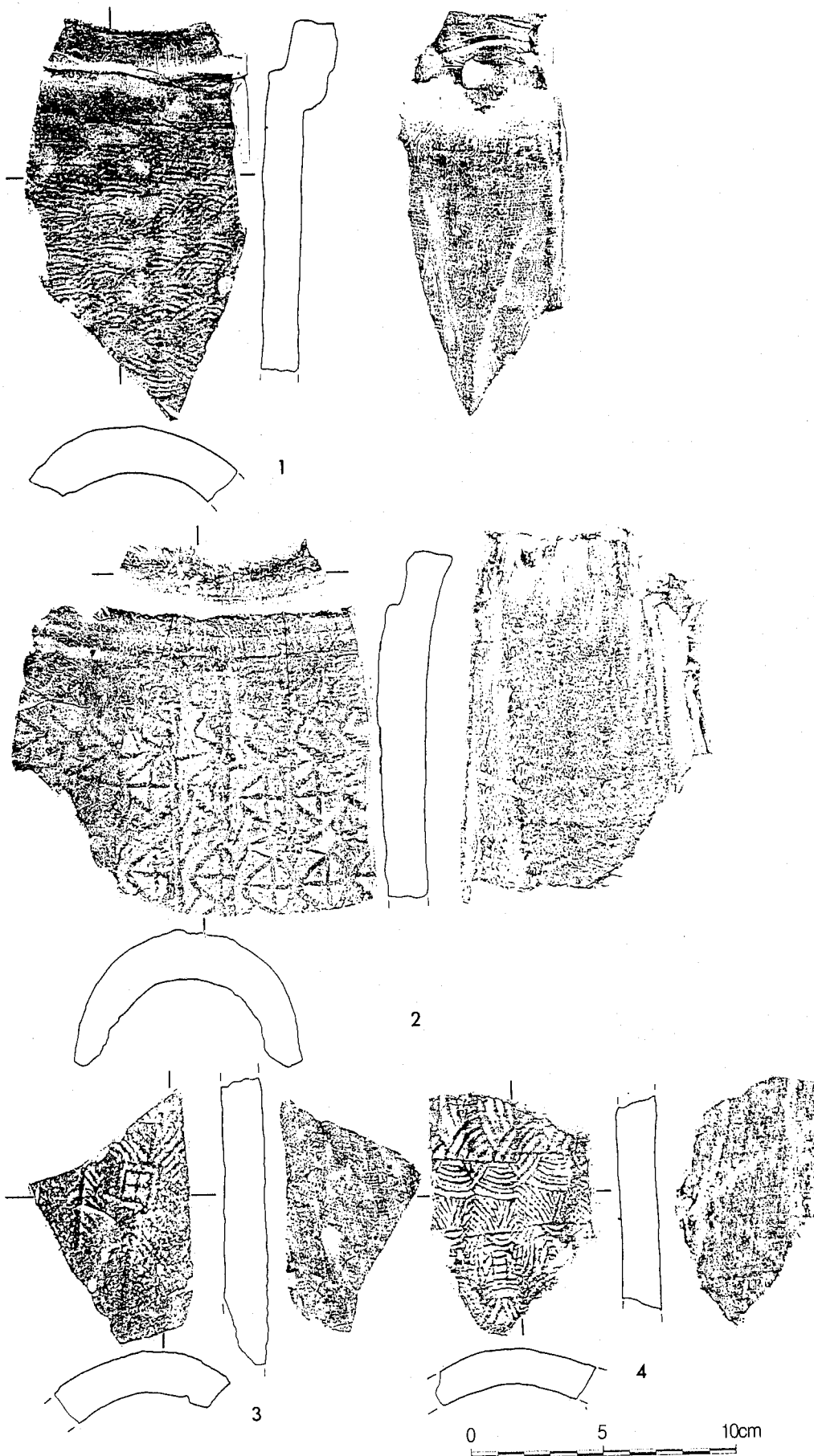
수지문과 방격문이 복합시문된 기와이다. 수지문 중심가지 사이에 이중의 정격자문이 시문되고 그 내부에 十字 모양의 문양이 시문되었다. 문양을 처리한 선의 굵기는 0.3cm내외이다. 전면은 마모된 정도가 심한 편이다. 후면은 세장한 마포흔적이 있으며 손누름흔적과 물손질처리한 흔적이 있다. 색조는 회청색이며 두께 2.5cm이다. 소성도가 높다.

#### 9) 複合文숫기와(3)(圖面 26-④; 圖版 62-④)

파상문, 선문, 사다리꼴 문양이 복합시문된 기와이다. 기와 중앙부에 사다리꼴 문양을 시문하였고 그 주위로 부채살 모양으로 퍼지는 선문이 시문되었다. 가장 바깥쪽에는 반원 모양의 파상문이 끝을 겹치면서 시문되었다. 문양을 표현한 선의 굵기는 0.3cm내외이다. 측면 절단흔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른 흔적이 절반정도 남아있다. 후면은 미세한 포흔과 함께 빗질흔적이 있다. 기와의 가장자리에는 기와를 말아돌린 듯한 흔적이 끝에 남아있다. 색조는 회청색이며 두께 2.6cm이다. 소성도가 높다.



圖面 25 정의현 객사지 출토 평기와(3)



圖面 26 정의현 객사지 출토 평기와(4)

## 제 2절 陶磁器

### 1. 청자

소량의 청자편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기형은 접시류가 주종을 이루며 잔과 대접류가 소량 있다. 유색은 대개가 탁한 암녹색을 띠며 표면이 산화되어 부분적으로 황색을 띠는 것이 많다. 상감된 몇점을 제외하고는 내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어 번조하였다. 태토는 대부분 기공이 있고 불순물이 소량 섞여있다.

출토된 순청자편들은 상감청자편들보다 이른시기의 것들이라고 하기에는 기형이나 굽의 형태 등이 분청사기 형식을 띠고 있으며 상감청자편들 역시 선문 혹은 연주문이 규칙적으로 시문되어 있어 분청사기로 넘어오는 시기 즉 말기청자의 양상을 보인다.

#### 1) 청자대접편(圖面 27-①; 圖版 63-①)

색조는 암녹색을 띠며, 표면에 가는 빙렬이 있다. 굽둘레보다 약간 큰 내저원각이 있으며 내면과 굽에 태토 비짐을 받친 흔적이 있다.

現高:3.4cm 底徑 :5.8cm 내저원각경:7.0cm

(※ 이하 단위는 cm를 의미한다.)

#### 2) 청자대접편(圖面 27-②; 圖版 63-②)

표면은 광택이 있으며 암흑색을 띠고, 가는 빙렬이 있다. 굽은 낮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다. 양질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3.1 底徑 :5.8

#### 3) 청자대접편(圖面 27-③; 圖版 63-③)

광택이 있는 연녹색유를 시유했으나 내면일부가 산화되었다. 굽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다. 굽언저리 정리가 잘되어있지 않다. 양질의 회색태토를 사용하였다. 내면과 굽에 각각 태토비짐과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3.6 底徑 :5.2 내저원각경:3.3

#### 4) 청자대접편(圖面 27-④; 圖版 63-④)

투명한 담녹색유를 시유하였으나 표면 일부가 산화되었다. 가는 빙렬이 있다. 내면과 굽에 각각 내화토 비짐과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않다. 태토에 사립이 약간 섞였다.

現高:3.7 底徑 :6.2

#### 5) 청자대접편(圖面 27-⑤; 圖版 63-⑤)

표면은 밝은 녹색을 띠며, 빙렬이 있다. 굽둘레보다 넓은 내저원각이다. 굽은 다소 높은 죽절굽이며 시유되지 않았다. 태토는 회청색이며 사립이 섞였다. 내면과 굽에는 기포가 형성되었다.

現高:2.9 底徑 :5.6 내저원각경:8.4



6) 청자편(圖面 27-⑥; 圖版 63-⑥)

암녹색유가 시유됐으나 산화되었다. 굽은 낮고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내면과 굽에 번조반침 흔적이 있다. 태토에는 기포가 형성되었다.

現高:1.9 底徑 :2.2

7) 청자잔편(圖面 27-⑦; 圖版 63-⑦)

광택이 있고 투명한 청녹색유를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다. 태토는 양질이다. 태토에는 약간의 기포가 형성되었다.

現高:3.1 底徑 :3.2

8) 청자대접편(圖面 27-⑧; 圖版 63-⑧)

표면에는 광택이 있으며 암녹색을 띠나 외면이 심하게 산화되었다. 전면에 빙렬이 있다. 기형은 구연이 다소 내경하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기공이 형성되었다.

現高:2.9 口徑 :14.8

9) 청자대접편(圖面 27-⑨; 圖版 64-①)

표면색조는 회색을 띠는 녹색이며 빙렬이 있다. 내면 중앙에 작은 원무늬 하나가 흑상감되었다. 내면과 굽에 번조반침 흔적이 있다. 접지면의 폭이 넓고 접지면의 유를 대충 닦고 번조하였다.

現高:1.9 底徑 :7.5

10) 청자상감대접편(圖面 27-⑩; 圖版 64-②)

색조는 녹갈색을 띠며 표면에 미세한 빙렬이 있다. 파편이라 확실한 무늬 구성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내면에 세줄의 선문이 백상감되었다. 굽은 둥글게 성형됐으며 접지면의 유를 깨끗이 닦아내어 번조하였다.

現高:3.0 底徑 :6.6

11) 청자상감대접편(圖面 27-⑪; 圖版 64-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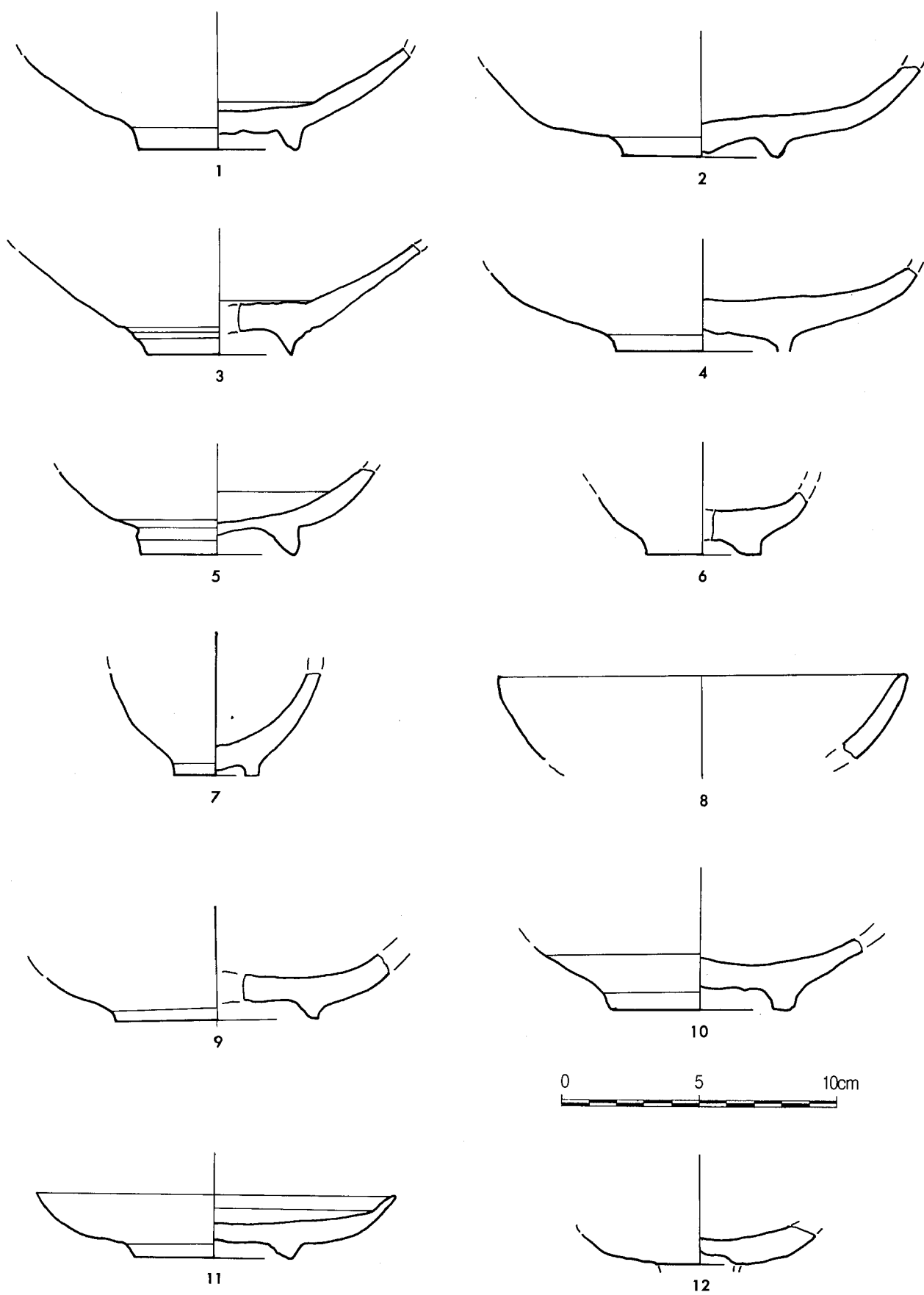
광택이 있는 암녹색 유를 시유하였다. 기형은 구연이 외반하고 동체로 부드럽게 호를 그리며 낮은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내면에 이중원권문과 연주문이 백상감되었다. 접지면의 유를 대충 닦고 번조하였다.

高:2.4 口徑 :11.6 底徑 :3.6

12) 청자상감잔편(圖面 27-⑫; 圖版 64-④)

암녹색유를 약간 두껍게 시유하였으나 산화가 심하다. 내면에 이중원문을 경계로 각각 국화문, 연주문, 연판문이 시문되었고 외면 굽저리에 연판문이 시문되었다. 굽은 파손되어 확실한 형태를 알 수 없다.

現高: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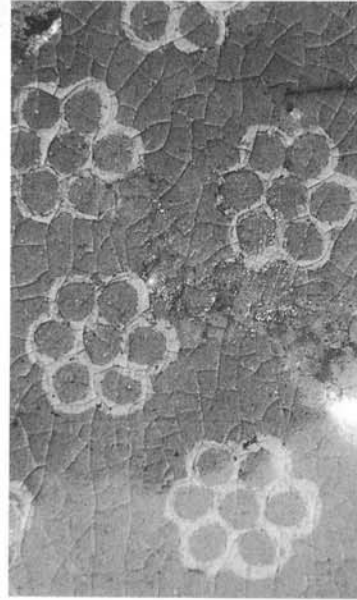
圖面 27 정의현 객사지 출토 조선청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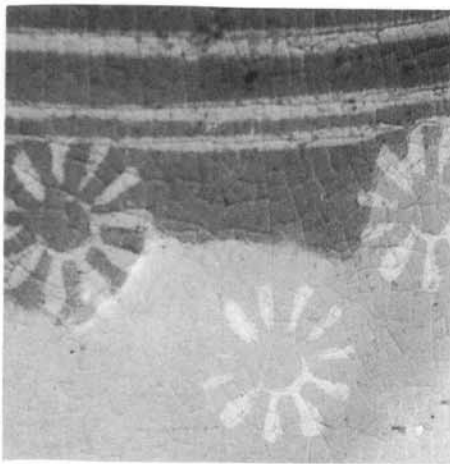
1. 집단국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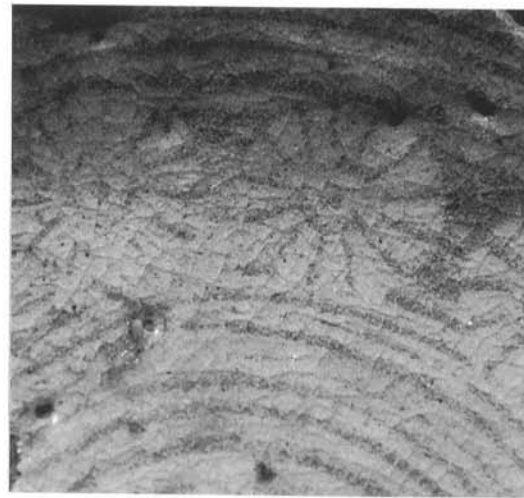
2. 국화문



3. 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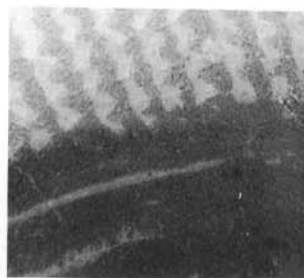
4. 국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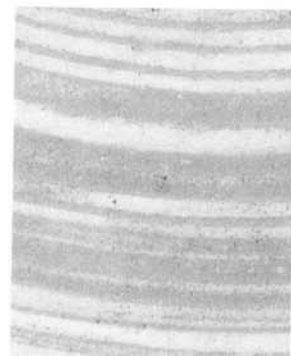
5. 국화문



6. 우점문



7. 파상문



8. 선문

插圖 5 정의현 객사지 출토 분청사기의 문양

## 2. 분청사기

분청사기 역시 소량 수습되었다. 인화, 조화, 귀얄, 덩병분장된 분청편들이 보이며 몇줄의 선문을 음각한 뒤 귀얄로 백토분장한 것들과 덩병분장한 편들이 출토된 분청사기의 대부분이다. 기형으로는 접시류, 대접류 그리고 전이 달린 그릇편 등이 있다. 광택이 있는 투명유를 시유하였으나 굽에는 시유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귀얄분청사기 일부와 덩병분장된 분청사기 전부의 내면에 태토 혹은 내화토비짐을 놓고 포개어 번조하였다.

출토된 분청사기편은 상감이나 인화분청편은 많지않고 그 수법상 귀얄이나 덩병분장된 분청편이 대부분이므로 출토된 유물로 그 시기를 선정할 때 16세기 말 혹은 그 이후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 1) 분청인화국화문대접편(圖面 28-①; 圖版 65-①)

건물지(2)의 방고래시설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표면색조는 회청색을 띤다. 내면에 몇줄의 선문을 경계로 국화문이 시문되었고 외면에 파상문이 시문되었다. 태토는 양질이다.

現高:2.7 底徑 :5.8

### 2) 분청인화문대접편(圖面 28-②; 圖版 65-②)

내면에 몇줄의 선문을 경계로 각각 국화문과 우점문이 시문되었다. 굽은 낮고 다소 외경하며 접지면의 유를 대충 닦고 번조하였다. 표면은 광택이 있으며 회청색을 띤다.

現高:3.6 底徑 :4.6

### 3) 분청인화국화문대접편(圖面 28-③; 圖版 65-③)

기형은 구연이 다소 외반하며 동체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형태로 표면은 회녹색을 띤다. 당초문을 시문하였고 동부에 집단국화문을 시문하였다. 태토는 양질이다. 표면에 기공과 불순물이 붙어있다.

現高:3.3 口徑 :16.6

### 4) 분청인화문접시편(圖面 28-④; 圖版 65-④)

내면에 몇줄의 선문과 중앙에 국화문을 시문하였다. 구연은 다소 외반하고 표면에 빙렬이 있다.

### 5) 분청귀얄문접시편(圖面 28-⑤; 圖版 65-⑤)

광택이 있고 투명한 유가 시유되었으나 내외면이 심하게 산화되었다. 구연은 외반하고 동부에서 다소 팽만하게 호를 그리다가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내면에는 구연부를 제외하고 전면에 와선문을 시문하고 그 위에 귀얄로 대충 백토분장하였다.

高:3.3 口徑 :8.8 底徑 :4.3

### 6) 분청귀얄문저부편(圖面 28-⑥; 圖版 65-⑥)

내면에 희미하게 귀얄칠이 되어있으며 그 위에 회청색유를 시유하였다. 내면과 굽접지면에 내화토 비짐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에 미세한 사립이 섞여있고 굽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現高:1.3 底徑 :2.3

7) 분청귀얄문저부편(圖面 28-⑦; 圖版 65-⑦)

표면색조는 녹색을 띤다. 내면에만 귀얄칠이 되어있다. 굽은 정리가 잘안된 죽절굽이며 시유되지 않았다.

現高:1.6 底徑 :5.6

8) 분청귀얄문접시편(圖面 28-⑧; 圖版 65-⑧)

구연은 다소 외반하며 동체로 부드럽게 이어진다. 태토는 양질이며 외면에 산화되어 기공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회청색을 띠며 광택이 있다.

現高:1.9 口徑 :15.2

9) 분청귀얄문구연부편(圖面 28-⑨; 圖版 65-⑨)

광택이 있고 투명한 갈색유를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다. 폭 1cm 정도의 전이 달려 있는 구연에서 직각으로 동체로 이어진다. 태토는 비교적 양질이다.

現高:2.8 底徑 :14.8

10) 분청덤병분장접시편(圖面 28-⑩; 圖版 65-⑩)

내면에만 백토분장을 하였으며 색조는 회녹색을 띤다. 전면에 빙렬이 있다. 굽은 낮은 죽절굽이며 내면과 굽접지면 각 6군데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1.8 底徑 :5.2

11) 분청덤병분장저부편(圖面 29-①; 圖版 66-①)

내면에만 백토분장을 하였다. 굽은 죽절굽이며 내면과 굽접지면에 가는 모래비짐을 받친 흔적이 있다. 태토는 비교적 양질이다.

現高:1.5 底徑 :5.0

12) 분청덤병분장저부편(圖面 29-②; 圖版 66-②)

표면은 광택이 있으며 갈녹색을 띤다. 내면에만 분장되었다. 내면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이 있다. 태토는 비교적 양질이다.

現高:1.4 底徑 :5.4

13) 분청덤병분장대접편(圖面 29-③; 圖版 66-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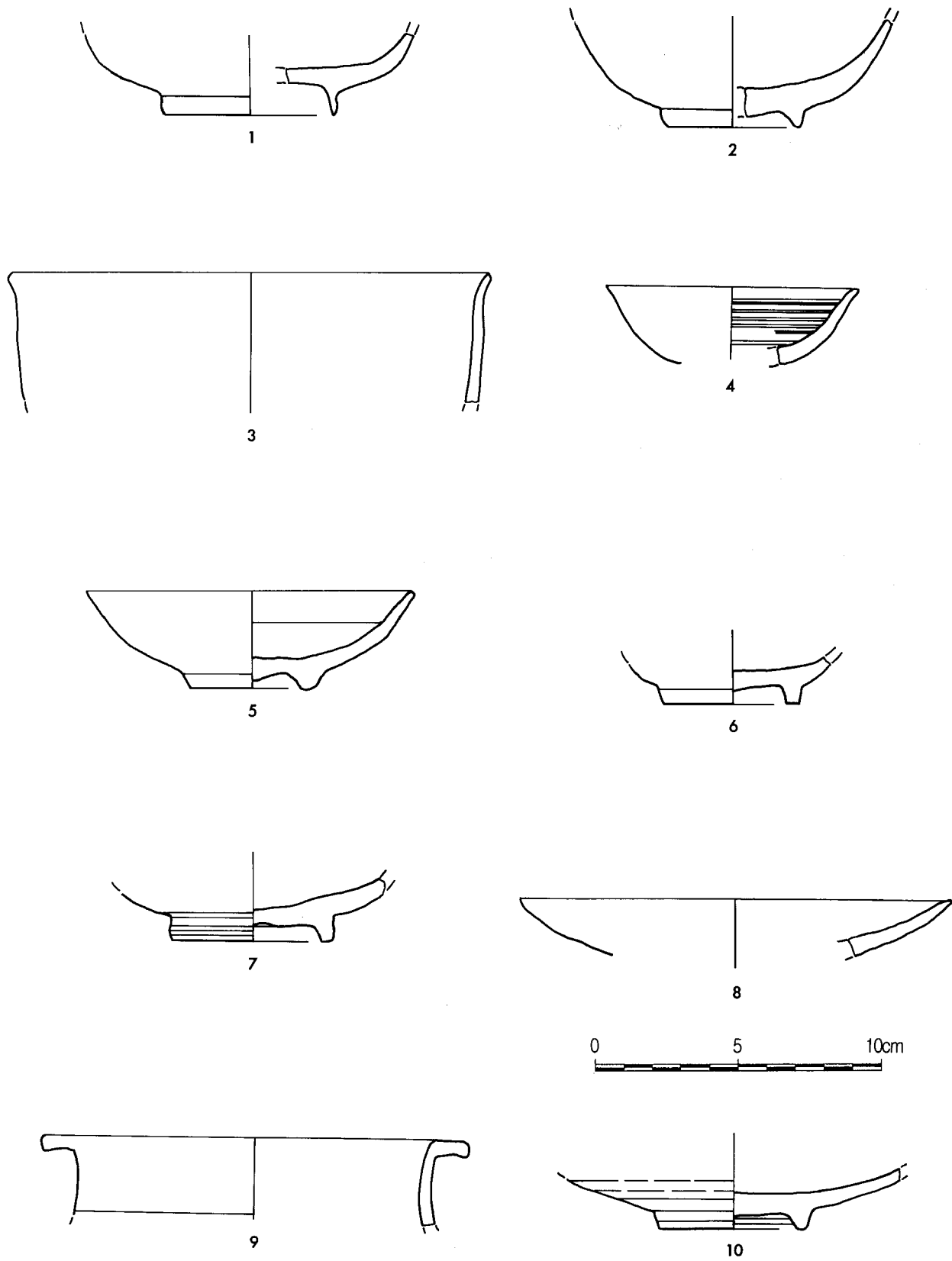
회백색을 띠는 표면에 빙렬이 있다. 굽은 죽절굽이며 비교적 단정하다. 표면에 기공이 형성되었다. 내면과 굽언저리까지 백토분장되었다. 내면과 굽에 모래비짐을 받친 흔적이 있다.

現高:3.4 底徑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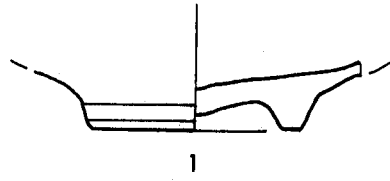
14) 분청덤병분장저부편(圖面 29-④; 圖版 66-④)

전면에는 가는 빙렬이 있다. 내외면 전면에 백토분장되었다. 표면일부에 기공이 형성되었다. 내면과 유를 닦지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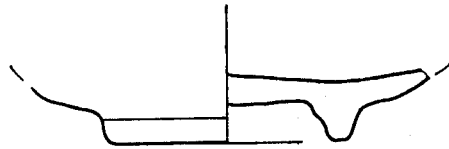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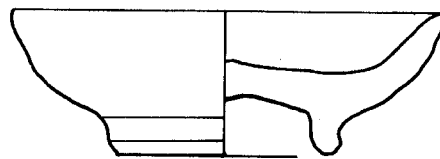
圖面 28 정의현 객사지 출토 분청사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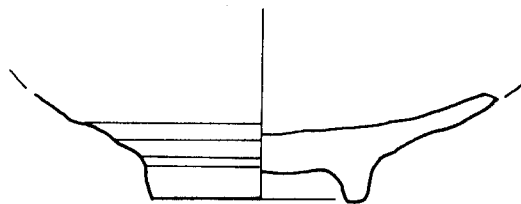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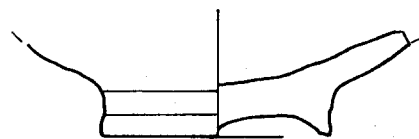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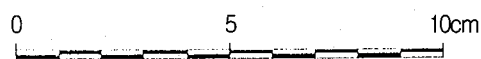
3



4



5



圖面 29 정의현 객사지 출토 분청사기(2)

접지면에 내화토받침 흔적이 있다. 태토에 사립이 다소 섞여 있다.

現高:2.4 底徑 :5.0

### 15) 분청담분분장저부편(圖面 29-⑤; 圖版 66-⑤)

광택이 있는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전면에 백토분장되었다. 굽은 다소 외반하여 접지면의 유를 닦지않고 내화토비집을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2.2 底徑 :5.4

## 3. 백자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된 백자편은 명문이 있는 두 점과 말기 청화백자편, 흑유저부편 한 점을 제외하면 모두 순백자편이다. 명문은 「〇正」, 「正」銘으로 굽안에 날카로운 도구로 쏘아서 새겨넣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태토의 질이 우수하고 굽정리도 잘되어 있다.

기형은 접시류, 대접류, 잔류, 병류 등이 보이며 접시류중에 굽다리가 높은 제기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두 점 있다.

태토가 치밀질이고 굽도 단정하며 번조받침 역시 洗沙를 받치거나 가는모래를 받쳐 번조한 것은 소량뿐이며 대부분이 내면에 포개어 번조한 흔적이 있고 굽은모래나 태토비집을 여러개 깔고 번조하여 그 흔적이 지저분하다.

굽의 형태는 양질의 백자는 거의가 도립삼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그외에 낮고 접지면의 폭이 일정한 굽, 굽과 동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굽, 굽다리는 낮고 굽속을 깊게 깎아낸 굽, 통굽, 안굽 등이 있다.

태토는 비교적 양질이지만 간혹 태토에 불순물이 섞여 있고 기공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석고질의 태토도 있다.

몇점 출토된 청화백자편은 청화안료의 발색이나 굽속을 깊게 깎아낸 기형, 무늬의 구성면에서 말기청화백자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유적에서 보이는 백자편들은 어느 한 시기의 특징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굽의 형태 등으로 보아서 계속 시대를 따라 이어져 내려오는 양상을 띠고 있다.

### 1) 백자저부편(圖面 30-①; 圖版 67-①)

투명유가 얇게 시유되었다. 내저원각은 굽둘레보다 약간 넓게 형성되어 있다. 굽은 곧고 단정하여 다소 내경한다. 접지면의 유를 닦고 세사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치밀한 회백색토로 양질이다. 굽속에 「〇正」銘이 새겨져 있다.

底徑 : 6.4 現高: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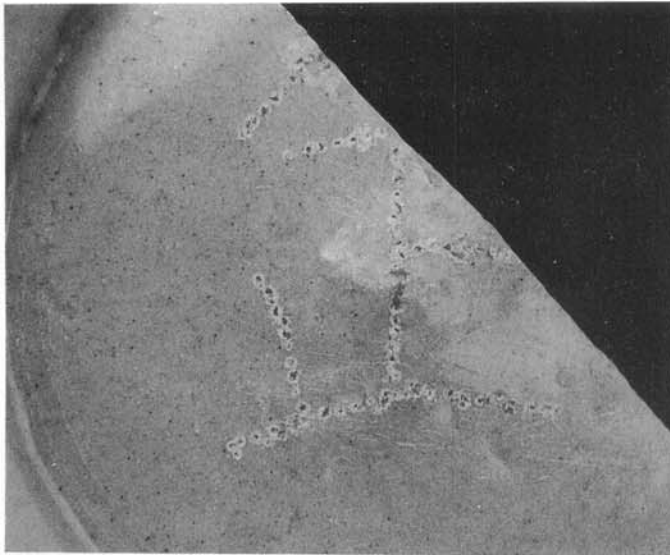
### 2) 백자저부편(圖面 30-②; 圖版 67-②)

굽은 단정하여 다소 내경한 형태이다. 접지면의 유를 깨끗이 닦고 세사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양질의 백토이며 굽속에는 「正」銘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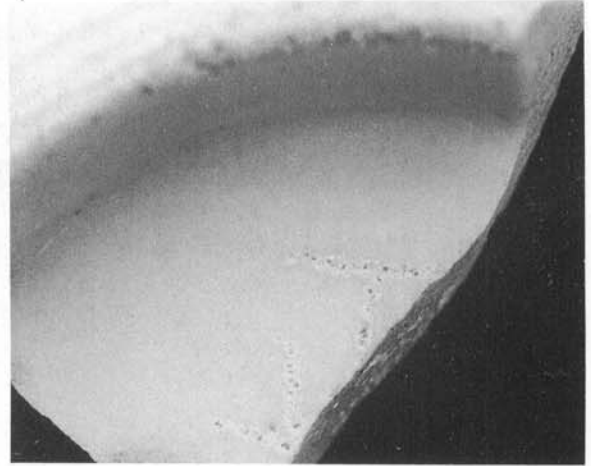
底徑 :6.4 現高: 2.8

### 3) 백자대접편(圖面 30-③; 圖版 67-③)

표면에 광택이 있으며 투명유가 태토와 어울려 회청색을 띤다. 굽둘레와 비슷한 내저원각이다. 굽은 직립하며 단정하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세사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 불순물이 붙어있다. 태토는 양질의 백토이다.



1. 「〇正」銘 접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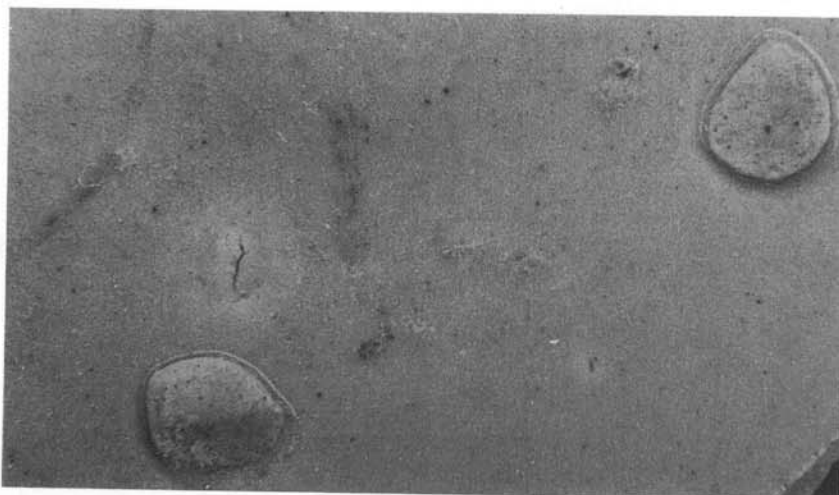
2. 「正」銘저부편



3. 굵은 모래를 받친 통굽



4. 굵은 모래를 받친 굽



5. 태토비집받친 흔적

插圖 6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의 명문과 바닥처리수법

底徑 :6.0 現高:2.8

4) 백자저부편(圖面 30-④; 圖版 67-④)

표면은 회색을 띤다. 굽보다 약간 넓은 내저원각이다. 굽은 직립내경하며 단정하다. 접지면의 유를 깨끗이 닦고 세사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양질의 회색토이다.

底徑 :5.4 現高: 3

5) 백자저부편(圖面 30-⑤; 圖版 67-⑤)

굽은 직립하여 단정하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다. 접지면의 유를 깨끗이 닦고 세사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양질이며 표면은 청회색을 띤다.

底徑 :7.2 現高:2.3

6) 백자저부편(圖面 30-⑥; 圖版 67-⑥)

굽은 직립하며 단정하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세사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底徑 :4.8 現高: 2.6

7) 백자저부편(圖面 30-⑦; 圖版 67-⑦)

표면에 빙렬이 있으며 녹갈색을 띤다. 굽둘레보다 넓은 내저원각이다. 접지면의 유를 대충 닦고 번조하였다.

底徑 :4.6 現高:2.6

8) 백자접시편(圖面 30-⑧; 圖版 67-⑧)

굽둘레보다 넓은 내저원각이 있으며 굽은 낮고 내경한다. 내면 다섯곳과 유를 닦은 접지면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은 어두운 회청색을 띠며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4.8 現高:2.0

9) 백자저부편(圖面 30-⑨; 圖版 67-⑨)

광택이 있는 암회갈색유를 시유하였다. 굽은 직립하며 내면과 유를 닦지 않은 접지면에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底徑 :5.4 現高:2.2

10) 백자접시편(圖面 30-⑩; 圖版 67-⑩)

회백색을 띠며 전면에 빙렬이 있다. 굽과 동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외면에 거친 물레자국이 있다. 내면과 굽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친 흔적이 있다. 태토는 비교적 양질이다.

底徑 :5.2 現高:2.0

11) 백자접시편(圖面 31-①; 圖版 68-①)

유가 두껍게 시유되었으며 회백색을 띤다. 전면에 성근 빙렬이 있다. 내면과 굽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친 흔적이 있



다. 표면에 기공이 형성되었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5.4 現高:2.4

12) 백자접시편(圖面 31-②; 圖版 68-②)

굽보다 넓은 내저원각이다. 굽은 아주 낮고 내경한다. 유는 광택이 있으며 암회색을 띤다. 내면과 유를 닦지 않은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底徑 :4.4 現高:1.8

13) 백자대접편(圖面 31-③; 圖版 68-③)

회백색유를 시유하였으나 전면이 산화되어 적회갈색을 띤다. 굽보다 훨씬 넓은 내저원각이다. 굽과 동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다. 내면 여섯곳과 굽에 태토비짐을 받친 흔적이 있다.

底徑 :5.8 現高:3.0

14) 백자 접시편(圖面 31-④; 圖版 68-④)

굽보다 넓은 내저원각이 있으며 내면과 유를 닦지 않은 굽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색조는 회갈색이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6.0 現高:2.8

15) 백자접시편(圖面 31-⑤; 圖版 68-⑤)

전면에 빙렬이 있으며 회백색을 띤다. 내면과 유를 닦지 않은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굽은 내경한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6.8 現高:3.0

16) 백자접시편(圖面 31-⑥; 圖版 68-⑥)

투명유가 양질의 태토와 어울려 암회색을 띤다. 굽보다 넓은 내저원각이다. 내면과 유를 닦지 않은 접지면에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底徑 :5.2 現高:1.2

17) 백자접시편(圖面 31-⑦; 圖版 68-⑦)

암회색유를 시유하였다. 굽언저리에 유가 묻쳐 있다. 내면과 굽에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태토는 비교적 양질이다.

底徑 :5.2 現高:2.0

18) 백자저부편(圖面 31-⑧; 圖版 68-⑧)

유가 두껍게 시유되어 있으며 회갈색을 띤다. 표면에는 기공이 형성되었다. 내면과 굽접지면에 내화토비짐을 받친 흔적이 있다.

底徑 :8.0 現高:3.0

19) 백자저부편(圖面 31-⑨; 圖版 68-⑨)

넓은 내저원각이 있으며 표면은 회청색을 띤다. 굽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표면에 거친 물레자국이 있다. 내면과 굽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친 흔적이 있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5.4 現高:2.2

20) 백자저부편(圖面 31-⑩; 圖版 68-⑩)

암녹색을 띤 투명유를 시유하였으며 전면에 빙렬이 있다. 굽은 낮고 비교적 단정하며 내면과 유를 닦지않은 접지면에 가는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底徑 :6.2 現高:3.2

21) 백자잔편(圖面 32-①; 圖版 69-①)

전면에 빙렬이 있으며 청녹색의 색조를 띤다. 굽은 단정한 죽절굽이며 접지면의 유를 닦지않고 가는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 5.2 現高:2.2

22) 백자대접편(圖面 32-②; 圖版 69-②)

굽에는 시유되지 않았으며 표면은 회청색을 띤다. 굽보다 넓은 내저원각이다. 외면에 거친 물레자국이 있다. 내면과 굽에 태토비짐을 받친 흔적이 있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5.2 現高:5.0

23) 백자대접편(圖面 32-③; 圖版 69-③)

회청색유를 시유하였다. 내저원각은 굽둘레보다 넓으며 표면에 불순물이 있다. 내면과 시유되지않은 굽 각 네군데에 태토비짐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5.2 現高:2.4

24) 백자대접편(圖面 32-④; 圖版 69-④)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회백색을 띤다. 굽보다 넓은 내저원각이다. 굽정리가 투박하며 표면에 불순물과 기공이 형성되었다. 외면에 거친 물레자국이 있다. 내면 네곳과 굽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5.8 現高:4.8

25) 백자대접편(圖面 32-⑤; 圖版 69-⑤)

굽에는 시유되지 않았으며 시유상태가 대체로 불량하다. 표면은 회청색을 띤다. 굽둘레와 비슷한 크기의 내저원각이다. 내면과 굽접지면 각 다섯군데에 내화토비짐을 받친 흔적이 있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5.8 現高2.0

26) 백자저부편(圖面 32-⑥; 圖版 69-⑥)

회청색유를 두껍게 시유하였으며 내면과 유를 깨끗이 닦은 굽집지면에 내화토비짐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6.2 現高:2.4

27) 백자저부편(圖面 32-⑦; 圖版 69-⑦)

전면에 빙렬이 있고 표면에 광택이 있으며 청녹색을 띤다. 내면과 유를 깨끗이 닦은 접지면에 가는 모래비짐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비교적 양질이다.

底徑 :6.0 現高:2.2

28) 백자저부편(圖面 32-⑧; 圖版 69-⑧)

청녹색유를 시유하였으나 굽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유가 묻쳐있으며 철점이 생겼다. 유 속에 기포가 형성되었다. 내면 일곱곳과 굽 여덟곳에 굽은 모래비짐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비교적 양질이다.

底徑 :6.8 現高:2.2

29) 백자저부편(圖面 32-⑨; 圖版 69-⑨)

암회갈색유가 전면에 두껍게 시유되었으며 표면에 기공이 형성되었다. 굽은 높고 내경한다. 내면과 유를 대충 닦은 굽집지면에 내화토비짐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6.8 現高:3.0

30) 백자저부편(圖面 32-⑩; 圖版 69-⑩)

투명유를 시유하였으나 부분부분 묻쳐있으며 회청색을 띤다. 전면에 가는 빙렬이 있다. 굽은 높고 외반되었다. 내면과 접지면의 유를 닦고 내화토비짐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底徑 :8.6 現高:2.6

31) 백자저부편(圖面 33-①; 圖版 70-①)

유 속에 기포가 형성되고 표면에 불순물이 붙어 있다. 굽집지면에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으며 지저분하게 모래가 묻쳐 있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5.6 現高:2.6

32) 백자저부편(圖面 33-②; 圖版 70-②)

표면색조는 암녹색을 띤다. 굽둘레와 비슷한 크기의 내저원각이다. 내면에 거친 물레자국이 있다. 내면과 유를 닦지 않은 굽집지면에 내화토비짐 흔적이 크게 남아있다. 굽은 비교적 높고 직립한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7.0 現高:2.6

33) 백자대접편(圖面 33-③; 圖版 70-③)

회청색유를 시유하였으나 시유상태가 불량하다. 표면에 거친 물레자국이 있으며 내면과 굽에 지저분한 모래받침 흔

적이 있다. 굽은 낮고 둥글게 형성되었다. 태토는 비교적 양질이다.

底徑 :7.2 現高:2.6

34) 백자저부편(圖面 33-④; 圖版 70-④)

유 속에 작은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며 표면은 암회색이다. 굽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굽은 낮은 죽절굽이며 내면과 굽에 내화토비집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에 사립이 섞였다.

底徑 :7.2 現高:2.2

35) 백자접시편(圖面 33-⑤; 圖版 70-⑤)

표면이 부분부분 산회되어 회갈색을 띤다. 굽둘레보다 넓은 내저원각이다. 내면과 굽에 굽은 모래받침 흔적이 있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5.8 現高:2.4

36) 백자저부편(圖面 33-⑥; 圖版 70-⑥)

유는 광택이 있고 회백색을 띤다. 굽은 비교적 높고 직립한다. 내면과 유를 대충 닦은 굽접지면에 내화토비집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 기공이 형성되었다.

底徑 :6.8 現高:2.8

37) 백자대접편(圖面 33-⑦; 圖版 70-⑦)

회청색유를 시유하였으며 유 속에 기포가 형성되었다. 굽의 하단부를 죽절굽형태로 거칠게 처리하였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4.6 現高:4.2

38) 백자대접편(圖面 33-⑧; 圖版 70-⑧)

전면에 빙렬이 있다. 굽은 낮고 다소 외반하며 접지면의 유를 닦지않고 굽은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5.8 現高:4.0

39) 백자대접편(圖面 33-⑨; 圖版 70-⑨)

유를 두껍게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다. 표면에 기공이 형성되어 있으며 암회색을 띤다. 내면과 유를 닦은 접지면에 내화토비집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에 소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다.

底徑 :7.0 現高:3.8

40) 백자저부편(圖面 33-⑩; 圖版 70-⑩)

부분부분 유가 묻쳐 있으며 회색을 띤다. 유 속에 기포가 형성되었다. 굽과 동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며 굽은 다소 외반한다. 내면과 굽에 지지분한 모래받침 흔적이 있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4.2 現高:3.2

41) 백자저부편(圖面 34-①; 圖版 71-①)

암회색유를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다. 굽은 다소 높고 직립외반한다. 내면 바닥과 굽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으며 유에 엉켜서 지저분하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 7.2 現高:3.8

42) 백자저부편(圖面 34-②; 圖版 71-②)

표면에 거친 물레자국이 있다. 굽은 외반되며 통굽이다. 내면과 굽바닥 전면에 굽은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표면에 잡티가 드러나 있다. 유는 광택이 있으며 회색을 띤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5.8 現高:4.2

43) 백자저부편(圖面 34-③; 圖版 71-③)

표면은 황백색을 띤다. 전면에 미세한 빙렬이 있다. 굽은 낮고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다. 내면 바닥과 유를 닦지않은 접지면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석고질로 양질이다.

底徑 :8.0 現高:2.0

44) 백자저부편(圖面 34-④; 圖版 71-④)

청녹색유를 두껍게 시유하였으며 유 속에 기포가 형성되었다. 내면과 유를 닦은 접지면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 기공이 생겼다. 굽과 동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태토에 소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다.

底徑 :5.0 現高:3.2

45) 백자소형기편(圖面 34-⑤; 圖版 71-⑤)

유의 두께가 고르지 않으며 표면은 회청색을 띤다. 외면에 거친 물레자국이 있다. 굽은 동체에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통굽으로 접지면의 유를 대충 닦고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3.8 現高:1.8

46) 백자저부편(圖面 34-⑥; 圖版 71-⑥)

회청색유를 두껍게 시유하였으며 유 속에 기포가 형성되었다. 내면과 굽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굽은 둥글게 성형되었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5.4 現高:2.4

47) 백자잔편(圖面 34-⑦; 圖版 71-⑦)

표면은 유가 흘러내려 뭉쳐 있다. 굽은 외반된다. 굽에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태토는 적갈색을 띠며 양질이다.

底徑 :4.6 現高:2.0

48) 백자접시편(圖面 34-⑧; 圖版 71-⑧)

표면색조는 암회색을 띠며 빙렬이 있다. 굽은 낮고 내경한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않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에 소량의 불순물의 섞여 있다.



底徑 :3.8 現高:2.4

49) 백자저부편(圖面 34-⑨; 圖版 71-⑨)

유는 투명유로 암회색을 띤다. 굽은 높고 다소 내경한다. 내면과 굽접지면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에 사립이 소량 섞여 있다.

底徑 :7.2 現高:3.2

50) 백자대접편(圖面 34-⑩; 圖版 71-⑩)

두껍게 시유된 표면에 기공이 형성되었다. 굽은 다소 내경한다. 내면과 유를 깨끗이 닦은 접지면에 가는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

底徑 :7.2 現高:4.6

51) 백자저부편(圖面 35-①; 圖版 72-①)

투명한 황녹색유가 시유되었으며 전면에 가는 빙렬이 있다. 굽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며 통굽이다. 내면과 굽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 거친 손질자국이 있다. 태토는 석고질이다.

底徑 :5.6 現高:3.2

52) 백자저부편(圖面 35-②; 圖版 72-②)

표면에 빙렬이 있으며 황갈색을 띤다. 굽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태토는 석고질로 태토에 기포가 형성되었다. 굽은 가는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底徑 :5.2 現高:2.6

53) 백자대접편(圖面 35-③; 圖版 72-③)

광택이 있는 암갈색유를 시유하였다. 구연은 외반하고 동부로 부드럽게 이어진다. 태토는 양질이다.

口徑 :13.8 現長:5.2

54) 백자병편(圖面 35-④; 圖版 72-④)

굽은 높고 외반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다. 접지면의 유를 깨끗이 닦고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무게중심이 병 하단부에 있는 형태이다.

底徑 :6.6 現高:4.2

55) 백자대접편(圖面 35-⑤; 圖版 72-⑤)

광택이 있는 회청색유를 시유하였으며 전면에 빙렬이 있다. 기형은 구연이 다소 외반하며 부드럽게 팽창하는 동부로 이어지다가 낮은 굽으로 연결되는 형태이다. 표면에 기공이 형성되어 있다. 내면과 유를 닦지않은 굽에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에 소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다.

口徑 :14.0 底徑 :6.4 器高:7.0

56) 백자대접편(圖面 35-⑥; 圖版 72-⑥)

표면에 기공이 형성되어 있으며 암회색을 띤다. 굽에 비해 굽속을 깊게 깎아내었다. 태토에 기포가 생기고 불순물이 섞여 있다. 내면과 굽에 모래받침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

底徑 : 8.6 現高 : 5.0

57) 백자대접편(圖面 35-⑦; 圖版 72-⑦)

유 속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어 회백색을 띤다. 굽은 외반하며 굽속을 깊게 깎아내었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가는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비교적 양질이다.

底徑 : 7.2 現高 : 5.8

58) 백자대접편(圖面 35-⑧; 圖版 72-⑧)

표면은 광택이 있으며 청녹색을 띤다. 굽은 낮고 직립하며 굽속을 깊게 깎아내었다. 굽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 8.0 現高 : 2.8

59) 백자대접편(圖面 36-①; 圖版 73-①)

유를 두껍게 시유하였으며 유 속에 기포가 형성되었다. 굽은 다소 내경한다. 내면과 유를 닦지 않은 굽접지면에 가는 모래비짐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에는 잡물이 섞여 있다.

底徑 : 1.2 現高 : 2.8

60) 백자대접편(圖面 36-②; 圖版 73-②)

유 속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며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굽은 낮고 외반하며 굽속을 깊게 깎아내었다. 내면과 유를 닦지 않은 굽접지면에 내화토비짐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비교적 양질이다.

底徑 : 7.4 現高 : 2.2

61) 백자대접편(圖面 36-③; 圖版 73-③)

표면색조는 암회색을 띠며 전면에 빙렬이 있다. 굽은 비교적 낮고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굽속을 깊게 깎아내었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가는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 8.8 現高 : 4.0

62) 백자대접편(圖面 36-④; 圖版 73-④)

광택이 있고 투명한 청녹색유를 시유하였으며 전면에 빙렬이 있다. 굽은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굽속을 깊게 깎아내었다. 내면과 유를 닦지 않은 접지면에 굽은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으며 굽주변은 유와 엉켜서 지저분하다. 태토는 석고질로 불순물이 섞여 있다.

底徑 : 7.2 現高 : 3.8

63) 백자대접편(圖面 36-⑤; 圖版 73-⑤)

두껍게 시유된 유 속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며 표면은 회청색을 띤다. 굽은 낮고 둥글며 굽속을 깊게 깎아내었다. 내면과 유를 닦지않은 굽접지면에 굽은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태토에 불순물이 소량 섞여 있다.

底徑 :6.8 現高:5.4

64) 백자대접편(圖面 36-⑥; 圖版 73-⑥)

광택이 있고 투명한 청색유를 시유하였으며 전면에 빙렬이 있다. 굽보다 작은 내저원각이다. 굽은 다소 내경한다. 내면과 굽접지면에 모래비짐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석고질이다.

底徑 :7.0 現高:3.8

65) 백자저부편(圖面 36-⑦; 圖版 73-⑦)

전면에 빙렬이 있다. 굽은 다소 외반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다. 내면에 거친 마무리자국이 있다. 내면과 굽접지면에 가는 모래비짐 흔적이 있다. 표면색조는 청녹색을 띤다. 태토는 불순물이 소량 섞인 석고질이다.

底徑 :7.4 現高:3.8

66) 백자대접편(圖面 36-⑧; 圖版 73-⑧)

기형은 구연이 직립하며 동체에서 부드럽게 팽만하다가 다소 외반된 낮은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굽속을 깊게 깎아내었다. 표면에는 기포가 형성되었다. 접지면의 유를 깨끗이 닦고 내화토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치밀질의 백토이며 양질이다.

口徑 :16.8 底徑 :8.2 現高:7.6

67) 백자대접편(圖面 37-①; 圖版 74-①)

표면은 회청색을 띤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굽은 낮고 둥글며 굽속을 깊게 깎아내었다. 굽에 내화토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비교적 양질이다.

底徑 :6.6 現高:3.8

68) 백자접시편(圖面 37-②; 圖版 74-②)

기형은 구연이 다소 내만하고 짧은 동체를 거쳐 높고 외반된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내면과 유를 깨끗이 닦은 접지면에 내화토비짐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에는 기포가 형성되었다.

口徑 :10.2 底徑 :6.6 現高:3.8

69) 백자접시편(圖面 37-③; 圖版 74-③)

전면에 가는 빙렬이 있다. 구연은 내만하고 짧은 동체를 거쳐 직립한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접지면의 폭이 고르다. 내면과 유를 닦지않은 굽접지면에 내화토비짐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석고질로 불순물이 섞여 있다.

口徑 : 11.0 底徑 : 7.2 器高:2.8

70) 백자잔편(圖面 37-④; 圖版 74-④)

유 속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며 표면은 회백색을 띤다. 구연은 내경하며 동체에서 팽만하다가 직립한 굽으로 이어

지는 형태이다. 희미한 내저원각이 있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않고 가는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다.

口徑 :7.2 底徑 :5.8 器高:5.2

71) 백자잔편(圖面 37-⑤; 圖版 74-⑤)

회백색유를 두껍게 시유하였으나 흘러서 뭉쳐 있다. 전면에 성근 빙렬이 있다. 굽은 직립하며 부드럽게 동체로 이어진다. 굽은 안굽으로 접지면의 유를 깨끗이 닦고 번조하였다. 태토는 불순물이 섞인 석고질이다.

口徑 :6.2 底徑 :3.8 기고:3.8

72) 백자접시편(圖面 37-⑥; 圖版 74-⑥)

기형은 구연이 직립하며 동체에서 팽만하다가 낮고 직립한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접지면을 둥글게 성형했으며 굽속을 깊게 깎아내었다. 표면은 청백색의 색조를 띤다. 태토는 양질이다.

口徑 :8.4 底徑 :5 器高:3.0

73) 백자대접편(圖面 37-⑦; 圖版 74-⑦)

굽은 낮고 외반하며 둥글게 성형하였으며 굽속을 깊게 깎아내었다. 접지면의 유를 깨끗이 닦고 번조하였다. 태토에 소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다.

底徑 :6.0 現高:3.0

74) 백자제기편(圖面 37-⑧; 圖版 74-⑧)

표면은 광택이 있으며 청회색을 띠고 전면에 빙렬이 있다. 굽은 높고 굽다리에 각이 지게 성형되었다. 성형상태가 거칠다. 내면바닥과 굽접지면에 굽은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底徑 :7.4 現高:4.2

75) 백자제기편(圖面 38-①; 圖版 75-①)

투명한 청색유를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다. 굽다리는 둥글게 성형되었다. 내면과 유를 닦지않은 접지면에 굽은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백색으로 잡물이 소량 섞여 있다.

底徑 :7.8 現高:3.8

76) 청화백자대접편(圖面 38-②; 圖版 75-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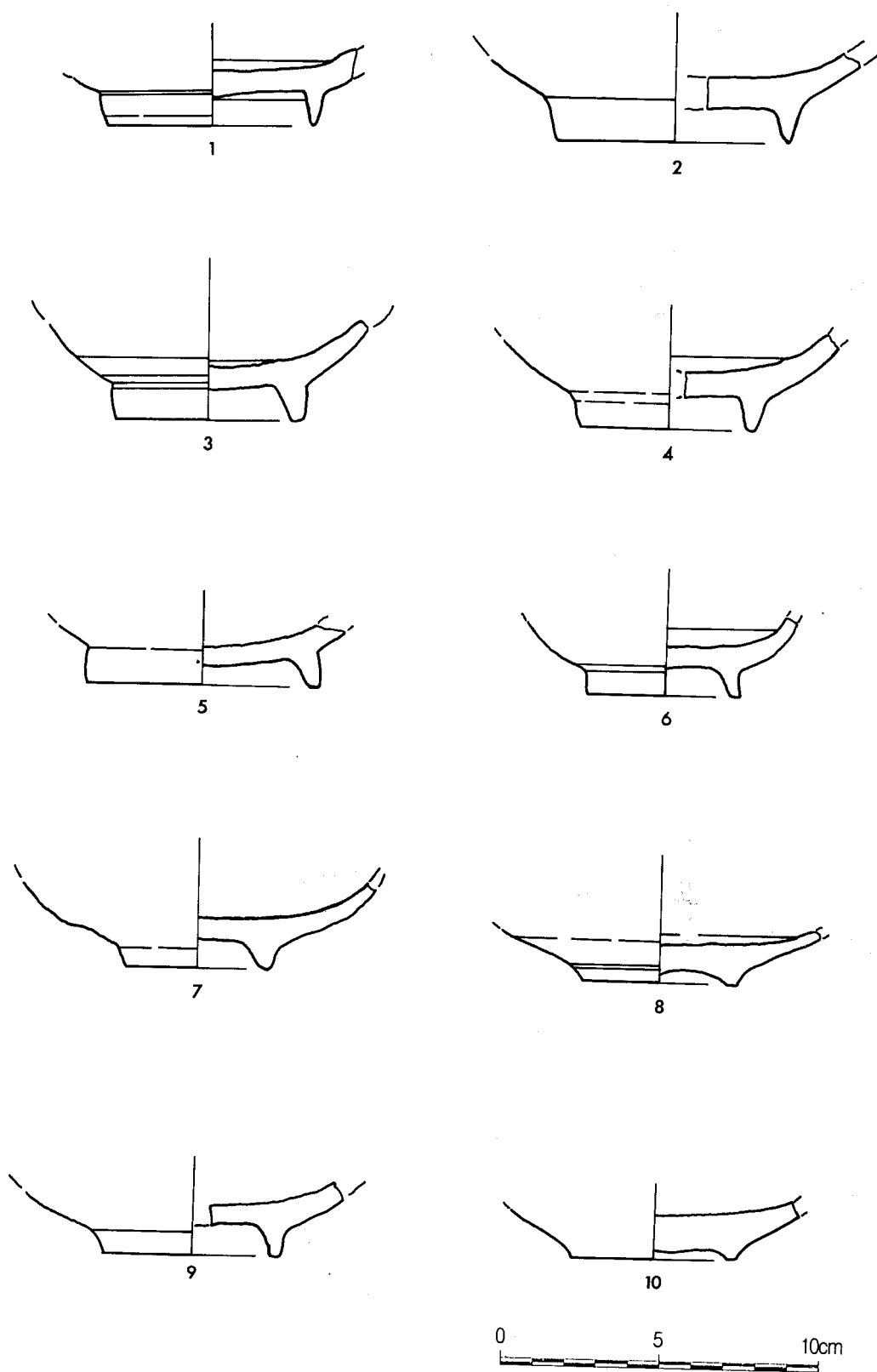
유 속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며 암회색을 띤다. 발색이 좋은 청화안료를 사용하여 내외면에 시문하였다. 굽은 낮고 굽속을 깊게 깎아내었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않고 가는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5.0 現高:4.8

77) 청화백자저부편(圖面 38-③; 圖版 75-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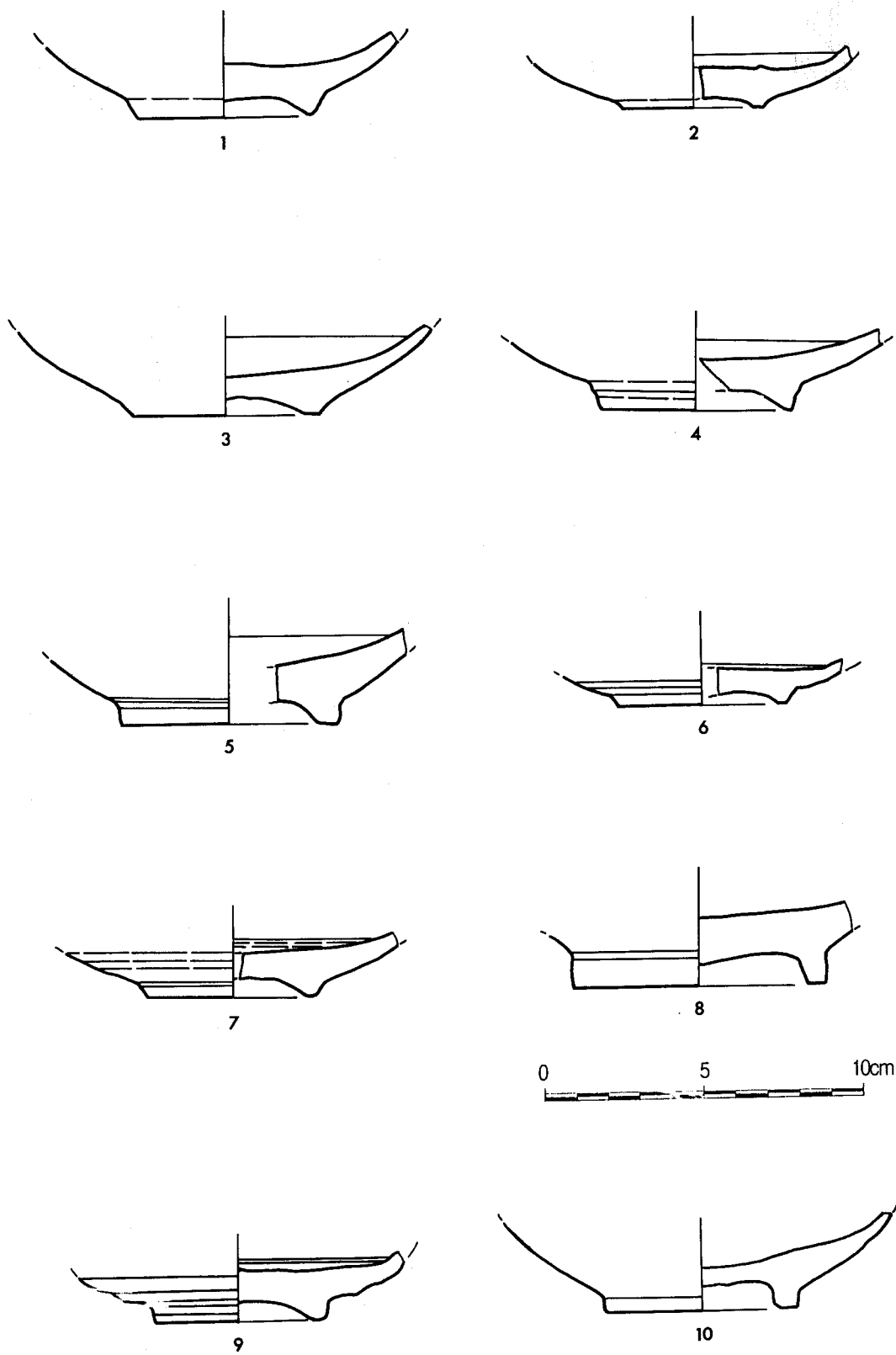
발색이 밝은 청화안료를 사용하여 내외면에 시문하였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않고 가는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백색으로 양질이다.

底徑 :3.8 現高: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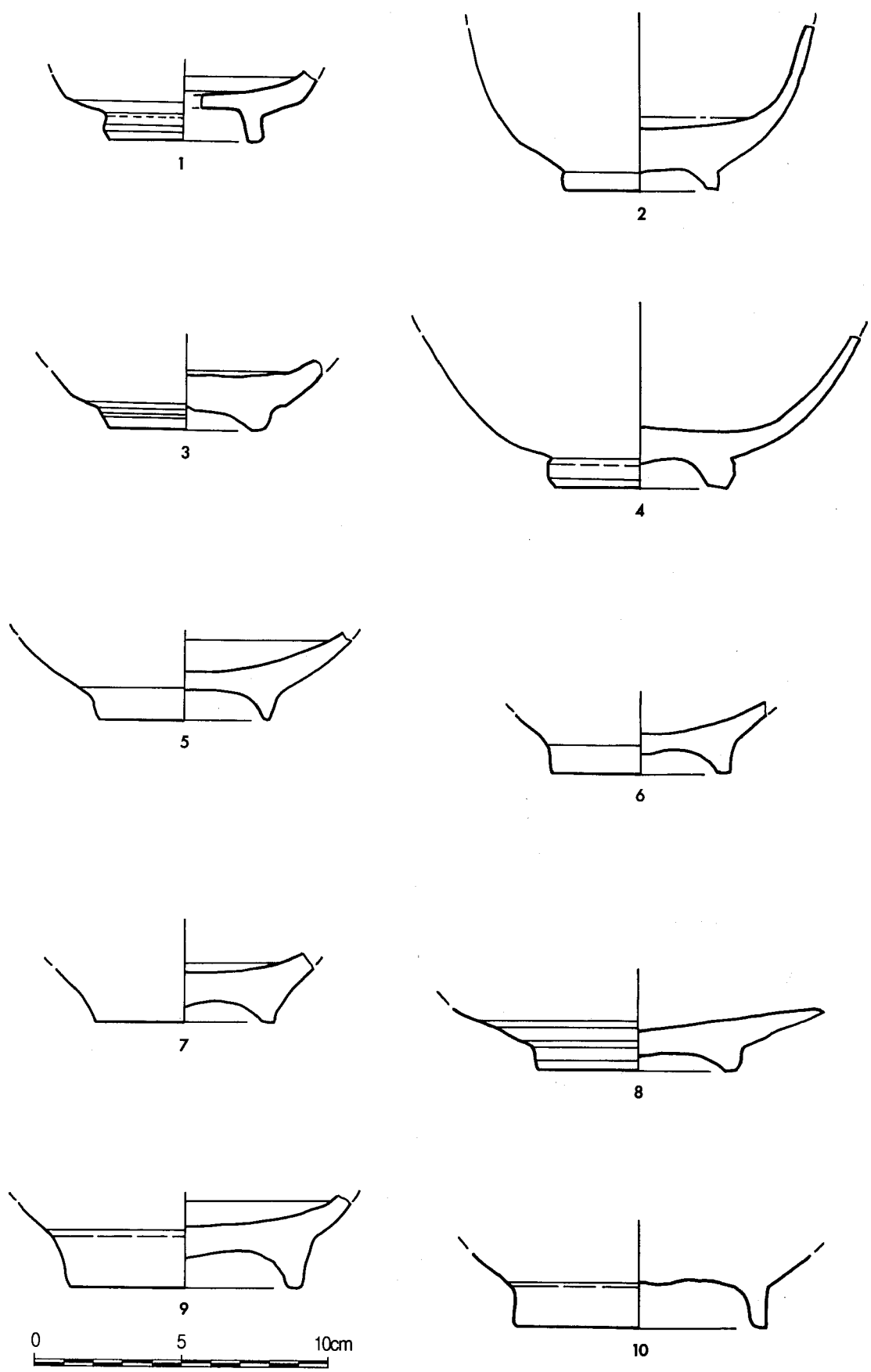


圖面 30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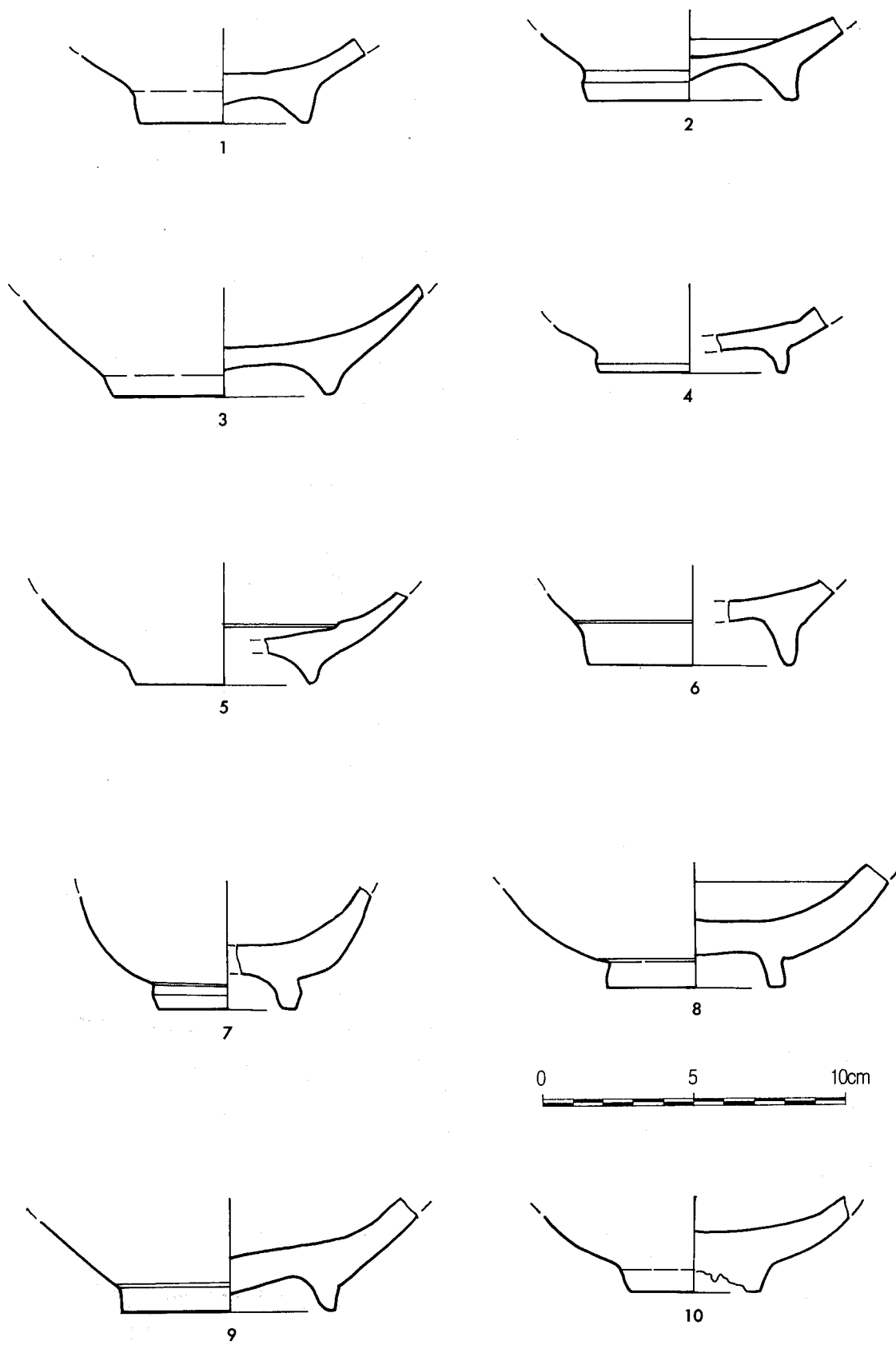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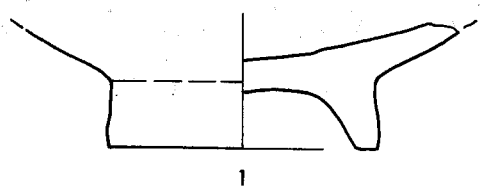
圖面 31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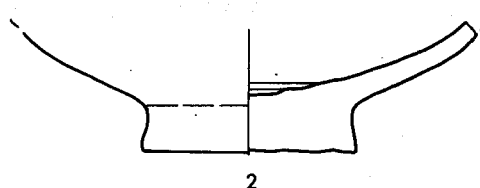
圖面 32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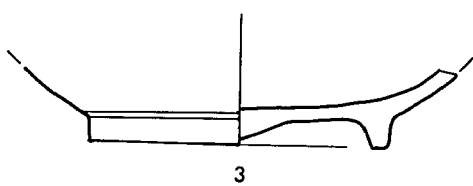
圖面 33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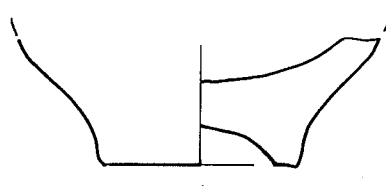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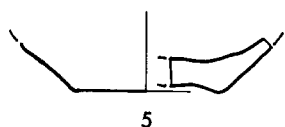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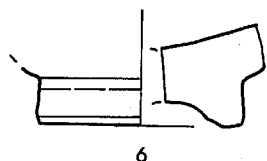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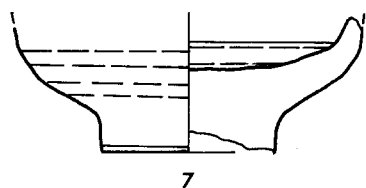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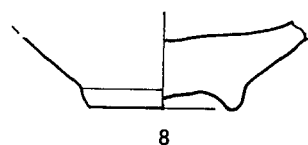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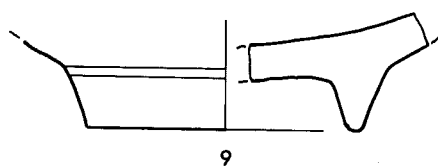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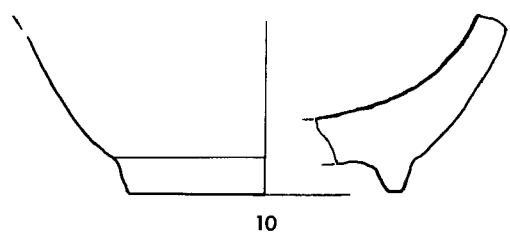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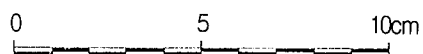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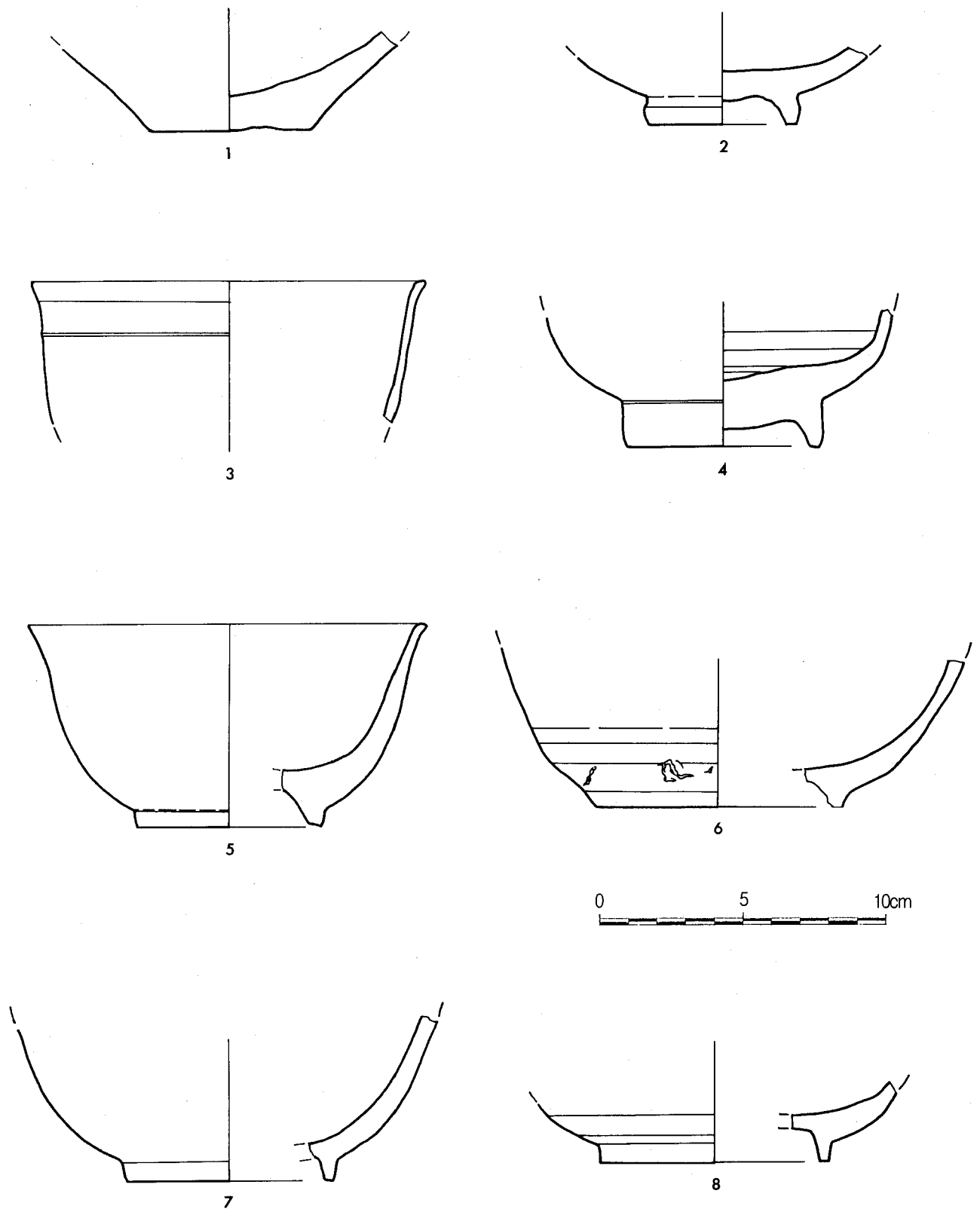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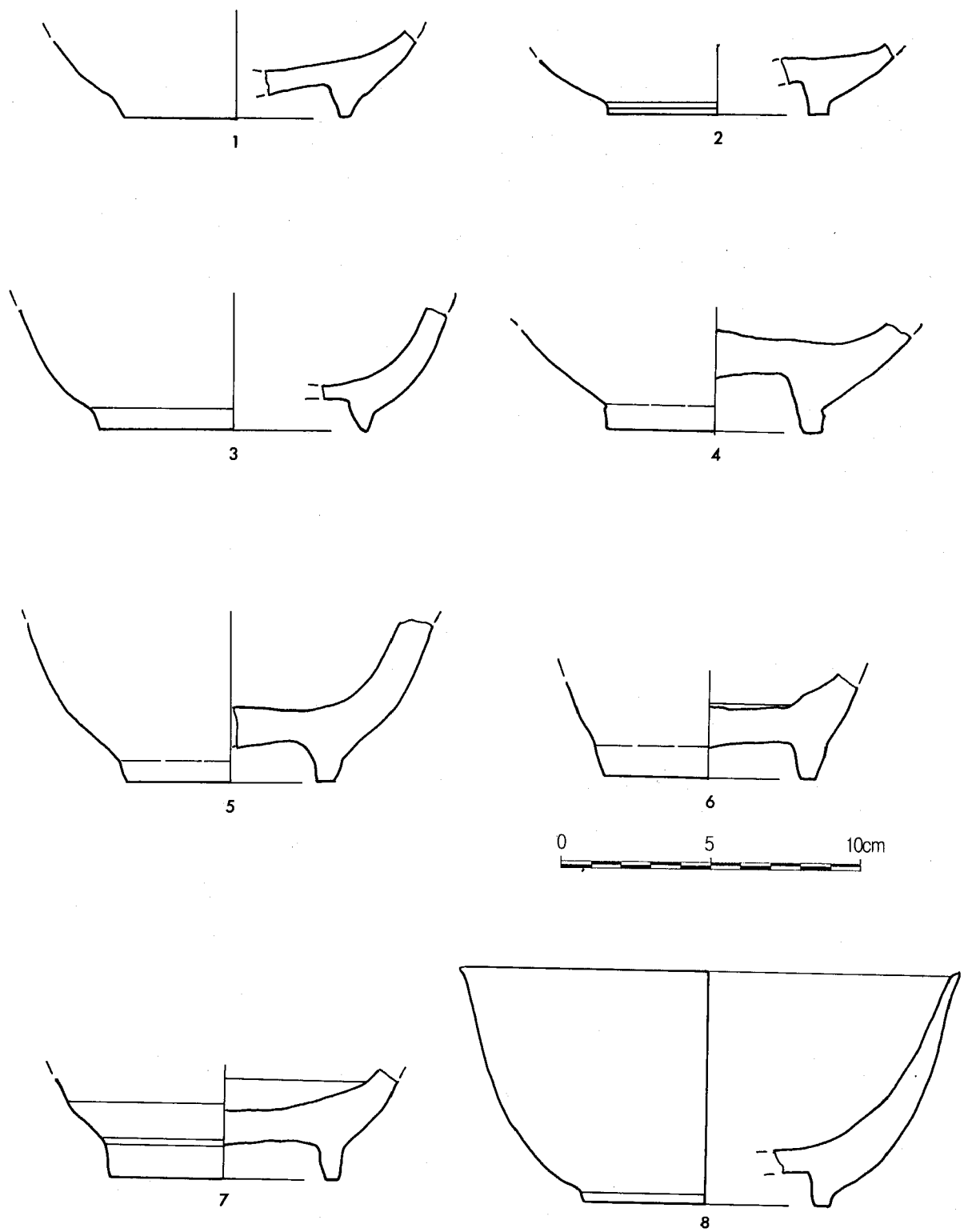


圖面 34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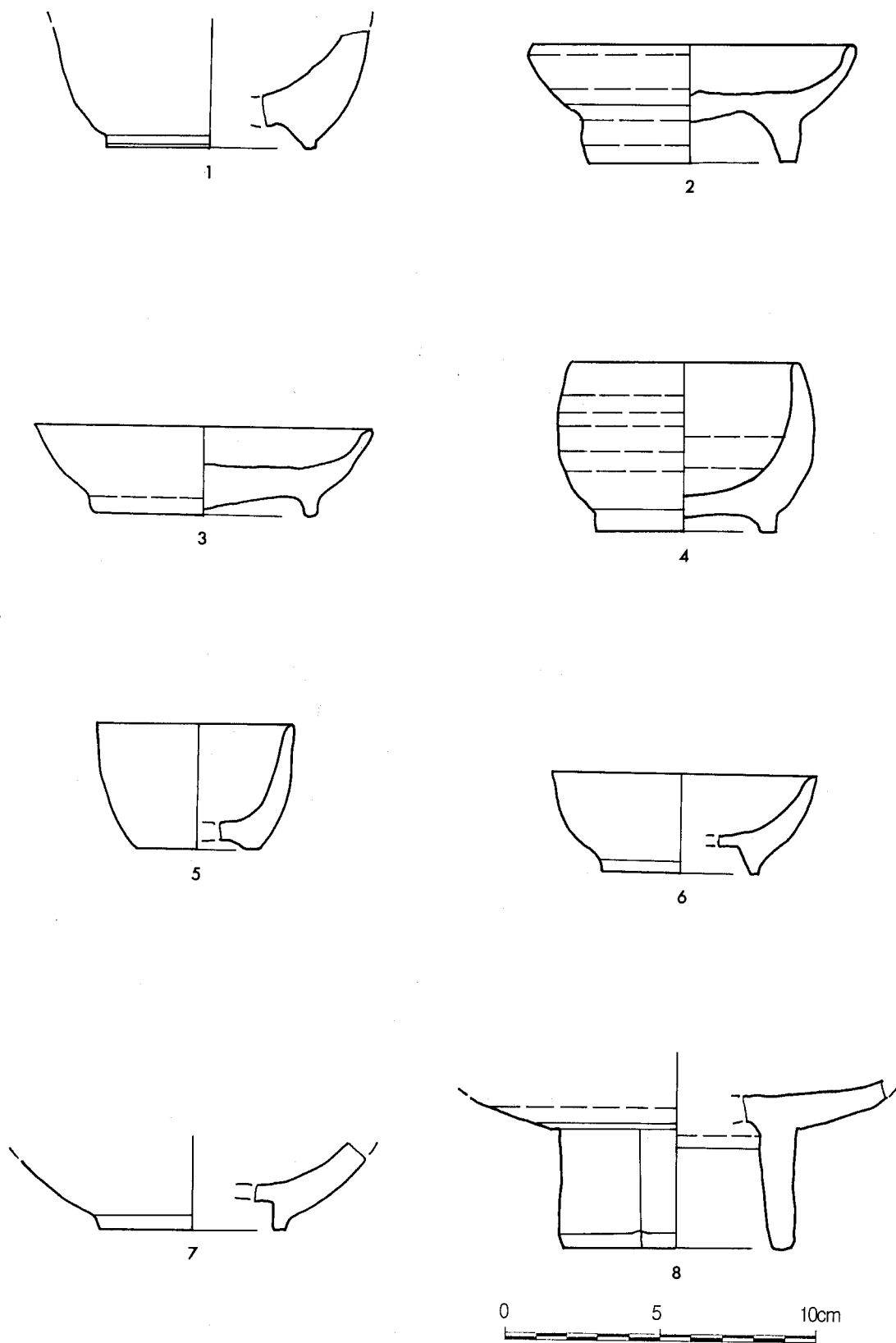


圖面 35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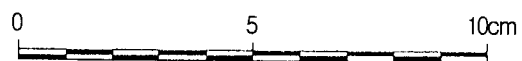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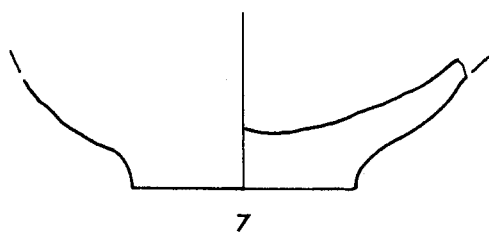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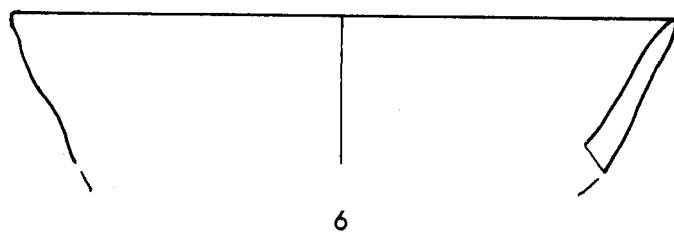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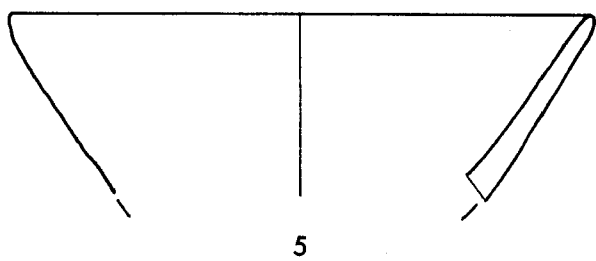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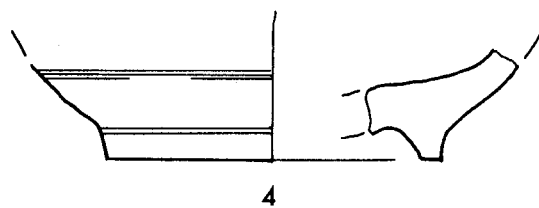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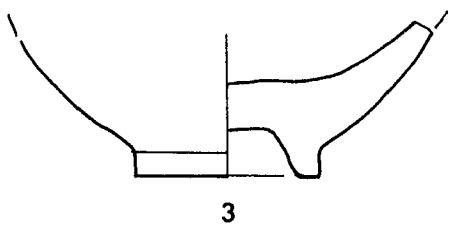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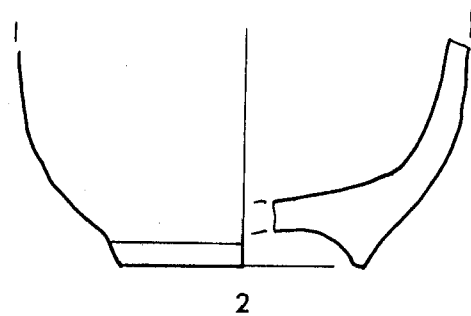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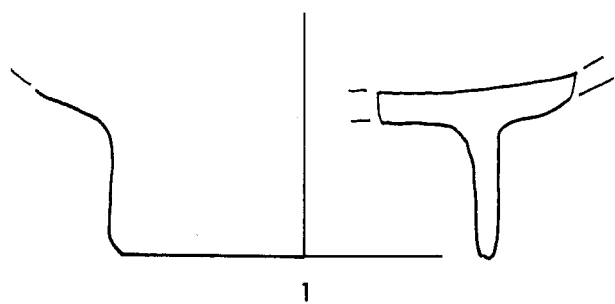




圖面 36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7)



圖面 37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8)



圖面 38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9)

78) 청화백자저부편(圖面 38-④; 圖版 75-④)

발색이 좋은 청화안료를 사용하여 내외면에 시문하였다. 표면은 백색의 태토와 어울려 암회색을 띤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유를 닦고 내화도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양질이다.

底徑 : 7.0 現高 : 2.4

79) 청화백자구연부편(圖面 38-⑤; 圖版 75-⑤)

광택이 있는 회청색유를 시유하였으나 유가 흘러서 묻쳐있다. 유속에 기포가 형성되어있다. 청화안료를 사용하여 외면에 시문하였다. 기형은 구연이 직립하며 동체에서 다소 팽창하는 형태이다. 태토에 기포가 형성되었다.

口徑 : 12.4 現長 : 3.8

80) 청화백자구연부편(圖面 38-⑥; 圖版 75-⑥)

표면색조는 회청색을 띠며 유가 흘러서 묻쳐있다. 유 속에 기포가 형성되었다. 청화안료를 사용하여 외면에 시문하였다. 구연은 직립하여 동체에서 다소 팽창하는 형태이다. 태토에 기포가 형성되었다.

口徑 : 14.2 現長 : 3.0

81) 흑유저부편(圖面 38-⑦; 圖版 75-⑦)

흑유를 시유하였으나 유의 두께가 고르지않아 발색이 다르다. 동체와 굽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통굽이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않고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태토는 비교적 양질이다.

底徑 : 4.8 現高 : 2.8

### 제 3절 기타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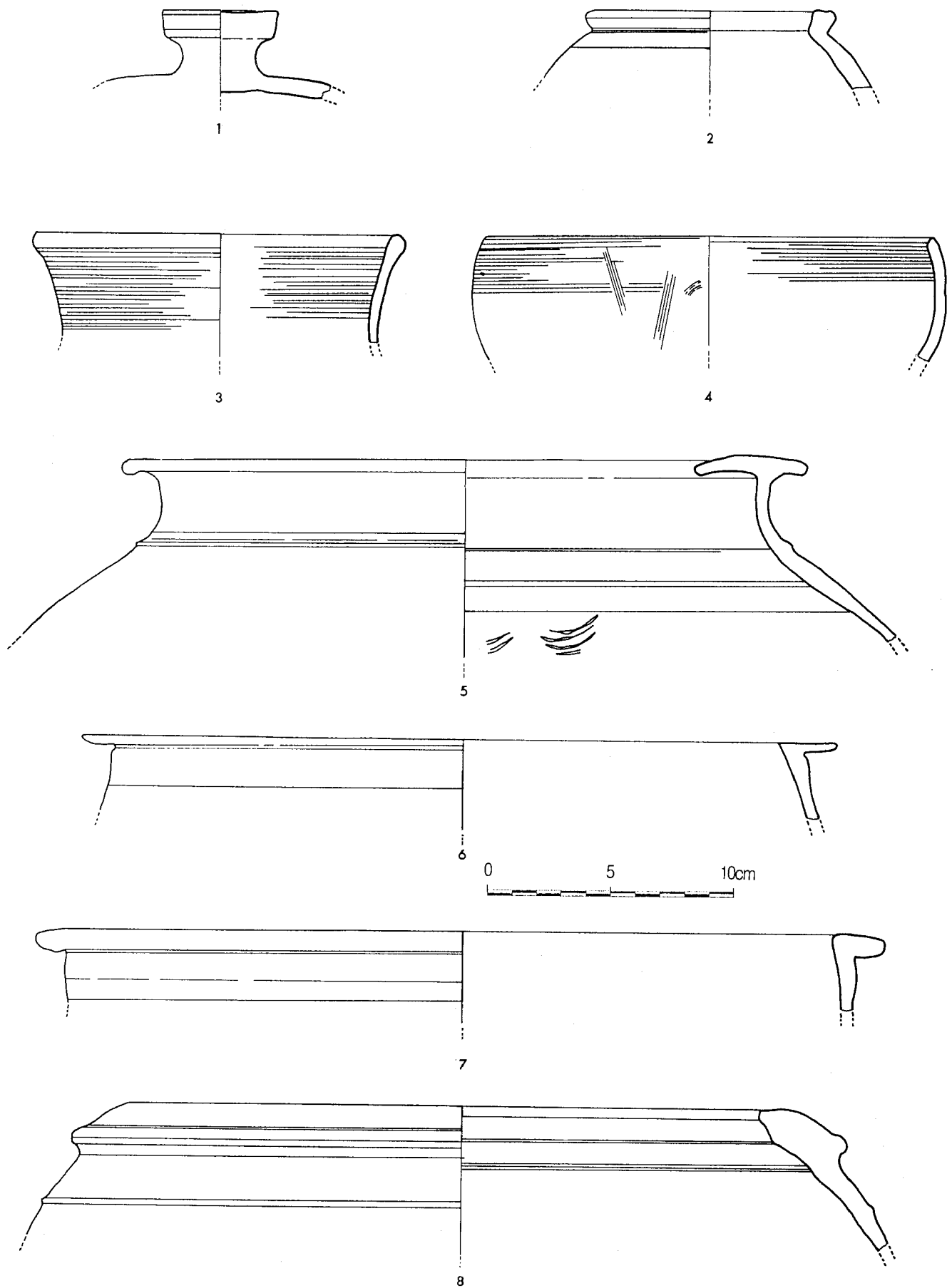
1. 陶器類(圖面 39, 40; 圖版 76, 77)

이 도기편들은 A,B구역 전반에 걸쳐 두루 확인되었다. 도면 40-1번은 완형으로 B구역 조선후기 구덩이 바닥에서 확인되었고 그 형태가 제주도의 물허벅과 유사하다. 도면 39-5,6과 40-2는 매우 정성된 태토에 시유상태가 양호한 그릇편으로 그 수법이 중국산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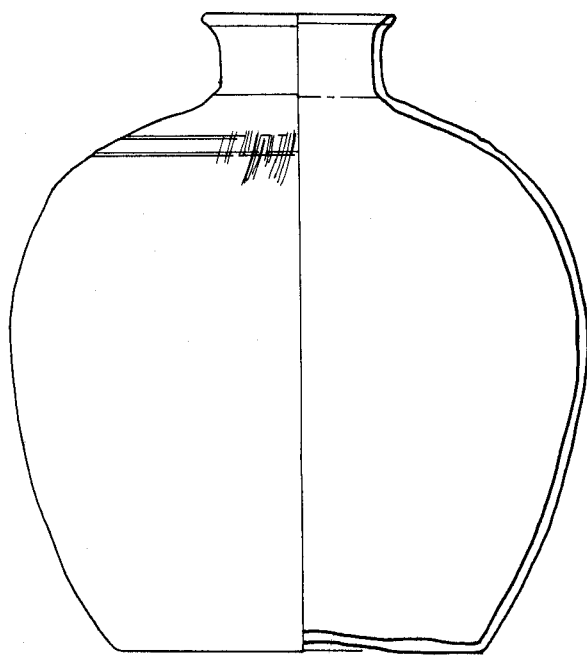
각 도기의 속성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cm

圖面	圖版	口徑	底徑	器厚	屬 性
39-1	77-1	4.4	-	3.2	盤口형태의 두경손잡이편. 회색연질 내면 빗질흔적과 물레흔 포착.
39-2	77-2	9.6	-	0.8	항아리 구연부편. 회청색경질.口脣를 둥글게 처리하였고 동체로 완만하게 연결.
39-3	77-3	14.6	-	0.4	단정호 구연부편. 순부는 둥글게 마감.내외면 미세한 회전판흔.
39-4	77-4	18.2	-	0.4	사발편. 회색연질.구연부 內反.
39-5	77-8	27.6	-	0.6	대형항아리(大壺)구연부편. 구순부는 'T'자형태. 전부와 경부 구분턱에 突帶.
39-6	77-6	30.6	-	0.6	대형항아리편.순부 平平하고 얇게 처리. 태토및 시유상태 매우 양호.
39-7	77-7	34.6	-	0.5	대형시유항아리구연부편.순부 두툼고 평평하게 처리. 시유상태및 발색 양호.
39-8	77-8	33.4	22.8	1.0	대형항아리구연부편.회청색경질.순부에 돌대처리후.한번더 蓋를 끼우는 附加口緣를 둠.
40-1	76	11.2	12.0	0.6	항아리完型.경부는 단정형태이고 순부는 둥글게 마감하였다. 연질 계통이며 외심은 회청색,내심은 회색을 띤다.바닥과 동체는 따로 만들어 부착,성형하였다. 그릇의 외면에는 가는 사선이 연속해서 불규칙하게 그어져 있고 내면 도박흔이 관찰된다.
40-2	77-9	-	8.4	0.5	항아리저부편.회청색.바닥중심이 성형시 들러 있음. 도면39-2번과 동일개체로 판단됨.
40-3	77-10	-	15.0	0.5	시유항아리저부편.바닥끝이 약간 들린 형태.내외면에 회전흔이 뚜렷하고 태토, 시유상태가 매우 양호함.
40-4	77-11	-	22.6	0.7	대형 항아리저부편. 회청색경질. 바닥과 동체를 따로 부착.
40-5	77-12	-	-	0.8	대형 항아리저부편. 평저부. 회청색경질. 외면에 타날흔.



圖面 39 정의현 객사지 출토 도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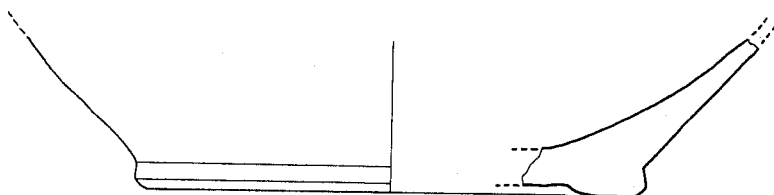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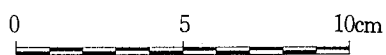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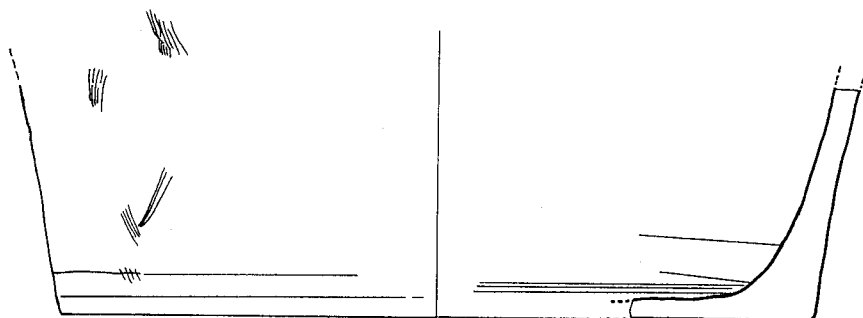
2



3



4



5

圖面 40 정의현 객사지 출토 도기(2)



## 2. 일제시대자기(圖 8-1, 2, 3, 4, 5, 6)

일본자기는 가장 상층에서 출토된 것들로 뚜껑류, 잔류, 접시류, 대접류 등이 있다. 대부분이 청화안료를 사용하여 시문하였으며 기계로 생산된 것들이라서 청화안료의 발색이 밝고 유약도 고르고 깨끗하게 시유되었으며 번조받침 흔적은 거의 없다. 굽안에 청화안료로 제작년 혹은 제작지를 써 놓은 것도 있다.

## 3. 동전·벼루

### 1) 日本銅錢(圖版 78-7)

기와매립구덩이(1)에서 출토되었다. 원형동전으로 앞면에는 상단에 「大日本」, 하단에 「大正八年」이라 되어 있어, 1919년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뒷면은 2중의 내부원안에 花文이 돌려져 있다. 直徑: 2.0cm

### 2) 벼루(圖版 78-8)

A구역 남쪽부분 기와매립구덩이에서 기와편과 섞여 출토되었다. 회색을 띠며 전체형태는 직사각형을 띤다. 우측 상단이 파손된 상태이다. 뒷면 우측 중앙에는 「二高」라는 銘文이 새겨져 있다.

길이: 16cm, 폭: 10cm, 두께: 2.0cm

## 제 5 장 綜合 考察

숙종 28년(1702)에 金南吉 畫工이 그린 耽羅巡歷圖는 李衡祥 제주목사가 각 邑城과 鎭城을 순력하는 광경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sup>1)</sup> 총 40장의 그림 중에 3장이 정의현성에 관한 그림으로, 그중에서 客舍에서 양로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 당시 객사건물의 모습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 그림에 묘사된 객사건물은 일정한 높이의 기단 위에 팔작지붕을 하고 있어, 主舍(正堂) 좌우에 翼舍(翼室)가 있는 조선시대 객사의 일반적인 양식과 전혀 다르다.<sup>2)</sup> 그리고 측면과 정면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채 기둥은 5기가 그려져 있다. 같은 탐라순력도의 제주목 觀德亭 그림을 실제 현존하는 건물과 비교하면 지붕은 옆모습이 그려졌지만, 기둥 묘사는 정면에서 보이는데로 그려졌다. 따라서 정의현 객사 경우도 그림 그대로라면 정면 4칸 건물이 된다.

실제 발굴조사를 통해서 위치나 규모로 보아 객사라고 판단되는 것은 건물지(1)인데, 남쪽 정면에 3.2-3.4m 간격을 두고 4기의 원형 積心石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을 뿐, 나머지 기단부와 적심석 혹은 주춧돌은 파괴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체 건물터의 대략적인 범위는 동서 17~18m, 남북 12~13m로 추정된다.

이러한 건물지(1)의 遺構 狀態를 앞서 언급한 그림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객사건물은 정면 4칸 혹은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이 된다. 이와 같은 翼室없는 팔작지붕의 객사 건물로서 전라도 羅州牧(錦城縣) 錦城館의 예가 있어 참고가 된다.<sup>3)</sup> 이 객사건물은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단층 장방형의 건물이다.

탐라순력도를 보면 객사건물의 남쪽으로 동서장축으로 길게 맞배지붕형태로 지어진 대문채경 兵庫 건물이 있다. 兵庫건물은 총 9칸으로서 서쪽에서 3번째 칸에 대문이 나 있으며, 객사와 대문채 건물사이에 넓은 마당공간이 있다.

실제 발굴을 통하여 확인된 대문채 추정 건물지는 건물지(6)으로서, 건물지(1)과 방향축을 같이하여 동서로 시설되었고 건물지(1)의 서쪽기단렬과 이 건물지의 서편 끝선이 거의 동일선에서 끝나고 있다. 3개소의 부정형 적심석과 북서쪽, 남쪽, 동쪽의 기단 시설로 미루어 정면 9칸, 측면 1칸으로, 전체규모는 동서 28.5m, 남북 6m의 규모장방형 건물지로 추정된다.

이 대문채 건물지(6)과 객사 건물지(1)과의 거리는 14m 떨어진 바, 평택 彭城邑 객사의 예에서 확인되는 객사와 정문 사이 거리와 비슷하다.<sup>4)</sup> 그러나 발굴을 통하여 확인된 바로는 이 마당에는 판석으로 敷石시설을 한 건물지(3)과 남북장축의 건물지(2)가 있다. 그리고 건물지(2)의 동쪽으로 잇대어 건물지(4)가 있다.

그런데 건물지(2)의 成土層과 방고래시설 내부, 건물지(3), (4)의 적석틈에서 16세기 것으로 생각되는 인화무늬 분청사기편은 확인되었지만 그 이후의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건물지(2)~(4)는 분청이 출토하지 않은 건물지(1) 이전에 축조되었다가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17세기이후에 이 자리는 비어 있었으며, 1702년에 그려진 탐라순력도에 이곳은 활쏘기와 양로잔치가 베풀어지는 넓은 마당이 자리한 것과 일치한다.

되풀이 말하면 객사건물의 제1차시기는 분청사기의 사용시기에 만들어진 17세기이전의 건물지군으로 상호 건물지가 연결되어 있는 건물지(2), 건물지(3), 건물지(4)가 이에 해당된다. 제2차시기는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건물지군으로 이 중에서 18세기초에 편찬된 탐라순력도에 나타나는 객사와 대문채 건물은 건물지(1)과 건물지(6)으로 추정된다.〈插圖 10〉

1차시기에 만들어진 건물지(2)는 방고래시설과 薄石시설이 확인되어 온돌방구조를 갖춘 것으로 남북길이 11.5m, 동

1) 李衡祥書, 金南吉書, <<耽羅巡歷圖>>, 1702.

2) 유영철, <朝鮮時代 客舍 建築에 관한 研究>, 고려대석사학위논문, 1990.

3) 국립목포대학박물관, <<羅州市의 文化遺蹟>>, 1989.

4) 평택군, <<彭城邑客舍-實測調査報告書>>, 1994.

서길이 7.0m이다. 건물지(3)과 건물지(4)의 내부 바닥은 割石과 판석을 평평하게 깎 시설임이 확인되었다. 건물지(3)은 남북길이 10m, 동서길이 11.5m로서 동쪽과 서쪽 끝에 벽체시설 흔적이 남아 있다. 건물지(4)는 동서 19m, 남북 11.2m의 장방형 건물터로 잡석으로 바닥을 다졌으며 건물지(2)의 기단석렬과 함께 한다. 이들 건물지(2),(3),(4)는 건물지의 병립배치 상태로 보아, 동일시기에 자리했던 건물지群으로 판단된다. 연결된 3동의 건물지 전체 규모는 동서 38m, 남북 10~11.5m이다.

한편, 이들 3동의 연결 건물지 남쪽으로 동서장축의 긴 장방형 건물지 2棟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건물지(2),(3)의 남쪽 2m지점에서 동서로 연결되는 앞서 말한 대문채검 병고 건물지(6)이 들어서 있었으며 건물지(2)와(4)의 남쪽으로는 동서장축의 건물지(5)가 나타났다.

건물지(5)는 판석형 석재로 기단석렬을 축조하고 나서 그안에 중앙 온돌시설을 만든 것이다. 1차로 주변에 잡석을 채우고 나서 2차로 점토와 섞어 다져 내부를 성토하였다. 이 건물지 유구는 2차시기에 세워진 건물지(6)에 의해서 유구자체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일제 때 형성된 후대의 廢瓦구덩이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욱 심하게 파괴되었다.

이러한 건물지구역(A구역)뒷편인 B구역에서는 일제시대의 시설물과 최근의 국민학교건물로 인해 조선시대 유구층이 거의 파괴되었으나,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적석시설물과 대형 구덩이 유구는 일부 확인되었다.<挿圖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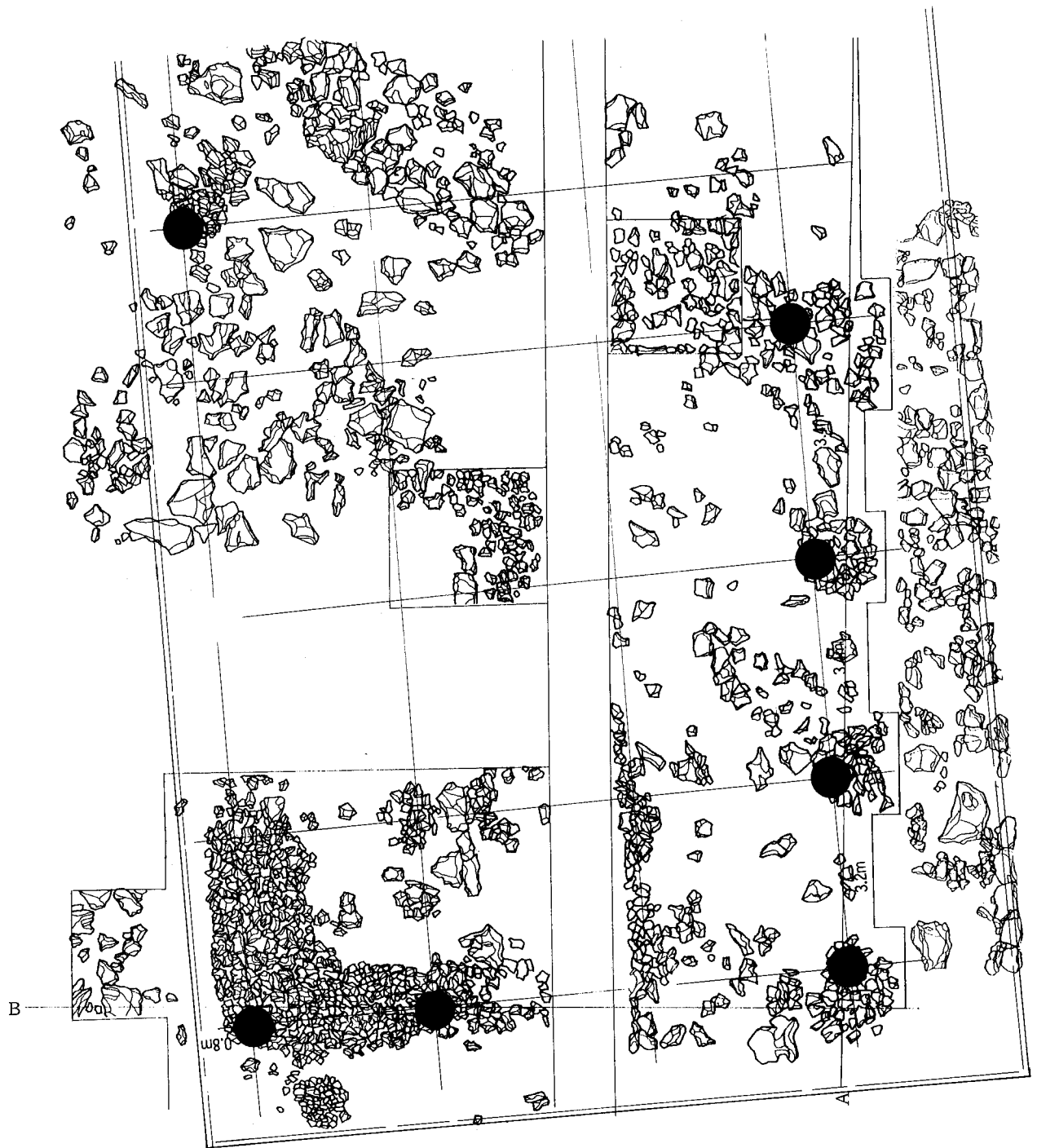


插圖 7 건물지(1)유구 복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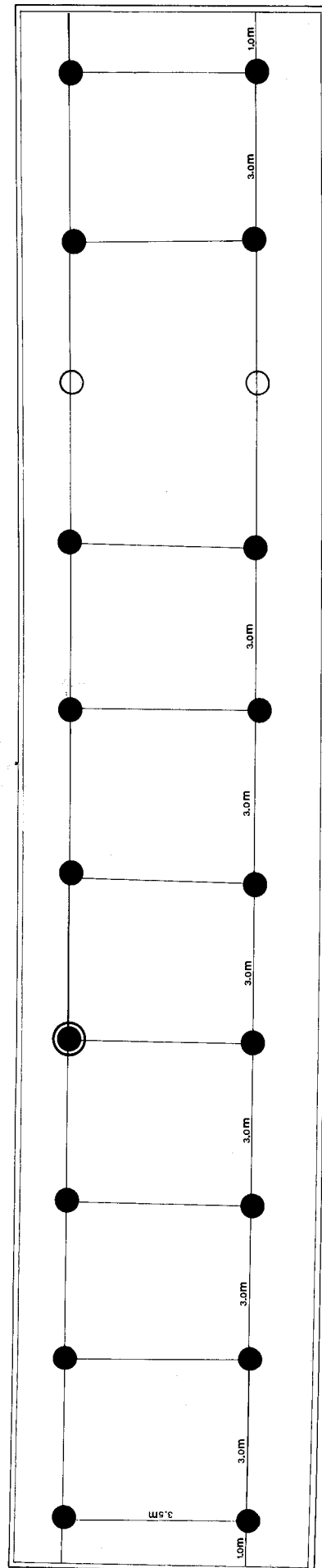


插图 8 건물지(6)유구 복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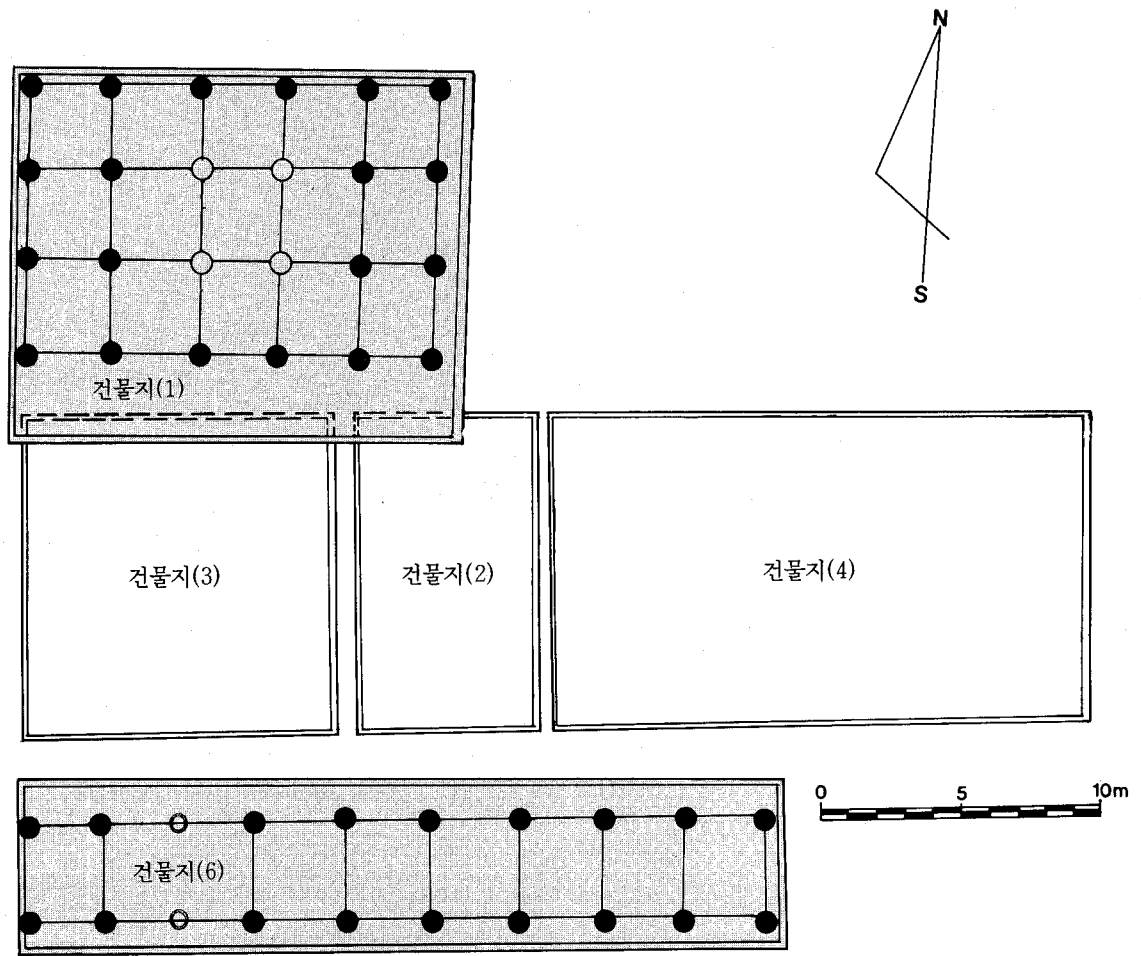


插圖 10 정의현 객사지 건물공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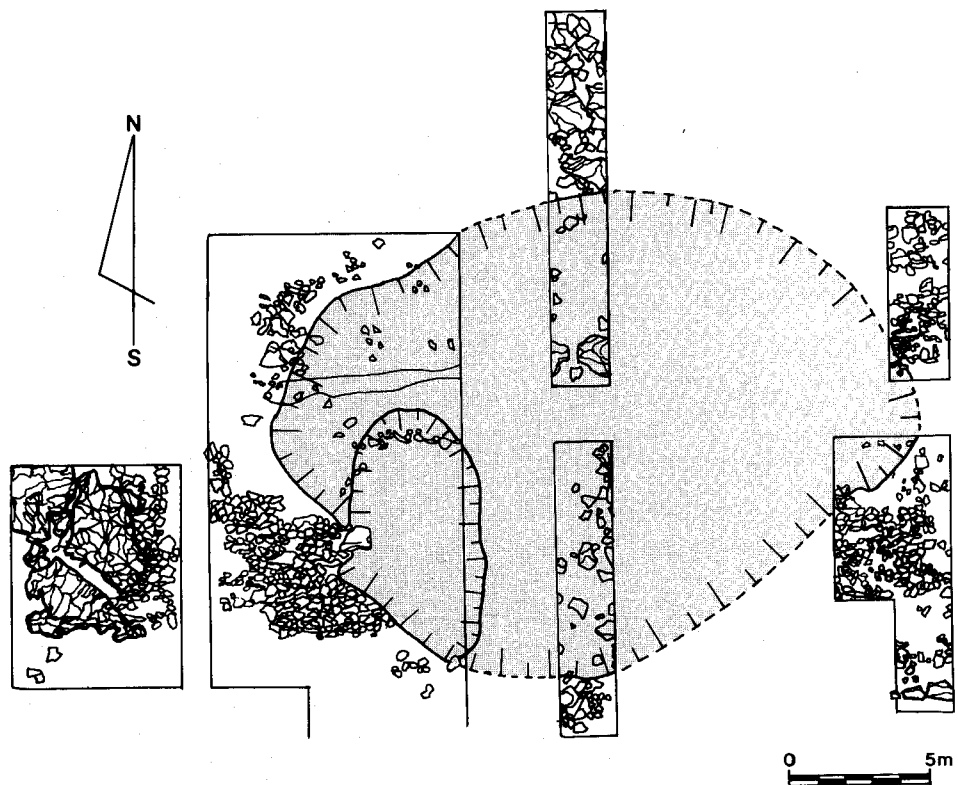


插圖 9 B구역 조선후기 적석시설물과 대형구덩이 배치도



## 맺 음 말

금번 旌義縣 客舍터 발굴조사는 건물 복원을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그런데 발굴된 건물터는 앞서 보듯이 두 시기에 걸쳐 지어진 바, 어느 건물터를 대상으로 복원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두 시기 건물터 중 주춧돌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건물터 범위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것은 16세기 이전 1차 시기에 지어졌다고 생각되는 건물지 (2)~(4)이다. 2차 시기에 지어졌다고 생각되는 건물터 (1)은 4군데 積心石이 확인되었으나, 건물 전체 범위는 명확하지 않았다.

한편 旌義縣 옛 모습을 잘 전하는 1702년의 耽羅巡歷圖 그림의 객사와 일치하는 것은 건물지(1)이다. 같은 그림의 대문채 또한 2차 시기에 지어진 건물지(6)에 대응된다. 또한 현재 정의현청내의 鄕校, 日觀軒등의 권위건물을 비롯해서 초가 등 여러 서민가옥의 형태와 그 배치가 대체로 탐라순력도에서 보는 조선 후기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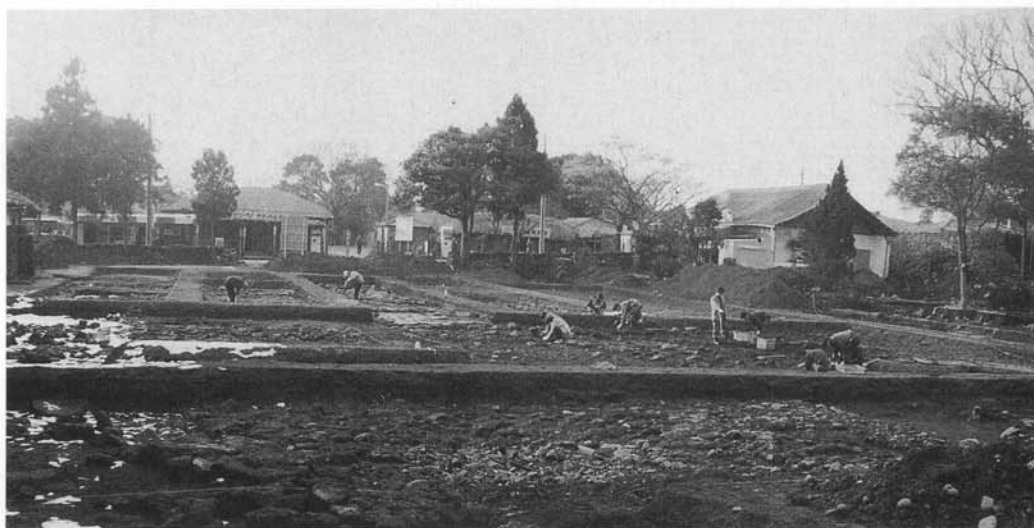
따라서 현존하는 정의현내 다른 건물과 시기, 형태 등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탐라순력도를 통해서 건축양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물지(2)와 건물지(6)에 근거하여 객사터의 객사와 문채 건물은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다.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객사건물은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객사건물 양식과 차이가 나나, 발굴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그 그림이 본래 건물과 다르게 묘사되었다고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객사 건물의 복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조선시대 객사양식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바, 복원 설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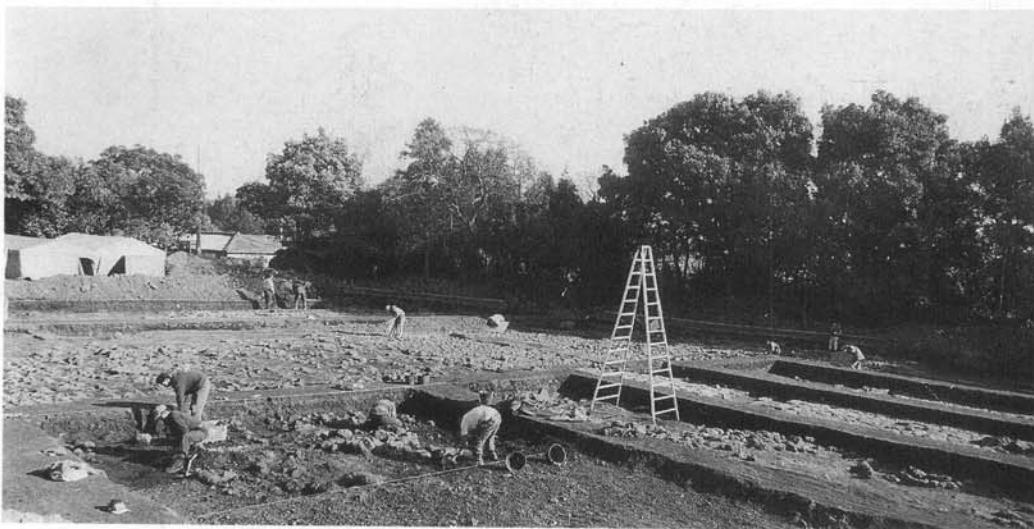
# 圖 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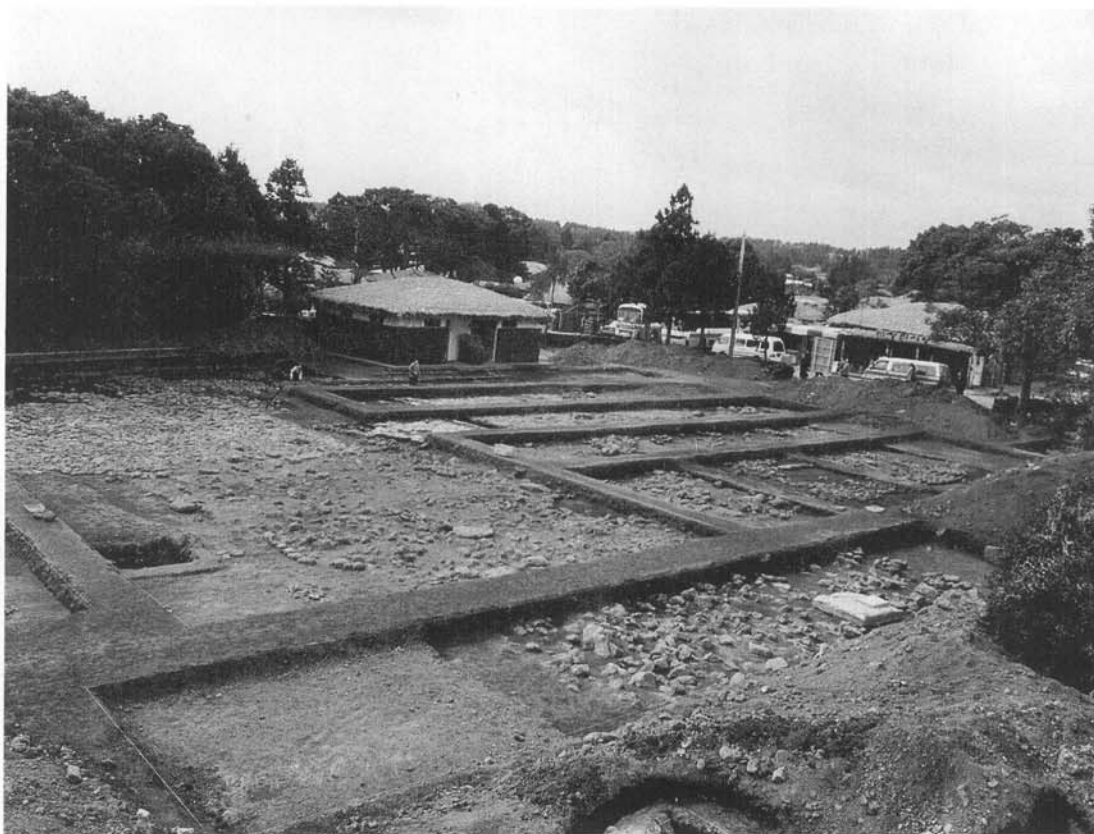
① 유적전경(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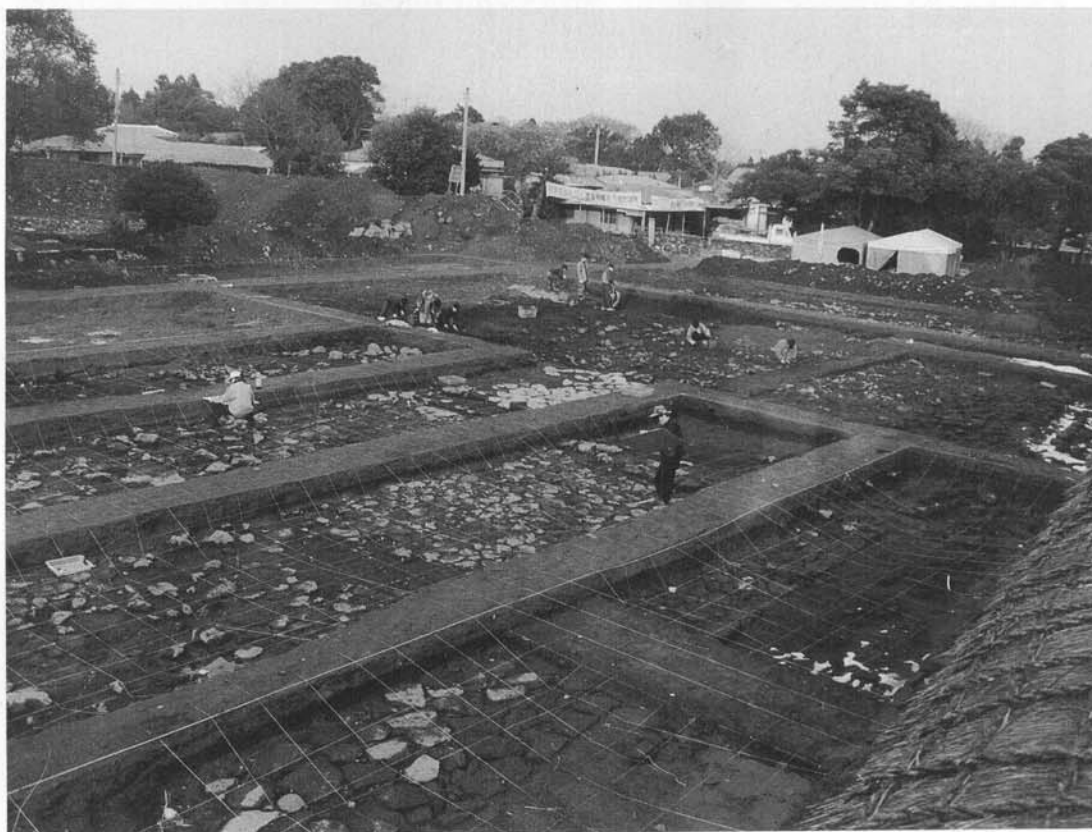
② 유적전경(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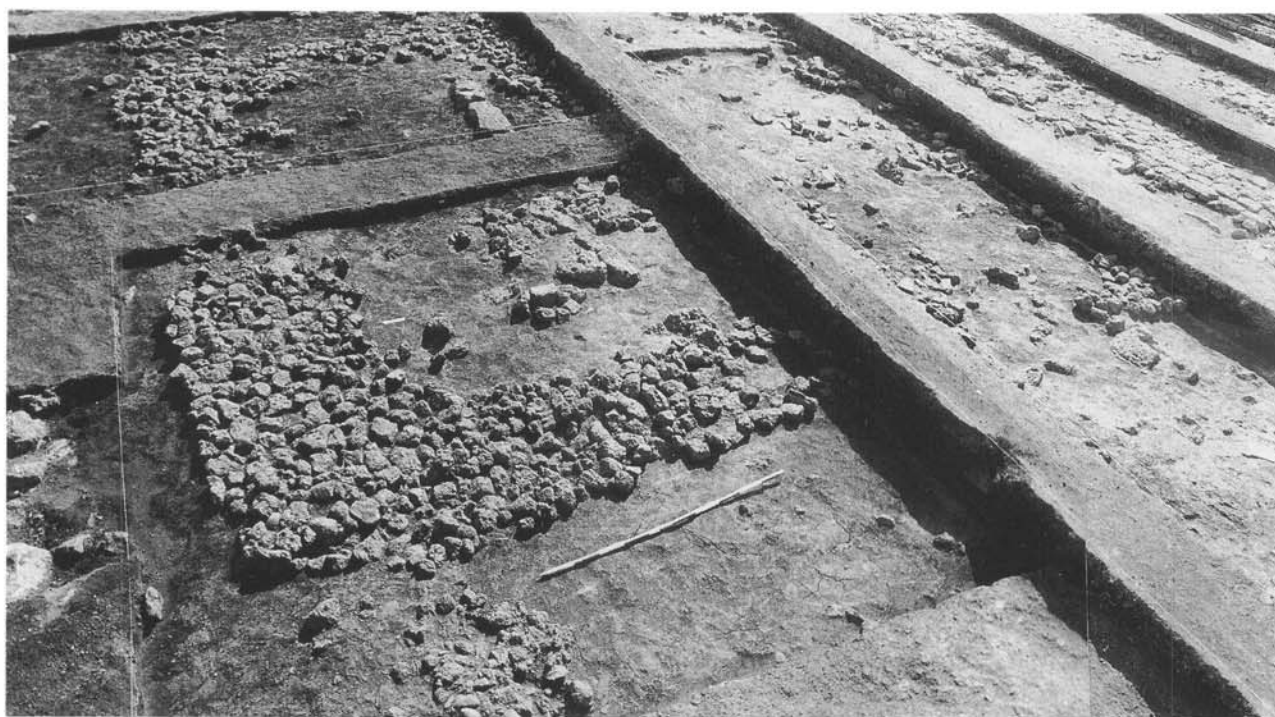
③ 발굴광경



① 발굴지 모습(북동에서)



② 발굴지 모습(남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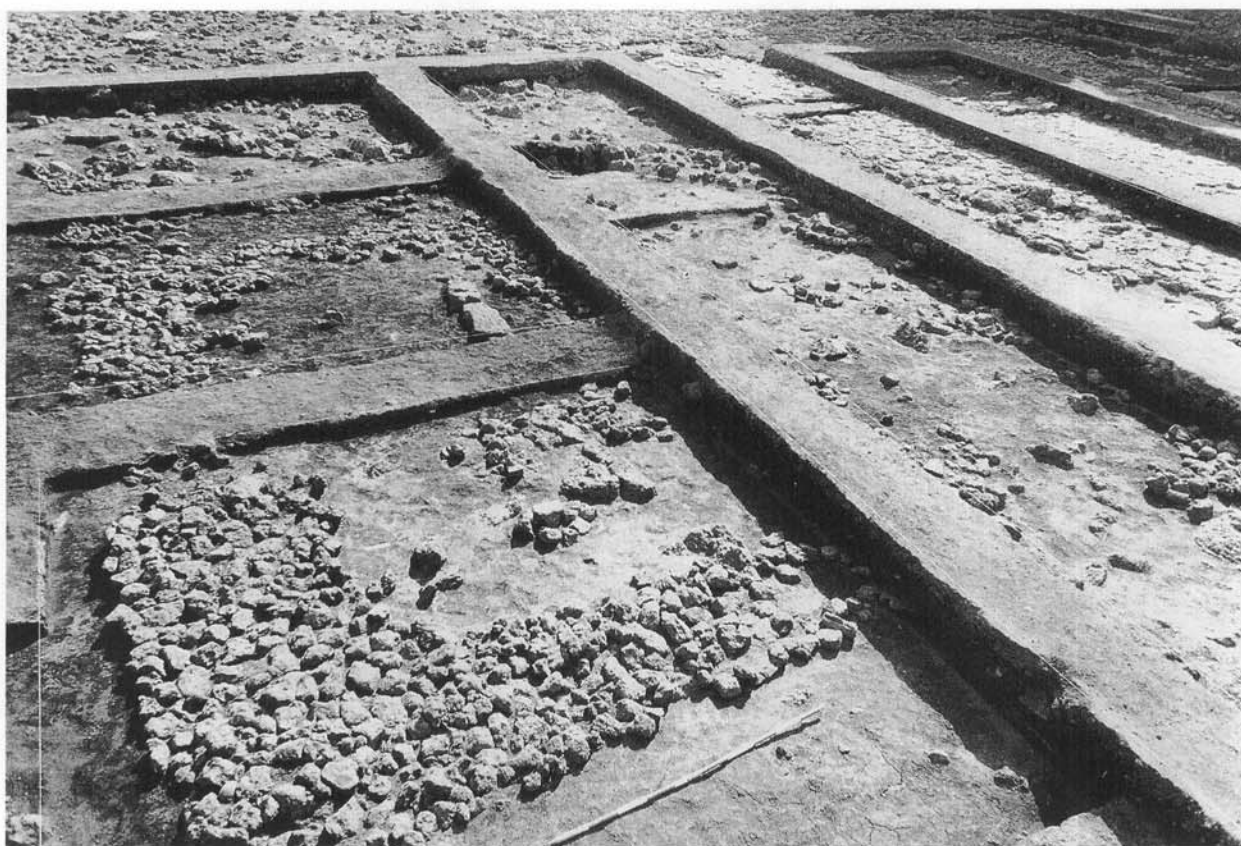


① 건물지(1) 노출상태(서에서)



② 건물지(1) 노출상태(동에서)





① 건물지(1) 노출상태(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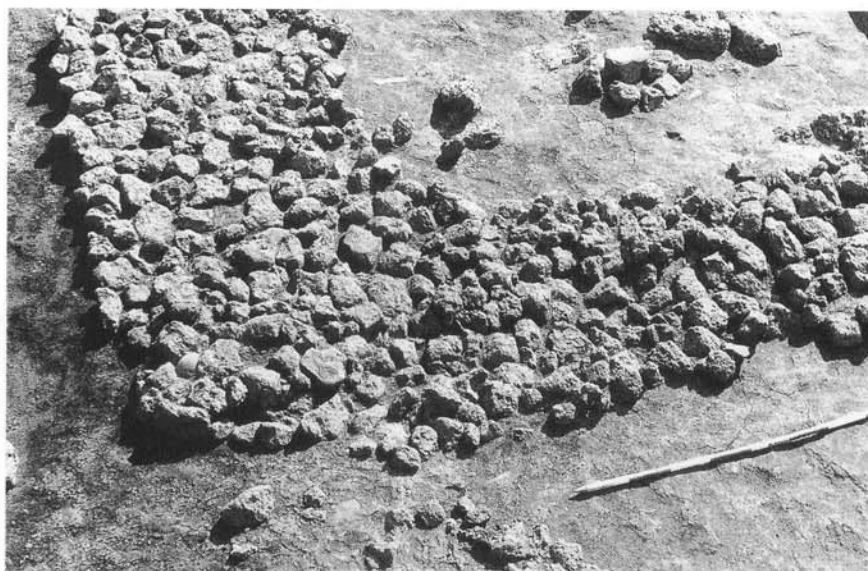


② 건물지(1) 북편 기단석렬





① 건물지(1) 내부 기단석렬과 적석상태



② 건물지(1) 기단석렬 축조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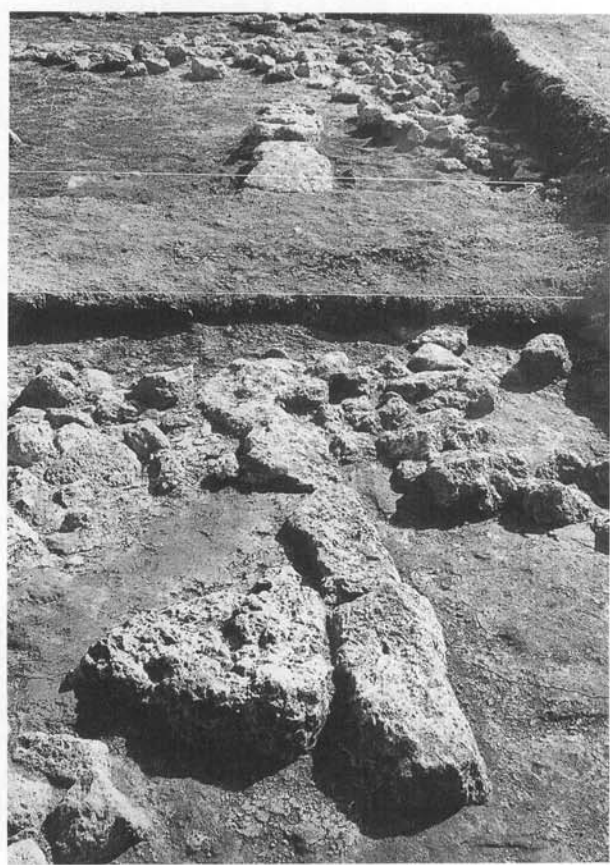
③ 건물지(1) 기단과 초석



① 건물지(1) 내부 방고래시설



② 건물지(1) 내부 방고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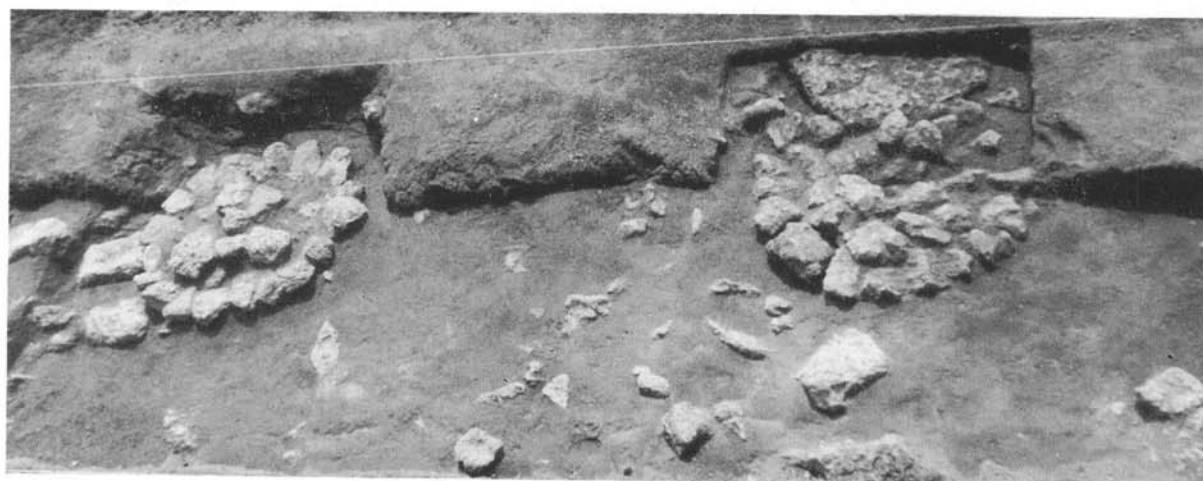
③ 건물지(1) 내부 방고래시설과 초석



① 건물지(1) 정면 적심석 노출상태(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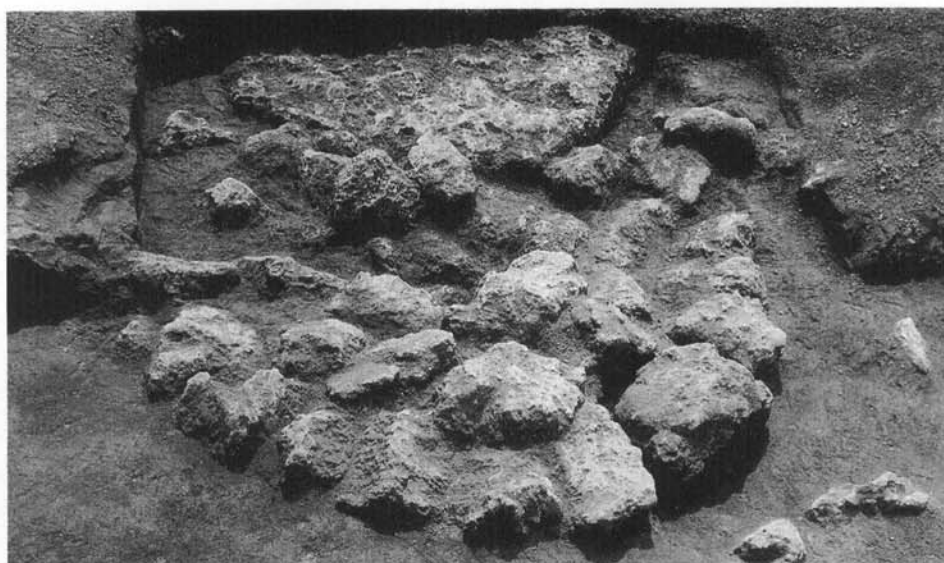


② 건물지(1) 초석군 노출상태(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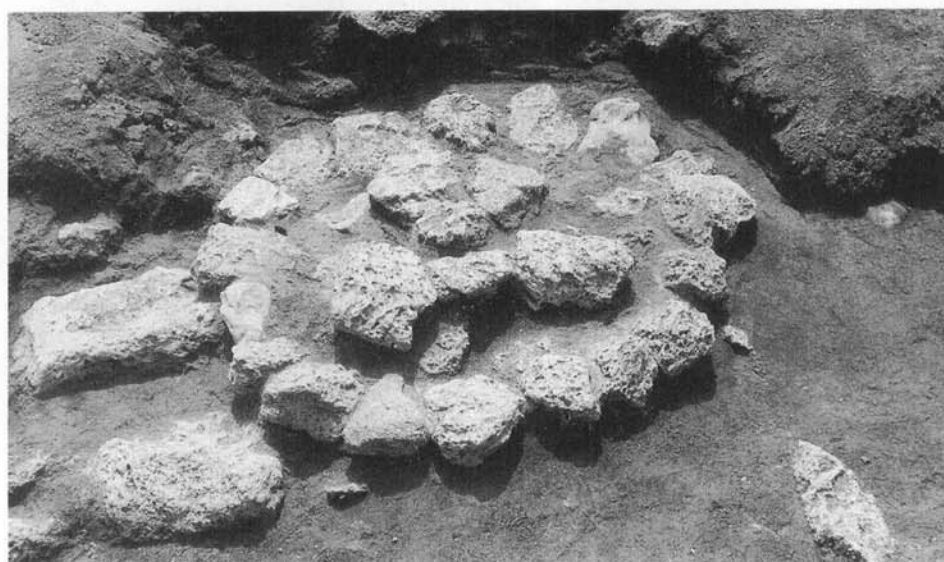


③ 건물지(1) 초석군 노출상태(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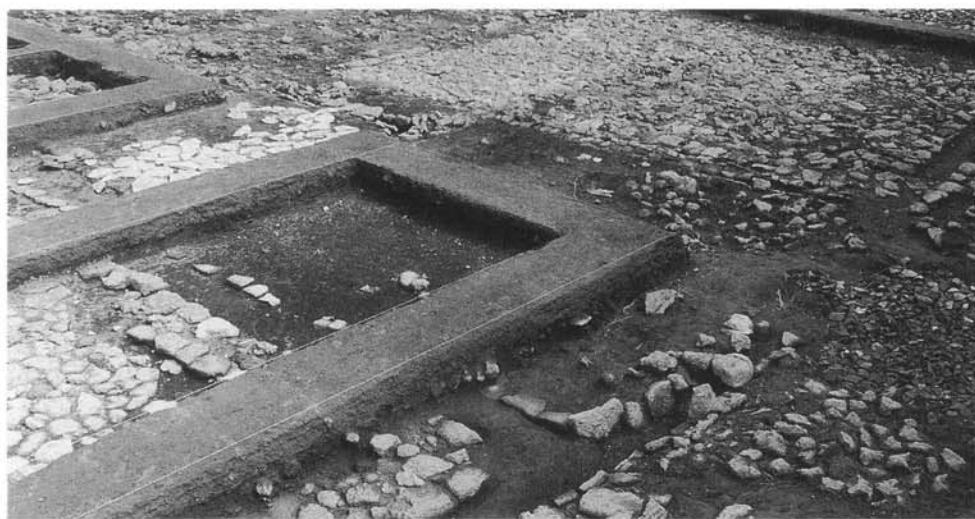
① 건물지(1) 적심석 축조상태(1)



② 건물지(1) 적심석 축조상태(2)



③ 건물지(1) 적심석 축조상태(3)



① 건물지(2) 노출상태(남에서)



② 건물지(2) 노출상태(서에서)



③ 건물지(2) 노출상태(북에서)



① 건물지(2) 북편 敷石과 방고래시설 노출상태(서에서)



② 건물지(2) 북편 부석과 방고래시설 노출상태(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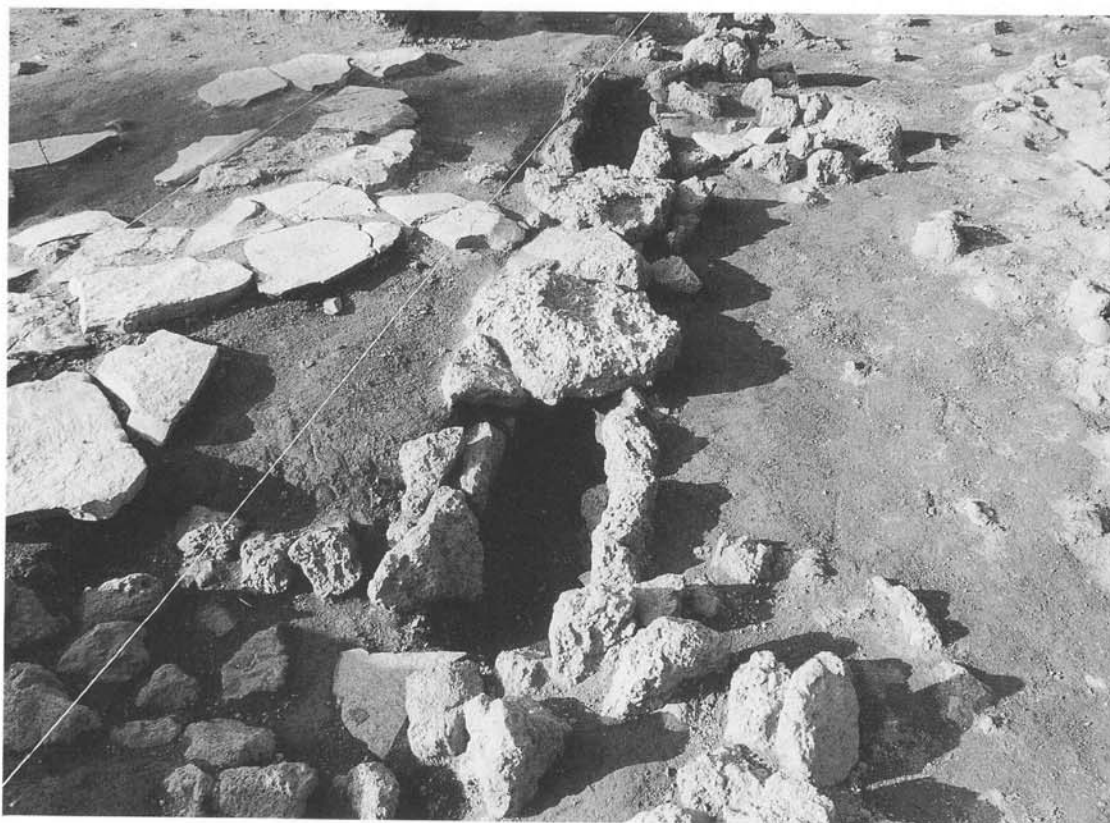


③ 건물지(2) 북편 부석과 방고래시설 노출상태(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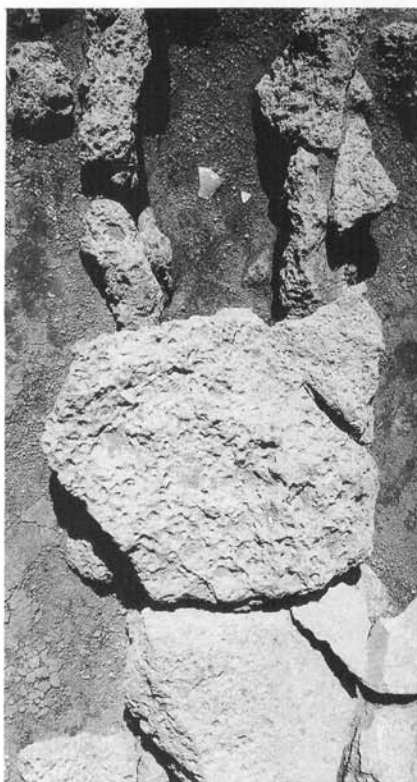




① 건물지(2) 온돌시설 노출상태



② 건물지(2) 방고래시설 축조상태



① 건물지(2) 방고래시설 축조상태(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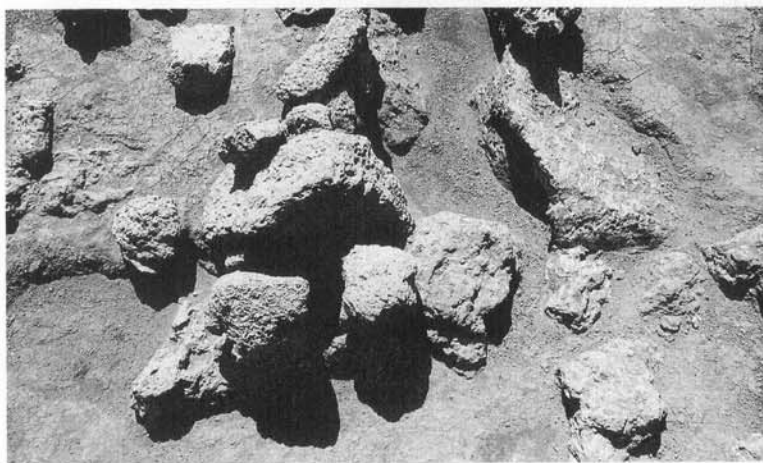
② 건물지(2) 기단석렬 축조상태(세부)



③ 건물지(2) 방고래시설과 박석시설 맞물림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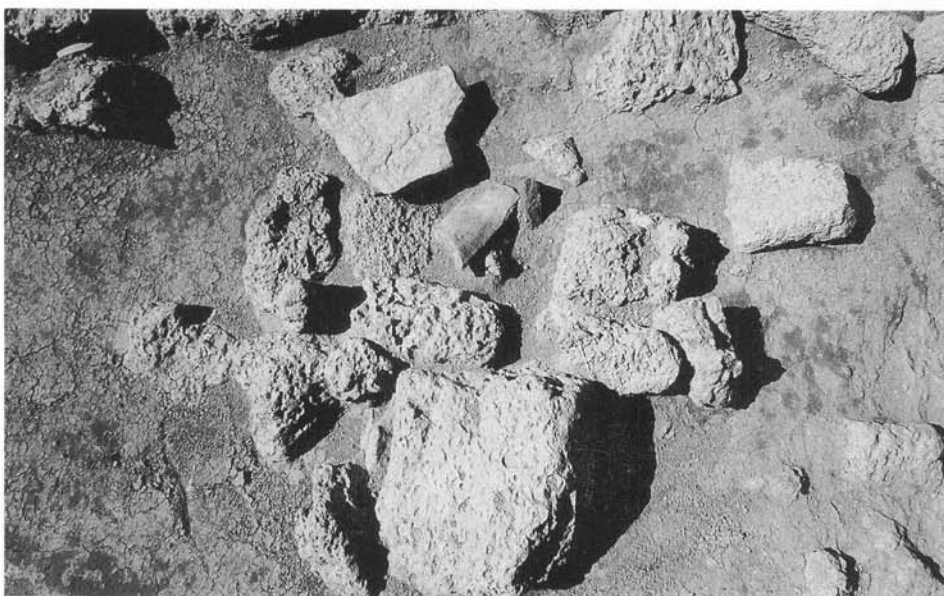
④ 건물지(2) 내부 분청사기 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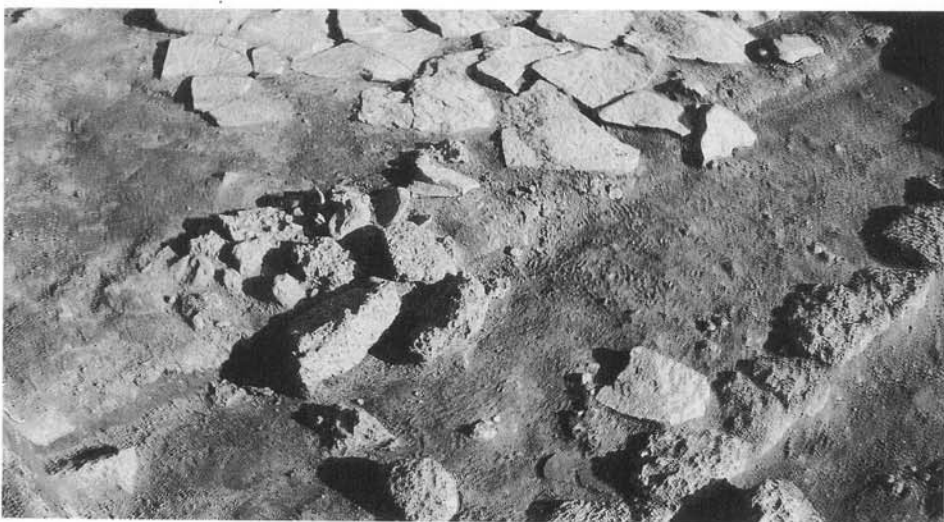
⑤ 건물지(2) 내부 적석상태



① 건물지(2) 적심석 축조상태(1)



② 건물지(2) 적심석 축조상태(2)



③ 건물지(2) 적심석 축조상태(3)





① 건물지(3) 주변유구 배치상태(남에서)



② 건물지(3) 노출상태(북에서)



① 건물지(2)와(3) 배치상태(남에서)



② 건물지(3) 기단석렬 노출상태(북에서)



① 건물지(3)과 건물지(6) 기단석렬 배치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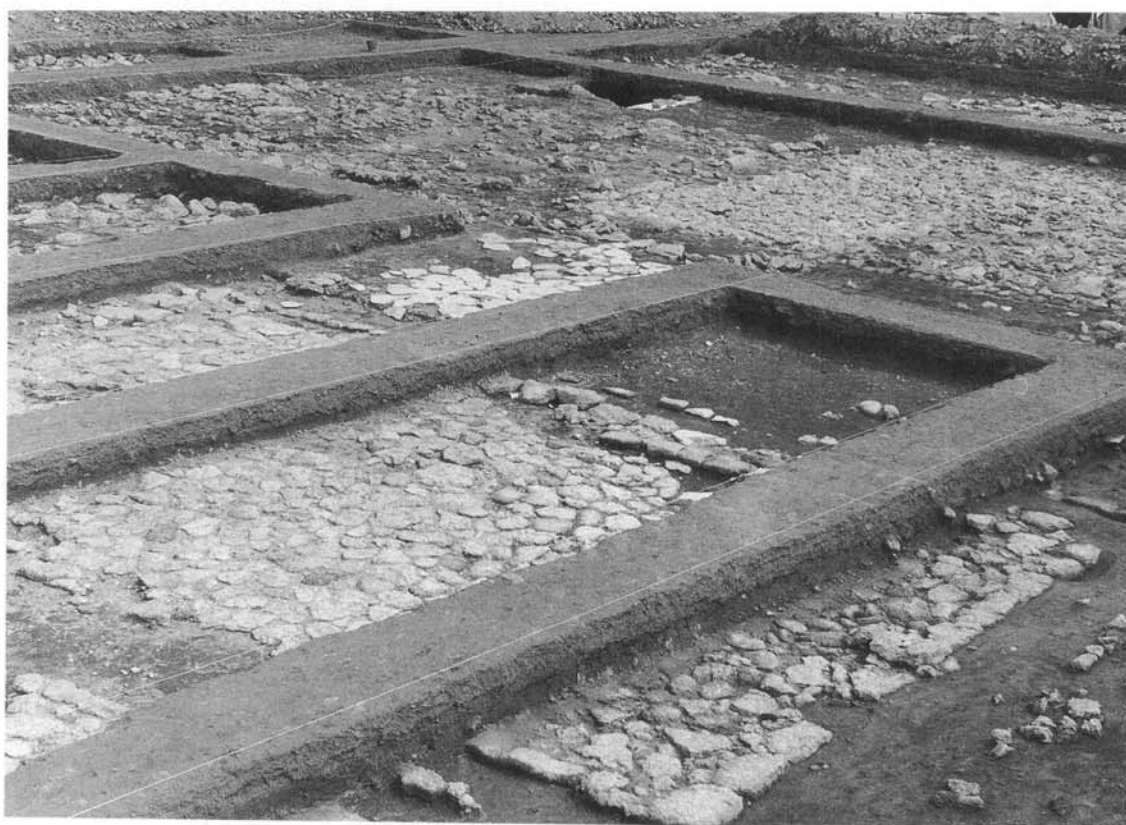


② 건물지(3) 배수구 노출상태(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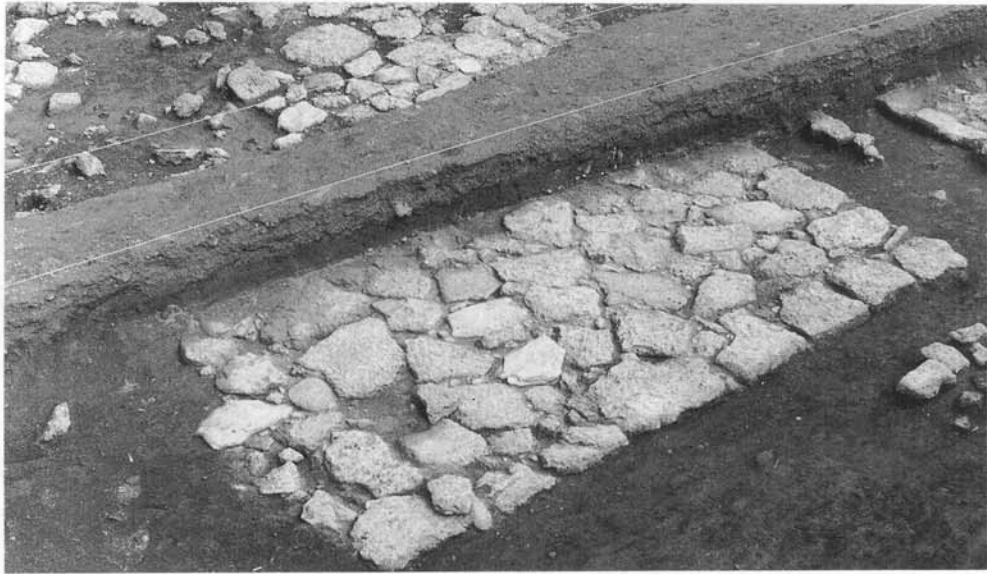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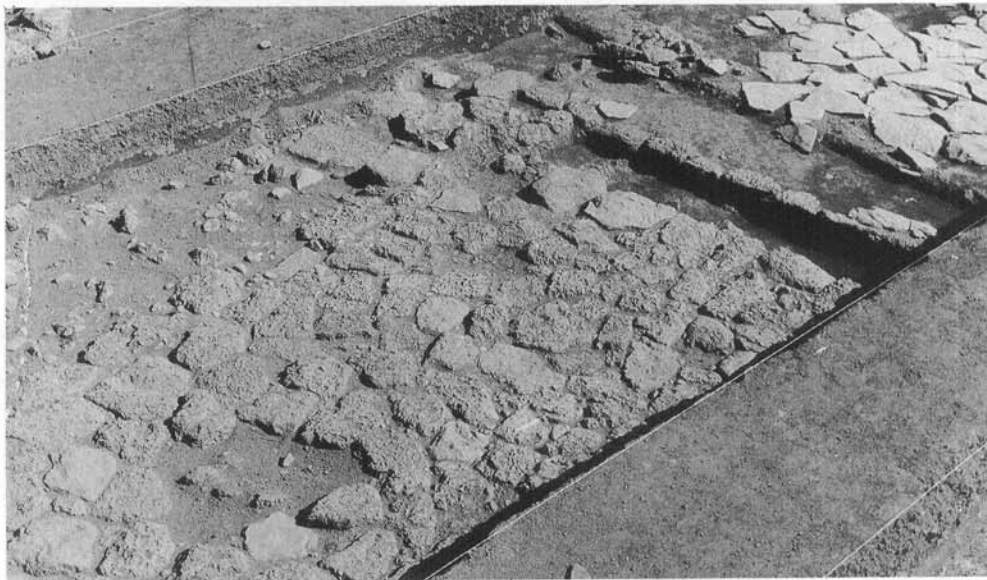
① 건물지(3) 전체바닥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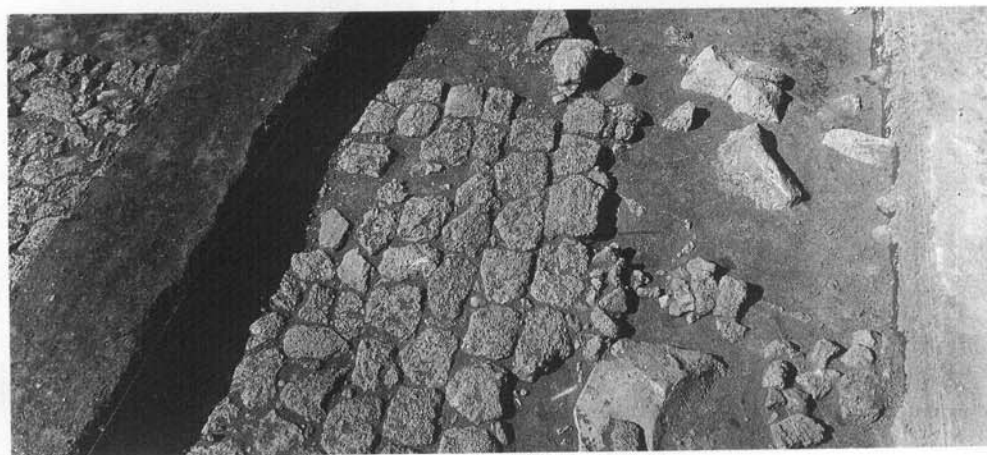
② 건물지(3) 축조상태(서에서)



① 건물지(3) 정면 기단석렬 축조상태



② 건물지(3) 내부 부석시설 축조상태(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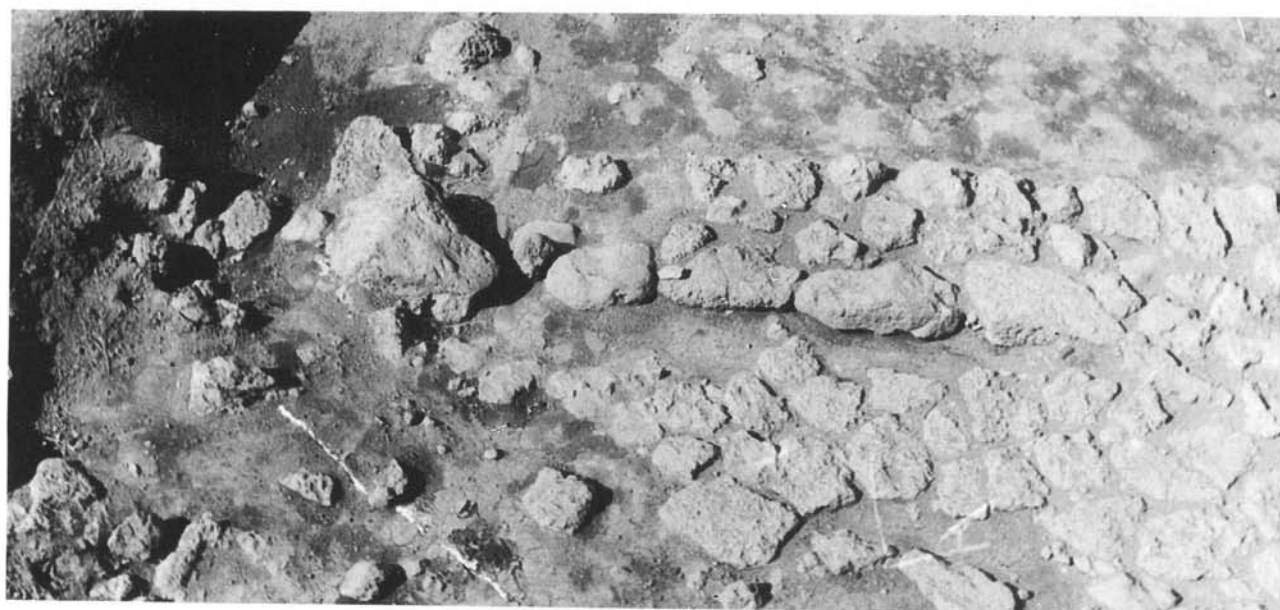
③ 건물지(3) 뒷편 기단석렬 축조상태



① 건물지(3) 외벽(동벽)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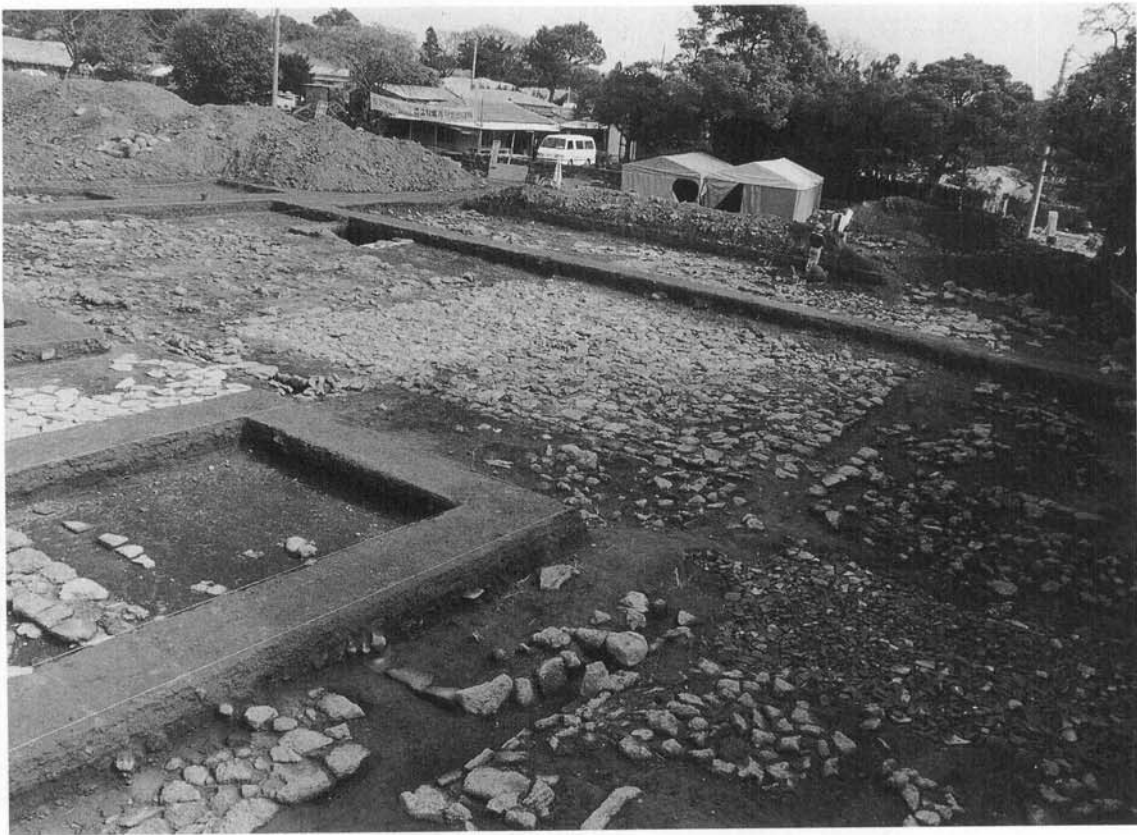


② 건물지(3) 외벽(북벽) 노출상태



③ 건물지(3) 외벽(서벽)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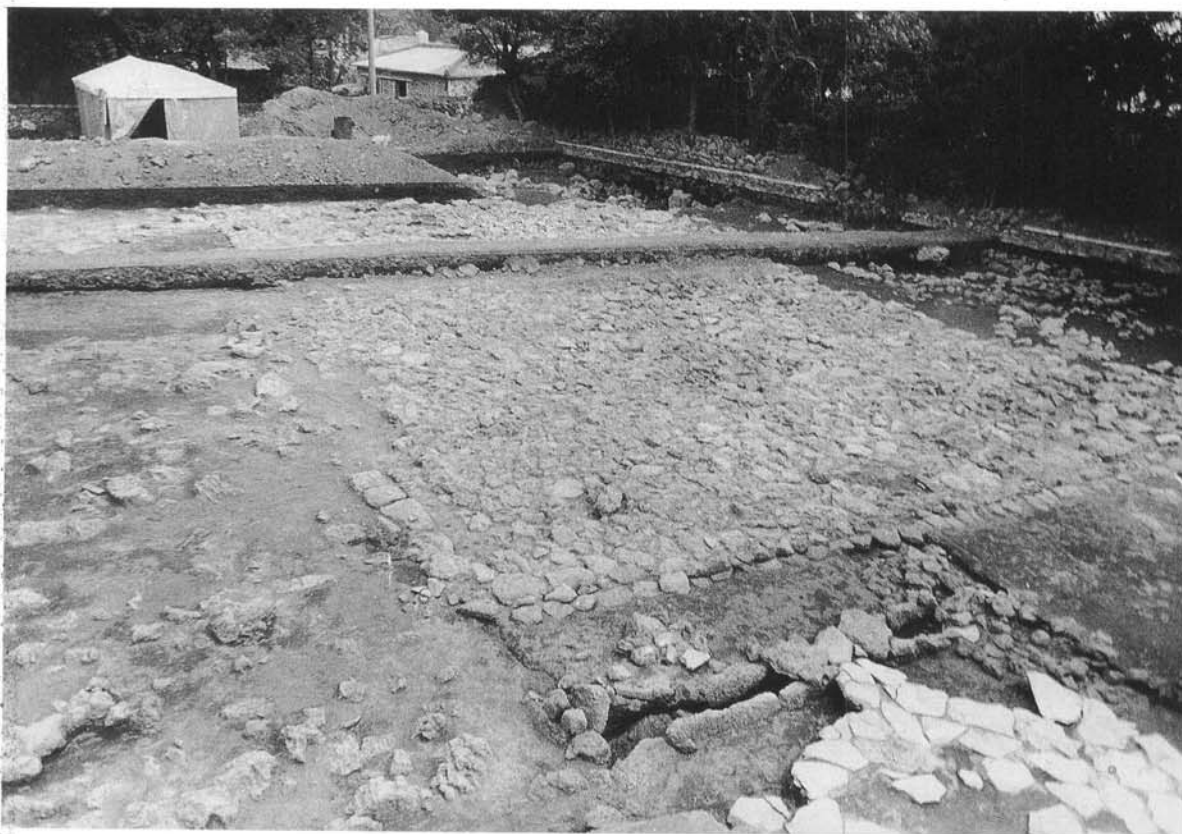




① 건물지(4) 주변유구 배치상태(서에서)



② 건물지(4) 노출상태(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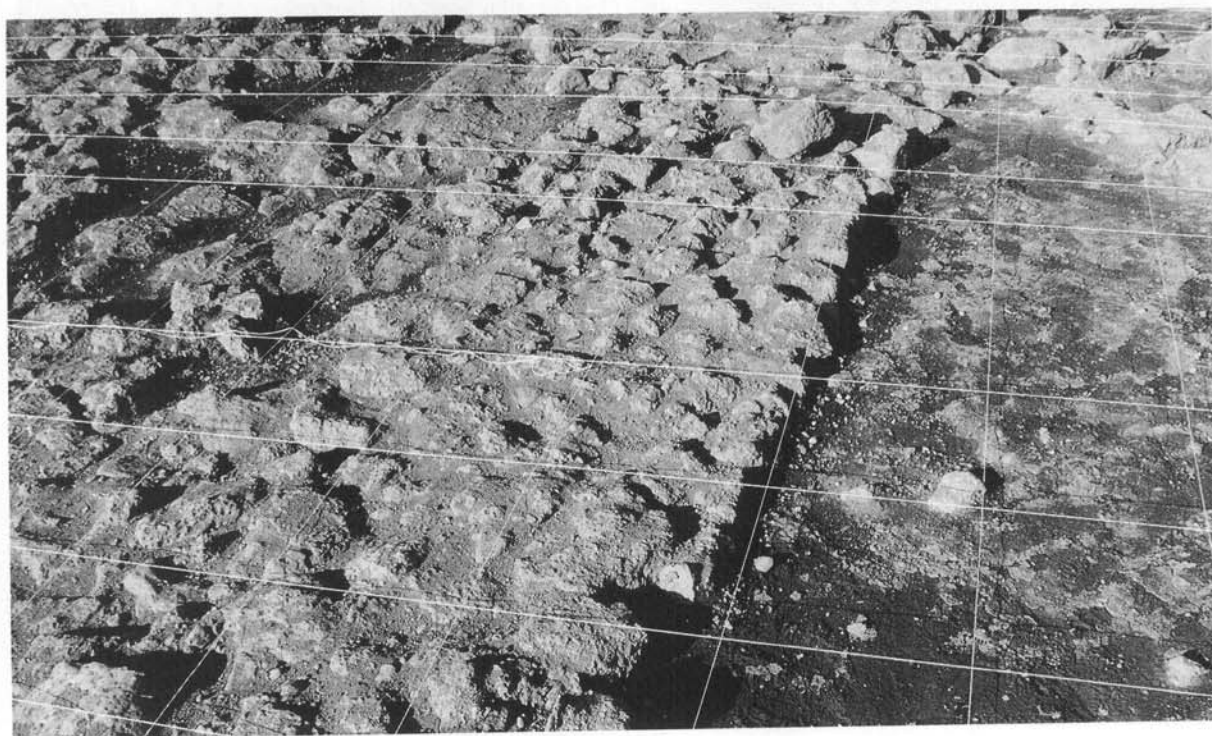
① 건물지(4) 노출상태(북에서)



② 건물지(4) 노출상태(남에서)



① 건물지(4) 정면 기단석렬 노출상태



② 건물지(4) 북편 기단석렬과 부석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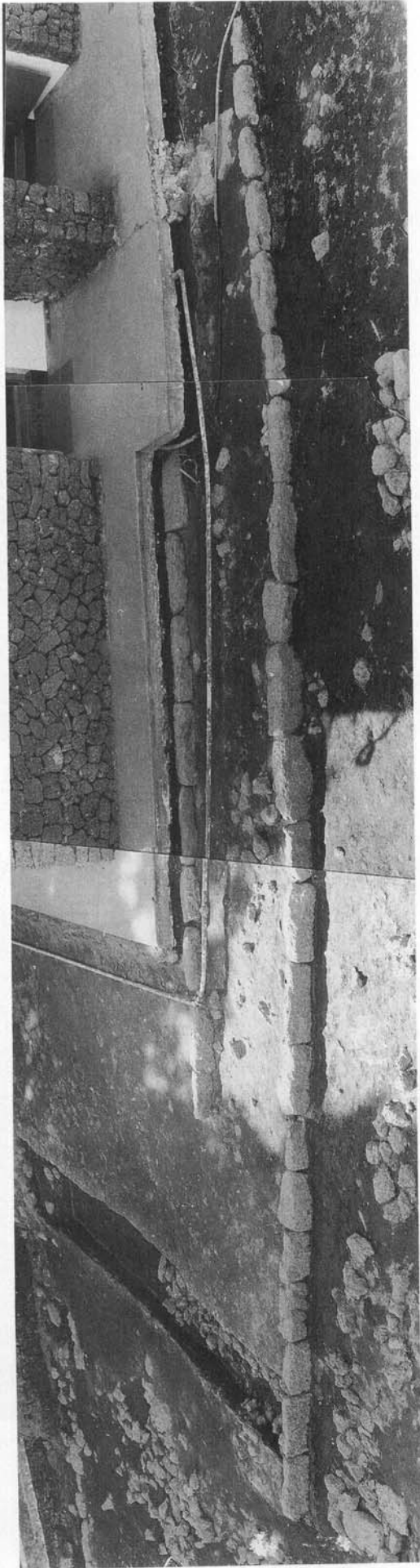
① 건물지(4) 정면 기단석렬과 건물지(5) 배치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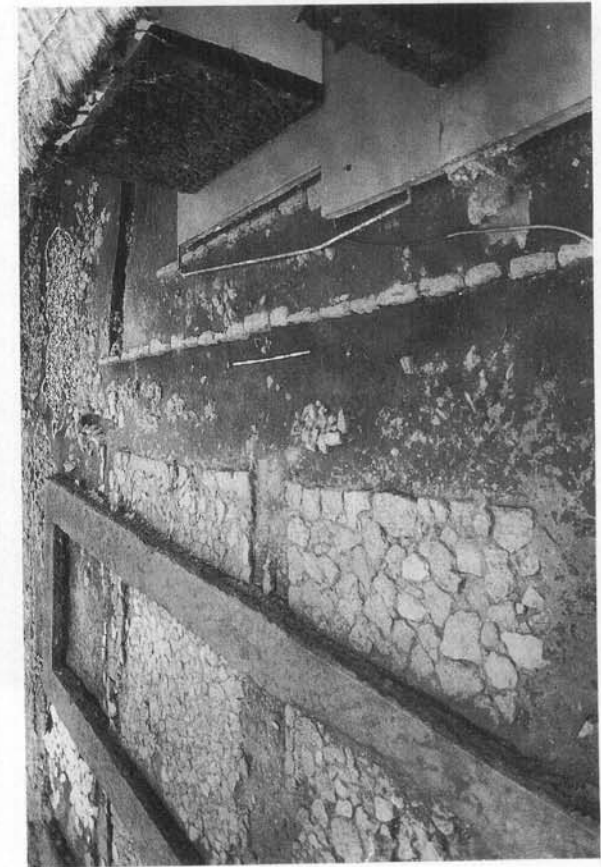
② 건물지(4) 내부 부식상태



③ 건물지(4) 기단석렬 축조상태(세부)



① 건물지(6) 기반석렬 노출상태



② 건물지(6)과 건물지(3) 배치상태(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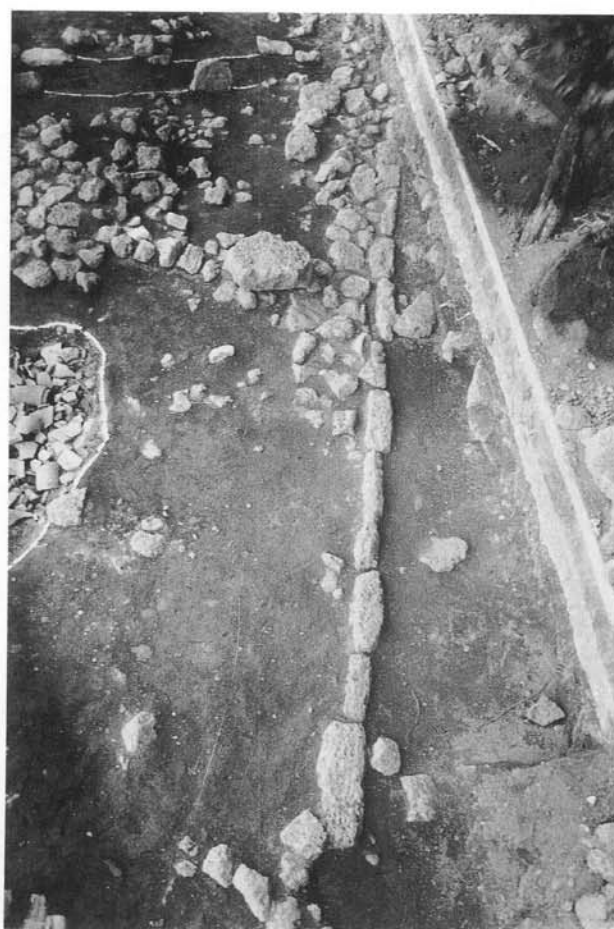
③ 건물지(6)과 건물지(3) 배치상태(남에서)



① 건물지(6) 정면 기단석렬 노출상태



② 건물지(6) 전체 노출상태(서에서)



③ 건물지(6) 기단석렬과 내부 적석상태





① 건물지(5)와 (6) 중복상태



② 건물지(5) 내부 적석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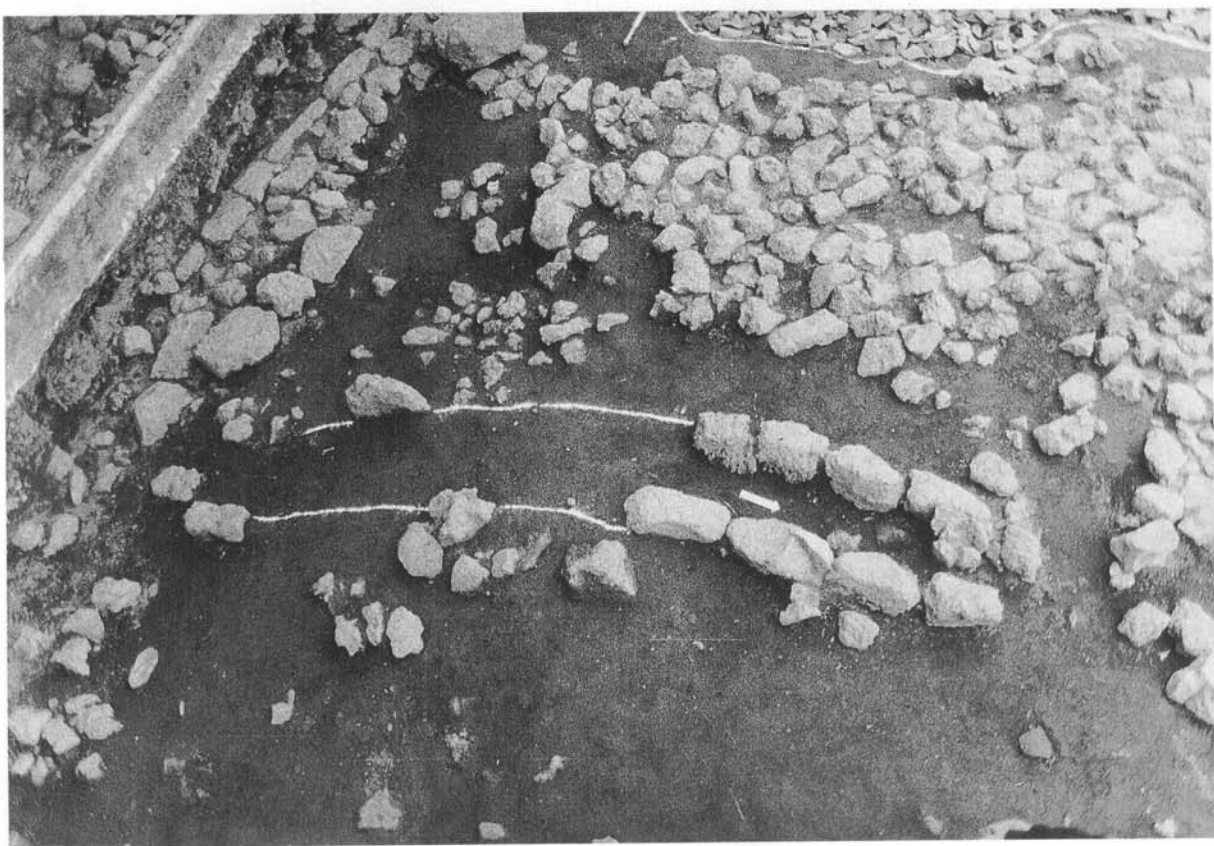


① 건물지(5) 노출상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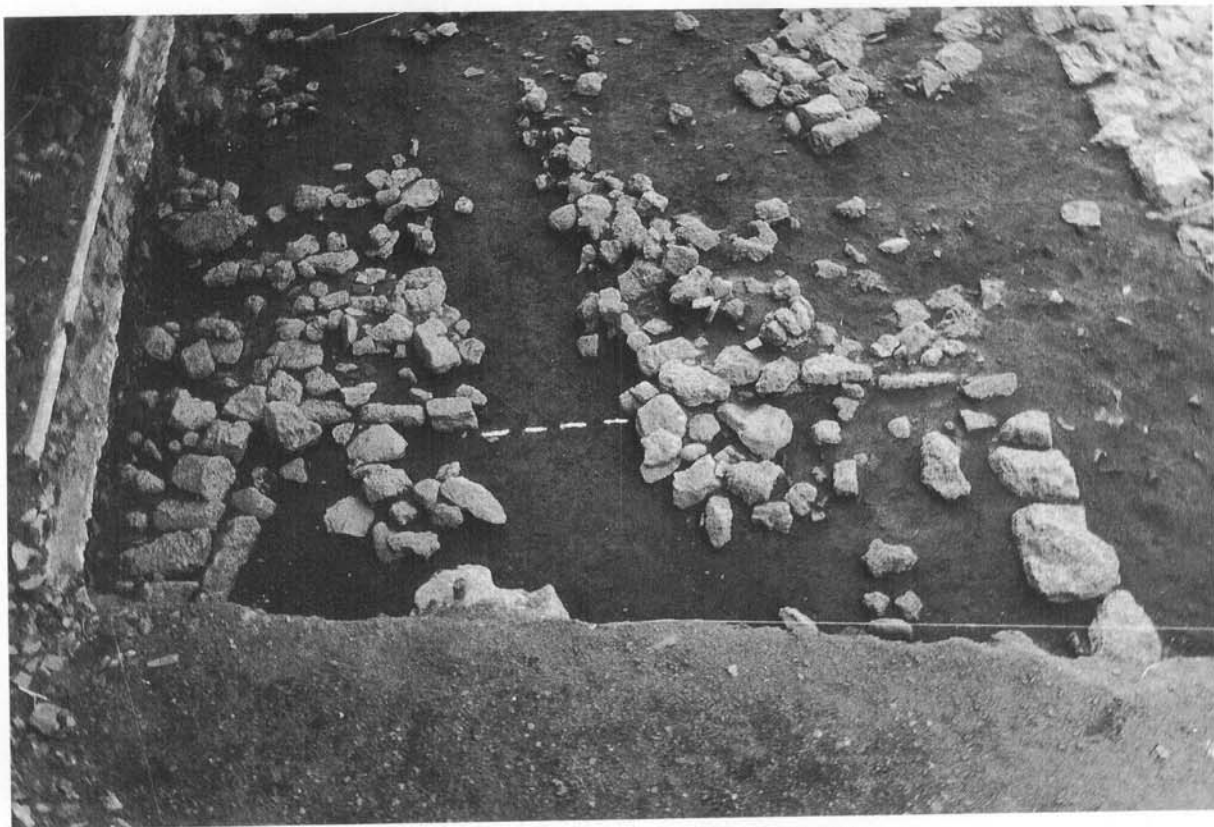


② 건물지(5) 노출상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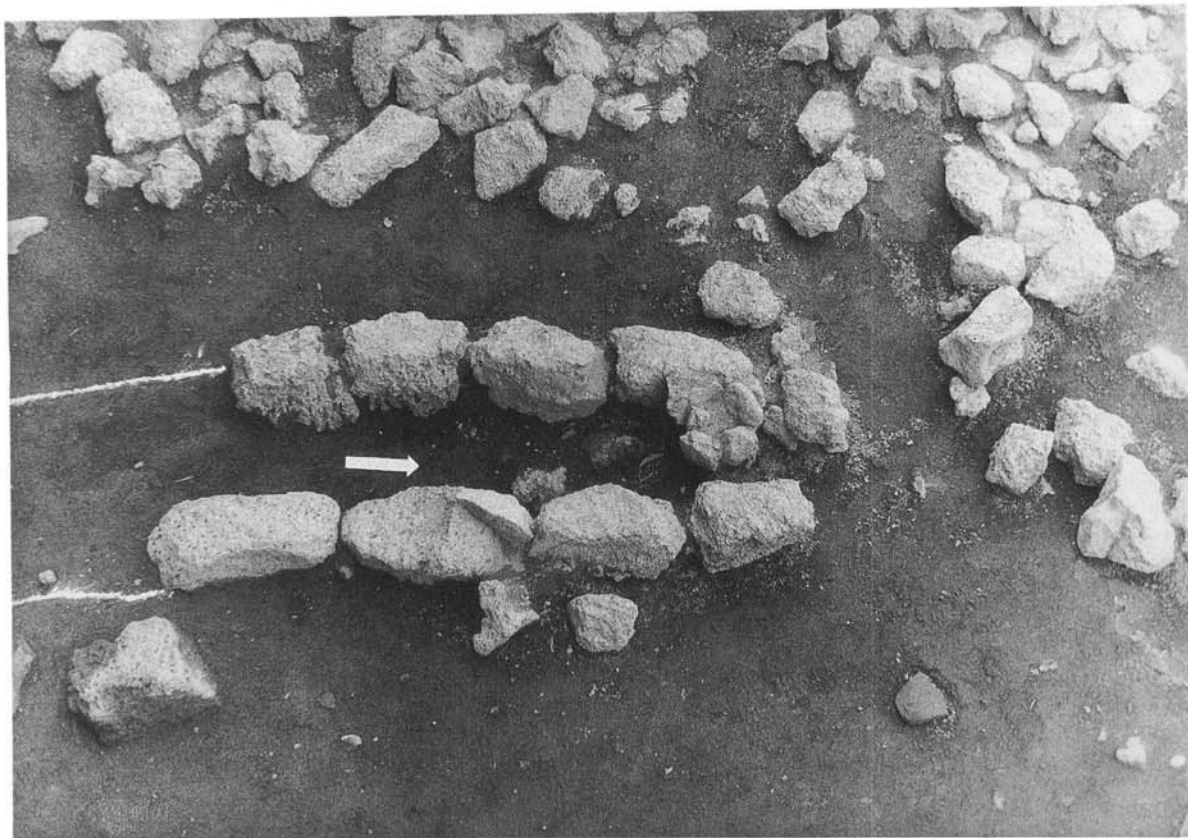




① 건물지(5) 내부 적석과 방고래시설



② 건물지(6) 동편 기단석렬과 건물지(5) 내부 적석시설



① 건물지(5) 방고래시설 축조상태



② 건물지(5) 기단석렬 축조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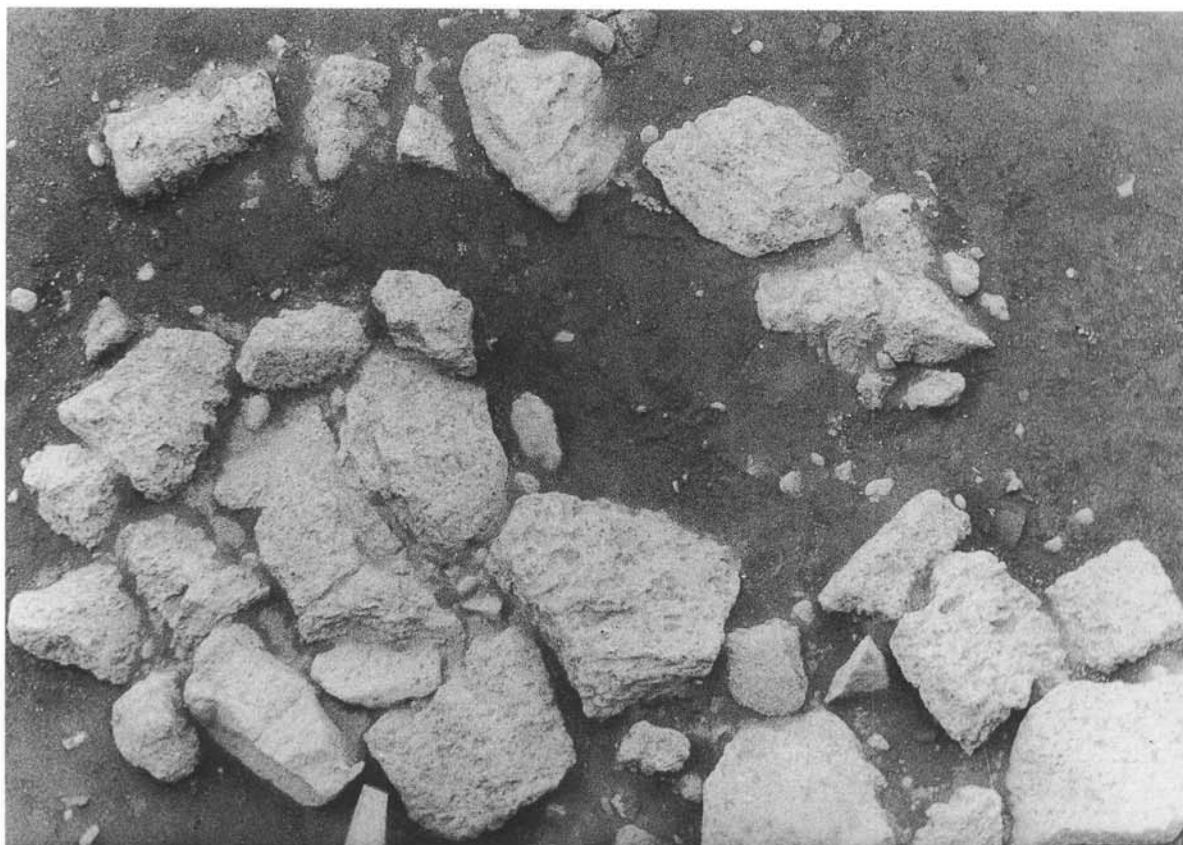


① 건물지(5) 기반석렬 축조상태



② 건물지(5)와 건물지(4) 중첩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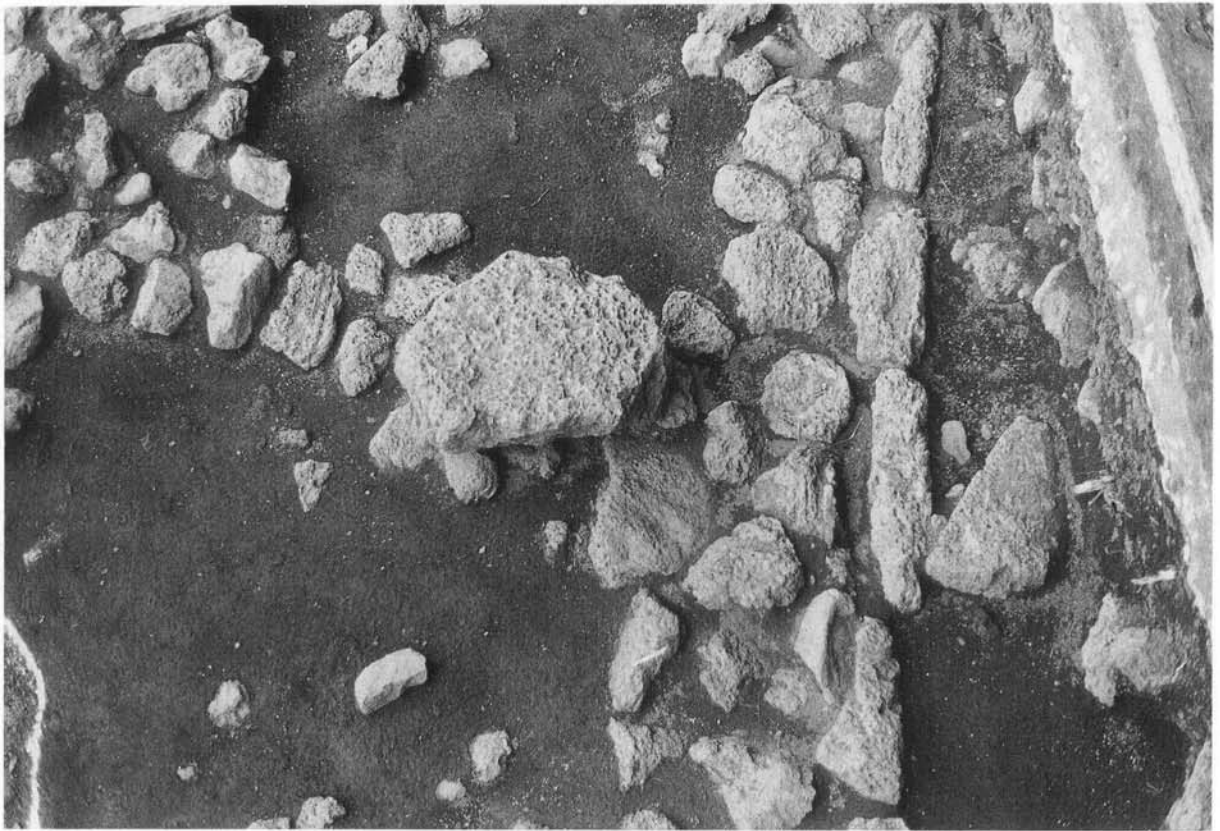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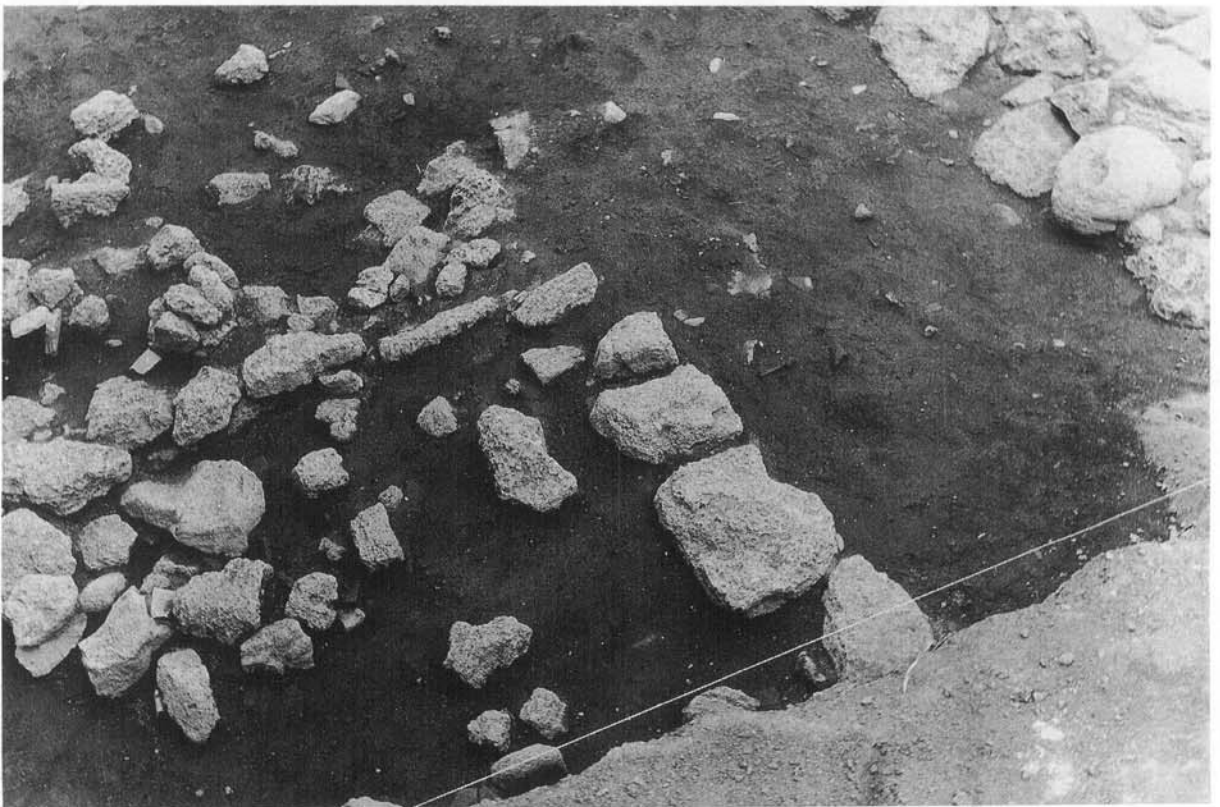
① 건물지(5) 적심석 노출상태(1)



② 건물지(5) 적심석 노출상태(2)



① 건물지(5) 초석 노출상태



② 건물지(5) 적심석 노출상태





① 건물지(5) 기반석렬 노출상태(1)



② 건물지(5) 기반석렬 노출상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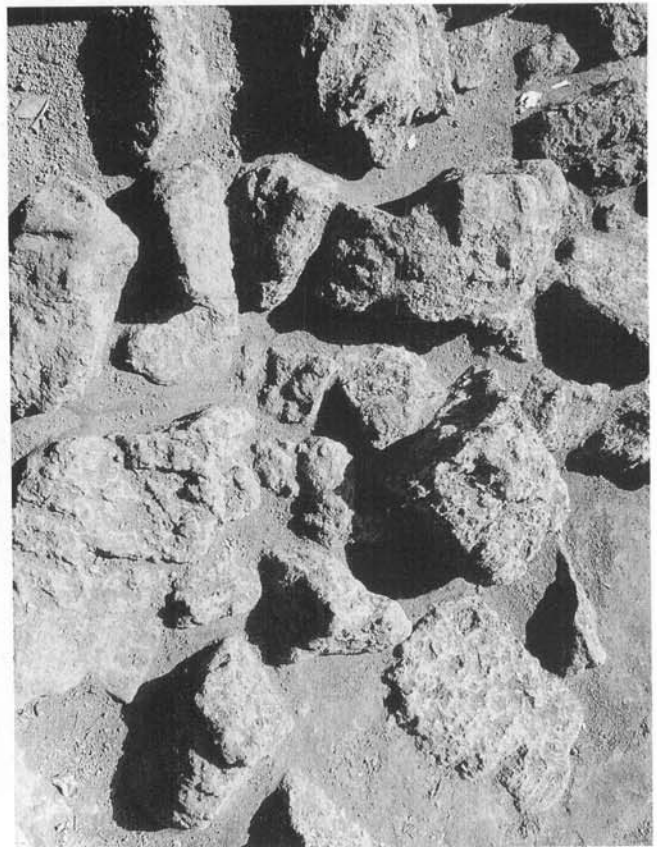
③ 건물지(5) 기반석렬 노출상태(3)



④ 건물지(5) 기반석렬 노출상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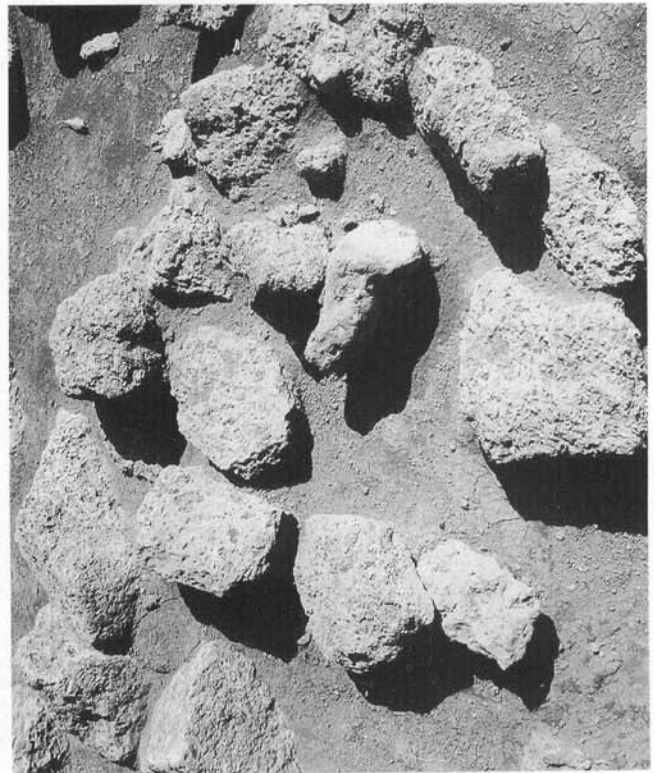
① 건물지(5) 적심석 노출상태(1)



② 건물지(5) 적심석 노출상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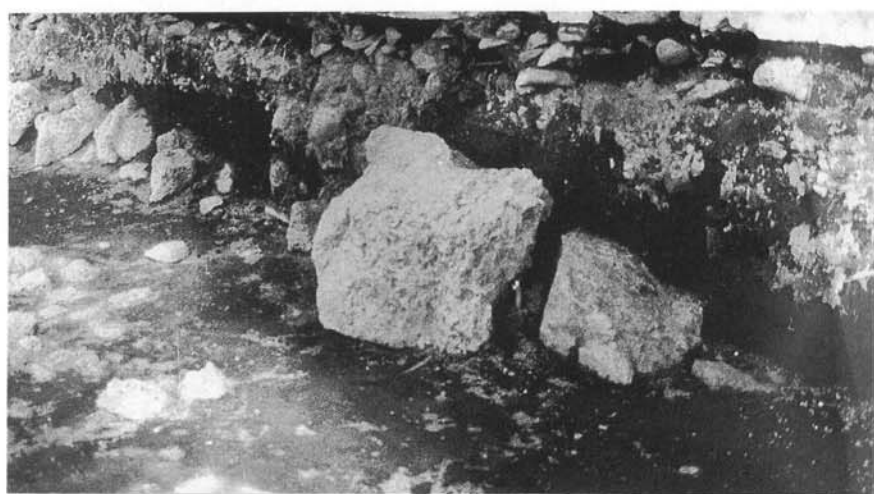
③ 건물지(5) 적심석 노출상태(3)



④ 건물지(5) 적심석 노출상태(4)



① 건물지(5) 동편 교란층 노출상태(1)



② 건물지(5) 동편 교란층 노출상태(2)



③ 담장지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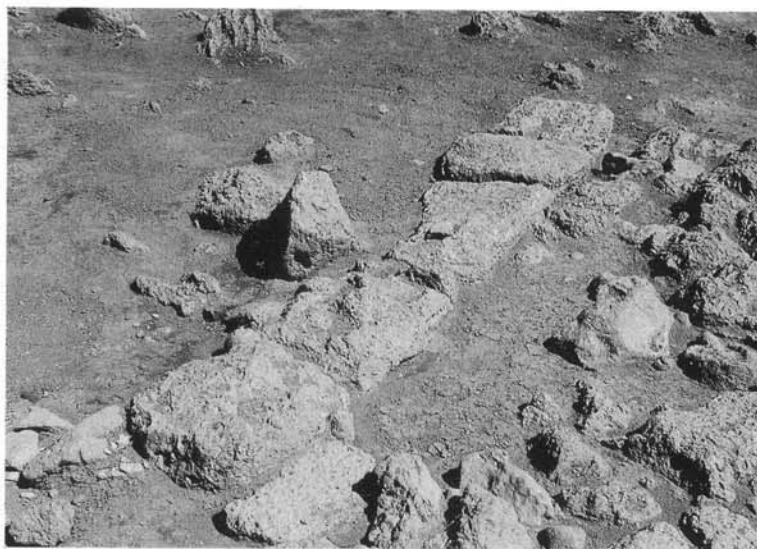




① 건물지(4) 북편 유구층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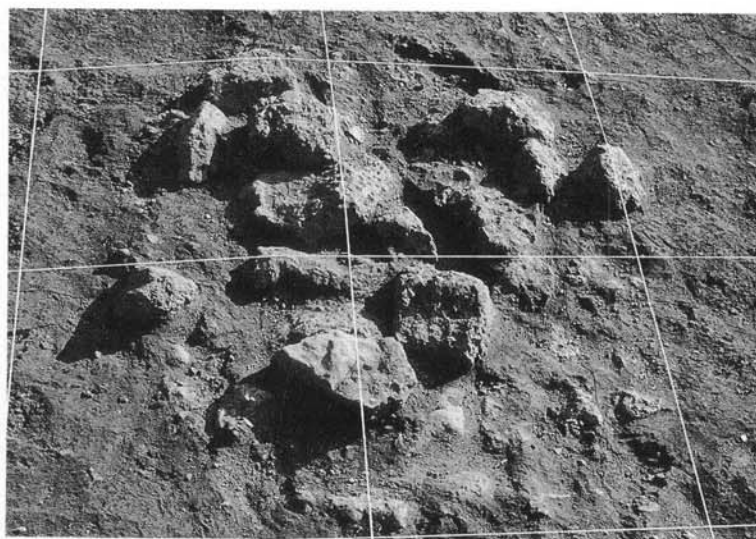
② 건물지(4) 북편 적석상



① 건물지(4) 북편 유구층내 기단석렬 노출상태(1)



② 건물지(4) 북편 유구층내 기단석렬 노출상태(2)



③ 건물지(4) 북편 유구층내 적심석 노출상태





① 건물지(4) 북편 유구층내 적심석 노출상태(1)



② 건물지(5) 북편 유구층내 적심석 노출상태(2)



① 최근 학교건물 배수로 노출상태(1)



② 최근 학교건물 배수로 노출상태(2)



① 최근 학교건물 배수로내 테스트 피드 노출상태



② 최근 학교건물 배수로 노출상태(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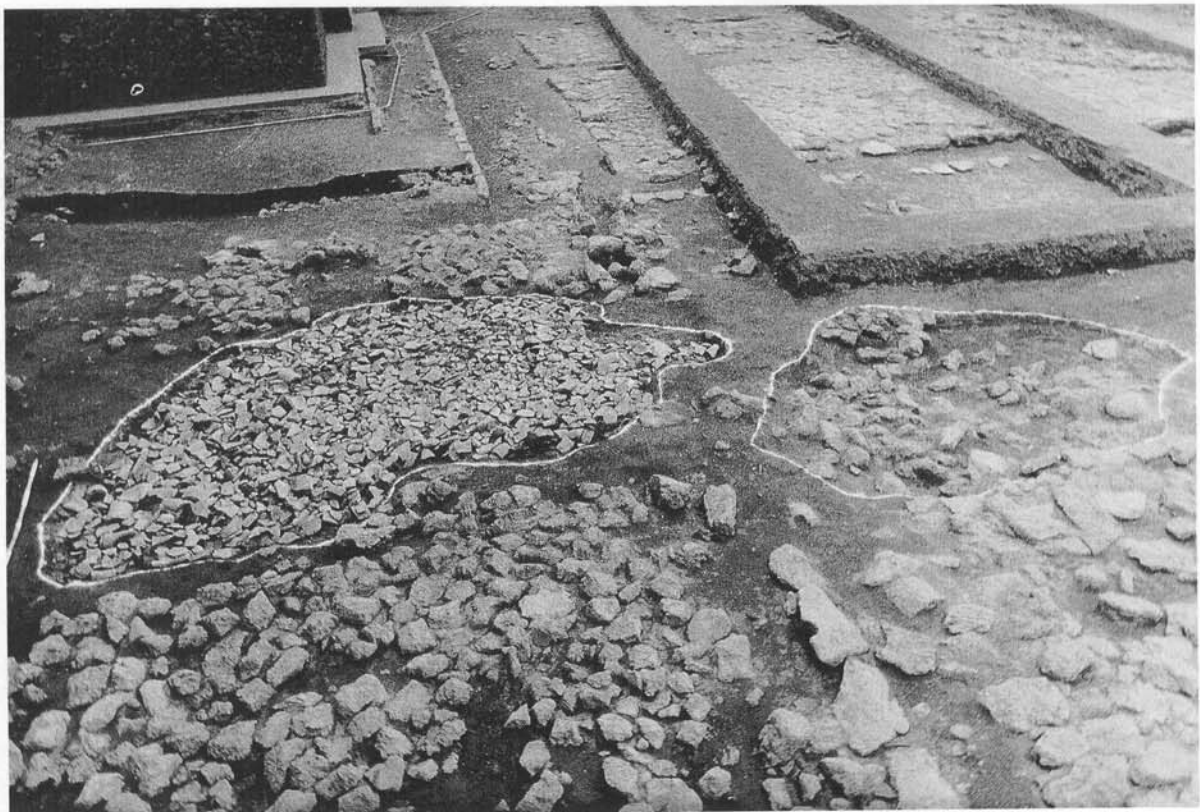
① 건물지(5) 기단석렬과 기와 매립구덩이(1) 노출상태



② 기와 매립구덩이(2) 노출상태



① 기와 매립구덩이(2)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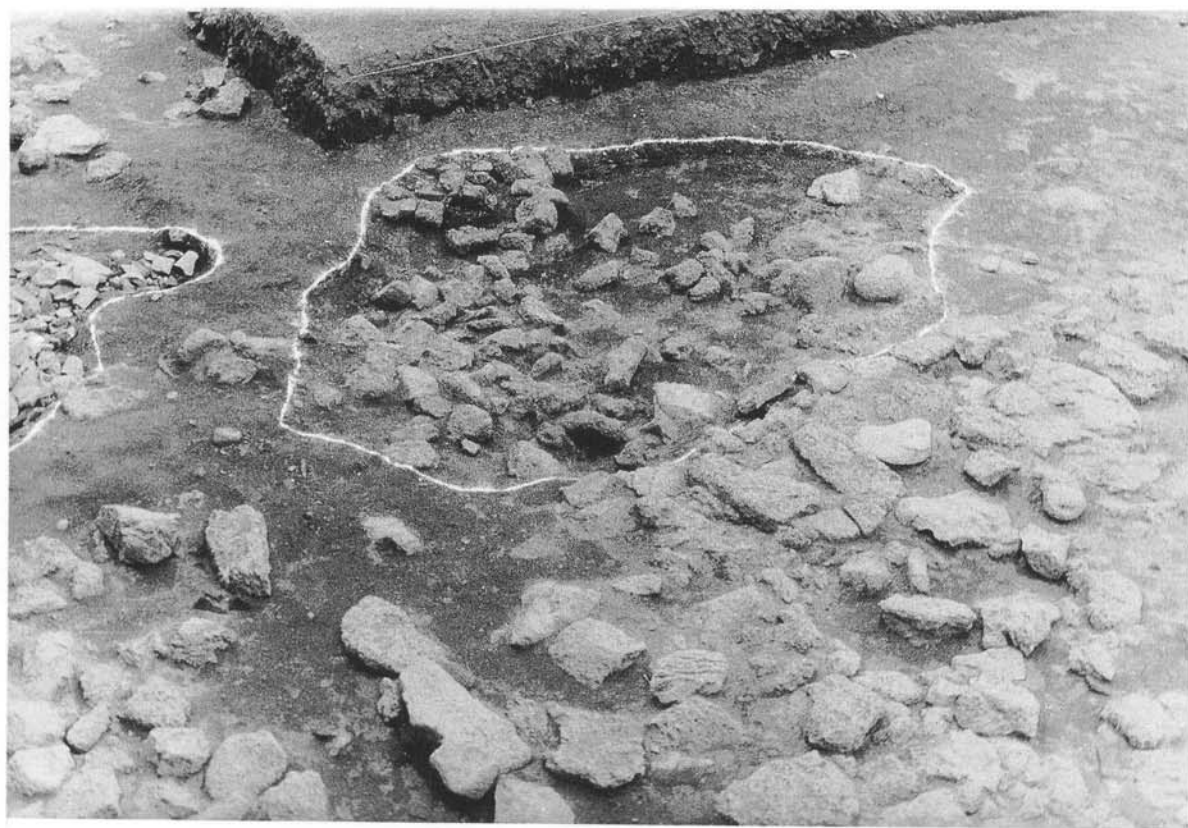


② 기와 매립구덩이(1)과(2) 노출상태





① 기와 매립구덩이(2) 노출상태



② 기와 매립구덩이(1) 노출상태



① 기와 매립구덩이(3) 노출상태(원경)



② 기와 매립구덩이(3) 노출상태(세부)



① E W 중심트렌치 노출상태(원경)



② E W 중심트렌치 노출상태(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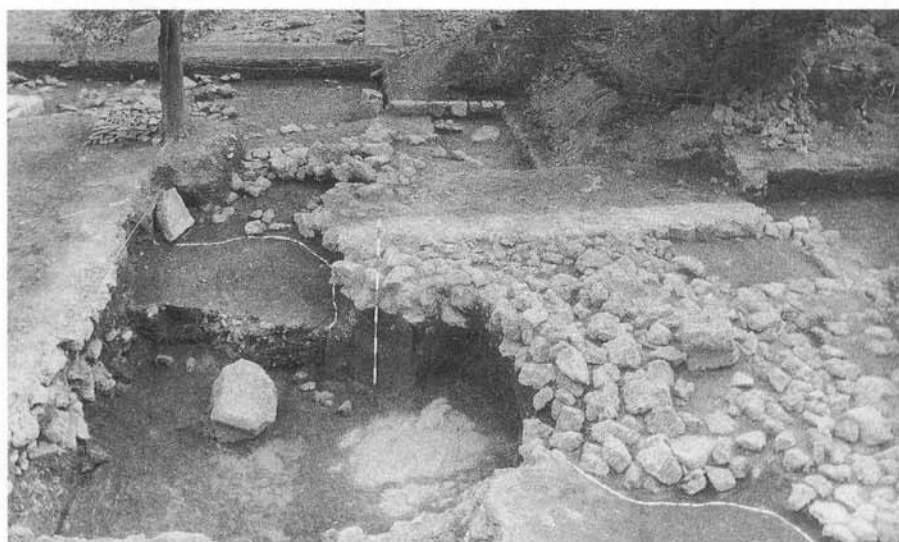
① B구역 발굴지 전경(북에서)



② B구역 발굴광경



① B구역 발굴지 동편 원경(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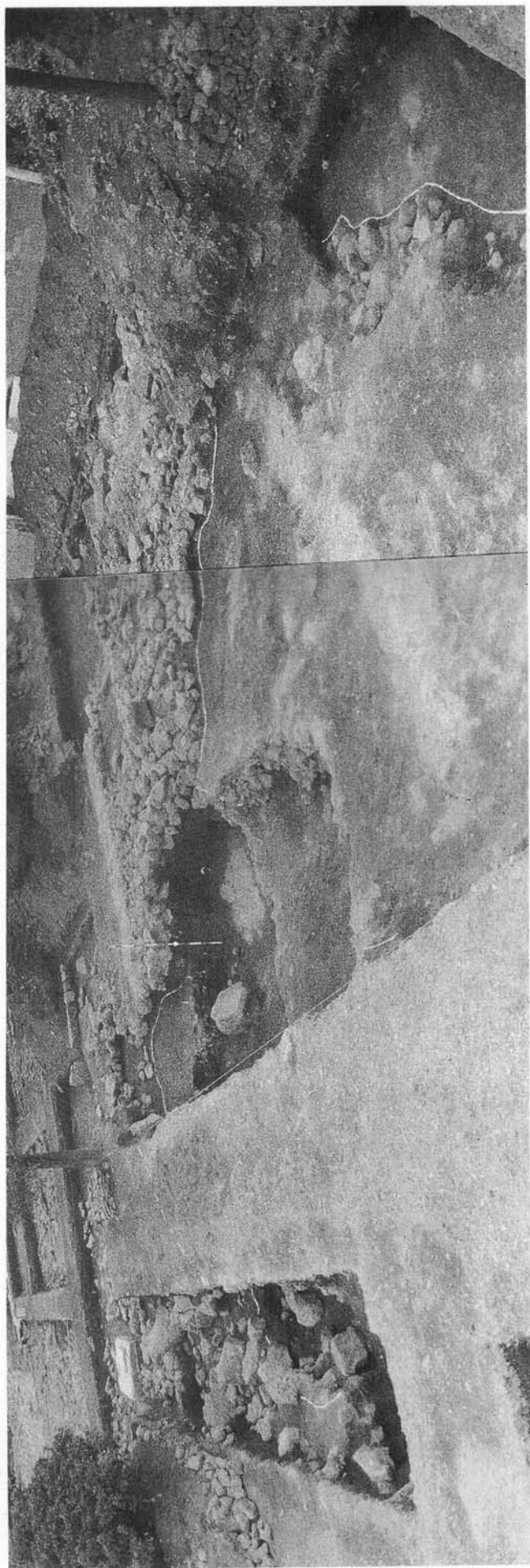


② 원형 매립구덩이와 적석시설물(1)



③ 적석시설물(1)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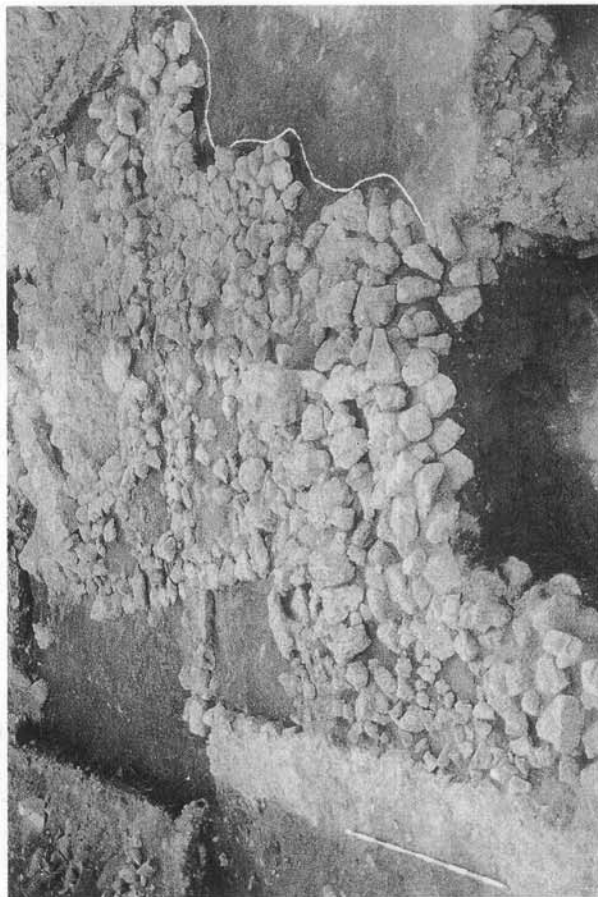




① 원형 매립구덩이 노출상태



② 적석시설물(1) 노출상태(1)



③ 적석시설물(1) 노출상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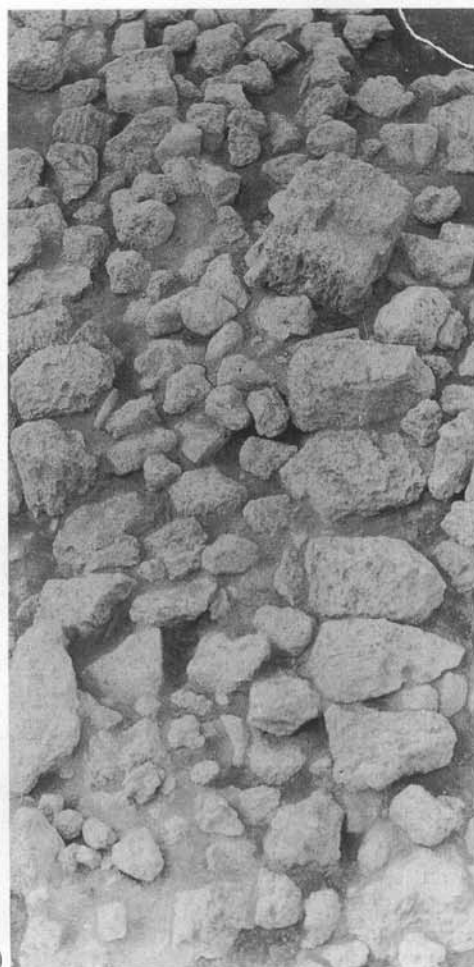
① 적석시설물(1) 석렬과 적석 축조상태(1)



② 적석시설물(1) 석렬과 적석 축조상태(2)



① 적석시설물(1) 적석 축조상태(서에서)



② 적석시설물(1)

석렬과 적석 축조상태(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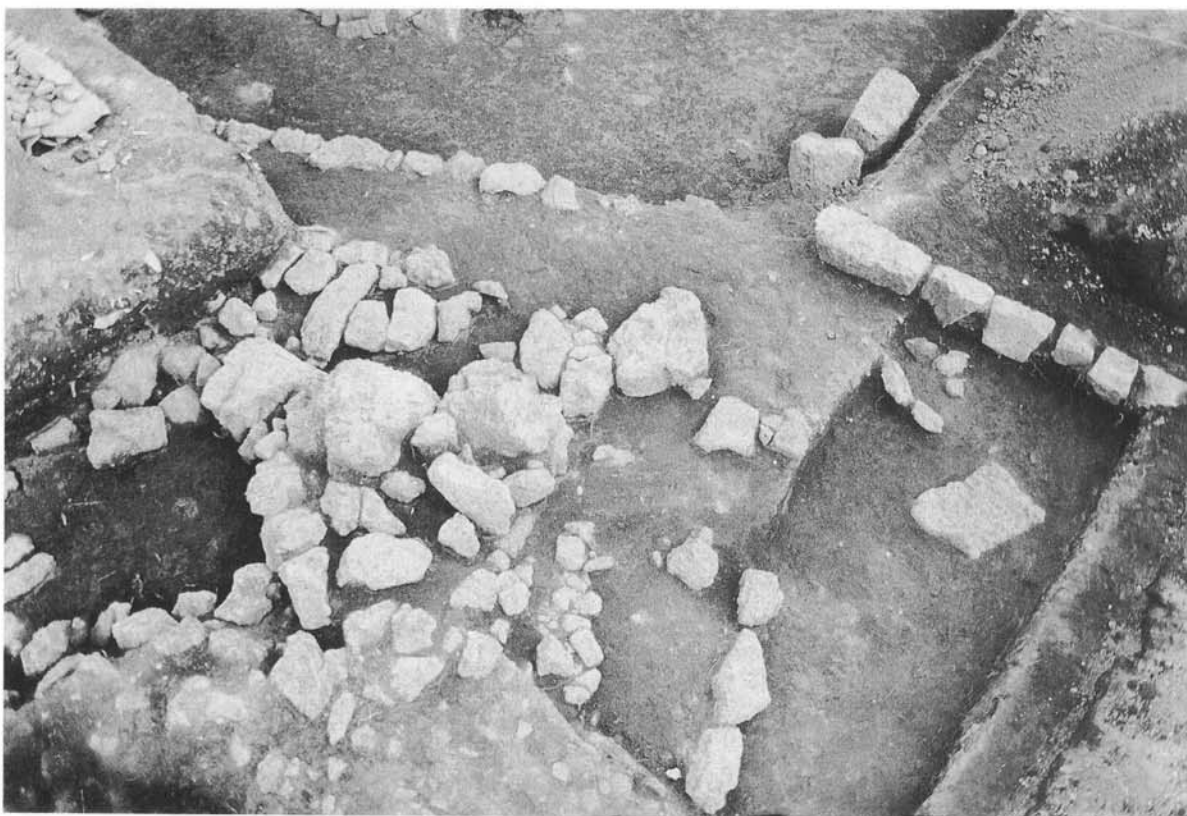
③ 적석시설물(1)

석렬 축조상태(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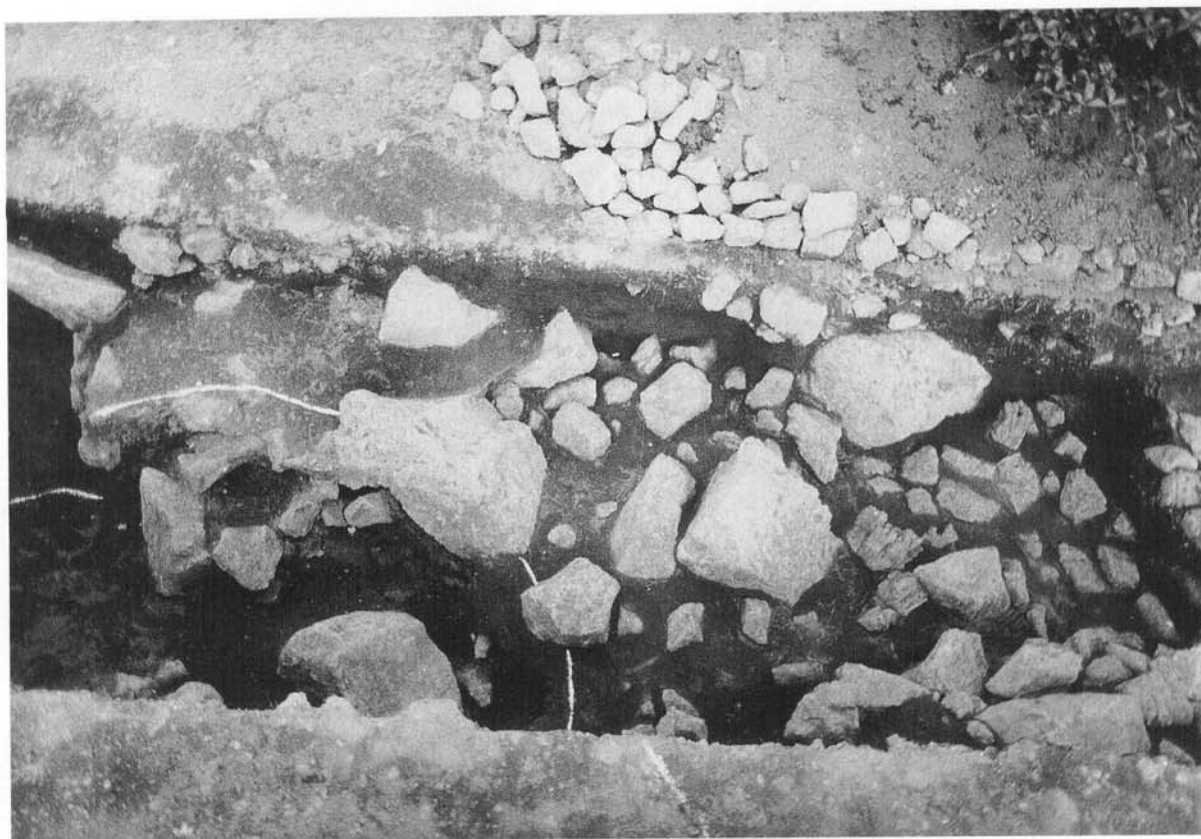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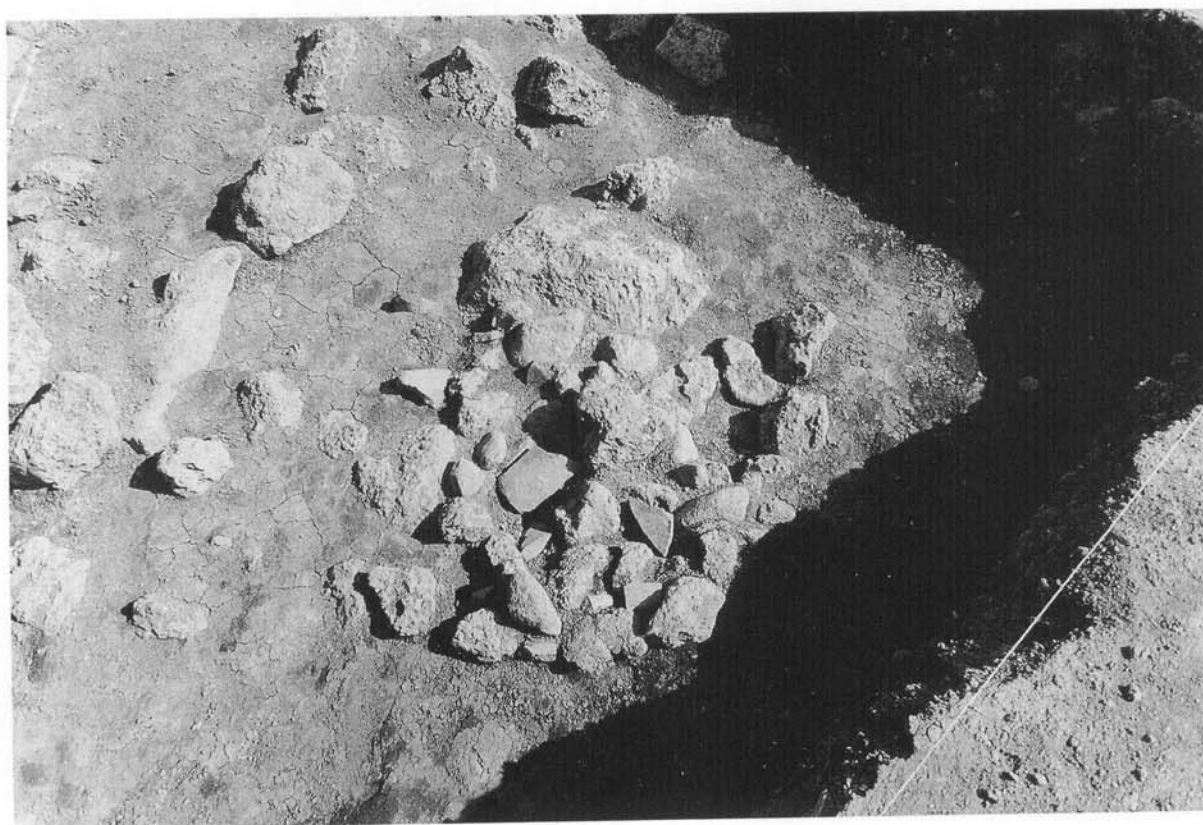
① NS트렌치(W1) 내부 계단지 노출상태(1)



② NS트렌치(W1) 내부 계단지 노출상태(2)



① NS트렌치(E1) 내부 적석시설



② NS트렌치(E1) 내부 적심석





① NS트렌치(E1) 내부 교란층위(1)



② NS트렌치(E1) 내부 교란층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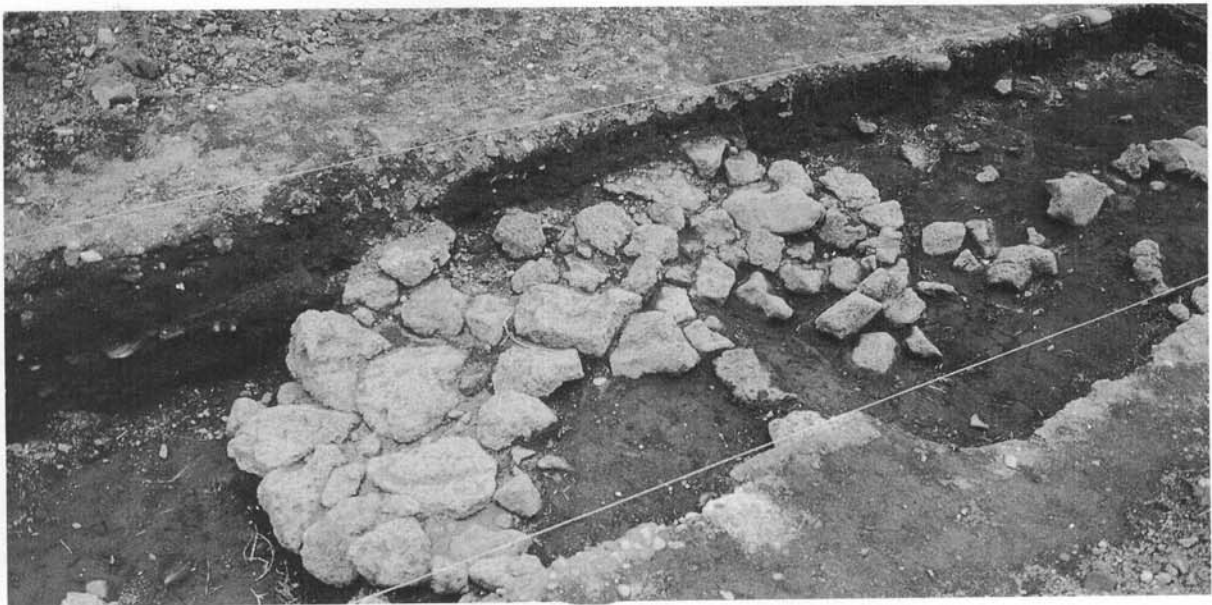
③ NS트렌치(E1) 내부 교란층위(3)



④ NS트렌치(E1) 내부 교란층위(4)



① NS트렌치(E5) 발굴전경(북에서)



② NS트렌치(E5) 내부 적석시설 노출상태



① N S 트렌치(E5) 적석시설부분 확장 발굴지 전경(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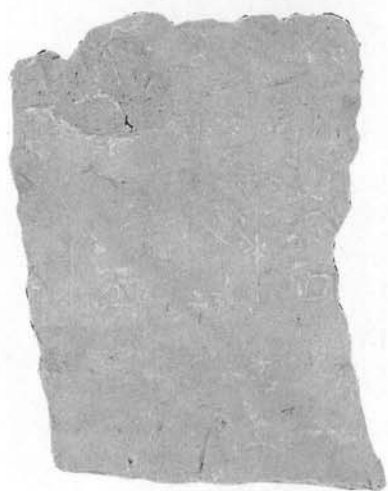
② N S 트렌치(E5) 내부 적석시설 노출상태(1)



③ N S 트렌치(E5) 내부 적석시설 노출상태(2)



④ N S 트렌치(E5) 내부 적석시설 발굴광경(위에서)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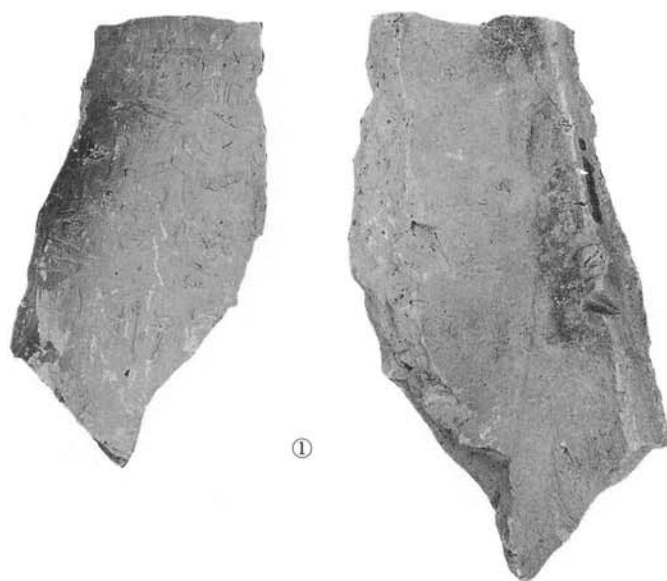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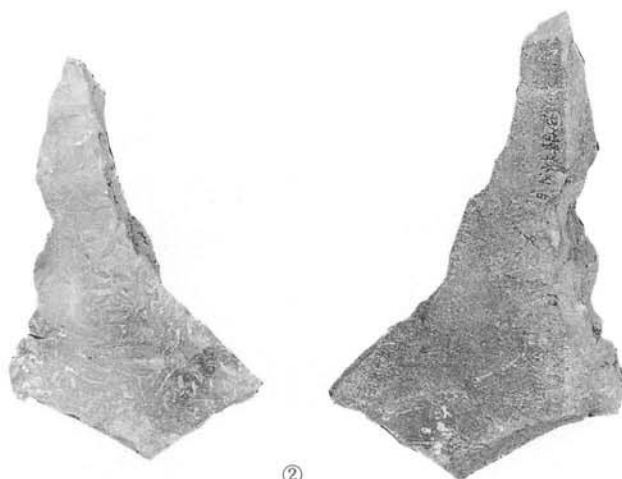
③

정의현 객사지 출토 명문기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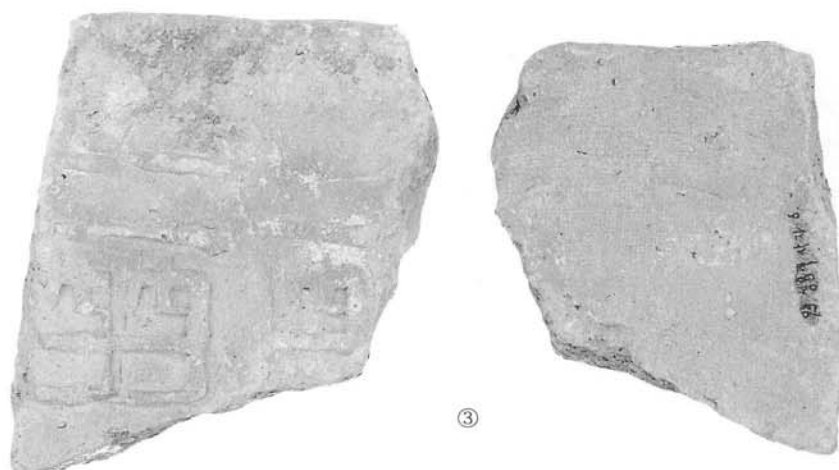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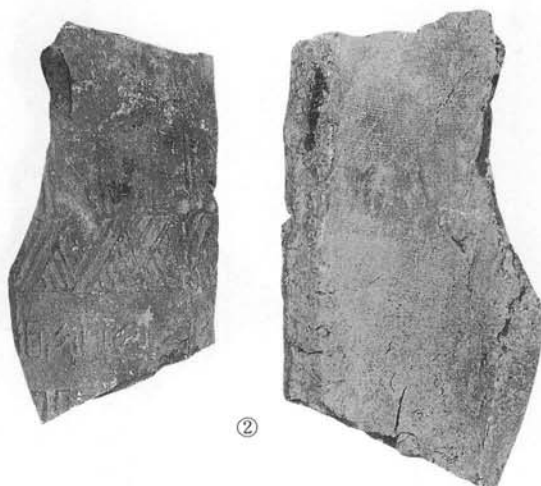
③

정의현 객사지 출토 명문기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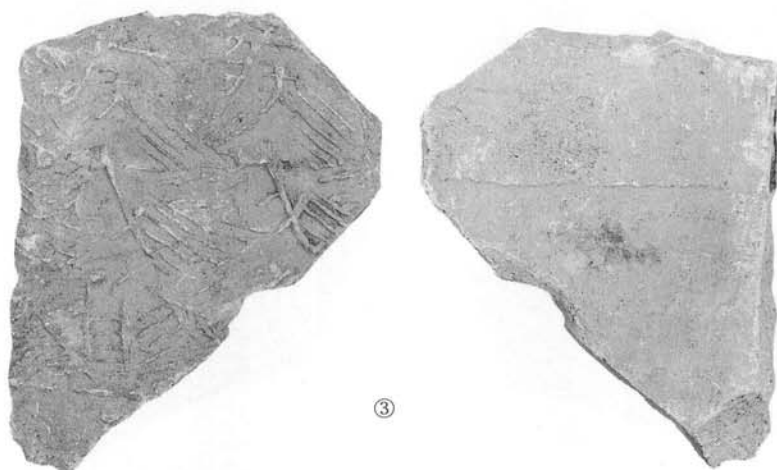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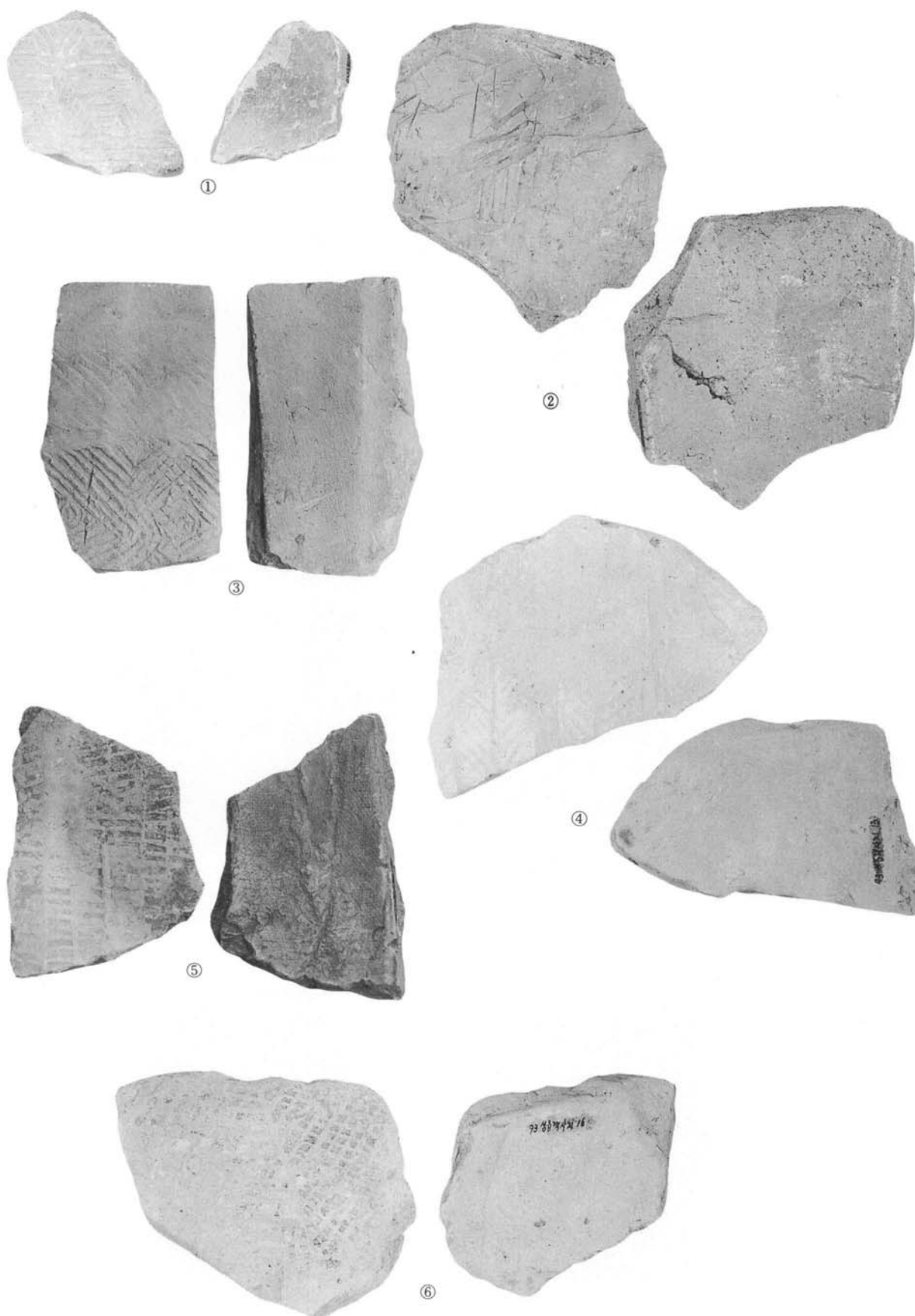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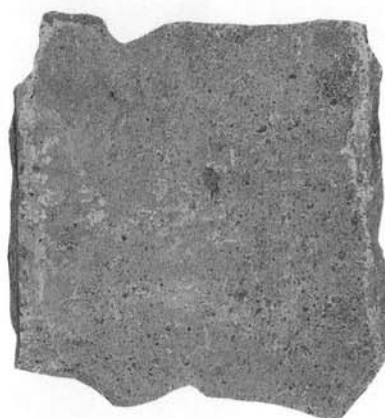
정의현 객사지 출토 명문기와(3)



정의현 객사지 출토 평기와(1)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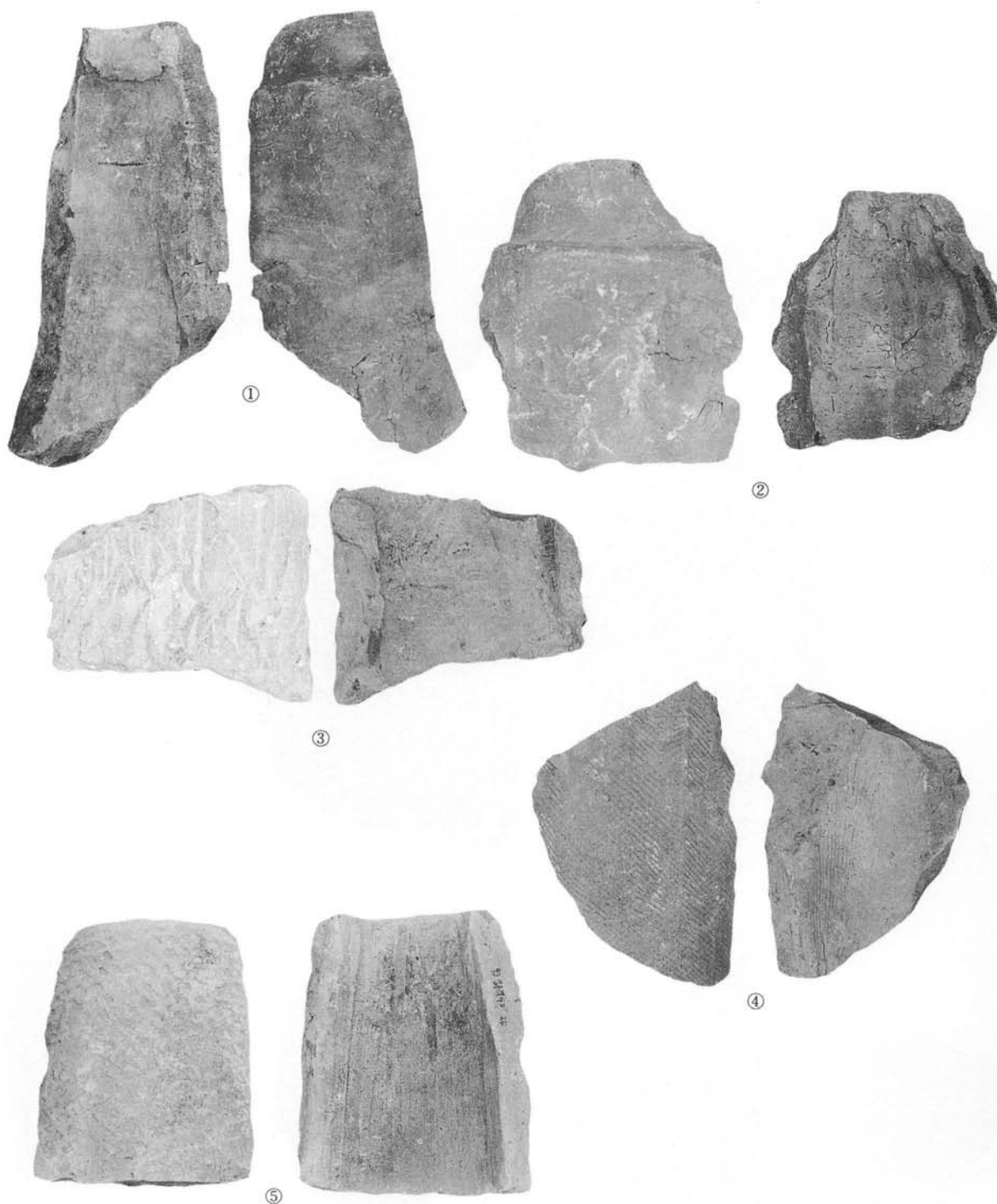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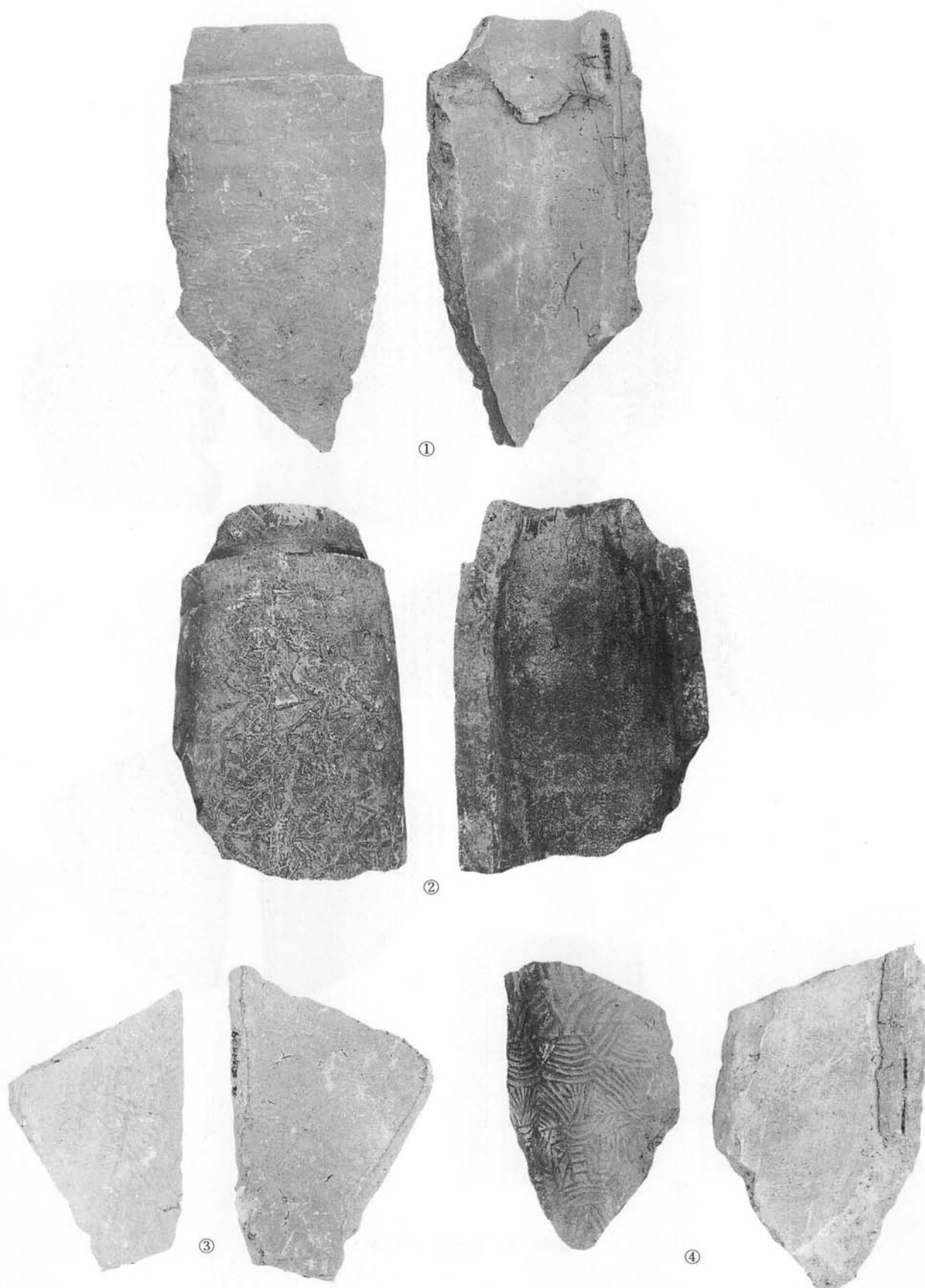


③

정의현 객사지 출토 평기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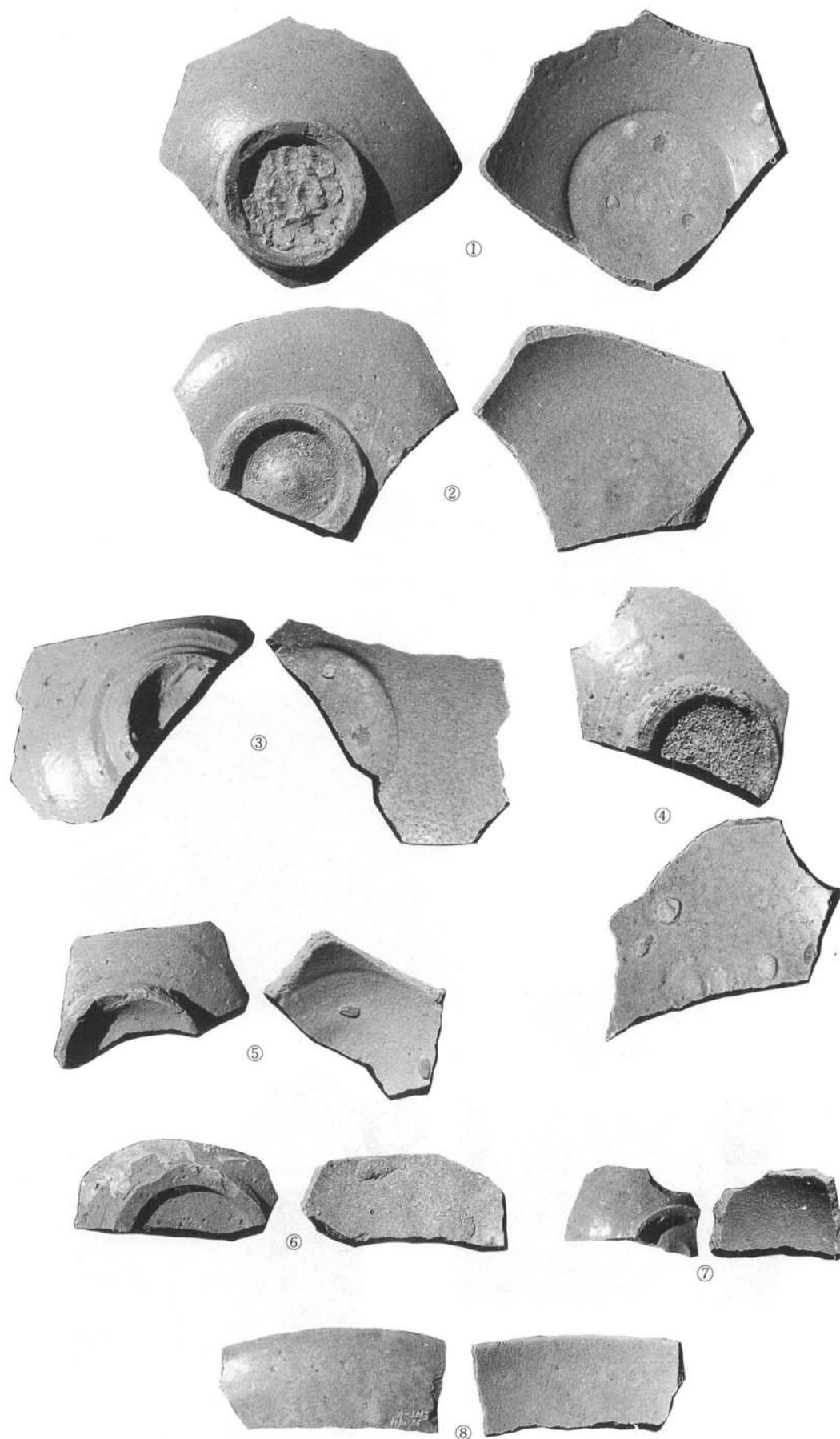


정의현 객사지 출토 평기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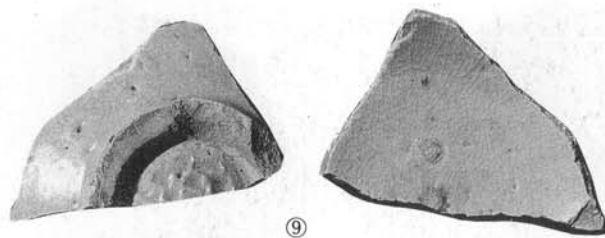


정의현 객사지 출토 평기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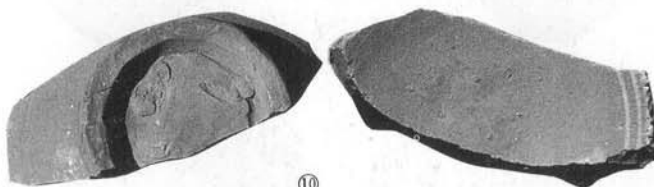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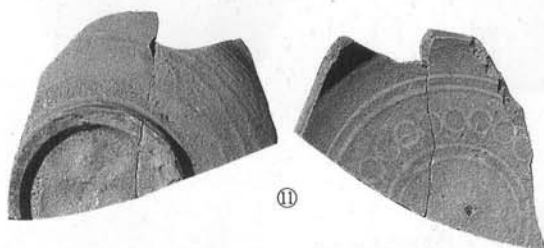
정의현 객사지 출토 조선청자(1)



⑨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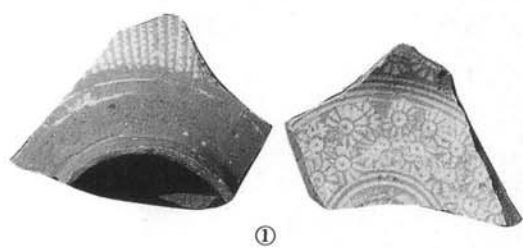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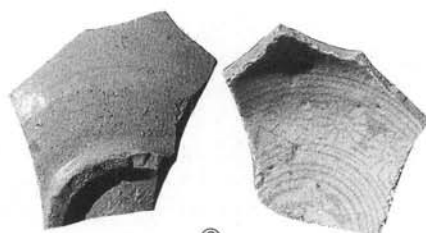
⑫



정의현 객사지 출토 조선청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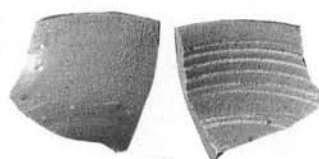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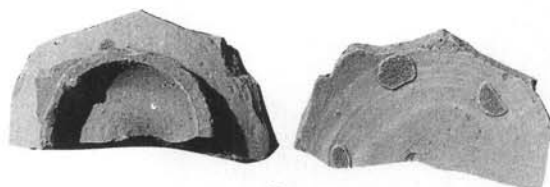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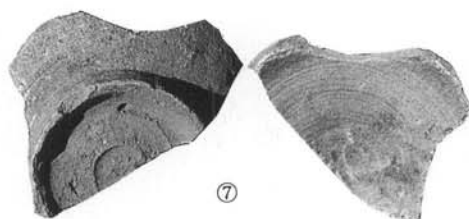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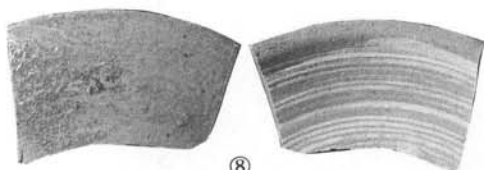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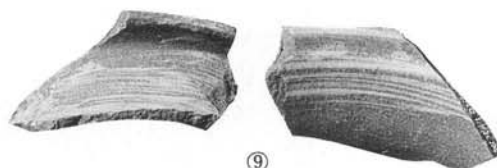
⑥



⑦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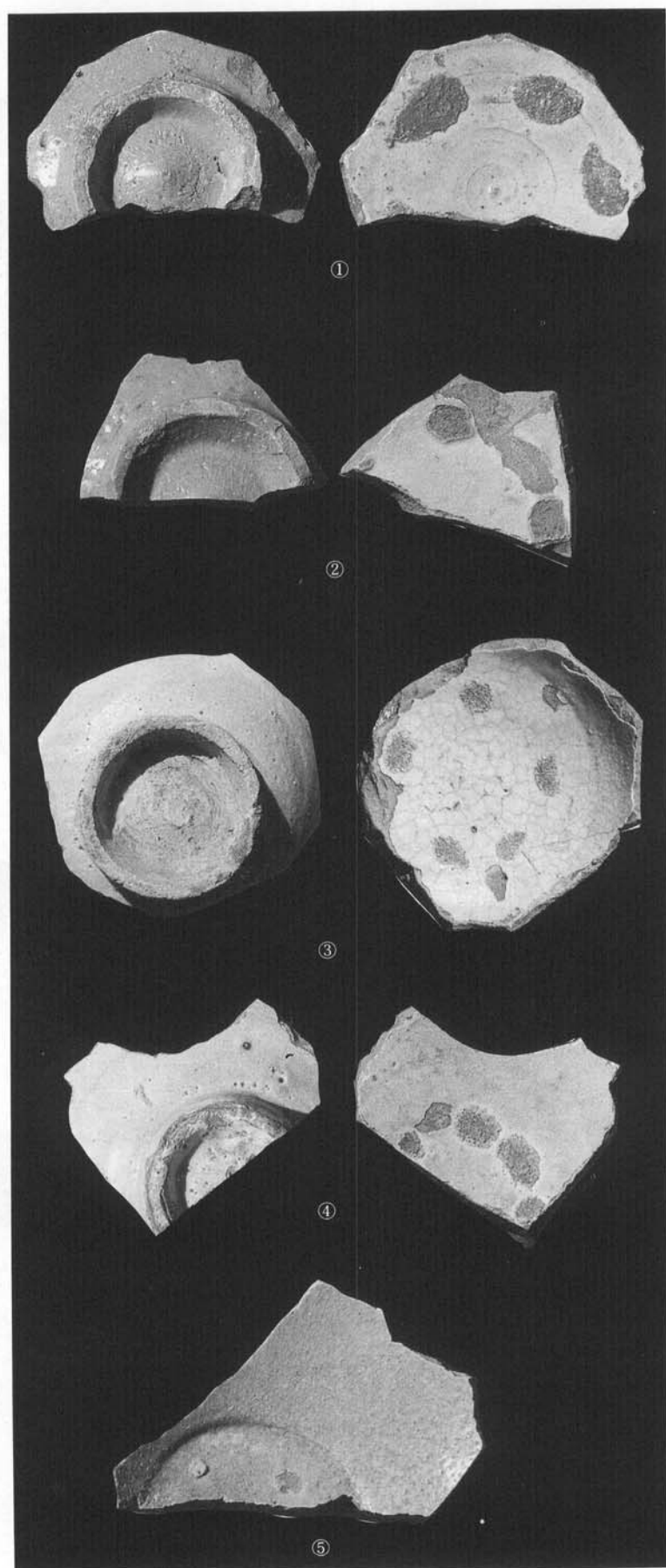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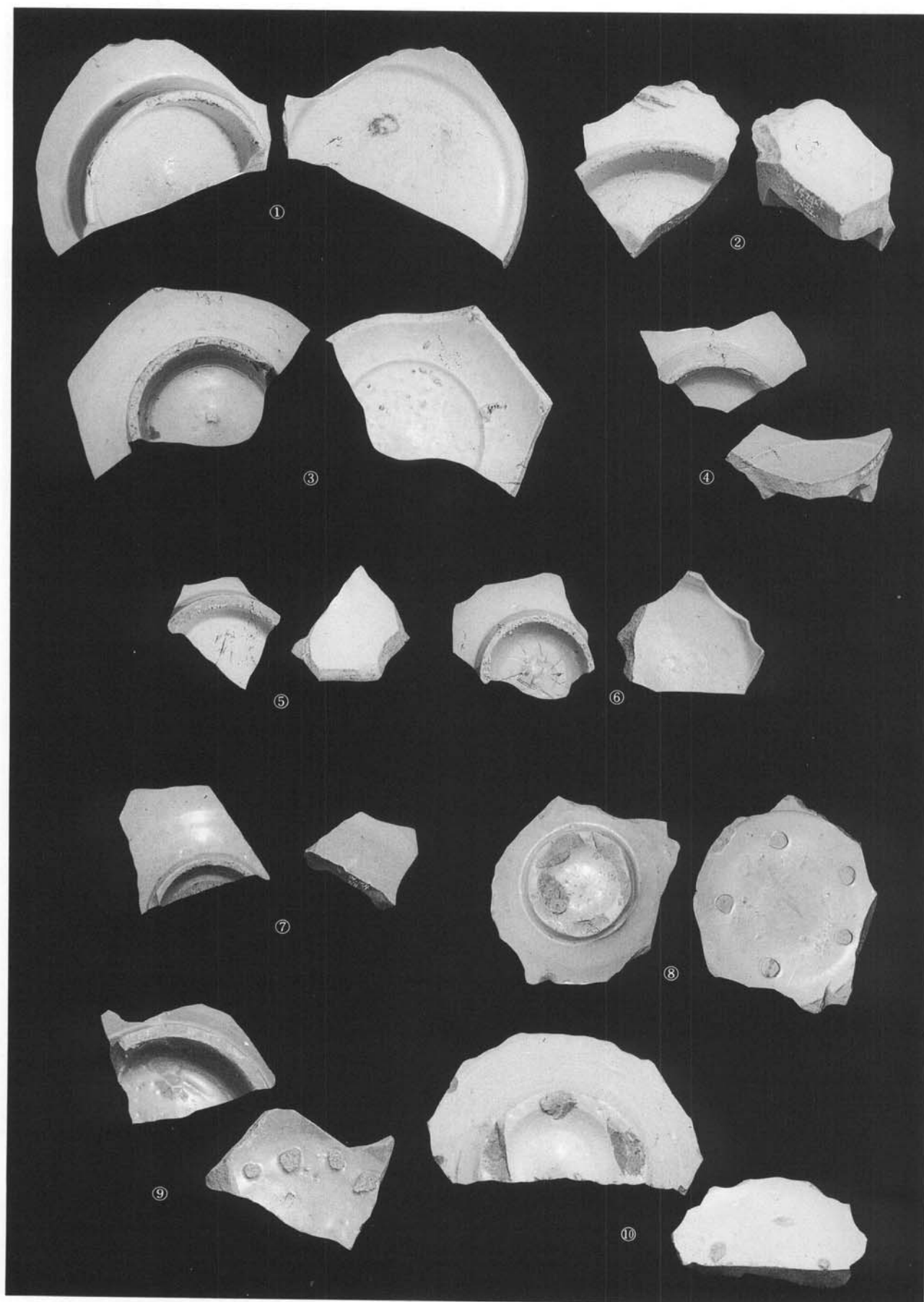
⑩



정의현 객사지 출토 분청사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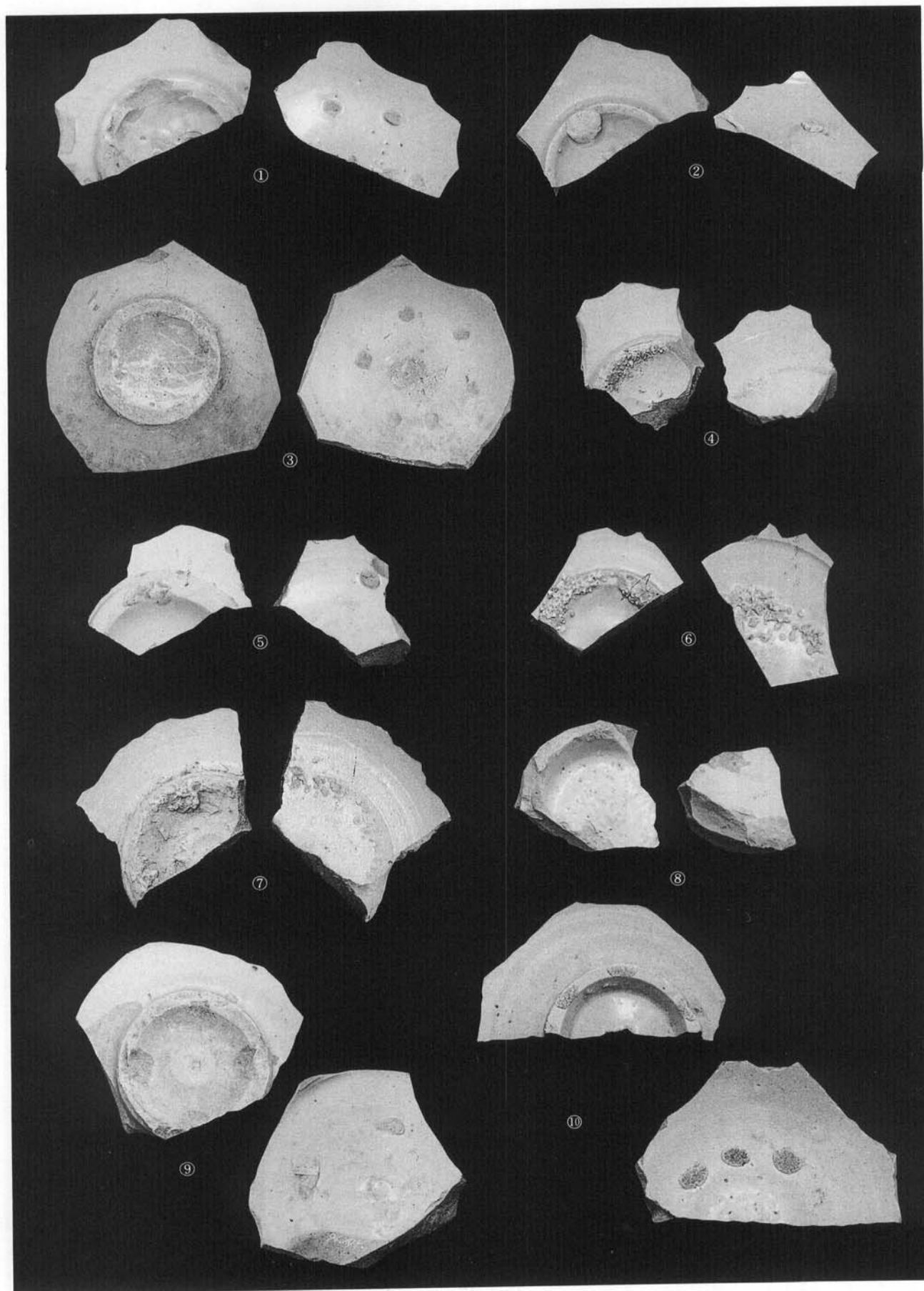


정의현 객사지 출토 분청사기(2)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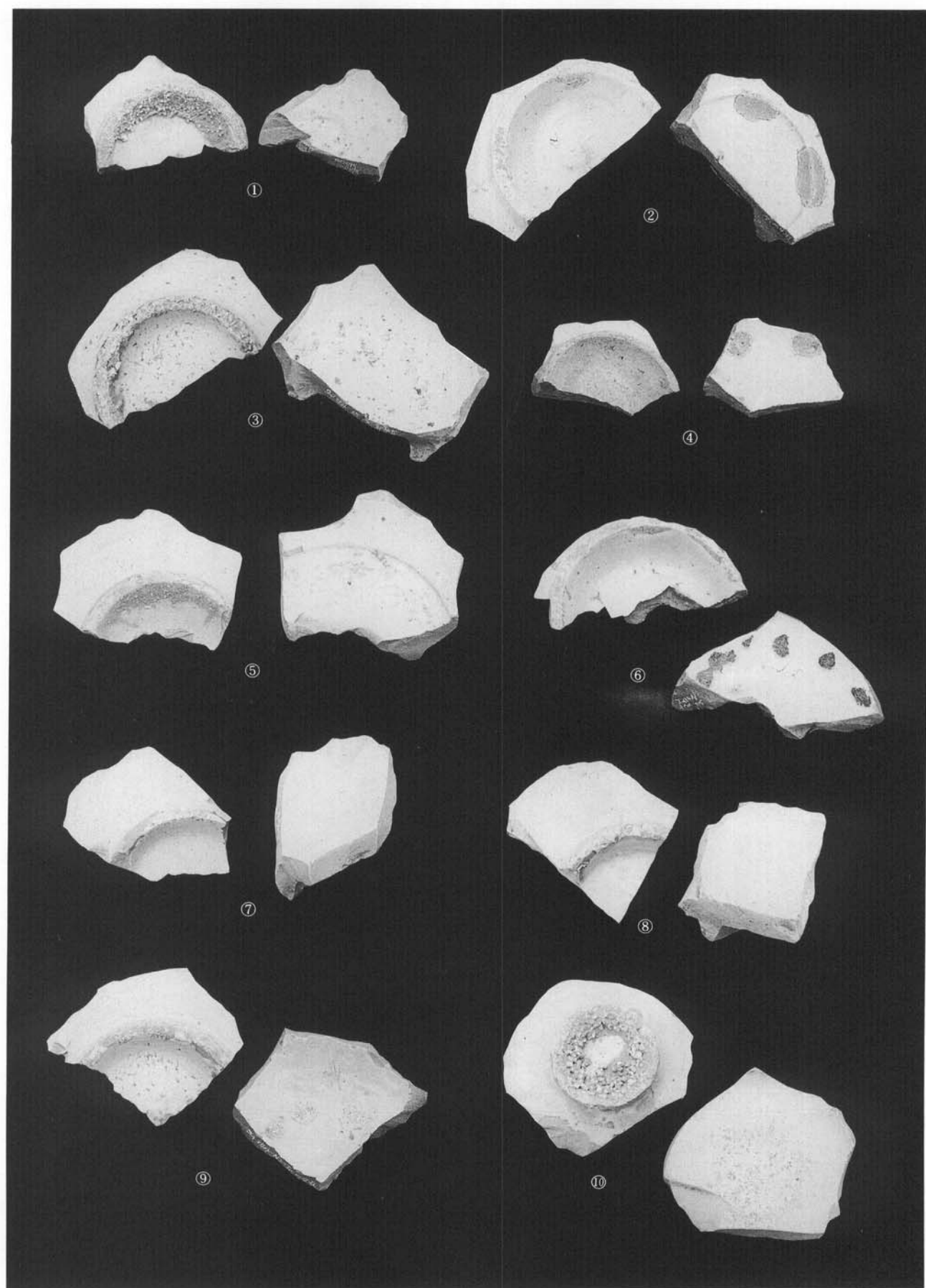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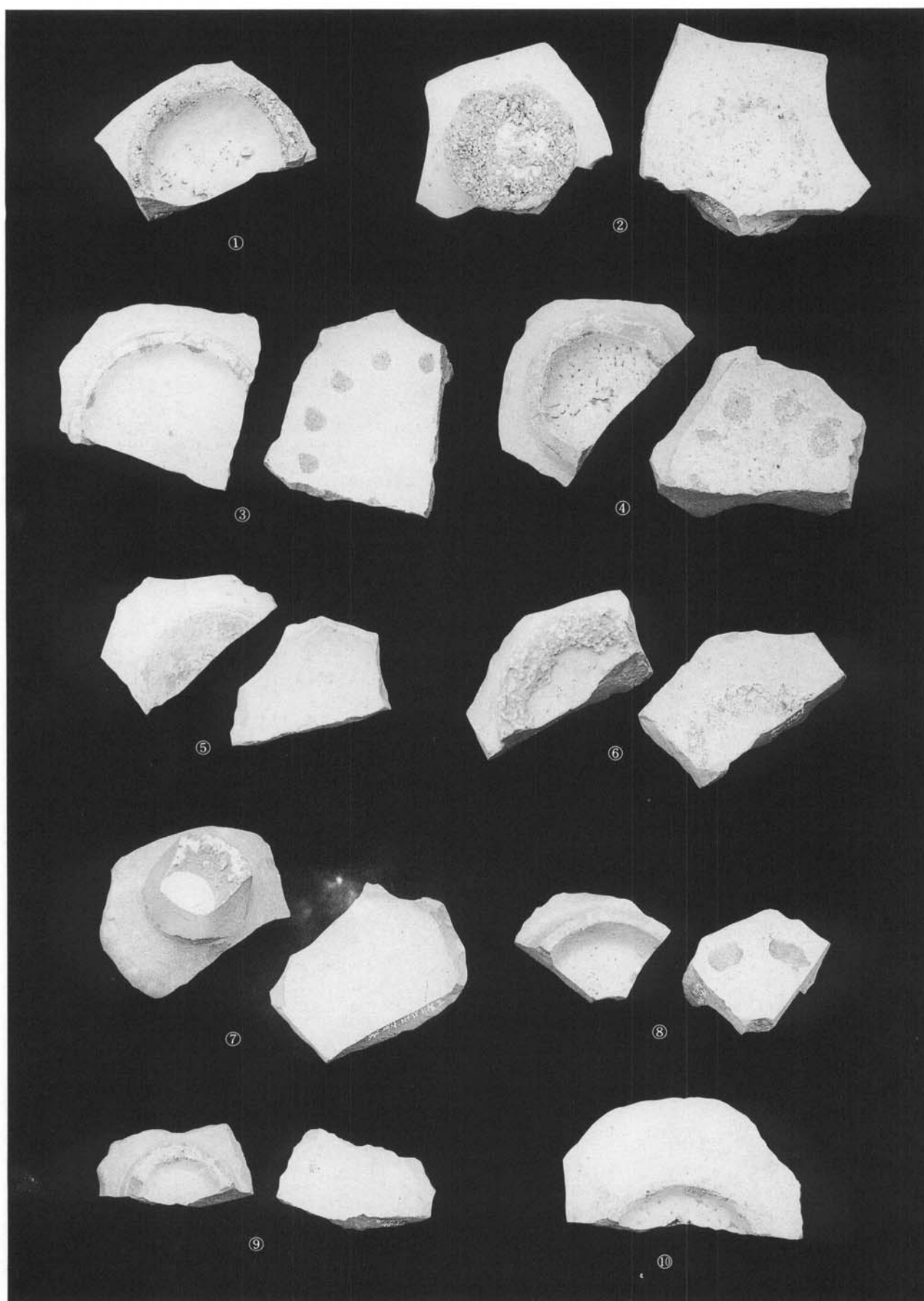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2)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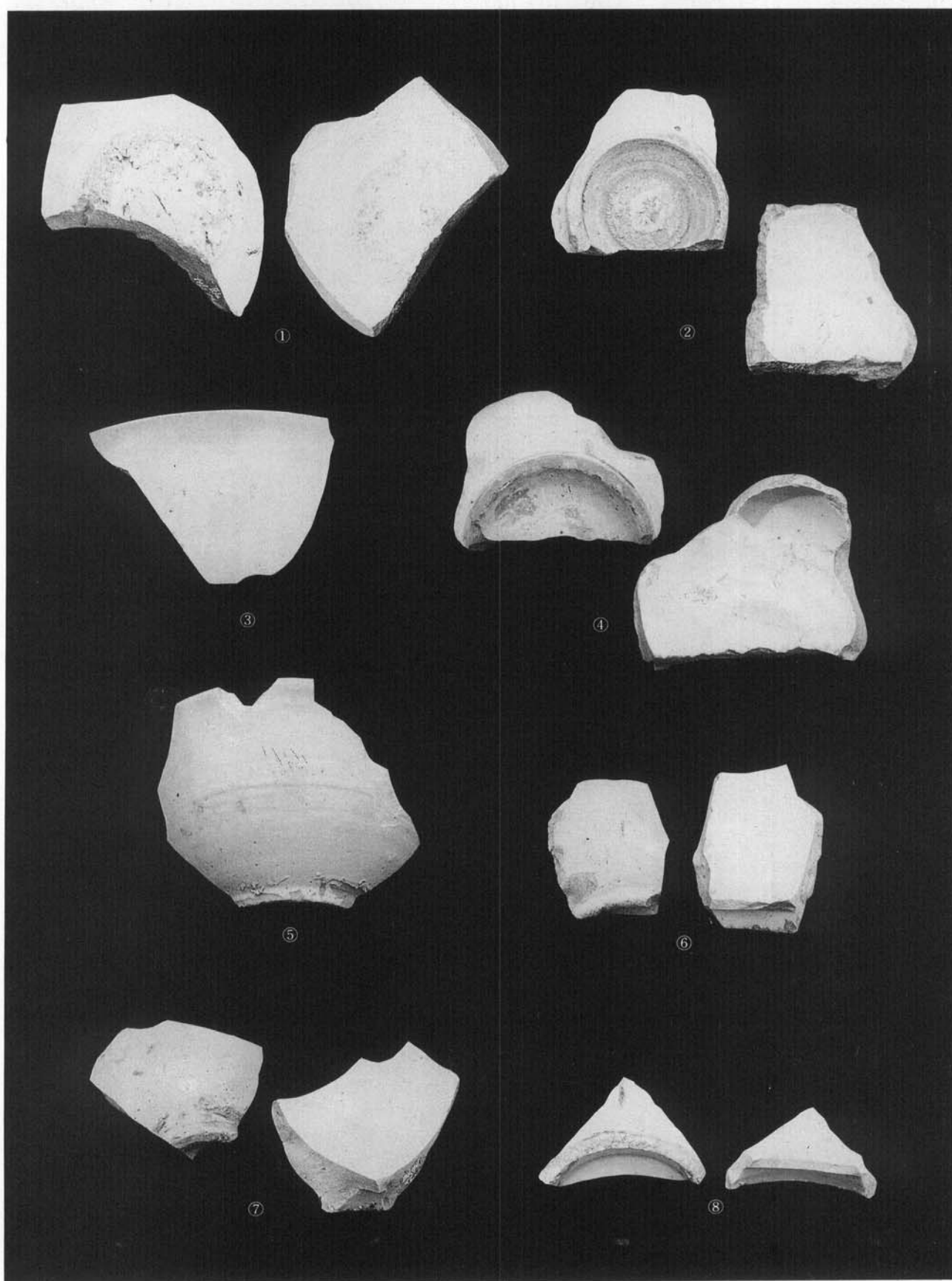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4)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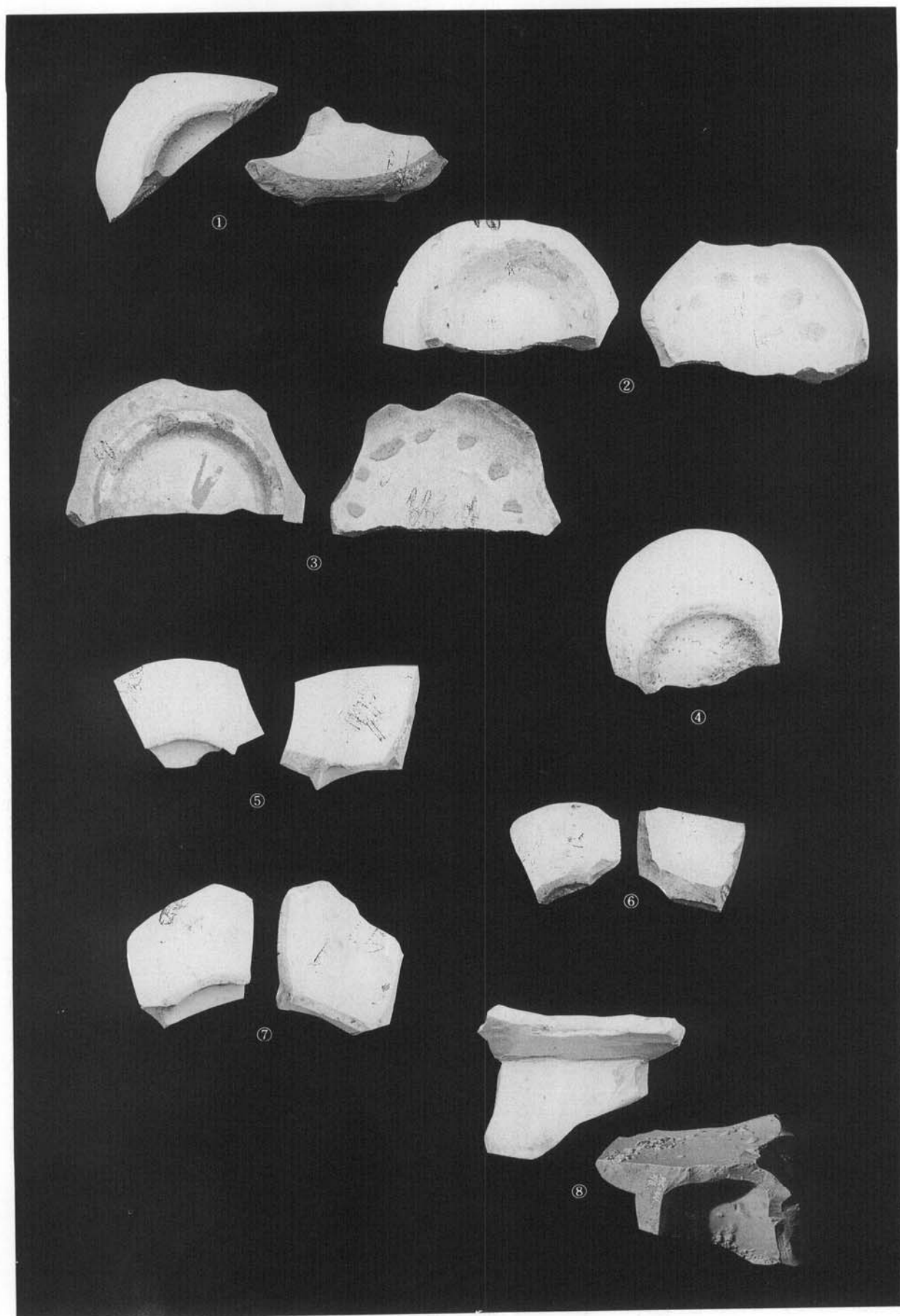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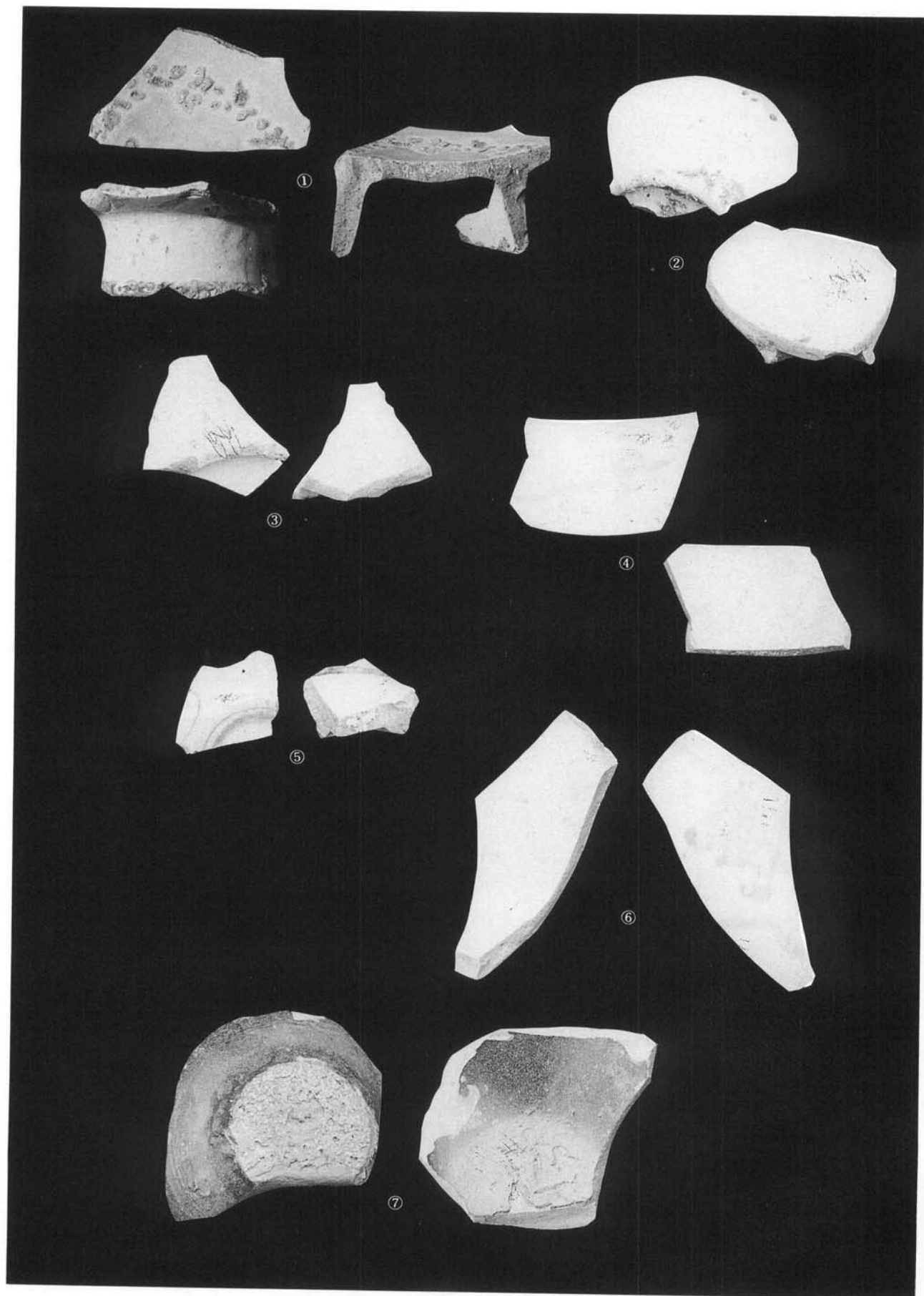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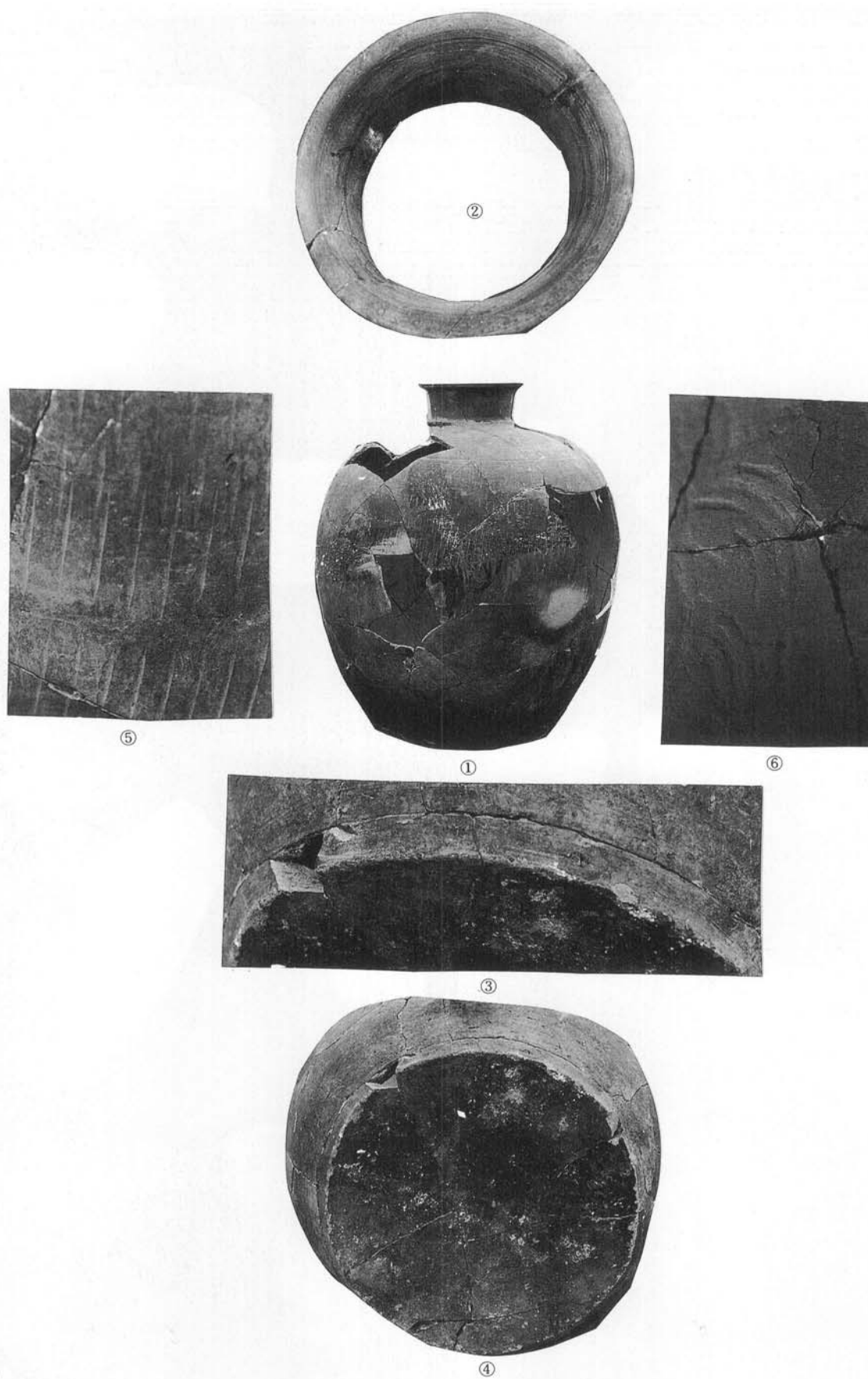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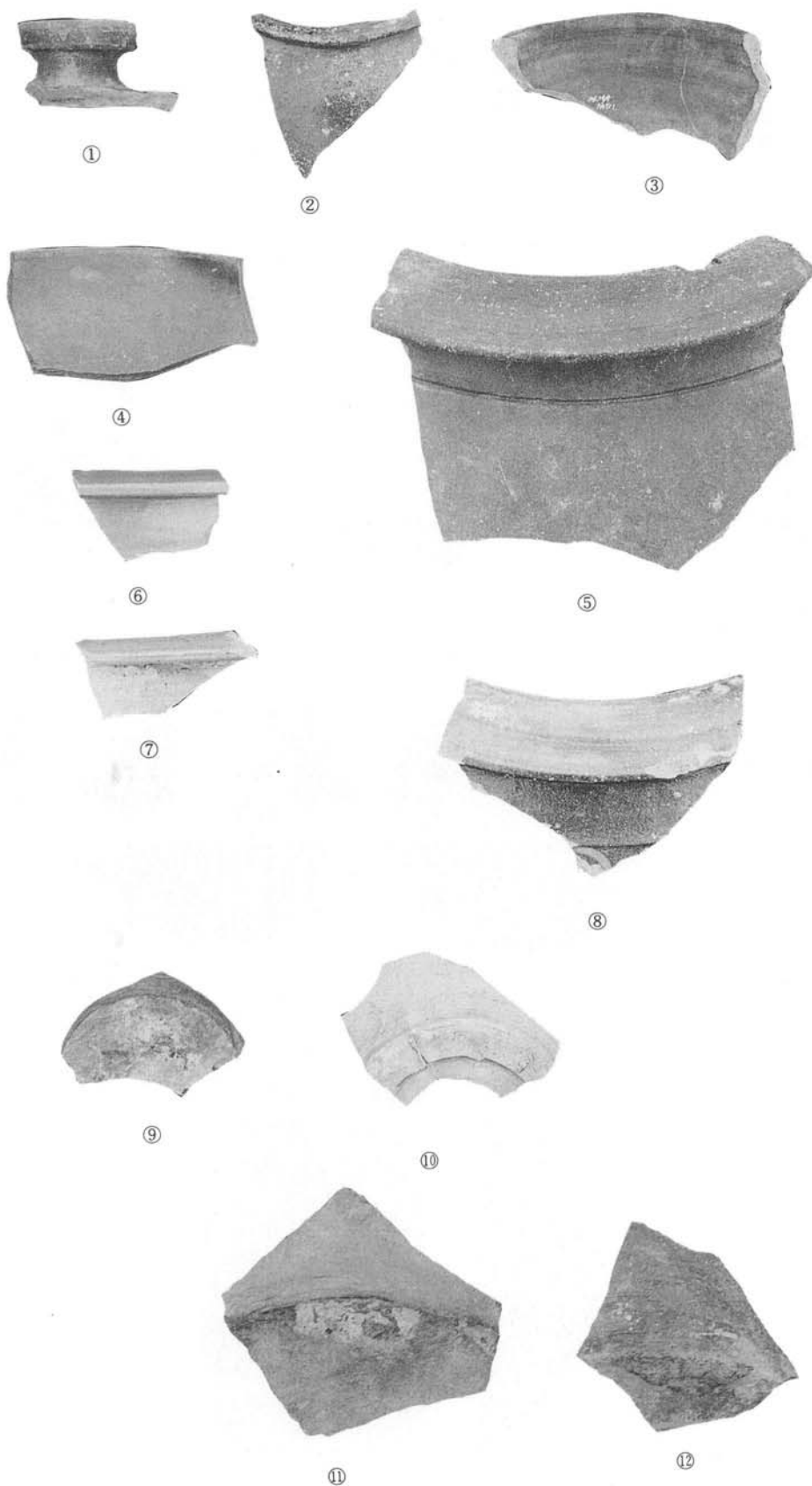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8)



정의현 객사지 출토 백자(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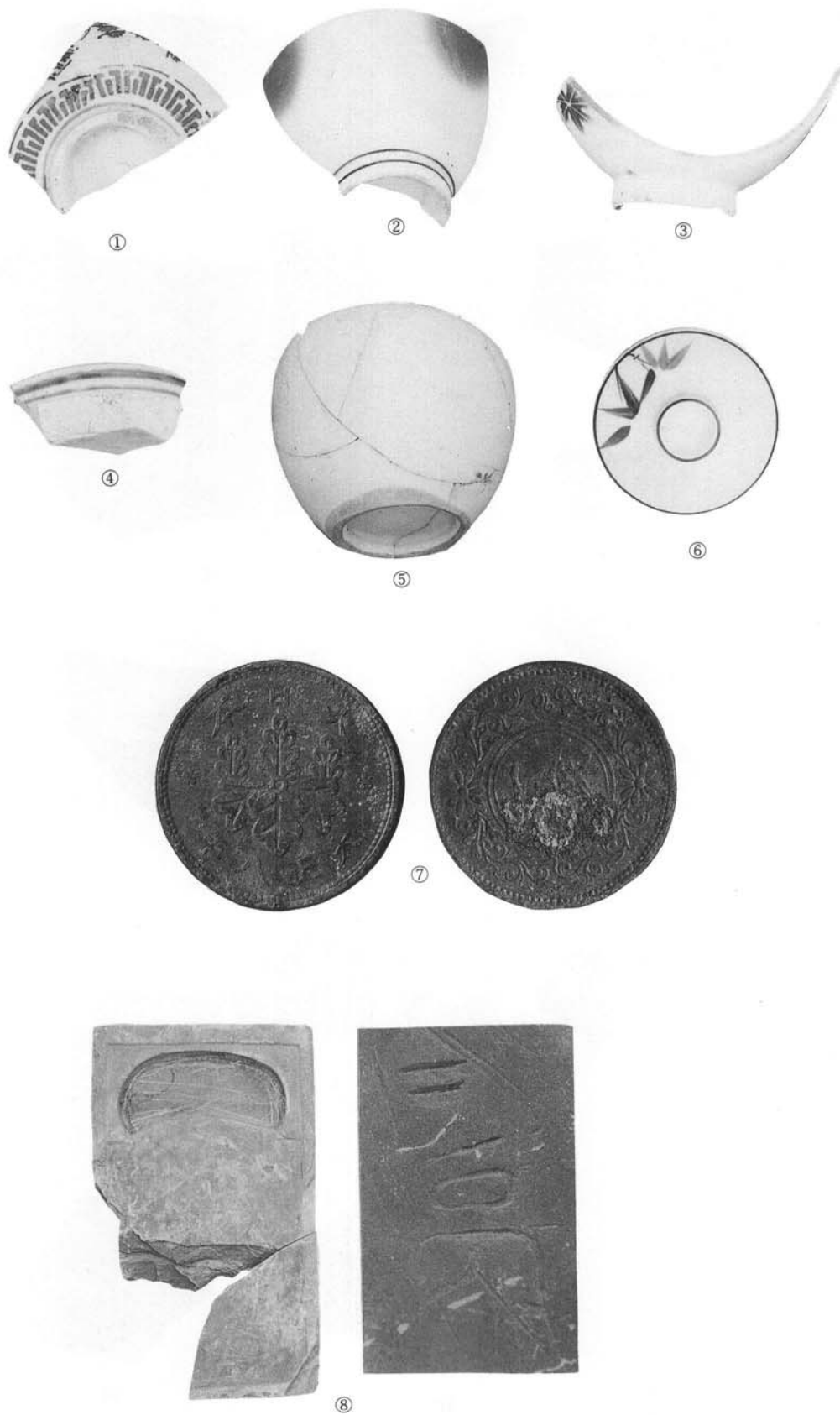


정의현 객사지 출토 도기(1)



정의현 객사지 출토 도기(2)





정의현 객사지 출토 일제자기/동전/벼루